

麟蹄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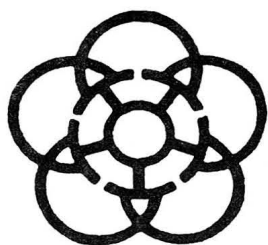
1995 第10輯



麟蹄文化院

麟 蹄 文 化

第 10 輯



麟 蹄 文 化 院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의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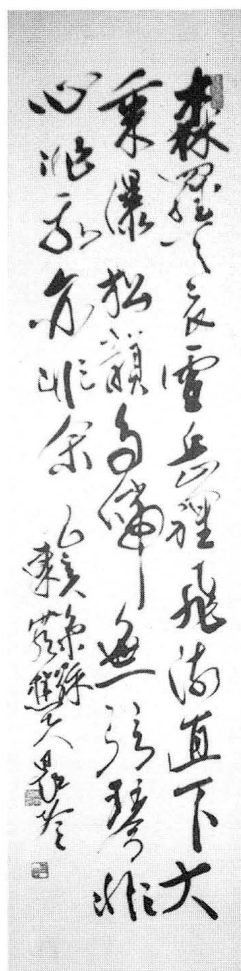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傳統性を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 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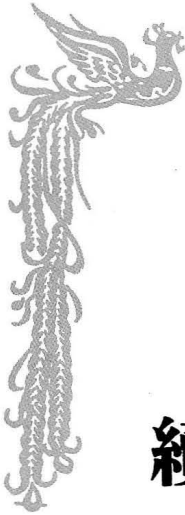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正성을 다해 文化中興을 일으킬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玄岩 李東嶺 先生“詩”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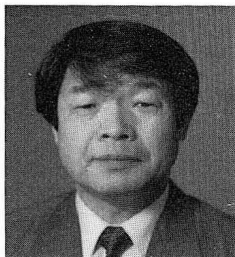
續



刊

향토극단운술피단장
內麟文學同人會長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인제미술인회장
향토민속보존회장
麟蹄書藝人會長
내설악수석회장

이한오 정박유 오
상용정 규해제 정
각운진련순영진



麟蹄文化院長 林 光 俊

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향토문화 보급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인제문화」가 인제군민의 관심속에 열번째 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년 발간되어 온 「인제문화」는 명실공히 인제문화의 맥을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는 이고장의 문화예술과 향토사 등을 소재로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 소개하는 대변지로서 인생의 진리와 삶의 가치를 함께 승화시키는 의지를 밝히고 아름다운 영혼의 빛을 남기게 하여 지방문화를 꽃 피우고 메마른 정신문화를 살찌우게 하는 활력소임을 자각하면서 문화창달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뒤돌아보면 모자랐던 점이 많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정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께서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편집되기까지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편집에 수고를 해주신 편집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麟蹄郡守 李 升 浩

麟蹄文化의香氣가 가득한 珠玉같은 資料를 한곳에 모아 郡民의 양식으로 승화시키고자 추진하는 麟蹄文化誌 第10號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아울러 麟蹄文化誌의 發刊을 위해 해마다 努力하시는 麟蹄文化院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옛부터 麟蹄郡은 雪嶽山의 精氣가 서려있는 天惠의 고장으로 祖上들이 가꾸고 지켜온 自然遺産이 全國으뜸의 淸淨地域으로 第一山水를 자랑하고 있어 향후 21世紀를 주도할 觀光産業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歷史가 말하듯이 나날이 發展하는 麟蹄郡民의 底力은 오로지 郡民像을 일깨워 주는 선도자 役割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麟蹄文化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격언에 『人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意味는 文化的 價値를 단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써 地方文化 창달의 명맥을 이어온 이고장 文化人의 유산인 麟蹄文化誌가 있어 그 脈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여 봅니다.

郷土文化의 대변자인 麟蹄文化誌가 이고장 文化를 紹介하는 案內者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기름진 精神文化를 定着시켜 살기좋은 麟蹄, 가보고 싶은 麟蹄 建設을 앞당기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麟蹄文化誌 第10號 發刊을 다시한번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麟蹄郡議會 議長 정 재 복

“인제문화” 제10집을 발간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광준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직원 여러분과 인제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소중한 자료와 정성어린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라와 한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살아온 흔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온 진정한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문화의 전통적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바탕을 두어 우리고장의 문화사적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식속에 향토자랑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전통문화 정착의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는 것이니 이것은 과거와 오늘을 잇는 또하나의 새로운 문화창조의 밑거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제문화”지는 새로운 도약기의 문화원을 대변할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널리 소개하여 지방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며, 사회교육으로도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은 물론 새시대 새문화창달에 앞장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인제문화지가 제10집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써주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끝으로 인제문화지의 꾸준한 성장과 인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인제문화원은 지난 9월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인제문화학교”로 지정 받았습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예술의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한 문화 복지 시대를 실현하는데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학교의 운영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사랑방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로서 정서적인 예술활동과 취미생활의 장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종강좌(서예, 꽃꽂이, 풍물 노래부르기, 비디오보기, 수지침, 기타, 미술, 사진, 문학, 바둑, 주부대학, 노인대학 등)로 주민의 취미에 맞추어 교실을 운영하며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교양강좌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세워 지혜를 얻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96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강좌내용 중 지역주민의 신청참여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강좌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문의사항과 신청사항은 인제문화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461-6678 / 461-4173



■ 대보름 맞이 율놀이 대회 (95. 2. 14 ~ 2. 16)



■ 마을농악기 전수(6개 마을) (95. 2. 28)

||||||| '95 문화 사업 화보 |||||



■ 효행상 시상 (95. 5. 8)



■ 경로위안잔치 (95. 5. 8)

||||||| '95 문화 사업 화보 |||||



■ 문화유적지 순례 (95. 5. 23)



■ 민요(소리) 경창대회 (95.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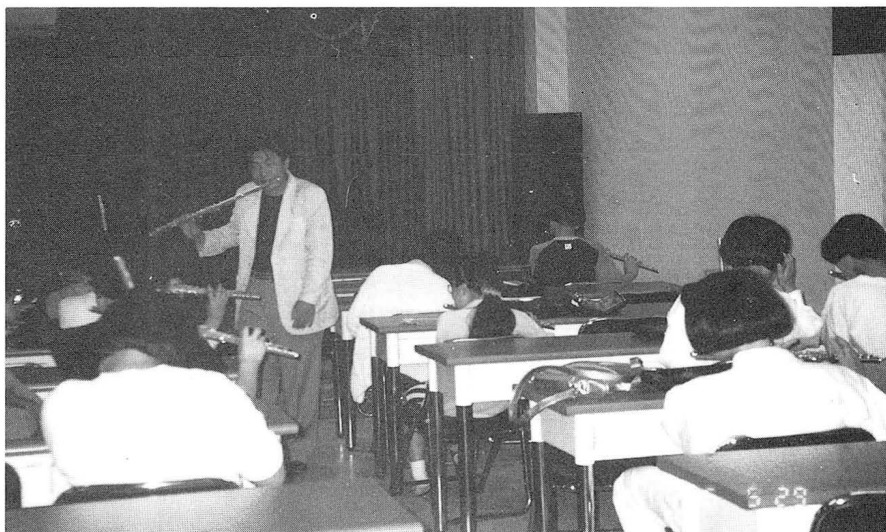


■ 경로호친 글짓기 공모시상 (95. 5. 26)



■ 풍물강습교실 (95. 7. 1 ~ 9. 30)

||||||| '95 문화 사업 화보 |||||



■ 플룻강습교실 (95. 7. 1 ~ 9. 30)



■ 회뎃이 강습교실 (95. 3. 1 ~ 12. 30)

||||||| '95 문화 사업 화보 |||||



■ 민속예술 발굴 (95. 7. 10 ~ 8. 4)



■ 청소년 어울마당 (95. 1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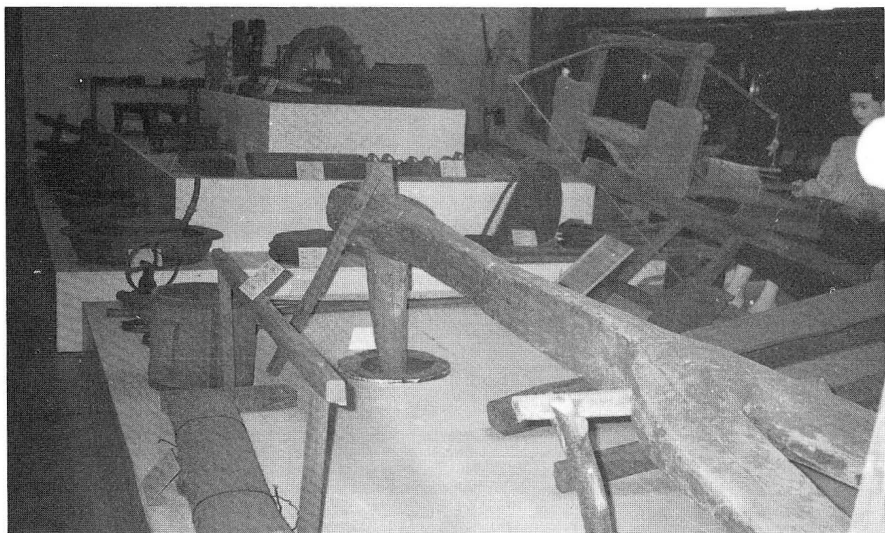


■ 시인(황금찬) 초청 문학강좌 (95. 10. 28)



■ 초대작가전 (95. 10. 28 ~ 11. 3)

||||||| '95 문화 사업 화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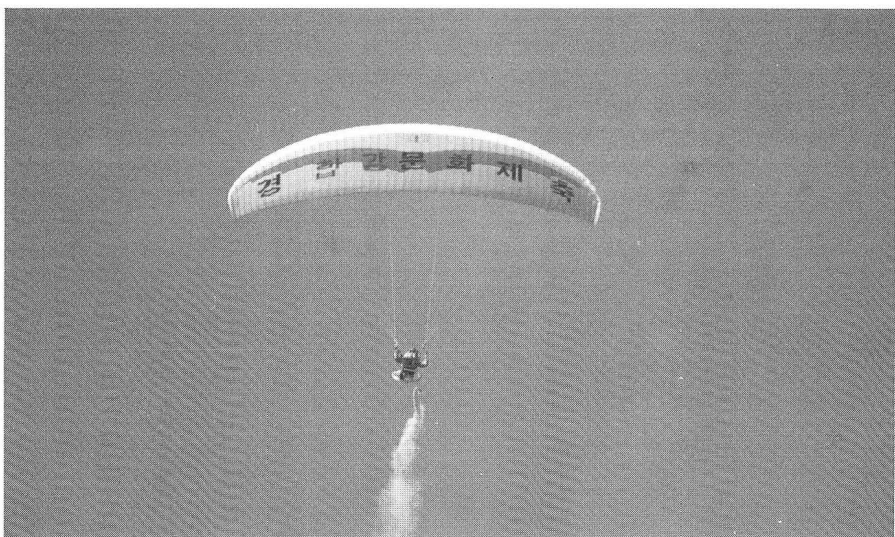
■ 향토사료 수집, 전시 (95. 8월 ~ 12월)



■ '95 송년 음악회 (95. 12. 28)



■ 합강 제례



■ 축하 비행(행글라이드)



■ “박인환”시인 추모 백일장



■ 사생실기대회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 『시』 낭송회



■ 서예 전시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 사진 및 수석 전시



■ 미술 전시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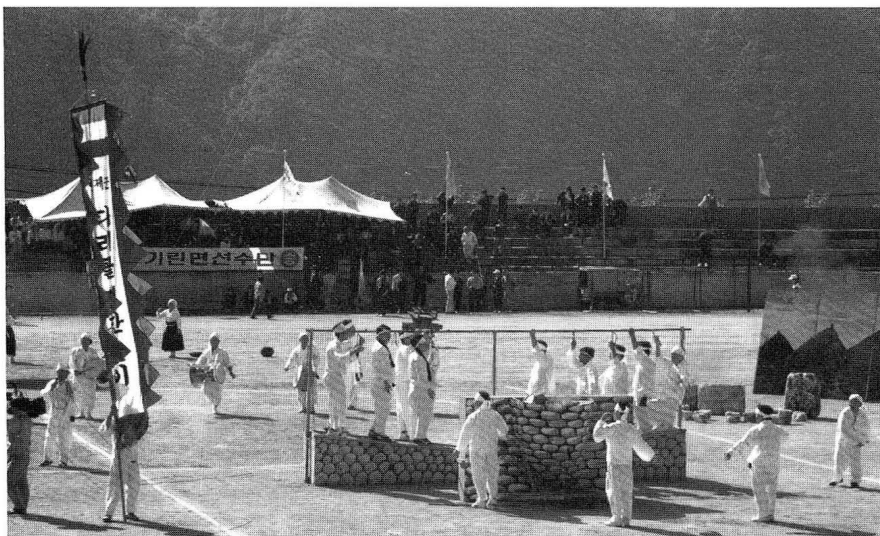


■ 공예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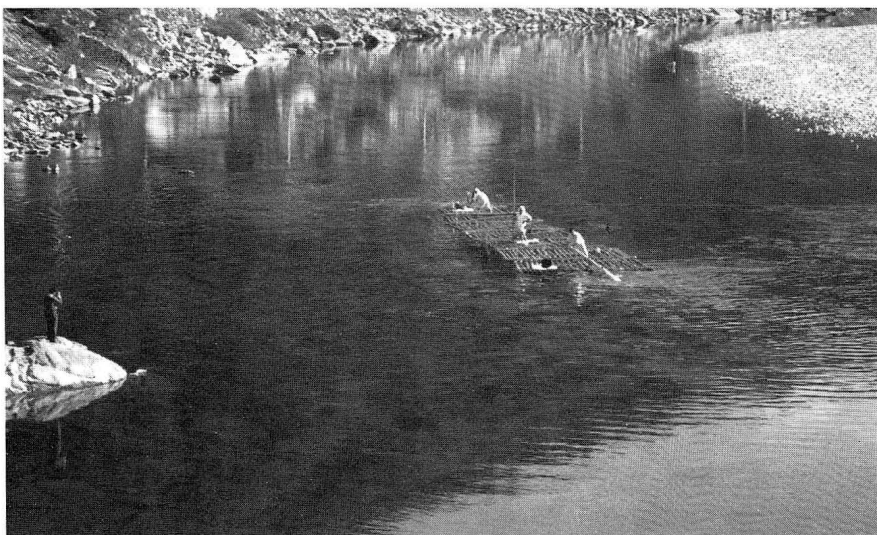


■ 바둑대회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 민속시연(점간놀이)



■ 뗏목놀이



■ 씨름대회



■ 널뛰기 대회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 줄넘기 대회



■ 물동이 이고 달리기 대회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 장기대회



■ 짚신삼기대회

||||||| '95 합강 문화제 행사 화보 |||||



■ 나무점지고 달리기 대회



■ 한마당 놀이

目 次

● 發刊辭 / 林光俊	5
● 祝刊辭 / 李升浩	6
● 祝刊辭 / 정재복	7
● 인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8
● '95 문화 사업 화보	9
● '95 합강 문화제 문화 행사 화보	17

제 1 장 기고문

- 인제의 선진문화 창조를 위한 제언 / 우순태 35
- 눈물겨운 미망인의 효심 / 趙玉女 39
- 우리모두 농심으로 살아가자 / 최태운 44
- 우리 태극기는 배달 겨레의 존엄, 理想을 상징 / 한용운 47

특별기고 김부리 대왕당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 윤형준	50
---	----

- 알아돕시다 / 편집실 77
- ◇ 결혼기념일 77
- ◇ 종족(宗族) 78
- ◇ 척당(戚黨) 80

제 2 장 향토사

- 雲鶴先生 事蹟 研究 / 최병헌 85
- “開發의 可能性을 안에서 찾자” / 박석균 103
- 전설(傳說)의 고찰(考察) / 편집실 106

제 3 장 고사·격언집 편

- 敬名思想(경명사상) 119
- 義(의)롭게 살자 120
- 度量(도량) 121
- 賢者 加高可下(현자 가고가하) 121
- 寓庵(우암)이나 退齋(퇴재) 122
- 人間本性(인간본성)과 社會惡(사회악) 123
- 뒤희의 스님 아들 125
- 얼 굴 125
- 人生非經濟學(인생비경제학) 126

目 次

• 人間研磨 牛步(인간연암 우보)	127
• 幸福한 三人(행복한 3인)	129
• 幸福의 條件(행복의 조건)	129
• 家庭의 幸福(가정의 행복)	130
• 人生死計(인생사계)	130
• 孫秉熙(손병희)의 셋째딸	132
• 四柱(사주)	133
• 인간만사 새옹지마	134
• 죽음의 정의	135
• 潛在된 本性(잠재된 본성)	136
• 遺言(유언)	136
• 鳥之將死 其鳴也哀(조지장사 기명 야애)	138
• 金夫人의 遺言(김부인의 유언)	139
• 낙양성 십리밖에	140
• 虛慾(허욕)	141
• 土俑(토용)을 묻는 뜻	143
• 장례식장	144
• 省墓(성묘)	146
• 安樂死(안락사)	147
• 최후의 만찬	148
• 倫常(윤상)	150
• 인륜의 사회	151
• 風樹之嘆(풍수지탄)	152
• 萬年堤(만년제)	154
• 申師任堂(신사임당)	155
• 父(부)와 子(자)	157
• 不孝(불효)의 罪(죄)	158
• 어버이 때린 罪(죄)	159
• 弑父罪(시부죄)	160
• 고려장	161
• 자식이 뭐길래...	162
• 아버지像(상)	163

目 次

• 兄弟(형제)	164
• 義兄弟(의형제)	165
• 七步詩(칠보시)	165
• 同窓生(동창생)	167
• 이웃 四寸(사촌)	168
• 友情(우정)이란?	170
• 情表(정표)	171
• 不告知罪(불고지죄)	172
• 德風(덕풍)	173
• 戀主庵(혜주암)의 밥보시	174
• 辭讓(사양)의 美德(미덕)	175
• 德(덕)은 直心(직심)	177
• 樛茀의 시대	177
• 如反掌(가반장)	179
• 信物(신물) 이야기	180
• 그림자 警察(경찰)	180
• 文身	182
• 閔(민)자건의 孝(효)	182
• 義理(의리)의 친구	183
• 盜君子(도군자)	183
• 機心(기심)	184
•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다	186
• 靑藜杖(청려장)	187
• 先生(선생)	188
• 師(사)	189
• 韓非子(한비자)의 師道論(사도론)	190
• 師道(사도)의 汚染(오염)	191
• 顏氏敗訓(안씨패훈)	192
• 「五香(오향)」育兒哲學(육아철학)	194
• 피부 찰촉 빈도	195
• 萬人畫(만인화)	196
• 밥상머리 버릇	197

目 次

• 三寸課外(삼촌과외)	198
• 女性虛榮(여성허영)	200
• 女(여)변의 뜻 글자	201
• 미녀의 기준	202
• 여자의 長壽(장수)	202
• 딸 둘, 가지내 셋	203
• 女性은 적은 것이 美	204
• 結婚觀(결혼관)	204
• 配偶者條件(배우자조건)	205
• 세번 기도하라	206
• 母女(모녀)의 對話(대화)	207
• 冥婚(명혼)	207
• 回婚禮讚(회혼례찬)	209
• 禁婚令(금혼령)	210
• 韓—中—獨 婚需比較(한—중—독 혼수비교)	211
• 결혼은 必要惡(필요악)인가	212
• 夜間 結婚式(야간 결혼식)	214
• 김소한 婚俗(혼속)	215
• 兄弟妻(형제처)	216
• 결혼문화	217
• 어떤 부부	218
• 社香祭(사향제)	220
• 童貞夫婦(동정부부)	221
• 丈母(장모)	222
• 戀愛(연애)편지	223
• 사랑 文身(문신)	225
• 禮節教育(예절교육)	226
• 主婦(주부)와 主夫(주부)	227
• 加粉則思其心之鮮(가분즉상기심지선)	229
• 女子(여자)의 발	230
• 제주 의녀탑	231
• 여자力士(력사)	232

目 次

• 冒險과 韓國女人(모험과 한국여인)	233
• 楊貴妃(양귀비)의 浴室(욕실)	234
• 2천결레의 구두	236
• 여성전용칸	236
• 性 전환 女人	238
• 女裝(여장)남자	239
• 性的 戲弄(성적 희롱)	240
• 姦通罪 古今	241
• 씨받이와 씨내리	243
• 女子(여자)의 性(성)	244
• 여자이름 「子(자)」考(고)	245
• 나이	246
• 人生三十三樂(인생삼십삼락)	247
• 米壽(미수)	249

제 4 장 향토문에 편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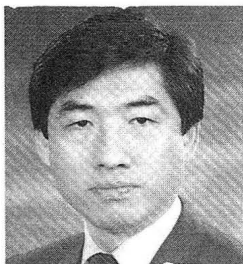
그, 그녀 / 한용운	253
가는 길 / 한용운	254
내린천(21) / 한용운	255
삶의 조각 / 양미애	256
매미의 창가(唱歌) / 양미애	257
내린천(內麟川) / 오정진	258
한계산성 / 오정진	259
비내리는 날이면 / 김규중	260
난향(蘭香) / 김규중	261
달 / 조해숙	262
하루살기 / 조해숙	263
샘을 찾아서 / 이 정	264
밤마다 / 이 정	265
노루목 / 이순복	266
더 큰 만남의 시작 / 황민숙	267

目 次

길 / 황민숙	268	
옥가락지 / 김형미	269	
수필		
폴벌레 / 김정복	271	
전령(傳令) / 김신향	273	
경로효친선양 글짓기 입상작품		
초 등 부	금 상 · 효에 대하여 / 박혜문	277
	금 상 · 할머니와 마스크 / 최희진	279
	은 상 · 할아버지의 웃음 / 손진숙	281
	은 상 · 예절은 나로부터 / 전꽃샘	283
	동 상 · 효친의 바탕 / 변선주	285
	동 상 · 웃어른 섬기기 / 신현정	289
	장려상 · 부모님의 사랑 / 김영경	293
	장려상 · 진정한 효 / 김은혜	295
중 등 부	금 상 · 효자, 효녀입니다 / 이지숙	301
	은 상 · 저는 효녀입니다 / 송주연	306
	동 상 · 나도 할머니가 된다 / 조은미	309
	장려상 · 작은 효 / 김옥남	313
고 등 부	금 상 · 지켜야 할 우리의 전통 / 고재필	319
	은 상 · 보이지 않는 사랑 / 최창규	323
	동 상 · 노인문제 / 추상순	326
	장려상 · 내 어머니 / 박해련	329
● 인재문화원 임직원		332
● 인재문화원 회원 명단		333
● '95년도 문화 사업 추진 실적		337
● '96년도 문화 사업 계획		338
● 지역문화 선언		340
● 인재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342
● 향토사 연구회 회원 모집		343
● 편집후기		344

제 1 장

기 고 문



인제의 선진문화 창조를 위한 제언

우 순 태 (인제성결교회 목사)

오늘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확산되고 있다. 경제분야, 관공서, 교육에 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드디어 중앙정부가 전국을 지배하던 시대는 가고, 지역자치에 의하여 각지방이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시켜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여 지역적 특성이 강화되며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화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의 기초다.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는 아니다. 지방화의 성취를 위해 전제 되어야 할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치능력은 물론, 지방 주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인제의 사회구조로는 지방이 세계화 과정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어 중앙정부나 세계권의 식민화 될 위험이 있는데 있다. 아울러 지금의 인제 지방문화 구조로는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사회에 적응력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문화운동조직이 개발되어야 하며, 문화정책가나 운동가의 의식구조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미래쇼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미래사회에 적응하며 이끌수 있는 문화운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문화운동 조직의 창출이 필연적

이다. 세계화 지방화에 적응하는 문화운동 조직의 갱신을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제의 문화구조로는 일반적으로 성장 구조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겨냥하면서 이후로는 새로운 성숙 구조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성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화행사를 만드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위주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내용의 성숙을 통한 창작력의 향상(성숙구조)이 아니라 아무것이든지 상부에서 지침이 하달된대로 행사의 횟수나 종류수를 짜 맞추거나, 행사 제목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붙였는데 실제의 행사내용이나 행사진행은 문화예술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말한다.

성장구조를 성숙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향토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그 발표와 더불어 지역문화인의 창작전시회나 공연물에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공인받는 모델적 예술인을 특별출연 시키거나 찬조출품을 시켜서 지방예술인의 창작과 정상급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과 이에 대한 모방적 문화학습을 통한 문화의 질적향상의 기회를 삼는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

2. 지방의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과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의 문화예술인을 활용하고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여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이미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문화 풍토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 지방문화의 수준을 스스로 낮추어 보거나 격하시켜 생각하므로 인해 타지방과의 문화경쟁에서 경쟁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지방문화의 감각과 문화수준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인적 기질과 솜씨가 뛰어나 세계최고의 걸작품을 생산하고서도 포장기술이 엉망이라서 판매경쟁에서 낙오하여 도산하는 어느 기업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칼라 TV, 대중매체, 고급색채감각에 의해 시청각적으로 길들여진 신세대나 그들에 의해 주도될 21세기 지방화 시대에는, 외면당하는 지방문화 수준이나 문화적 지방이미지로 관광객이나 외지인, 구매자, 경쟁자등 모두에게 소외당하는 인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성장구조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성숙 구조 지방화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문화상황에 처하여 있기에 문화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지방화 시대는 준비하지 않은 지방은 철저히 도퇴되는 퇴행의 문화적 유배를 당하고 만다.

인제의 지방문화발전을 위해서 인제 지방의 문화예술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무대창조의 기회를 증회시켜야 하며 그들을 해외나 타지로 견학과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제의 문화적 역량을 축적시켜야 한다. 그러할 때 타지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화경쟁력을 먼저 배양하여 선진지방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적당히 자아도취에 빠져버린듯한 예술행위를 하고서는 문화 또는 예술이라고 지칭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것은 문화의 참다운 깊이를 모르는 처사일 수 있다. 예술인들의 객기를 부리는 듯한 손놀림이나 창작과정 속에 담겨있는 철학이 있거나 독특하면서도 타문화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우월함이 있을때 살아남는 문화나 선진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검증될 문화예술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무책임하거나 방치일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결을 살리고 함축시켜서, 표현을 단순화 시키고 특징을 극대화 시켜서 자연스러움 속에서 미를 읽어내며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편함과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발생시킬 때 훌륭한 문화예술행위나 활동이 되는 것이다.

3. 블록화 조직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는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블록화가 많이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구조 개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이웃해 있는 지방이나 국가가 친밀한 교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 개발이니 지방의 특화추진에 있어서 동질적 요소가 있는 지방과 거리와는 상관없이 연대하는 블록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제의 문화조직도 블록화를 시도하여 기존문화향유의 폭을 증폭시키고 다양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블록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국내적 대상과 국제적 대상을 서둘러 결연하지 않으면 낙후된 지역끼리의 결연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인제가 되고 말 것이다.



눈물겨운 미망인의 효심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1반
趙 玉 女

요즘 세태가 점점 각박해 진다는데 대해서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이해 보다는 반목이, 훈훈한 인정보다는 언쟁과 분쟁이 더성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그 인생을 값지고 뜻있게 살아온 분을 대하면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도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법이다.

이런 어려운 세태 인심속에서 사람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고 효도를 생활화하여 한 시대를 묵묵히 홀로 살아온 효부 趙玉女(70세)여사의 고귀한 삶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표가 되고도 남으리라 믿어 필자는 그분의 높은 효심을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趙여사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25번지 일명 석목골이라는 곳에서 농업과 목수일을 하시는 趙琪泰씨를 부로 그리고 催鳳女씨를 모로 그 슬하에 장녀로 태어났으며, 8세되던 해에 모친(당시 29세)을 여의고 원대리 647번지의 南原 染씨의 染在守씨 둘째 며느리로 출가를 하였다. 당시 시집에는 시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24세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돌구하고 그 슬하에 4세된 외동딸 하나를 남기고 일찌기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에는 하루의 끼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신혼의 단꿈 같은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신혼 초부터 누에치기와 밭일을 하는 등 매일 고달픈 살림을 꾸려가기에 바쁜 가운데 1남 3녀를 낳았고, 그런 생활을 매일 반복해 가던 중 간장병으

로 수 년간 고생하던 남편도 36세를 일기로 약 한첩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때부터 趙여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이 시작되었다. 자식을 즐지에 들썩이나 잃고 실의에 빠진 시부모님, 그리고 부모 없는 천애의 고아인 어린 조카딸, 슬하의 1남 3녀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일찍 부모를 잃은 조카딸 成德(53세)을 친자식의 장녀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고, 실제 장녀인 英子(49세)를 2녀로, 2녀인 仁順(44세)을 3녀로, 3녀인 賢淑(39세)을 4녀로, 그리고 장남인 承秀(35세), 이렇게 1남 4녀를 떠맡아 양육시키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조카딸 成德에 대해서는 늘 측은한 마음으로 각별한 관심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었다.

시부모님은 자식을 모두 잃은 슬픔에 젖어 율화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 하였으며, 당시 어려운 가정 살림으로 약 한첩도 제대로 봉양할 수 없었던 여사님은 남의집 샴 바느질은 물론 허드레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닦치는대로 하였으며, 봄과 가을에는 산 뽕을 따 누에치기까지 하는 억척스런 여 장부의 기질을 발휘하여 시부모님 봉양에 심혈을 기울였다.

틈나는대로 심산유곡을 헤메며 산 약초를 캐어 시부모님 약 탕제 올리기를 수 십년동안 한 번도 마다 하지 않고 정성을 다 하였다.

시부모님의 병환은 세월이 흘러갈 수록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세상 온갖 좋다는 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구하여 드렸으며, 그 간 올린 탕제만도 일일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중풍병까지 겹쳐, 수족도 못 쓰고 문밖 출입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 소변을 받아 내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사님은 이런 굵은 일도 얼굴 한 번 찌프리지 않고 오직 나하나 고생으로 시부모님 병만 완쾌되기를 빌며 수발 들기에만 몰두하여 살아왔다.

더욱 여사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것은 시부모님 모두 일찌기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갈 수록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되어, 때로는 도저히 견잡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기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쓰며 한숨을 쓸어 내렸는지 모른다. 그간의 정성들인 병 간호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71세 되던 해(1975년) 12월에 세상을 떠나셨고, 시모님은 중풍병과 정신질환으로 그 오랜 세월을 고통가운데 계시다가 84세 되던 해(1989년) 11월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여러 해 동안 시부모님 병 간호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조카딸을 비롯하여 1남 3녀가 큰 탈없이 잘 성장하여 주는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그때만 해도 산간 벽지에서 여식들을 먼 읍내까지 내 보내 중학교 교육을 시킨다는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다. 모든 이웃들이 한사코 하루의 끼니도 이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시킬거냐며 말렸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조카딸 成德이 부터 읍내 인제중학교에 보내기 시작하여 딸 2명을 모두 중학교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막내 딸과 장남은 인제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다.

조카딸 成德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내 인제경찰서에 교환수로 취직하여 다년간 동생들 학업 뒷바라지와 가계를 돕다가 뜻한바가 있어 신앙 양심에 따라 수녀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강남 성모 종합병원에 간호부장으로 있으며, 지금도 매달 빠짐없이 용돈을 보내고, 안부전화를 가끔 걸어 주는것이 대견스럽고,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고 칭찬도 대단하시다.

장녀인 英子是 가정교육을 잘시켜 1977년도 12월에 강릉지방으로 출가를 시켰고, 둘째딸 仁順은 춘천으로 시집을 가서 그들 모두 그쪽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알뜰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신다.

막내딸은 그래도 근처에 가까이 두고 싶어 인제읍 상동리 325번

지 仁同 張씨가에 시집을 보냈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제 농협에 입사 하였으며 1985년 6월에 張興 林씨 가내의 참신한 규수를 맞이하여 현재 손녀 珍我(10세)와 珍英(8세)을 두고 있다.

이런 여사님의 지극한 효성이 인정되어 가장 으뜸이 되는 효부. 효자에게 내리는 화홍상(華虹賞)을 1988년 9월 14일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금 일백만원과 순금 메달은 받았다.

금번에 趙여사님이 받은 華虹賞은 이씨 조선시대에 효심이 그 어느 왕보다 지극했던 정조대왕이 부왕인 사도세자에 대한 효행이 너무나 지극하여 “살아생전에 못다한 효행을 죽어서라도 곁에서 영원히 모시고 실천 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으며, 비명(非命)에 돌아가신 부왕(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泳祐園)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부화산(府花山)으로 옮기고 자주 행차하여 많은 효행을 다 하겠다는 일화를 남겼다. 이때에 이 능행차는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4,000여명의 인원과 800여필의 말이 동원되고, 또 한강을 건널때에는 대형 주교(舟橋)를 설치하였으며, 정조왕은 마침내 수원에 수원성(水源城)과 행궁(行宮)을 축조하여 이곳으로 천도(遷都)까지 계획한바가 있다.

이를 높이 기리기 위해 수원시에서 華虹賞을 제정하여 매년 전국 각도시에서 훌륭한 효행자를 선발하여 화홍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는 것이다.

여사님은 지금도 자녀들이 모셔 갈려고 하면 아직 내가 이렇게 성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무슨말이냐고 펄쩍 뛰신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이곳에 묻어놓고 많은 눈물과 한숨을 쏟아 놓았던 인제 원대리를 떠날 수 없으시단다.

현재 원대리 1반에서 목조 스테트집, 본가를 혼자 지키며 밭 4,000여평을 손수 경작하고 틈나는대로 남의 집일도 다니신다. 요 며칠전에는 양구군 방산면까지 나가 감자캐는 샅일도 하셨단다.

1988년 5월에 趙여사님의 효행에 대하여 공적을 심의하였던 필

자가 7년이 지나서 다시 방문하였을때, 외모로는 비록 칠순의 촌부(村婦)로 보일지 몰라도 여사님의 근엄하신 모습과 그에서 품어나오는 인품은 가히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덕성이 넘치는것이,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공경하고 재산을 일구어 화목한 가정을 만들며 자녀들이 훌륭히 키워 가문을 빛내게 한 趙여사님이야 말로 이시대 이지역 사회 모든 주민들의 사표가 되고도 남으리라 믿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1995년 11월

內麟文學會 韓 龍 雲



우리모두 농심으로 살아가자

인제읍 남북2리 최 태 운

열매를 따는것처럼 오곡백과를 거두어 들이는것처럼 보람있고 행복한 일은 없다. 봄에는 꽃이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열리는것이 자연의 섭리다.

농심으로 행하면 만사형통 한다고 선인들은 말씀하셨다. 농사가 잘되어야만 농민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인심이 좋아진다. 우리는 농심을 배워야 한다.

농심은 세가지의 원리로 구성된다.

첫째는, 근면이다.

우리 국민들중에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농민이다. 쌀알 한알이 우리밥상에 오르려면 농민의 손길이 적어도 백번은 가야한다. 논을 갈고 묘판을 만들고 모를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매고 농약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추수하고 방아를 찧고 포대에 넣어 소비자에게 보내야 한다. 한알 한알이 모두 피땀의 산물ियो, 정성의 결과요, 노력의 결정체다. 쌀알 한알도 아껴야 하며 밥한술에도 농민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농부처럼 일하라고 하였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없고 백번 참으면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좌우명이었다.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근면은 성공의 어머니요, 나태는 실패의 근본이다.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의 근면과 끈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둘째는, 정직이다.

농민은 곧 정직이다. 농사에는 거짓이 없다. 콩을 심으면 콩이나고 오이 심으면 오이가 난다. 콩을 심었는데 오이가 나는일이 없고 오이를 심었는데 콩이나는 일이 없다. 많이 심으면 많이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난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것을 거둔다. 심지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한다. 자연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다. 자연은 정직하다. 거짓이 없는 자연을 상대로 일을하니 농부들은 정직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한국인중에서 가장 한국인 다운 소박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공무원일까? 상인일까? 지식인일까? 군인일까? 나는 농민이라고 생각한다. 농민은 때가 묻지 않은 한국인이다. 천하에 어진 사람이다. 거짓과 불신이 한국사회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

온 천하가 모두 정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이는 동심으로 돌아가고 어른은 농심으로 돌아가자.

셋째는, 순리다.

밭에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열매가 열리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어린 묘목이 하루아침에 아름답리 거목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때를 기다릴줄 알아야 한다. 생명은 순리대로 자란다. 세상의 모든일은 반드시 순리대로 해야한다.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역리라고 한다.

농부는 결코 조급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다릴줄을 안다. 우리

는 너무 조급해 한다. 순리와 인내로 기다릴줄을 모른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근면의 덕과 정직한 마음과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농심의 근본이다. 우리는 농심을 배우고 농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열심히 정직하게 순리대로 우리모두 농심으로 살아가자.



우리 태극기는 배달 겨레의 존엄, 理想을 상징

— 1996년 1월 27일은 國旗제정 공표 113주년 —

내린문학회 詩人 한 용 운

1월 27일은 1883년 고종(高宗)이 태극기를 우리의 국기로 공표한 날이다. 배달 겨레의 존엄과 이상을 담은 태극기가 우리의 국기로 제정 공표돼 휘날려온지도 113년이 된것이다.

태극기는 어떻게 제정되었고 무엇을 의미할까? 그 동안 태극기가 민족과 더불어 겪어야 했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 태극무늬는 新羅때 첫사용 하였으며 中國보다 4세기 앞섰다.
- 태극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태극무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존귀와 양(陽)을 상징하는 적색과 희망과 음(陰)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은 우리 만물의 생성원리를 나타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태극 사상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잘못 알고있다. 우리 역사에 태극 무늬가 처음 나타난것은 신라시대(서기 682년)때 세운 경북 경주군의 감은사지 석각인데, 중국에서는 이보다 4세기나 뒤진 11세기 송나라때 주염계가 처음으로 「태극도」를 발표했다.

태극이란 말은 원래(주역)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태극 무늬는 그려져 있지 않다.

- 4괘는 天地日月, 春夏秋冬, 東西南北, 仁義禮智를 의미.

한편 태극 주위의 검은색 4괘는 건(乾. 왼쪽 위), 곤(坤. 오른쪽

아래), 이(離. 왼쪽 아래), 감(坎. 오른쪽 위)이라 부르고 각각 천·지·일·월(天地日月)과 춘·하·추·동(春夏秋冬), 동·서·남·북(東西南北) 등을 뜻한다.

또 태극과 4괘가 조화를 이룬 태극기 전체로는 평화(平和), 단일(單一), 창조(創造), 광명(光明), 무궁(無窮)을 상징하고 있다.

태극기가 하나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은 1874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군 사관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 통상장정(通商章程) >에 실린 「고려국기」가 그와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처음 논의한 것은 조선 말기인 1876년(고종13년) 1월의 일이다. 당시 「운양호(雲揚號)사건」을 계기로 국기의 필요성을 느껴 「태극 4괘」의 도안에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명 전권대사겸 수신사 박영효가 1882년 일본으로 가는 배안에서 태극기를 처음 도안 했다는 것이 통설이나 박영효는 태극기를 처음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기」로 사용 했을뿐 처음 도안한 것은 아니라는 설도 있다.

그 뒤 고종은 1883년 1월 1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고 1월 27일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태극기는 도형의 통일성이 결여돼 4괘와 태극 양의(太極兩儀)의 위치를 혼동해 사용 했으며 오늘날의 형태로 고정된 것은 국기의 도안과 규격에 대한 통일안이 마련된 1949년 10월 15일 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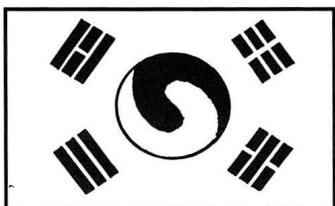
태극기는 국기로 제정, 공표된 이래 우리 민족과 함께 감격과 아픔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3.1 독립만세운동때는 온 겨레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을 외쳤으며, 8.15해방때는 우리 온국민이 환희를 누렸다. 또 6.25사변때는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한후 중앙청에 게양되는 태극기를 보며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우리 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태극기. 우리의 전통과 이

상이 담겨져 있으며, 세계 그 어떤 나라의 국기 보다도 한 차원 높은 태극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길이길이 보전해야겠다.

급변 필자는 우리지방의 문화지에 우리 태극기의 올바른 이해와 그 존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태극기 보급을 넓히고자 기고하는 바이다.

* 태극기의 변천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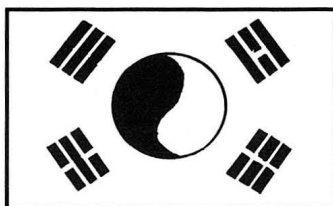
1. 독립문 각인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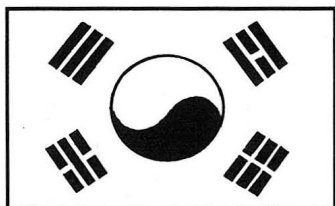
2. 박정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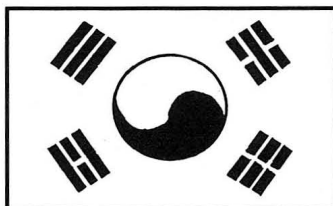
3. 구 한국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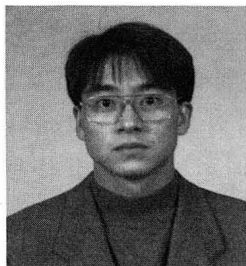
4. 3.1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



5. 군정 문교부 안



6. 1949년 국기보양회 안
(지금의 태극기)



김부리 대왕당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윤 형 준
(인제군 출향학생)

목

차

I.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II. 김부대왕이 신격화된

역사적 배경

III. 김부대왕 신격화와 동제의
변화과정

1. 마을의 지명을 통해 본
신격화 시기

2. 대왕당 신격의 변화와 이중성

IV. 비극적 인물로 신격화된 김
부대왕과 민중의식

V. 치병과 祈福의 주재신인 김
부대왕

1. 동신으로 전승된 김부대왕

2. 家神이 된 김부

VI. 결 론

I.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민중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역사를 생각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 있었던 사실보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자신들의 의식을 전하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 의식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민중들은 과거의 일을 그대로 전달하려 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의 의식을 가탁시켜 이야기를 재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¹⁾ 일반적으로 역사적 실존인물이²⁾ 설화와 민간신앙의 신으로 신격화된 사례를 연구한 성과들을 살펴보면 일면 민중들의 현실적 가치 지향과 역사인식을 발견하

1)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202~203쪽.

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민중들의 실존인물에 대한 인식이, 지식층의 기록과 의식적 지향과는 다른 의식을 함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지식층과 기득권층의 가치지향과 민중들의 가치지향이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실존인물로 알려진 김부대왕이 일반역사의 기록과는 달리 인제군 김부 1리 지역에서 동신으로 좌정하여 전승되어 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신신앙에 대한 연구중에서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한 연구는 신격에 대한 연구와 동신신화에 대한 연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³⁾ 역사적 실존 인물이 민중들에게 집단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설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남이 장군, 단종대왕, 공민왕, 사도세자, 金傳王(敬順王) 등이 있다. 이들 인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거나 원한을 품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역사적 실존인물의 신격화에 대한 연구는 신격화 과정의 구조를 고찰하거나 역사적 인물이 일정지역에서 신격화되어 설화로 전승될 때 나타나는 민중의식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신격화된 배경을 살펴거나, 실존인물 신격의 기능·역할이 연구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김부 1리의

2) 이 글에서 언급되는 신격화된 역사적 실존인물의 洞神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첫째, 신격에 있어서 자연력을 신앙시하는 자연신과 구별됨과 동시에 혈연적·지연적·종족적 내지 일반으로 문화적·사회적 관계에 있는 역사적 인물의 洞神과도 구분된다. 둘째, 따라서 이 글에서 지칭하는 역사적 실존인물은 개별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역사의 수준에서 알려진 역사적 실존인물을 지칭하고 이들 인물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집단적으로 신앙시되는 역사적 인물로 한정되는 것이다. 셋째, 이들 역사적 인물의 성격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거나 원한을 품고 죽은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신연구는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격에 관한 연구이다. 동신연구는 신앙대상 연구와 동신신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신앙대상연구는 신당의 형태, 동신의 기원문제 등을 포함하고 동신신화에 대한 연구는 인격화한 동신의 내력담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황루시, 「동신 신앙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252~257쪽.

대왕당동제와 구비전승물을 통하여 김부대왕이 민중들에게 어떠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졌는지를 밝히고, 또한 그가 지배층이 인식하는 인물과는 다른 인물로 인식되어진 양상을 파악하여 민중들의 의식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격이 변화되어온 상황속에서 김부대왕은 현재 동신으로서 어떠한 인물로 수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을 위한 조사는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행해졌으며, 일제 강점기에 마을에 거주하였던 인물과 현재 거주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제보를 받았다. 동제의 경우 1995년 6월 2일(5월 단오)에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II. 김부대왕이 신격화된 역사적 배경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김부대왕은 역사에서 경순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부 1리에서도 김부대왕은 경순왕(金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방 후인 1945년 김부리 대왕각에서 발견된 위패의 실제인물은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로 나타난다.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김부 1리에서는 1984년에 부령, 통천김씨들의 조상신에 대한 발굴조사에 의해 지역민들의 신앙대상으로 여겨오던 경순왕은 실존했던 마의태자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마의태자로 알려진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대왕당동제는 마을공동체 제의와 문중제의가 이중적으로 공존하여 지속되고 있다.

- 4) 부령김씨 종무원 사무총장 김용모씨는 1982년 당시 김부 1리를 사학자와 답사하면서 대왕각과 위패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왕각은 본래 통나무(너애)로 된 전각이었으나 수백년 내려오는 사이에 퇴락되어 무너져 없어지고 지금부터 37년전인 갑신년(1945년)에 중수한 것으로서 단칸의 기와 집이다. 현재 이곳 이장을 지낸 윤홍규씨가 수호하고 있다. 神位도 중세기에 소명된 것을 다시 쓴 것으로 사기에 무지한 사람들이 쓴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신위에 “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라고 쓰였으니, 이하생략.

근래까지도 김부리에서 대왕은 경순왕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 위패에 나타나는 인물은 1980년대까지도 경순왕의 아들로 모셔왔던 것이다. 대왕각의 위패의 인물이 마의태자였다는 것은 신앙대상으로서 김부대왕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마의태자와 경순왕사이에서 착종을 일으키며 신봉하여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여튼 김부 1리 지역에서 김부대왕은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인물로서 누구였으며, 또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착종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로써 규명하기 힘든 문제이다. 오히려 김부대왕을 신앙대상으로 여기는 전승주체들이 그를 어떠한 인물로 인식하여 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김부대왕이 실존하였던 왕으로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고, 신격화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실존인물로서 김부대왕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통해 그가 어떠한 양상으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신봉되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존인물을 수용하였던 전승주체들의 의식지향을 이해할 수 있겠다.

김부대왕은 후삼국시대 신라말의 정권교체기에 실존하였던 인물로서 민중들에게 신앙적 대상으로 여겨질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조에 편찬한 삼국유사 金傳大王條에는 국난에 처한 이 두 인물의 행적과 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태 2년 을미(乙未:935) 10월에 사방 땅이 모두 남의 나라 소유가 되고 나라는 약하고 형세가 외로우니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 신하들과 함께 국토를 들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할 것을 의논했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분분하여 끝나지 않는지라 왕태자가 말했다.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하늘의 명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충신·의사들과 함께 민심을 수습해서 힘이 다한 뒤에야 그만둘 일이지 어찌 1천년 사직을 경솔하게 남에게 내주겠습니까?” 왕은 말한다. “외롭고 위태롭기가 이와 같으니 죄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간뇌지 도케 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시랑 김봉휴를 시켜서 국서를 가지고 태조에게 가서 항복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태자는 울면서 왕을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으로 들어가서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다가 세상을 마쳤다.⁵⁾

경순왕과 그의 아들 마의태자는 국난에 처해 의견을 달리하였지만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실존인물로써 신격화 된 인물들은 현실에서 원한을 품고 죽거나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의태자가 일반 민중들에게 신격화되어진 양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경순왕, 즉 김부대왕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광포하게 신격화되었던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신격화는 백성을 위하면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민중들에게 비극적인 인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李圭景의 五州衍文 변증설(己亥, 1839年)에⁶⁾ 의하면 경순왕이 죽은 뒤 그의 유적지에는 곳곳에 사당이 세워지고 전설이 생겨났으며, 그가 신령으로 모셔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경순왕의 행적에 따른 유적이 각지에 많이 분포하고⁷⁾ 있는데 이것은 경순왕이 국원소경지역을 내왕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적과 전설이 전래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규경의 기록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경순왕이 신격화된 양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⁸⁾ 이규경의 기록을 참조한 이능화는 지방의 巫風 및 神祠를 검토하면

5) 일연지음·이민수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4, 181~182쪽.

6) 국역분류, 五州衍文長箋散稿, XX 고전국역총서 156,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1.

7) 이규경은 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 김부대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敬順王) 후백제의 시조 견훤의 난을 당하여 國原少京에 내왕하였기 때문에 충주·청풍·제천·원주 등지에 유적이 많아 이 같이 유전하고 있으므로 지금 대략 古蹟을 취해 얻었는데, 그 김부대왕이라 칭한 것은 그 때에 일컬을 만한 尊號가 없었기 때문에 곧 바로 姓名을 호칭해서 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東史에 미숙한 후인들은 어느 시대 어느 임금인 줄을 모른다.”

關東 原州의 용화산에 鶴樹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敬順王이 願堂이다. 경순왕이 처음 提川遇慶의 지방에 離宮을 지었는데,…… 그 산 밑에 願堂을 짓고는 黃山寺라 호칭하였다. 이 산위에 또 高自菴을 지었는데 일명 太古寺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正廟朝때에는 影堂을 法堂 왼쪽 子坐에 고쳐 짓고는 敬天廟라 賜號하였고, 湖南 順天 松廣寺에도 영정 1본이 있었는데, 聞慶 陽山寺에도 畫像 1본이 있고 慶州에는 黃南殿이 있는데, 本州에서 守護參奉을 정하여 守護하도록 하였다. 이규경, 위의 글, 72~73쪽.

서 “제천등지의 金傳大王神”이라는 제목을 통해 김부대왕신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⁹⁾ 여기서 그는 “金傳大王은 신라 마지막 임금인 敬順王을 말한다고 언급하고, 제천, 청풍 및 강원도 원주 등의 지방민이 많고 신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라를 빼앗긴 인물로서 김부대왕이 신격화된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면 신격화는 지역적이고 계층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경순왕의 신격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었다. 조선시대 지배층에게도 경순왕은 호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영조때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봉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에서 경순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고려시대 삼국사기에서도 드러난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金傳大王”記事에서 신라역사의 공적을 논하면서 신라패망의 필연성과 이에 따른 경순왕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¹⁰⁾ 김부식이 경순왕의 행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

8) 경상북도 영풍군 영주면 영주리에는 목조기와로 된 자인전이 있어 경순왕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고, 충북 청풍의 덕주사 뒤편에도 김부대왕사라는 사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흥동의 군자봉 꼭대기에는 서낭당터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경순왕이 모셔졌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리고 조선말과 일제시대에는 영험이 높은 신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알려진다.

9) 李能和·李在崑 옮김, 『朝鮮巫俗考』, 東文選 文藝新書 44, 1991, 264~265쪽.

10) 김부식은 기사에서 고려의 개국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신라패망의 필연성을 피력하고 경순왕의 고려에 대한 항복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였다.

“신라는 불법을 받들어 그 폐해를 아지 못하고 閭巷에는 塔廟가 벌려서고 평민들은 寺刹로 도망하여 중이 되며 兵農은 점점 줄어들고 국가는 날로 쇠약하여졌으니 어찌 어지럽지 않고 또한 망하지 아니하라……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순한 것은 비록 할 수 없이 한 일이지는 하나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다. 만일 힘껏 싸우고 죽기로 지켜서 고려 군사에게 반항했더라면 힘은 꺾이고 기세는 다해서 반드시 그 가족을 멸망시키고 죄없는 백성들에게까지 해가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고명을 기다리지 않고 부고를 봉하고 군현의 이름을 기록하여 귀순했으니 조정에 대해서는 공로가 있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덕이 있는 것이 매우 크다 하겠다.……(三國史記 券第十二, 新羅本紀 券第十二, 五十五 敬順王條)

들인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면서도 일면 “백성을 보호하였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¹¹⁾

둘째, 지역적으로는 경순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국원소경 지역인 강원,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져 왔고, 경상도를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 광포하게 신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부 1리 지역에서 경순왕과 그의 아들 마의태자가 어떻게 착종되며 신봉되어졌는지는 사실로서 규명하기 어렵다. 하여튼 김부대왕이라는 인물이 신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난에 처한 현실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국신으로써 김부대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한 계층과 지역에서 신봉된 인물이었다. 김부 1리 지역은 이러한 지역들과 같은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신격화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기록과는 달리 김부대왕이 김부리에서 어떠한 인물로 전승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즉, 역사기록과 기존의 김부대왕에 관련된 자료에서 보이는 인물이 아닌 김부리에서 수용된 김부대왕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밝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Ⅲ. 김부대왕 신격화와 동제의 변화과정

1. 마을의 지명을 통해 본 신격화 시기

김부리는¹²⁾ 그 마을이름이 특정 인물의 내력에 의해서 형성되었

- 11) 임재해는 「호국용 설화의 지역적 분포와 역사적 변이」에서 金傳王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민중과 함께 지배층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순왕을 민중은 시호 대신에 이름을 살려 김부대왕이라고 했다. 민중은 전쟁의 영웅을 택하지 않았고, 전쟁으로 국토를 넓히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왕을 대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왕좌와 나라를 함께 포기한 김부대왕을 호국룡으로 모신 것이라고 보았다. 임재해, 위의 책, 202~203쪽.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문헌을 통해서 보면 마을의 취락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온 것이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김부리의 오랜 역사는 갑둔리에서 발견된 김부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탐의 명문이 사실이라면 건립시기를 보아 103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문헌으로 확인되는 김부리의 역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59년까지 金寶王村 또는 金寶王洞으로 불리었고 12戶 45인이 거주

- 1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에 속해있는 김부 1리는 인제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촌락으로 행정상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본동, 단지골, 항병골, 비득재, 양짓말, 수구너머의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다. 갑둔리는 일제시대 이전에 김부리에 속해 있었던 까닭에 金富大王 연관된 설화와 유적이 남아 있다. 과거에 김부리에 속해 있었던 갑둔리는 홍천 인제간 국도에서 10km, 옛날 역이 있던 부평에서 16km, 인제현에서 30km 떨어져 있고, 해발 500~700m의 산간고지로 교통이 불편하지만 땅이 기름지고 산채류가 풍부하여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약 300여호 이상 거주했었다. 일제시대에는 김부리와 갑둔리는 인구가 많은 산간촌락이었으나, 50~60년대를 거치면서 100여호 정도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갑둔리는 58호, 김부리는 45호이다. 그러나 현재 실재 거주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동은 이 지역이 산간촌락으로서 해방과 전란,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주민들의 일시적인 거주처였고, 토착민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시기별로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인구의 이출이 많았던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자연마을들은 김부리 본동에 통합되거나 소멸되는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시기별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인제군 통계연감

연 도	지 역	가구수	인 구	남 자	여 자
73년	갑둔1리	106	702	942	360
	김부1리	87	522	248	274
93년	갑둔1리	58	195	98	97
	김부1리	40	164	89	75
94년	갑둔1리	58	228	119	109
	김부1리	45	180	98	83

했다고 전한다. 1797년에는 金富大王洞으로 불리었지만,¹³⁾ 인제읍지에 의하면 그 이후인 1843년 김부리는 金寶皇里로 바뀌고, 인제는 군 내면, 남면, 북면, 서화면, 동면의 5개면으로 구성되어 김부와 갑둔리는 남면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인구는 戶數 8戶, 남자 18人, 여자 24人으로 구성되었다.¹⁴⁾ 1916년에 金富里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마을의 지명에서 볼 수 있듯이 김부리는 특정한 역사적 인물에 의해 이름이 붙여져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8세기부터 마을의 이름이 김부라는 인물과 연관되어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에서 구전으로 김부대왕은 경순왕으로 알려져 왔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촌로들은 김부대왕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고 역적으로 몰려 피난온 임금으로 인식하여 온 것으로 보아 마을의 역사와 함께 김부대왕이 신봉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세기 초엽에 저술한 五州衍文長箋散稿의 저자인 이규경은 글에서 麟蹄郡 金富里 지역의 김부대왕이 경순왕을 모시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關東 麟蹄縣에 신라 敬順王이 살던 지역이 있어 이곳을 金富大王洞이라 명명하였다. 그 邑誌에 많은 사적이 실려 있는데, 경순은 곧 신라의 降王인 金傅이다.”

위의 기록에서 관동 인제현은 현재의 김부 1리를 지칭하고 있으며, 김부대왕동이라 한 것은 경순왕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불려졌다는 것이다. 이 당시에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으로 알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현재의 김부 1리 지역에서 김부대왕을 동신으로 모시거나 전설을 통해 알려진 시기는, 실제로 18세기 정도의 시기로 추정된다. 이 당시는 지배층에서도 경순왕의 影堂을 세워 賜號하였고, 사당을 건립하여 수호참봉을 시켜 지키도록 하였다고 전한다.¹⁵⁾

13) 이태두, 金富史蹟記, 갑둔향토사적 연구회, 1987, 7쪽.

14) 道光 24年(1843年), 麟蹄邑誌.

15) 이규경, 위의 글, 73쪽.

그러므로 18세기 이후에는 경순왕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신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에서 경순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신봉하였던 시대적 분위기와 경순왕이 살았던 곳이라 하여, 19세기 당시에 김부 1리에서는 김부대왕을 신격화하여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대왕당 신격의 변화와 이중성

김부리일대 자연마을들은 각기 일제 강점기부터 산치성과 서낭제, 그리고 김부대왕을 모시는 “대왕당 동제”를 지내고 있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김부 1리에 속하는 자연마을들이 契를 만들고 각기 기금을 각출하여 지역공동체신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중에 계가 파산되고 자연마을들이 김부대왕을 각각 모시게 되었다.¹⁶⁾ 그 후에 마을에서 契가 없어지고 다시 통합하여 지내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도 각기 자연마을에서 김부대왕동제를 지냈으나 전란으로 많은 가구가 이주하여 현재의 本洞에 통합되어 제의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의비용과 제물은 각 자연마을에서 분담하여 지냈다.¹⁷⁾ 1960년대 화전민 사업으로 과거의 자연마을에 사람들이 입주하여 그 마을들에서는 산치성(산제)과 함께 김부대왕제를 지내게 되었

16) “동네에서 契를 모아 가지고서 대왕당제사 지내는 돈을 모아 가지고 쌀을 늘 그구 돈도 늘그구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 에이 그거 뭐 싸우구 그럴 것 없이 갈라서 지낸다고 해서 그래서 세군데로 갈라서 지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이다. 그러던 것이 한 20살 먹어서까지(1933년) 갈라서 지내다가 그 다음엔 다 없어지고 한 군데서 지낸다. 호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갈르기는 그 전에 갈랐다.”(제보자 : 최원태, 남 82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

17) 해방되고는 꽤 잘 지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방 후와 전란을 통해서 항병골과 단지골은 많은 이주를 하여 가구들이 소멸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개간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다신 본동으로 와서 대왕당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장님이 중심이 되서 누구내집 제물을 하라고 지시하고, 생기를 보고 부정을 타지 않도록 깨끗이 하여 제사를 지냈다. 정결하게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한 군데 모임으로서 통합이 되고는 제사를 지낼 때는 각 마을별로 술과 떡을 분담해서 지냈다. 어떤 때 잘 지낼때 보니까 반마다 몇 반을 시키더라구 술도 다섯 동이면 다섯동이 떡도 2말이면 2말을 하라구 하지! 술이 다섯 동이면 10대반이니까 그전에 보니까 음식을 장만할 때 할당을 해서 지내더라구 봄에 하는 사람 가을에 하는 사람 이번에는 웃말, 구월에는 아랫말해서 지내더라구”(이근우, 양구오미국민학교 교장, 1995. 5. 20)

다. 자연마을들의 가구가 많아져 본동에서 모두 지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기 자연마을들은 김부대왕제를 각기 마련하여 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동제의 형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지만 산업화로 급격한 인구이출이 심해지면서 자연마을들은 김부 1리 본동에서 대왕당제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물신으로서 김부대왕이 이 지역에서 역사적 경험을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신앙적 기능을 충실히 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살펴본 대왕당 동제의 신격은 일반 사기와 문헌에 알려진 경순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40년대에 堂을 개축하면서 드러난 위패에는 실제 위패의 인물은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로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김부리에서 역사의 어느 시기에 경순왕의 一子인 마의태자를 신봉하였던 경험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김부리에서 민중들에게 신봉된 인물은 누구였고, 궁극적으로 민중들은 김부대왕을 어떠한 인물로 수용하여 왔으며, 민간신앙으로서 대왕당제가 가지는 기능을 밝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해방 후와 1970년대까지 행해졌던 대왕당 동제는 신격과 제의시기 등이 현재와는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설과 소수의 당신화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부 1리의 대왕당동제가 일제강점기부터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신격과 위패, 제의시기를 통해서 살펴보자.

〈표 1-1〉 대왕당 동제의 변화 양상

동제/시기	일제강점기	해방후-1982년	1984년대이후-1995년 현재
구비전승된 신격	경순왕(金富大王)		마의태자(金富大王)
위 패	민중에게 알려져 온 김부대왕(敬順王第一子金富之神位, 또는 敬順大王一子之神位)		부안김씨 문중에 알려진 조상신격으로서의 마의태자(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之神位)
제의시기	삼월,삼진,구월 중구	5월 5일(단오), 9월 9일(중구)	

일제강점기부터 확인할 수 있는 대왕당동제의 전승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격이다. 구전으로 알려진 김부대왕은 경순왕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위패에 쓰여진 인물은 “敬順王一子金富之神位”로서 마의태자로 드러난다.¹⁸⁾ 그리고 경순왕의 아들로 나타난 위패는 1980년대까지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김부대왕은 마의태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⁹⁾

이런 결과로 구전속에서 경순왕으로 알려진 김부대왕이 1983년부터 역사속에 실재했던 마의태자라는 인물로 부각되면서 김부리의 대왕당

18) “한 열댓살 먹어서 그래 그뎨 새로 다시 짓고 그럴 때는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한 번은 옛날엔 소잡고 돼지잡고 지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堂안에는 철마가 있었는데 그 철마는 대왕당에는 없었고 서낭에 있었어요, 거 이제 대왕당에는 제사지낼 때는 제위 모시듯이 그 이제 김부대왕이라는 글씨 써서 있었어요, 위패에는 경순대왕일지신위라는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경순왕이라고 알았고, 본이 경주김씨라는 것만 알고 있었 다.” <제보자: 최원태(남, 82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음력 5. 5)>

19) 인제 인근지역인 홍천의 노랫골에는 김부대왕이 횡성으로 가기 위해 들렀다는 김왕동 유래가 있고, 명주 소금강의 마의태자가 식사를 하였다는 식당 바위가 있다. 그리고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 전설은 마의태자의 행적에 따른 전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인제 인근의 김부대왕은 마의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외에도 한계산성 전설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경순왕(敬順王: 927~935)때 축성되었으며 후삼국이 정립하면서 서로 대치하여 전투를 벌이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성왕 9년(897)에 「九年秋八月 弓裔擊 取猪足牲川二郡又破漢州管内夫若鐵原等十餘郡縣」이라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궁예가 강원도의 인제(猪足)·양구(牲川)의 2군을 쳐서 취하고 또 한주의 관내인 춘천(夫若)·철원(鐵圓) 등 10여 군현을 격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제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음을 알려 준다할 것이나 한계산성을 중심으로 격전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한계령 일대가 전력상의 요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한계산성지역을 두고 전투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산성에 얽힌 또 하나의 전설은 경순왕의 맏아들인 麻衣太子가 인제군 남면 金富리를 근거지로 신라왕조의 부흥운동을 펼 때 한계산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것이다... 그때 한계산성을 중심으로 훈련도 하였으며 그곳을 근거지로 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강원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6집 「한계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86, 18~19쪽.

동신은 실존인물로 알려지게 된다.²⁰⁾ 올해 수행되었던 동제에서도 김부대왕은 마의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부 1리에서는 8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조사와 언론에 의해서 김부대왕은 구체적 실체를 가진 마의태자라는 인물로 여겨지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신격에 대한 표면적인 변화로 인해 김부대왕은 新羅汎金氏大宗院에 속한 부령·통천 김씨 문중의 시조신이 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위의 사실에서 김부 1리에서 김부대왕이 신격이 이중성을 띠고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전으로는 경순왕을 동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1980년까지 모시던 위패는 경순왕의 아들이었으며, 그 인물은 마의태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부리 지역에서 마의태자를 동신으로 모셨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의태자에 연관된 지명전설과 이동 경로가 회자되고²¹⁾ 있지만, 마의태자의 신격화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김부대왕은 경순왕이었다는 19세기의 기록이 다수 보이고, 경순왕은 전국적으로 광포하게 신봉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봉된 인물임이 자료에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경순왕이 신격화되었던 지역적·역사적 경험과 영향에 의해서 김부리에서 신격이 착종되거나 전승주체들이 인물의 속성을 새롭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 두 인물은 역사 속에서 신격화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고, 따라서 김부리라는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나름대로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어떠한 신앙적 대상으로 김부대왕을 수용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 전승주체들의 의식지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부대왕 신격의 표면적인 변화 이면에 가려진 전승주체들의 수용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마을에서 동신과 전설로 알려진 김

20) 김부 1리의 토착성씨인 윤홍규씨는 85년부터 김씨네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말한다. 80년대 당시 윤홍규씨는 인제군의 홍보요원이었고, 군홍보실에 연락해서 저명한 교수를 추천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학계에서도 조사를 위하여 김부 1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지방언론에 알려지자 부안김씨에게서도 문중의 시조라고하여 조사를 하고 조상신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21) 각주 19)번 참조.

부대왕은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그는 민중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신앙속에서 전승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겠다. 이것은 실존인물을 신격화한 민중들의 시대의식과 요구, 그리고 역사적 경험과 지역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비극적 인물로 신격화된 김부대왕과 민중의식

김부리에서 김부는 史記의 기록에서와 같이 경순왕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기존의 기록에서도 인제지역의 김부리에는 경순왕에 대한 유적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역사속에 실재하였던 인물로서 경순왕은 끝까지 고려에 항거하자는 의견을 듣지 않고 고려태조에게 나라를 내주고 항복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면 백성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경순왕은 계층적으로 광범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신격화되었다.

그러나 김부리에서 전설과 신앙적 인물로서 수용된 김부대왕은 사기와 일반기록에서 밝히는 인물의 성격과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부대왕을 통해 민중들이 수용하고자 했던 시대의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부 1리에서 경순왕은 어떠한 인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신격화되었는가? 현재 김부 1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金富大王을 역사 속에 실재하였지만 그 인물의 구체적 사실은 알지 못하로 일반적으로 마지막 왕인 경순왕으로 알고 있었다.²²⁾ 우선 민중들의 김부

22) 김부 1리에서 1920~30년 당시에도 김부대왕은 경순왕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구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각주 16번 재인용)

“한 열댓살 먹어서 그래 그때 새로 다시 짓고 그럴 때는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한 번은 옛날엔 소잡고 돼지잡고 지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堂안에는 철마가 있었는데 그 철마는 대왕당에는 없었고 서낭에 있었어요, 거 이제 대왕당에는 제사지낼 때는 제위 모시듯이 그 이제 김부대왕이라는 글씨써서 있었어요, 위패에는 경순대왕일 자지신위라는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경순왕이라고 알고, 본이 경주김씨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제보자: 최원태(남, 82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음력 5. 5))

대왕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당신화의 내력과 파편화된 전설을 통해 살펴보면 경순왕은 역사에 실재하였던 인물이기보다는 “마지막 왕”으로서 역적으로 몰려 피난을 온 인물로 전형화되고 있다.

“김부대왕은 뭐 옛날부터 김부대왕 얘기가 내려오고 대왕당을 짓고 제시 지내는 것만 알지 내용은 잘 모른다. 김부대왕을 경순왕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아주 옛날 태고적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경순왕이 여기에 왔다 갔는지 아닌지 모른다. 말로는 김부대왕이 옛날에 뭐 원형 역적으로 물리니까 간신히면 죽겠으니까 게 피난을 했대요. 그래서 김부대왕이 피난을 했다고 이곳을 김부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옛날에 김부대왕의 아전관속들이 모두 같이와 살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²³⁾

“대왕이 들어올 적에 역적으로 몰려 피난을 와서 지냈다는데 저 개 넘어오는 데는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여 술구네미라고 하고, 그래서 철닝쿨이 하도 걸려서 싹 잘라 버려서 철이 없다는 것이야, 무덤은 갑둔리에 있었다고 하고 비석과 망부석이 있었고, 그곳에는 신하들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박씨 집이라고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 그런데 대왕당을 모시고 터를 짓고 나서 대왕당 문이 열리고 말발굽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그리고 요 넘어 묘가 있었지, 갑둔리 거기에 묘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묘를 파고서 연못에 처넣어 버리고는 자기네 산소를 썼는데 집안이 망했다고 나오지.”²⁴⁾

민간의 당제란 단순히 역사적 인물에 대한 숭모의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당제라는 전체적 구조 속에서 그것이 파악되어야 한다. 민간의 사고는 당신이 비록 역사적인 실존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신분이나 세밀한 사적을 기억하기보다는 민중들이 사회와 역사를 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²⁵⁾

김부 1리에서 김부대왕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인물로 신격화되었다. 김부대왕은 김부리에 들어올 때, 역적으로 몰린 왕으로 군사와 아전관속을 이끌고 들어왔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지배층이 인식하는 경순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른 것이다.

23) 제보자 : 최원태(男, 82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

24) 제보자 : 윤이순(女, 67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

25) 羅景洙, 「莞島邑 長佐里 堂祭의 祭儀構造」 『호남문화연구』 19집, 전남대학교 남문화연구, 44쪽.

백성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경순왕이 신봉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중들은 외세에 항복하기보다는 항거하기를 바람으로써 그들의 시대적 욕구를 표현했다고 할 것이다. 김부대왕이 김부 1리에서 지배층과 다른 민중적 인물로 수용되어진 양상을 살펴보면 민중들의 김부대왕을 어떻게 형성화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표 1-2〉 김부대왕의 수용인식

계층 인물	지 배 층	민 중	
		인물의 수용	신격
경 순 왕	●경순왕은 국난에 처하여 무고한 백성을 위하여 항복하고 나라를 고려에 바침.(三國遺事) ●신라의 패망은 당연한 일이며,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한 것은 죄없는 백성을 살리는 일이니 아름다운 것이다. 조정에 공이 있고, 백성에게는 덕이 있는 일을 하였다.(三國史記)	●역적으로 몰려 아전관속과 군사를 이끌고 피난을 왔다. ●나라를 찾으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죽었다. ●죽어도 국권의 상징인 옥새를 가지고 있었다.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동신으로 좌정함. ●가신으로서의 역할을 한 김부대왕 ●치병의 기능을 함.
마의태자	●나라의 존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힘이 다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三國遺事)	●나라를 빼앗기고 김부리에 와서 군사훈련을 시켜 고려에 항거하려고 하였으나 좌절됨.	

김부대왕은 역적으로 몰려 군사를 이끌고, 아전관속과 함께 피난을 온 인물이다. 왕권과 국권을 상징하는 옥새를 죽어도 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역적으로 몰려 피난 온 김부대왕은 다시 고려에 항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전설에서는 김부대왕은 구체적으로 마의태자로 인식되고, 고려에 항거하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키는 행동을 취한다.

- ① 김부왕(마의태자)는 천추의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수십 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향하여 왕도 경주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 ② 김부왕은 경주를 떠나 강원도의 한 마을에 이르러서 쉼 곳이 금부리이다.
- ③ 호위병중의 충성스런 맹장군이 마의태자에게 의병을 모아 왕건의 군사에게 항거하고자 하여, 장군은 고을에서 의병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작한다.
- ④ 군사의 무예가 뛰어나 김부왕은 왕건을 처부술 날을 기다린다.
- ⑤ 갑자기 맹장군이 죽음을 당한다.
- ⑥ 장수가 없어 거사를 이루지 못한다.²⁶⁾

주강현은 임경업장군의 신격화 연원을 밝히는 연구에서 인격신은 민중생활의 반영물이며 민중사의 축적물로서 역사 속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²⁷⁾ 김부대왕도 민중들에게 항복을 하는 인물이 아닌 국권을 수호하고 항거하는 인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부대왕은 외세를 징계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민중들에게 수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민중들의 시대적 의식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옥새바위는 이게 틈이 나 있어요, 뱀 돌아가면서…… 거기때 그전에 뱀이 뱀이 전부 아주 수태 나와 대가리를 내밀고 있어요, 김부대왕이 거기다 이제 옥사를 옥사를 거기다 넣었다고 그래 이제 옥사바위라고, 이제 뱀을 옥사뱀이라고 그랬어요……게 뭐 옛날에 뭐 일본 놈이 옥살 꺼낼려고 뭐 그걸 떠 일클라고 하다가 죽었다고 즉사해 죽었다고.”²⁸⁾

“옛날에 일본순사가 김부리만 왔다가 가면 파면됐는지, 마의태자가 왔는데 왕자가 신이 있어서 파면시킨 모양이야, 옛날에 그러드라구 노인네들이….”²⁹⁾

김부대왕이 역사기록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실제인물이 내왕하고 시대적 영향에 의해서 신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중들에게는 그

26) 이태두, 위의 글, 12~13쪽.

27) 주강현, 「西海岸 조기잡이와 漁業生産風習」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창간호, 이론과 실천사, 1991, 92~93쪽.

28) 제보자 : 최원태(남, 82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

29) 제보자 : 이근우(남), 강원도 양구군 오미국민학교 교장, 1995. 5. 20.

들의 생활사와 시대의식이 축적되어 새로운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김부대왕이 민중들에게 새롭게 인식된 인물이었다는 것은 김부대왕이 동신으로 좌정하면서 민중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비극적이며, 기복적인 인물로서 수용되고, 실제생활과 밀착된 가신으로 신격화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부대왕이 전승주체들에 어떠한 인물로 신격화되었고, 그 의미와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김부대왕은 민중들에게 비극적 인물로 비추어지거나,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한 인물로 드러난다. 그것은 인격신으로서 김부대왕은 생존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인물”로 표현되고, 거사를 준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인물로 투영되어 있다.

● 나라를 찾으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죽었다.

● 거사를 준비하였으나 실패를 하였다.

김부대왕은 동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찾으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죽었으며, 맹장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의 의도는 좌절된다. 그리고 동신으로서 김부대왕은 나라를 찾으려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인물로 민중적 인물로 수용된다.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한 김부대왕은 민중들의 개혁적 의지를 표명하는 아기장수 전설과 같은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김부대왕은 민중적 영웅담의 서사적 구조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즉 민중영웅으로서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서사적 구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³⁰⁾ 또한 김부대왕은 출생이 비천하거나

30) 영웅은 숨어 지내지 않고 직접 나서서 도술을 발휘하며 세상과 대결하는 인물이다. 세상일에 나서는 것이 곧 싸움의 시작이며 반드시 싸워서 승패를 가린다. 출신성분에 따라 승패의 양상이 달라진다. ... 미천한 신분의 민중적 영웅은 패배하기 일쑤이다.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전설속에 투영된 민중의식의 면모」, 지식산업사, 1992, 242~248쪽. 조동일은 민중영웅의 일생은 상층영웅과는 다르게 다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미천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제1부 「英雄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1992, 55쪽.

비정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왕족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김부대왕은 민중들에게 광포하게 나타나는 전설내의 인물이며, 전승주체들의 의식이 투영되며 전승되어 왔고, 민중적인 인물로 수용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중적 영웅은 패배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이 또한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³¹⁾ 주장과 “민간에게 전승되는 영웅담은 대개 지역 중심의 전승으로, 그 지역 내의 실존인물에 대한 기억담의 형식을 취하든가 아니면 민중적 세계관에 부합될 수 있는 역사적 영웅담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³²⁾ 주장은 전승주체들에게 수용된 김부대왕의 민중영웅적 성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부대왕은 김부리라는 전승지역을 중심으로 알려진 실존인물로서 민중들의 역사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중영웅이 가지는 “좌절”의 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부대왕이 현실에서 좌절하고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민중들의 인물수용은 “아기장수전설이 작품내에서 죽음-재생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설정된 것처럼 실제 전승의 과정에서 인물을 바꾸면서 재현되고,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전승을 통해 확인되는 아기장수의 재현 역시 죽음을 죽음으로 수궁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의지의 표출”이라는³³⁾ 설명과 함께 이해될 수 있겠다. 즉, 김부대왕이 갖는 비극적 죽음은 그것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인 요구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좌절된 인물의 성격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민중적 요구는 김부대왕에 대한 지명지물 전설 모티프에서 나타난다.

31) 조동일, 『韓國說話와 民衆意識』, 2부 「구전설화에 나타난 이인의 변모」, 정음사, 1985, 139쪽.

32) 千惠淑, 「傳說的 神話의 性格에 관한 研究」, 啓明大學校 박사논문, 1987, 141~150쪽.

33) 千惠淑, 위의 글, 147~147쪽.

“옥새바위는…… 거기매 그전에 뱀이 뱀이 전부 아주 수태 나와 대가리를 내밀고 있어요, 김부대왕이 거기다 이제 옥사를 옥사를 거기다 넣었다고 그래 이제 옥새바위라고, 이제 뱀을 옥새뱀이라고 그랬어요……게 뭐 옛날에 뭐 일본놈이 옥살 꺼낼려고 뭐 그걸 떠 일쿨라고 하다가 죽었다고 즉사해 죽었다고……김부대왕이 옥새는 뭐 죽어도 뭐 가지고 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지요”³⁴⁾

전승주체들에게 김부대왕이 좌절한 인물로 투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김부대왕은 옥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국권의 상징인 옥새를 버리지 않는 의지를 표명하는 인물로 수용된다. 따라서 민중들은 김부대왕을 신격화시키고, 전설속에서 그들의 시대의식을 투영함으로써 현실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개혁하려 하였던 것이다. 즉 그들은 항거와 변혁하려고 했던 김부대왕에 자신들의 의지를 투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변혁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격신의 출현은 주로 ‘억울하게 죽은 자’가 ‘억울한 자’를 구원한다는 민중의 집단적 해원에 기초하고 있다. 억울하게 비명에 죽었거나 제명을 다 못 채우고 죽은 자가 신이 된다는 역설 속에는 민중의 세계관이 지향하는 인격신의 개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개인으로서는 해원의 역사화이자, 집단으로는 집단적 역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⁵⁾

김부 1리의 대왕당동제의 신격은 경순왕의 아들로서 암묵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경순왕으로서 김부대왕을 모셨으나 두 인물의 구체적인 역사적 행적과 성격보다도 민중들의 역사관과 가치관이 갈무리된 항거하는 인물로 신격화 된 것이며, 민중들에게는 고려에 항거하고자 했던 마의태자나 백성을 위해 항복을 선택했던 경순왕이 아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은 김부 1리에서 김부대왕은 민중들의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표명하고 있으며,

34) 제보자 : 최원태(남, 82세), 김부 1리 거주, 1995. 6. 2, 각주 28) 재인용.

35) 주장현, 위의 글, 재인용.

지배층과는 다른 인물로 수용되고 민중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갈
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V. 치병과 祈福의 주재신인 김부대왕

1. 동신으로 신격화된 김부대왕

김부대왕은 지배층의 인물인식과는 다른 민중들의 시대적 요구
와 가치에 맞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이 김
부대왕을 백성들을 위해서 항복을 한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표현했
다면, 반면에 민중들은 고려에 항거하는 인물로 인식하여 그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羅景洙〉는 송징장군에 대한 전설의 전승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
에서 송징은 민중들의 생활과 관련을 가지며, 신격화되었음을 밝히
고 있다.³⁶⁾ 〈주강현〉도 생산신격으로 모셔진 임장군 신격화의 연원
을 밝히는 작업에서³⁷⁾ “임장군이 신격화된 이후에는 그의 역사적
실체와는 무관하게 그는 신격의 대상이 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민의

36) 羅景洙는 송징장군이 민중들에게 신격화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중은 역사를 현재화하는 데 익숙해 있다.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 또는
실존인물에 대한 이지적인 관심보다는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의미를 뭉뚱
그려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까지 한다.…
…… 송징전설이 해당 전승지역에서 단순히 전설로서만 아니라, 당제라는
일종의 신앙과 결합되어 전승되어 온 현상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당제에서 그가 모셔지는 것으로 해서 민중의 가슴과
생활속에 송징장군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다.” 羅承晩·羅景洙·池春根, 「全南의 人物傳說 研究(Ⅲ)」, 『비교민속학』
11輯, 1994, 비교민속학회, 79쪽.

37) 주강현은 임경업장군의 신격화 과정을 살피고, 임경업 장군이 인격신으로
서 생산주술에 관여하고, 개인적·집단적 풍어의례와 동신으로서 기능하고
밝혔다. 주강현, 위의 글, 92쪽.

실생활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도와주는 어업신으로 추앙되고 있다”고 하였다.

민중들에게 김부대왕은 역사적 실체와는 무관한 새로운 인물로 수용되고, 이제는 항거하는 인물로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의 생활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도와주는 신으로 추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⁸⁾ 이것은 김부대왕이 당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의 현실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김부 1리 일대 각 자연마을에서 김부대왕은 산신(산치성) 함께 영험한 동신으로 모셔져 왔던 것은 김부대왕이 동신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인물이 일정 지역에 신앙적 인물로 신격화되어, 사회적·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자식없는 부부가 한이 되었다.
- ② 김부대왕에게 소원을 간청함.
- ③ 김부대왕은 절을 짓고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드리라고 일러줌.
- ④ 부부는 토끼봉과 두꺼비 바위사이에 절을 짓고 탑을 세워 백일기도를 드림.
- ⑤ 백일기도 중 두꺼비와 토끼가 나타나 부처님의 시루떡을 다투어 먹다가 시루떡과 함께 바위가 되었다.
- ⑥ 부부는 떡두꺼비같은 아들과 토끼같은 딸을 낳았다.
- ⑦ 김부대왕은 죽은 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김부대왕각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동리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왕각에 가서 소원을 빌게 되었다.

김부대왕은 민중들에게 일상생활을 이끄는 비범한 능력을 표출함으로서 신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부부의 한을 풀어주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김부대왕은 민중들의 생활속에서 기능하고 동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부대왕이 동신으로

38) 민간의 사고는 당신이 비록 역사적인 실존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신분이나 세밀한 사적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를 통해 집단적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기록적 대상으로 취하기 때문에 집단적 이해에 맞게끔 전형화되어 버린다고 보았다. 羅景洙, 위의 글, 44쪽.

좌절하게 된 배경은 민중들의 현실적인 소원과 복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에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단지에 별도로 보관했다가 다음해 단 오날 모아서 이것으로 떡과 술을 빚고 소나 돼지를 잡아 제물로 이용했다고 한다…… 동제가 끝나면 취떡을 갈잎에 싸서 근처의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 놓았는데 이것을 젊은이들이 서로 찾아 먹으려 했다고 한다. 그 까닭은 김부대왕이 생존시 취나 썩을 먹으며 나라를 되찾으려 노심초사했었음으로 이것을 찾아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여자는 길쌈을 잘하게 되고 남자는 글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민중들은 김부대왕이 실존인물로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생존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한을 가진 인물이었으므로 김부대왕과 관련된 것을 소유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김부대왕이 현실에서 희망하였던 것을 갖게 됨으로써 민중들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비록 생존시 그의 원을 풀지 못하였지만 좌절한 요인이 민중들을 보호하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실존인물로서 신격화된 김부대왕은 신격이 실체로 밝혀져 구체적 인물로 알려졌지만 민중들에게는 민간신앙의 기복적 성격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80년대부터 김부대왕은 인물의 역사적 실체가 부령 김씨와 통천 김씨에 의해 조상신으로 신격화되었다. 그로 인해 대왕당동제는 조상제례와 합동으로 제의를 지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문중의 유교식 제의가 마을의 동제식에 영향을 끼쳐 왔지만, 그후 마을 사람들은 10여년간이나 지속적으로 동제를 지내며, “김부대왕당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생각한다. 가족 중에 병이 나거나 자식을 얻지 못하면 치성을 드리던 대왕당은 마을의 해체로 잊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왕당 제사를 얻어먹어야 오래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김부 1리의 마을 역사속에서 김부대왕은 인물의 구체성을 뛰어넘어 민중들의 생활속에서 현실적 기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2 家神의 기능을 한 김부대왕

민간신앙의 구심점으로서의 김부대왕은 동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김부 1리 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전승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家神信仰으로 신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인물신으로서 김부대왕이 역사속에서 민중들의 시대적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여 전형적인 민간신앙의 대상신으로서 뿌리내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부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은 거리관계상 대왕각 동제에 참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단지 한 개씩을 마련하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면 제일 먼저 찹쌀이나 메쌀을 이 단지에 넣어 집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모셔 두었다가 다음 해 단오날이 되면 이 쌀로 취떡을 만들어 단지 앞에 놓고 의관정제한 후 정중한 제를 올렸다. 이 단지를 대왕단지라 불렀으며 이사하거나 분가할 때 제일 먼저 모셔 옮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차떡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까닭은 옛날에 김부대왕이 김부리에 피난 와서 생활할 때 취차떡을 매우 좋아했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이러한 민속은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일대에 약 50년전 까지도 이어져 왔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김부대왕의 권위와 그 실체를 신격화한 것이다.

나경수는 전남 완도의 송징장군에 대한 인물전설연구³⁹⁾에서 송징 전설은 전설로만 아니라,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능적 전이를 통해서 전승지역에 더욱 밀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부 1리에서도 김부대왕은 역사적 경험과 지역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민중들에게는 민간신앙의 기능을 충실히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설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신앙에서 가신신앙에까지 폭넓게 작용하여 민중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VI. 결 론

역사적 실존인물로서 김부대왕은 역사속에서 김부리 지역에서 살았다는 기록과 이 지역이 신라의 통치지역이었다는 이유에서 그의

39) 羅承晩・羅景洙・池春相, 위의 글, 비교민속학회, 93쪽.

유적과 전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김부대왕의 행적은 백성들을 위하여라는 것과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에서 신격화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수용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적인 분포를 가지고 사찰을 중심으로 원당이 세워진다. 김부 1리의 김부대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신격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수용된 김부대왕은 새로운 인물로서 이 인물에는 민중들의 의식지향이 투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존인물로서 김부대왕은 전승주체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가?

첫째, 역사기록에서 밝히는 김부대왕의 실체가 누구이든, 김부 1리에서 김부대왕은 민중들에 새로운 인물로 탄생하게 된다. 이곳에서 알려진 인물이 경순왕이든, 마의태자이든 민중들의 인식속에서는 “김부는 백성들의 보호하기 위해 고려에 나라를 바친 인물로서 형상화되지 않고, 역적으로 몰려 피난을 왔고,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인물로 표현된다.”⁴⁰⁾ 더욱이 김부대왕은 고려에 구체적으로 항거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며, 일제 강점기의 고난의 시기에는 외세를 징계하는 인물로 인식된다. 따라서 김부대왕은 지배층의 인물인식과는 다르게 민중들의 시대적 욕구와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김부대왕은 생존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비극적 성격을 내포한 인물로서 구체적인 민의 생활속에서 기능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진다. 당신화를 통해서 본 김부대왕은 당신으로 좌정할 때, 민의 실생활에 연관되어 신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그리고 동신으로 신봉되어 전승되면서 치병과 기복적 성격을 지닌 인물신으로 전형화된 것이다.

40) 김부대왕은 현실에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로 나타나는데, 민중들은 김부대왕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미처 다 펴지 못하고 좌절당한 요인에서 신격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들의 현실적 욕구와 함께 시대에 대한 인식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신격의 표면적인 변화에 가려진 전승의식은 민중들에게 수용된 김부대왕의 신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거치면서 그의 실체에 대한 연구와 조사⁴¹⁾로 인하여 김부 1리에서 동신으로서의 김부대왕은 마의태자로 알려졌고, 부안김씨 문중의 조상신격화로 역사속에서 실재 존재하였던 인물로 표면화되었다. 더욱이 80년대 이후부터 마을신으로서 김부대왕당 동제는 통천·부안김씨 문중 제사와 함께 이중적으로 지내왔다는 것에서 전승주체들의 신앙적 인물수용에 대한 변별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민중들에게 실존인물은 인물에 대한 단순한 흥미가 아니며 더욱이 그 개인의 신분이나 史蹟을 기억하기보다는 민중들이 사회와 역사를 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민중들의 생활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도와주는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자 료

국역분류 五州衍文長箋散稿, XX 고전국역총서 156,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1.

三國史記 券第十二, 新羅本記 券第十二, 五十五 敬順王條.

일연지음, 이민수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4.

麟蹄邑誌, 道光 24年.

2. 논문·단행본

羅景洙, 「莞島邑 長佐里 堂祭의 祭儀構造」 『호남문화연구』 19집, 전남대학교문화연구, 연도(?)

41) 김부 1리에서 김부대왕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조사하면서 그의 무덤을 찾았으며, 한국 동란 후 官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 이후에는 70년대에 향토문화조사의 일환으로 군에서 조사를 하였고, 80년대에는 각계 층의 전문가들이 조사를 시도하여 언론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
- 羅承晩·羅景洙·池春相, 「全南의 人物前說 研究(Ⅲ)」, 『비교민속학』 11輯, 1994, 비교민속학회.
- 민속학회 편, 『민족과 굿』, 학민사, 1992.
- 辛鍾遠, 「江原道 麟蹄郡 南面 一帶의 石塔」, 古文化 42·43 合輯 別刷.
- 이태두, 『金富史蹟記』, 갑둔향토사적 연구회, 1988.
-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접근』, 지식산업사, 1991.
- , 『민족설화의 논리와 인식』, 지식산업사, 1992.
- 조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民族文化叢書 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 , 『韓國說話와 民衆意識』, 정음사, 1985.
- , 『민중영웅이야기』, 文藝出版社, 1992.
- 주강현, 「西海岸 조기잡이와 漁業生産風習」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창간호, 이론과 실천사, 1991.
- 千惠淑, 「傳說의 神話的 性格에 관한 研究」, 啓明大學校 박사논문, 1987.
- 최길성, 『한국민간신앙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 洪泰漢, 「說話와 民間信仰에서의 실존인물의 성격화 過程」, 『한국민속학보』 3집, 한국민속학보, 1994.
- 황루시, 「동신신앙 연구」,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알 아 둡 시 다

《편 집 실》

■ 결혼기념일

결혼한지 만 60년이 되는 해를 회혼이라 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다. 회혼을 맞은 노부부가 사모, 관대, 원삼, 족두리를 하고서 교배례(交拜禮 : 전안례가 끝난다음 신랑신부가 맞절하는 예)와 근배례(拵拜禮 : 교배례가 끝난다음 신랑신부가 표주박 잔으로 서로 술을따라 마시는 예)를 올렸다.

구미 각국에서는 기독교의 풍속으로 결혼한 매주년 마다 그 명칭을 정하여 여행이나 혹은 친척과 함께 신선했던 과거의 결혼식을 회상하며 축하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는 다름이 없는 모양이다.

요즘의 우리나라에서는 만혼을 하기때문에 금혼식은 보기 힘들어졌고 25주년인 은혼(銀婚)식을 기념하는 사람이 늘고있다.

주요 주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 | |
|----------------|---------------------|
| 1주년 : 지혼식(紙婚式) | 15주년 : 수정혼식(水晶婚式) |
| 2주년 : 곶혼식(藁婚式) | 20주년 : 도자기혼식(鍍磁器婚式) |
| 3주년 : 과혼식(菓婚式) | 25주년 : 은혼식(銀婚式) |
| 4주년 : 혁혼식(革婚式) | 30주년 : 진주혼식(眞珠婚式) |
| 5주년 : 목혼식(木婚式) | 35주년 : 산호혼식(珊瑚婚式) |

7주년 : 화혼식(花婚式) 40주년 : 녹옥혼식(綠玉婚式)
 10주년 : 석혼식(錫婚式) 45주년 : 홍옥혼식(紅玉婚式)
 12주년 : 마혼식(麻婚式) 50주년 : 금혼식(金婚式)
 # 60주년 또는 75주년 : 금강석혼식(金剛石婚式)

이 명칭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종 족(宗族)

부(父) - 아버지, 사망하면 고(考)
 모(母) - 어머니, 사망하면 비(비妣)
 조부(祖父) -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조모(祖母) -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증조부(曾祖父) -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모(曾祖母) -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고조부(高祖父) - 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고조모(高祖母) - 아버지의 증조할머니
 자(子) - 아들, 자기의 소생
 자부(自婦) - 며느리, 아들의 아내
 여(女) - 딸, 자기의 소생
 손자(孫子) - 아들의 아들
 손녀(孫女) - 아들의 딸
 증손(曾孫) - 손자의 아들, 아들이 손자
 증손부(曾孫婦) - 증손자의 아내
 현손(玄孫) - 증손자의 아들
 현손부(玄孫婦) - 현손의 아내
 백부(伯婦) - 세부(世父), 조부의 장자
 백모(伯母) - 세모(世母), 백부의 아내
 중부(仲父) - 아버지의 중형

중모(仲母)－숙부의 아내
 숙부(叔父)－계부(季父), 아버지의 동생
 숙모(叔母)－숙부의 아내
 고모(姑母)－아버지의 자매
 형(兄)－아버지가 먼저 낳은 아들
 형수(兄嫂)－형의 아내
 제(弟)－동생, 아버지가 나중에 낳은 아들
 제수(弟嫂)－동생의 아내
 자(姉)－누님, 손윗누이
 매(妹)－여동생, 손아랫누이
 질(姪)－조카, 형제의 아들
 질부(姪婦)－조카의 아내
 종손(從孫)－형제의 손자
 종손부(從孫婦)－형제의 손부
 종형제(從兄弟)－백숙부의 아들
 종자매(從姉妹)－백숙부의 딸
 당질(堂姪)－종형제의 아들
 당질부(堂姪婦)－당질의 아내
 재종손(再從孫)－종형제의 손자
 종조부(從祖父)－조부의 형제
 종조모(從祖母)－종조부의 아내
 당숙(堂叔)－아버지의 종형제
 당숙모(堂叔母)－당숙의 아내
 재종형제(再從兄弟)－당숙의 아들
 재종자매(再從姉妹)－당숙의 딸
 재당질(再堂姪)－재종형제의 아들
 재종조부모(再堂祖父母)－아버지의 당숙모
 재당숙(再堂叔)－아버지의 재종형제
 재당숙모(再堂叔母)－재당숙의 아내

삼종형제(三從兄弟)－재당숙의 아들

삼종자매(三從姊妹)－재당숙의 딸

중증조부(從曾祖父)－증조의 형제

중증조모(從曾祖母)－중증조부의 아내

왕고모(王姑母)－아버지의 고모

종고모(從姑母)－아버지의 종자매

재종고모(再從姑母)－아버지의 재종자매

중증조고모(從曾祖姑母)－증조의 자매

※ 여기까지는 복(服)을 입는 종족이라 하여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 한다.

삼종조부(三從祖父)－아버지의 재당숙

삼종조모(三從祖母)－아버지의 재당숙모

삼종숙(三從叔)－아버지의 삼종형제

삼종숙모(三從叔母)－삼종숙의 아내

삼종질(三從姪)－삼종형제의 아들

삼종손(三從孫)－재종형제의 손자

※ 여기까지는 복을 입지 않는 종족이라 하여 면복근친(免服近親)이라 한다.

■ 척당(戚黨 : 혼인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

(1) 부당(不黨)

고모부(姑母父)－고모의 남편

내종(內從)－고모의 자녀, 고종(姑從)

내종질(內從姪)－내종의 아들

자형(姊妹兄)－누님의 남편

매부(妹父)－여동생의 남편

생질(甥姪)－자매의 아들

생질녀(甥姪女)－자매의 딸

(2) 모당(母堂)

외조부(外祖父)－외왕부(外王父), 어머니의 아버지

외조모(外祖母)－외왕모(外王母), 어머니의 어머니

외숙(外叔)－어머니와 오빠나 남동생

외숙목(外叔母)－외숙의 아내

외종숙(外從叔)－어머니의 사촌 남자 형제

이모(姨母)－어머니의 자매

종이모(從姨母)－어머니의 사촌 자매

외종(外從)－외숙의 아들딸

이모부(姨母父)－이모의 남편

이종(姨從)－이모의 자녀

이질(姨姪)－아내의 자매의 자녀

(3) 부당(父堂)

부(父)－남편

시부(媳父)·시모(媳母)－남편의 아버지[구(舅)]와 어머니
[고(姑)]

시숙(媳叔)·시매(媳妹)－남편의 형제와 자매

(4) 처당(妻堂)

처(妻)－아내

빙부(聘父) 빙모(聘母)－아내의 아버지와 어머니

처백부모(妻伯父母) 처숙부모(妻叔父母)－아내의 백부모와
숙부모

처남(妻男)－아내의 남자 형제

처수(妻嫂)－처남의 아내

처형(妻兄) 처제(妻弟)－아내의 언니나 동생

처질(妻姪)－처남의 자녀

(5) 칭 호

부 당

	본인이 부를 때	남(他人)이 부를 때
祖父	할아버님, 왕부(王父)	왕존장(王尊丈)
父	아버지, 엄부(嚴父), 가부(家父)	춘당(春堂), 춘부장(春府丈)
叔父	사숙(舍叔)	왕장(王丈)
兄弟	사백(舍伯), 사중(舍仲), 사계(舍季)	백씨(伯氏), 중씨(仲氏), 계씨(季氏)
子	미아(迷兒), 돈아(豚兒)	윤옥(允玉), 영윤(令胤)
孫子	아손(阿孫), 미손(迷孫)	현잉(賢仍), 영잉(令仍)
姪	사질(舍姪), 질아(姪兒)	함씨(咸氏)
一家	비족(鄙族)	귀족(貴族)

모 당

	본인이 부를 때	남(他人)이 부를 때
祖母	왕모(王母), 할머니	왕대부인(癰大夫人)
母	자친(慈親), 어머님	흰당(萱堂), 대부인(大夫人)
外叔	내구(內舅), 외숙부(外叔父)	위양장(渭陽丈)
外從	표형(表兄), 표제(表弟)	
內從	내형(內兄), 내제(內弟)	

제 2 장

향 토 사 편



雲鶴先生 事蹟 研究

최 병 헌

문을 열면서

제30회 광주시 낭송회가 끝나고 헤어지기가 아쉬운 몇몇 문우들만이 남아 한담(한談)을 나눌때다. 무슨 이야기 끝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입담 좋은 소설가 이외수가 그만의 특이한 제스처어를 써 가며 인제 예찬론을 들고 나왔다. 이 선생은 원래 경남 함양에서 출생하였지만 인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 더 애착을 갖는지 모른다. 이 선생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그 많은 문인협회나 동인회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사실 이 선생은 협회나 동인회거나 단체에 가입해서 속박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유일하게 “내린문학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인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선생의 이야기인 즉 인제에는 명산도 많거니와 수려한 산세(山勢)로 보아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대략 인제 출신들에게 들어서 기분좋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과거에 편운자(片雲子)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다고 소개 했다.

이 선생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소할 뿐만 아니라 조금은 과장된 듯 싶기도 하여 소설의 소재 거리를 이야기 하나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들어 넘겼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면 청학집(靑鶴集)을 읽어 보라고 권하지 않는가.

나는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었다. 인제 향토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해 온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 때문에 나는 청학집을 구하는데 열을 올렸다. 관내 서점마다 청학집을 구해 달라고 주문을 해 놓고도 서울에 있는 친지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했으며, 출판사 「보성문화사」에도 문의해 재고판이 있으면 구입토록 해 달라고 했더니 직매(直賣)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 교보문고나 종로서점에 주문하라고 했다.

교보문고, 종로서점에도 어렵게 통화를 해 부탁을 했지만 찾기가 어렵다고 직접와서 찾아 보라는 것이어서 청학집을 구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이제 청학집에 실려 있는 편운자(片雲子)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先生의 事蹟

편운자(片雲子)는 조선 명종(明宗) 14년 기미년(己未年 : 1559) 7월 8일 신시(申時)에 강원도 인제 현고촌(玄高村)에서 부(父) 창해(蒼海)와 모(母) 신평이씨(新平李氏)사이 태어났다.

그의 조부 우윤공(右尹公)께서 초취부인(初娶夫人) 해주오씨(海州吳氏)를 신사년(辛巳年)에 사별(死別)하고 재취(再娶)로 신씨(申氏)가 신묘년(辛卯年)에 공을 모시고 인제 덕산촌(德山村 : 현재 인제읍 덕산리)에 내려와 기거하였다고 한다. 우윤공은 성종(成宗) 5년 갑오년(甲午年 : 1474)에 출생하시어 선조(宣祖) 39년 병오년(丙午年 : 1606)에 졸(卒)하니 향년 132세를 사셨으니 예안현감(禮安縣監)을 지냈다.

편운자(片雲子)가 다섯살 되던 해에 모친 이씨(李氏)로 하여금 신계(新溪) 울탄(栗灘) 동편 마을로 이사를 했으며 그의 나이 열여섯이 되면서 출세에는 뜻이 없고 윤림(雲林)에 뜻을 두어 선친이

남긴 책들을 애독하면서 독서에만 전념하였다.

선조(宣祖) 8년 을해년(乙亥年 : 1575) 4월에 집 앞 느티나무 정자에 앉아서 주역(周易)을 읽는데 홀연히 한 우파새(優婆塞 : 출가하지 않고 불제자가 된 남자를 일컬음)가 지나다가 이를 엿듣고 한참만에 말하기를

“내가 팔도(八道)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많이 보아 왔으나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보았오. 당신은 가위 입도(入道)한 사람ियो.” 하며 책 한권을 건네주며

“이것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좋은 스승이 계실 것이오.” 라고 일러 주었다.

그 후 그는 담정산중(澹定山中)에 들어가 살았는데 선조(宣祖) 15년 임오년(壬午年 : 1582)에 약초를 팔러 금장강(錦長江) 강가에 나갔다가 패랭이를 쓰고, 정공장(丁公杖)을 짚은 한 사람을 만나 귀한 분임을 알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귀한 분은 후일 오대산 기린대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기약하고 헤어졌다. 그 후에 약속된 날에 찾아 갔더니 칠인(七人)의 선인(仙人)이 미리 와 있었다. 그는 선생 일곱 분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리니 웃으면서 손을 잡아 반겨 맞이했다. 일곱 선생은 성명은 말하지 않았으나 각자 자신의 도호(道號)를 말하였는데, 김선자(金蟬子), 채하자(彩霞子), 취굴자(翠窟子), 아예자(鵝藥子), 계엽자(桂葉子), 화오자(花塢子), 벽락자(碧落子)라 하였다.

예전 금장강에서 만났던 선생이 바로 김선자(金蟬子)였으며 일곱 선인(仙人)중에서도 특히 김선자와 더 가깝게 지내었다.

이 일곱 선인은 세상에서 높은 재주를 지니고, 천시(天時)와 인사(人事) 만물의 이치를 달통하였으나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계를 유람하며 지냈다. 이들은 모두 청학상인(靑鶴上人)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청학상인은 우리나라 갑산(甲山) 사람으로 성은 위(魏)요, 이름은 한조(漢祚)이며 자는 중염(仲炎)이다. 어려서는 백우자(百愚

子)에게 자라서는 중국인 양운(楊雲)에게 도술을 배웠다. 세상을 두루 편답하며 노닐다가 만년에 귀국하여 청학동에 자리잡고 살아서 청학상인이라 하였다. 편운자는 일곱 선인과 함께 청학동을 찾아가 위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업하였는데, 이때 위선생이 그의 호를 편운자(片雲子)라 지어 주었다. 그의 본명은 은연(恩淵), 운학(雲鶴) 또는 운홍(雲鴻)이라 하였으며, 휘(諱)는 사연(思淵) 또는 정원(挺元), 승조(承祖)라 하고, 자는 윤부(胤夫)라 하였다.

청학상인은 편운자를 일러 “해서(海西)의 편운(片雲)은 운중백학(雲中白鶴)의 혼이 태어났다”고 추켜 세웠다.

편운자는 생전에 많은 족적(足跡)을 남겼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조(宣祖) 18년 을유년(乙酉年 : 1585)에 채하자(彩霞子)가 위선생을 찾아 뵈고

“근자 동국에 재변이 많아서 장성(將星)이 하늘을 지나고, 한강의 물이 붉으니 장차 재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위선생이 대답하기를

“십년안에 왜란이 있으리라”

하였으며, 편운자는

“태세(太歲)가 있는 방위와 월건신(月建神)이 있는 방위는 사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왜국이 이제 조선의 동남에 있으니 반드시 임진년 4월에 기병(起兵)하여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왜국의 실정을 염찰(廉察)하면서 경중(輕重)을 점치기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편운자, 김선자, 취굴자가 동래로부터 대마도로 들어가 왜국의 복색을 하고 50일간을 염탐하고 돌아오니 이때 위선생 께서는 장백산 낙주동(落珠洞)에 계셨다.

세 사람은 선생을 찾아 뵈고 이르기를

“왜국 기이주(紀伊州)에 등명신(藤明臣)이라는 자가 있는데 일본이나 조선에 적수(敵手)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은(鑄銀)과 단철(鍛鐵)을 업으로 삼아 신분이 천하여서 쓰임을 얻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걱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출우주(出羽州)의 선강정(禪康正)과 일광진(日光鎭)의 마문도(馬文道)는 가히 함흥(咸興)의 이팽년(李彭年)·양구(楊口)의 이방걸(李邦傑)과 적수가 되오나 이 네 사람은 아직 발탁되어 쓰이지 않고 있으니 양국의 승부에는 관계가 없고, 저들의 주권자(主權者)인 평수길(平秀吉)은 본래 길한 사람이 못되고 흉적의 씨로 태어났으니 결코 우리 국왕의 복력에는 비할 수 없고, 그 휘하의 지휘관인 평의지(平義智) 같은 자는 정문부(鄭文孚)로서 가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다. 중현소(玄素)는 이원익(李元翼)이 대적할 수 있겠고, 선수등(禪守藤)은 신격(申格)이, 마다시(馬多時)는 김응서(金應瑞)가, 평행장(平行長)은 한극함(韓克涵)이, 심안돈오(沈安頓吾)는 김성일(金誠一)이, 청정(清正)은 이순신(李舜臣), 종일(宗逸)은 이항복(李恒福)이, 평조신(平調信)은 고언백(高彦伯)이, 소서비(小西飛)는 이일(李鎰)이, 원가강(源可康)은 윤두수(尹斗壽)가, 굴지정(橘知正)은 유성룡(柳成龍)이 각각 대적할 만하나, 오직 굴강문(橘康文)이란 자는 지용(智勇)이 겸비하여 우리나라에서 당할 사람이 없으니 만약 이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위태할 것입니다” 하였다.

과연 편운자(片雲子)의 말대로 선조(宣祖) 25년 임진년(壬辰年 : 1592) 4월 13일에 일본군 21만이 쳐들어와 부산을 함락하고 첨사(僉使) 정발(鄭拔)을 죽임으로써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시작되었다. 점령군인 일군(日軍)이 전국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세를 확장시키자 국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편운자는 또 이 무렵 집안식구들을 이천(利川) 구봉동(九鳳洞)으로 옮기고 평양으로 향했는데, 제찰사(제察使) 유성룡(柳成龍)이 군량(軍糧)을 수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이나라 신민(臣民)인데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하면서 양미(糧米) 칠곡(七斛)을 헌납했다. 성룡(成龍)이 사재감참봉(司宰監參奉)이란 직함으로 사령장(辭令狀) 한 통을 보내왔다.

그 후 편운자가 안악(安岳)으로부터 용강(龍岡)을 지날 때에 이원익(李元翼)과 이빈(李賓) 등이 왜병과 평양에서 싸우다가 군사가 패하고 말이 거꾸러져 거의 잡힐 찰라에 이들을 보았다. 원익은 우리나라 대신이라 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부적에 물을 뿜으니 왜병이 놀라서 스스로 물러갔다. 원익이 간신히 몸을 건지고 치사(致辭)하려 하는데 홀연히 간 곳이 없어 심중에 놀랍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때 마침 휘하졸병(麾下卒兵) 오대성(吳大成)이 선생과 한 동리 사람이어서 선생의 종적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원익이 비밀로 아뢰어 단천군수(端川郡守)를 제수하고 사령장(辭令狀)을 대성에게 시키어 전하게 하고, 겸하여 편지도 한 통을 보냈다. 편지에는 ‘지난번에 높은신 자취로 왕림하셔서 곤란중에 빠진 목숨을 구해주신 것을 지금까지 감사하옵니다. 이제 한 도(道)의 속물(俗物)을 올려 더럽히오니 앞으로 일방(一方)의 백성을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 후에 다시 선생에게 함경관찰사(咸鏡觀察使)의 벼슬을 주어서 청정(清正)을 제어(制御)코자 하였다. 위선생이 좌석에 같이 앉았다가 웃으며 하는말이

“속세 밖의 기러기가 조밭에 내려 앉고자 하는가”

하였다. 이로부터 편운자는 오대성과 인연을 끊고 더욱 자취를 감추었다.

편운자는 또 광해군(光海君) 4년 임자년(壬子年 : 1612)에는 김선자(金仙子)와 함께 한양을 지나다가 입조하는 관원들을 보고 놀라 말하기를

“조선이 장차 개혁으로 망하는 변환이 있겠다. 살(肉)이 뛰어나고 시체가 다니는 것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였고, 다시 능양군(陵陽君)을 보고 하는 말이

“다행히 이 사람이 있어서 동국 사람의 웃깃이 외로 되지 않겠다”

라 했다. 김선자도

“능양군은 반드시 반정을 할 것이고, 정인홍(鄭仁弘)등 첫째번

사람들은 장차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

과연 그의 예언은 적중하여 광해(光海) 15년 계해년(癸亥年 : 1623) 3월 13일에 인조반정(仁祖反政)을 일으켜 이귀(李貴)를 비롯한 서인(西人)과 광해군(光海君)을 폐하고 능양군(陵陽君)을 추대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인조가 정권을 잡으면서 정조(鄭祖) 박엽(朴燁) 정인홍(鄭仁弘) 등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였다.

편운자는 또 말하기를

“저번에 오도(五道)를 순시하고 성관령(聲串嶺)에 올라가 길가에서 망기(望氣)하니 분수령(分水嶺)위에서 한 조각의 구름이 수레 모양을 이루어 한양(漢陽)으로 들어갔으니 반드시 보국할 인물이 날 것이다. 세도(世道)가 바야흐로 변함에 따라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동료 선인들에게 세속을 살펴 보자고 권하였다.

세속을 살피며 유람하는 어느 날 편운과 채하가 진동(鎭東) 땅에 이르러 한가촌(韓家村)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밤에 곡성이 매우 슬프게 들려 편운이 주인에게 물었더니

“동편 이웃에 사는 오씨 부인의 곡성이라”

고 대답하면서 오씨는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죽은 후 정성껏 제사를 올려 왔으나 살림이 너무 가난하여 제물을 마련치 못하여 운다고 설명해 주었다. 편운이 오씨집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가엾은 효부(孝婦)여”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함과 동시 그의 신통력으로 집 근처 살구나무 밑에 묻혀 있는 은 수 십덩이를 찾아내 주었다.

이 외에도 어지러운 세상을 둘러보고 돌아와 위선생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행적들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이 유실되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편운자 밑에서 60여년간을 사사받은 조여적(趙汝籍)이 기록해 놓은 것이 <靑鶴集>이라는 선가서(仙家書)다.

조여적은 선조 21년 무자년(戊子年 : 1588)에 과거에 낙방하고 실의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탄(楮灘)에서 편운자를 처음 만났다. 편운이 대뜸

“관서(關西)의 조여적이 아닌가? 어찌 서성거리나?” 하면서 사람을 알아 보았다. 그만큼 편운의 통찰력은 대단하였으며, 용잠거사(龍岑居士) 조여적이 일생을 두고 스승으로 모신것도 이에 반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문을 닫으며

이제 편운에 대해서는 종언(綜言)하고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선친(先親) 또한 범상한 인물이 아니기에 선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편운자의 조부(祖父) 우윤공(右尹公)은 해주 오씨(海州 吳氏)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오씨 체격과 용모가 장대하여 오장부라고 일컬었다. 오부인이 일찌기 잉태하여 홍치 경술년(弘治 庚戌年, 成宗 21년<1490>)에 아들 창해(蒼海)를 낳았다. 창해가 차차 자라나서 효용(驍勇)하고 학식이 많으나 유희(遊俠)를 좋아하여 기탄이 없으니 사람들이 경원(敬遠)하였다. 연산주(燕山主) 을축년(乙丑年)에 아우와 함께 유순정(柳順汀)의 집에 놀러갔다. 때마침 성희안(成希顔)·박원종(朴元宗)·이예(李藥)·권균(權均)·안윤덕(安潤德)등 여러 사람이 반정(反正)할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마침 신수영(愼守英)이 들어오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 나가다가 비밀문서를 빠뜨리는 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생각이 나서 박원종이 급히 가서 찾으니 창해가 몰래 간직했다가 소매 속에서 꺼내 주었다. 원종은 매우 기뻐하며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고 말하기를

“네가 우리 몇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 하였다. 중종(中宗)이 반정한 뒤에 원종공신록(原從功臣錄)에 등

록(騰錄)은 되었으나 나이가 어려서 벼슬은 하지 못하였다. 무진년(戊辰年)에 제주도로 유람갈 생각을 하고 팔월 십사일에 배를 타고 화탈도(火脫島)로 갔다. 별안간 태풍을 만나서 같이 탄사람 이십여명 중에 네 명이 살아서 지마도(志摩島)에 닿았다. 지마도는 일본 동남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사로잡아 도주(島主)에게 바치었다. 도주(島主)가 묻기를

“너는 조선 사람이 아니냐?”

고 하니 창해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또 묻기를

“조선의 예전 진도군수(珍島郡守) 이응(李應)씨를 네가아는가?” 하니 창해는

“나의 조부가 되신다.”

고 하였더니 도주(島主)가 깜짝 놀라며 급히 뜰에 내려와 손을 잡고 당(堂)으로 올라가며 말했다.

“나의 성은 일(一)이고 이름은 지원(持元)입니다. 당신의 조부로부터 재생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나라 땅에 왔으니 이것은 하늘이 반드시 은혜 갚을 길을 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옛 소목국(蘇木國)인데 10여 년 전에 내가 일본의 장수가 되어 이 땅을 빼앗았더니, 천황께서 길이 멀고 성(城)이 다르다 하여 나를 지마도 백(伯)으로 삼아 대대로 도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가 아들이 없고 딸 하나를 두었으니 데릴사위를 삼아서 이 가업을 계승하려 합니다.”

하고 마침내 파목랑(波木郎)을 삼으니 한자어로 부마(駙馬)라는 뜻이다. 이 때에 부모와 형제와 종족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여겨 혹 불쌍히도 여기고 혹 비방도 하였다. 박원중은 임금께 청하여 창해에게 우의정을 증직(贈職)하고 시호(諡號)를 문소(文韶)라 하였다. 창해는 섬에 머무르며 백성을 기르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많은 병기를 장만하였다. 소목국 동쪽으로 육일 정도의 거리에 팔금도(八錦島)가 있는데 도주의 정치가 문란하여 백성이 이산하였다.

일백(一伯)이 창해를 보내어 토벌하니 백성이 몰려와 항복하여

마침내 그 섬을 점령하였다. 도화관(桃花關)에 들어가 도주 이고부(伊古夫)를 포박하고 여덟 주(州)로 행정구역을 분할하였으니 박고(博古)·야다(野多)·지시(智施)·낭평(狼坪)·보개(寶蓋)·상당(祥堂)·지지(支地)·반파(半波)로 되어 있다. 창해를 금주자사(錦州刺史)로 삼아 여덟 주의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팔금도 동쪽으로 십일 정도 거리에 일마도(日摩島)가 있는데 그 도주를 이름을 서태독(徐泰督)이라 했다. 서태독은 팔금도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말하기를

“팔금도는 우리와 형제의 나라인데 어찌 형으로서 아우의 망함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쳐들어왔다. 창해는 서직랑(徐直良)으로 상당(祥堂)을 지키게 하고, 장정보(張井寶)로 막아 싸우게 하고서 자기는 쾌속선과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곧장 일마도로 진격하여 철관(鐵關)을 파하니 그의 신하 전간(典干)이 섬을 점령하였다. 일마왕이 급보를 듣고 급히 회군하니 장정보가 추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창해는 또 원도장(元道章)으로 하여금 앞을 질러 진격하게 하니 일마왕은 싸움에 패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 제군(諸軍)에 명령을 내려 여러 섬을 점령하게 하고 이 지방을 열 개 군으로 개편하니 강문(缸門)·보안(寶岸)·사림(蛇林)·평천(平泉)·사랑(沙良)·괴정(槐井)·학야(鶴野)·금향(金鄉)·부암(夫岩)·연택(蓮澤)등이다. 창해를 일마백(日磨伯)으로 삼고, 장정보는 지마자사(志摩刺史)로 삼고, 일백(日伯)이 흥산성(興山城)에 있는 서직랑을 보내서 금주자사(錦州刺史)로 삼았다. 일마는 토지가 비옥하여 곡식이 잘되고 땅에는 잡목이 없고 갈다리와 대가 가장 많았다. 대(竹)의 열매는 크게 금색리(金色梨)만 하고, 대는 가늘고 단단하기가 쇠와 같았다. 닭은 살찌고 크며 우는 소리는 옥동소(玉洞蕭) 소리같이 맑았다. 금도(錦島)는 적도(赤嶋)가 가까운 지방이라서 열매는 유자(柚子)와 감귤(柑橘)과 비자(榲子)가 있고 향기로운 채소와 좋은 생선이 여러 섬 중에서 가장 많

있다. 대암군(大岩郡)에는 홍등목(紅藤木)이 있는데 토인(土人)이 껍질을 벗기어 배를 만들고 우어유(禹魚油)를 바르면 배가 가볍고 단단하여 비록 험한 풍파를 만나도 전복되거나 파손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암(寶岩)과 평천(平泉)등 군(郡)의 사람들이 수전(水戰)에 익숙하여 물위를 육지와 같이 다니니 창해는 그 중에서 효용한 자 2만명을 선발하여 섭해군(涉海軍)이라 이름을 지었다. 또 동나무 껍질로 선박을 제조하여 수전을 연습시켰다.

갑술년(甲戌年)에 이좌국(伊佐國)이 와서 항복하였는데 옛 파라(波羅)의 유족이었다. 파라국 당시에는 여러 섬을 탈취하여 삼키고 위엄을 크게 떨치더니 기이왕(紀伊王)대에 이르러 정사가 어지러워 힘이 미약하였고 문정천왕(文政天王)에 이르러서는 국호를 용성(龍城)이라 하고 팔세(八世)를 전해 내려오다가 왜(倭)에 속하게 되었다. 후에 왜장(倭將) 평신종(平信從)이 멸해 버리니 그 나머지 종자(種子)가 이좌도(伊坐島)로 도망하여 살다가 지금 와서 항복한 것이다. 그 나라는 열한 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 연주형(連珠形)으로 동남해중(東南海中)으로 곧게 뻗어 있다. 이좌로부터 삼십 리를 가면 평산(坪山)이 있고, 평산으로부터 오십 리를 가면 괴림(槐林)이 있다. 괴림에서 하루를 가면 은두(銀頭)가 있고 은두에서 하루 정도 가면 석대(石臺)가 있다 석대에서 하루 정도 가면 운혈(雲穴)이 있고 운혈에서 삼십리를 가면 화야(禾野)가 있다. 화야에서 하루 정도 가면 금촌(錦村)이 있고 금촌에서 이십 리를 가면 구산(丘山)이 있다. 구산에서 이십 리를 가면 치림(雉林)이 있고, 치림에서 십 리를 가면 일홍(日紅)이 있고, 일홍에서 이십 리를 가면 언강(兪江)이 있다. 토산물은 금·진주·야광지(夜光芝)·봉관속(鳳冠粟)·청국(靑菊)·흑모단(黑母丹)이 있다. 인물은 날씬하고 고우며 괴림에는 반혼석(返魂石)과 주천석(酒泉石)이 있고, 은두에는 호초(胡椒)와 야삼(野蔘)과 진과(珍果)등이 있다. 석대에는 불여우(鰲)와 악어(鰐魚)의 피해가 있고, 금촌에는 도리(桃李)가 많이 나고, 일홍에는 안식향(安息香)·강진향(降眞香)·봉

간향(鳳肝香)·용안과(龍眼果)가 생산된다.

을해년(乙亥年)에 창해가 이좌백(李佐伯)이 되고, 일백(一伯)이 세워 일마대존각(日摩大尊閣)으로 삼았으니 이좌(伊佐) 사람 석정(石正)·정원(正源)·도량(道良)·추근(楸根) 등을 모두 그 밑에 수용하였다. 언강 동남쪽으로 칠일 정도 가면 자해(紫海)가 있는데 넓이가 백 리이고 물빛은 핏빛 같았다. 자해 동쪽에 노학성도(老鶴城島)가 있는데 이 섬은 모래 벌판으로 되어 있어 기이한 꽃과 풀이 많다. 노학성도 동남쪽에는 약수(弱水)가 있는데 넓이가 십 리나 되며 바다 가운데 가로 놓여 있고 물빛은 비단결 같고 양변에는 천연으로 된 돌기둥이 물가에 서 있었다. 매년 팔월이 되면 동쪽에서 파도가 일어나 산같이 몰려 들어와서 약수가 창일(漲溢)함으로, 언강 사람들은 항상 이 조수를 타고 약수를 넘어 다녔다. 동쪽으로 오 일 정도에 오십 리 폭이 되는 황해(黃海)가 있고 황해에서 오십 리를 가면 흑해가 있다. 흑해 동쪽에 노산성(蘆山城)이 있고, 노산성 동쪽에 화도(花島)가 있고 화도 동쪽에는 초도(楸島)가 있다. 초도와 화도 사이에 어유장(魚遊場)이 있는데 넓이가 하루 정도 되는 넓은 해역으로서 고기떼가 태산같이 몰려 천 리를 오간다. 종소리가 바다를 진동하면 바다 밑에 고기눈은 천만개의 등롱(燈籠)과 같아서 사람이 그 위를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매년 오월이 되면 고기떼가 헤엄쳐 가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해로 피서를 가는 것이라고 했다. 초도 동쪽으로 오 일 정도에 조도(鳥島)가 있는데 조도는 지방(地方)이 오십 리이며 잡목이 삼대같이 뽕뽕이 들어서고 가지 끝은 뭉툭하고 잎은 넓게 피어 있었다. 그 중에서 수백 종의 새가 밤낮없이 지저귄다 하여 조도라 하였다. 조도 동쪽 삼십 리에 문관(門關)이 있고 문관 동쪽으로 오 일 정도에는 공자성(公子城)이 있으며, 공자성 동쪽 이 십 리에서 비로소 대륙에 오른다. 대륙 5백 리 되는 곳에 금함성(金函城)이 있으니 즉 갈랑국(葛郎國)의 국도(國都)였다. 갈랑 동북쪽에는 산림이 울창하여 인적이 드물고 남쪽으로는 큰 연못이 막혀 있고 서쪽은 큰 바다가 놓였으

며 어유장 동쪽은 모두 갈랑에 속하였다. 토지는 광활하고 사람이 적으며 사람들은 매우 소박하였다. 촌(村)에는 문자(文字)는 있어도 무비(武備)는 없으며 사람은 모두 성품이 착했다. 휘파람 불기를 좋아하고 노래와 염불을 좋아하였다.

병자년(丙子年)에 창해가 등피선(藤皮船) 칠십척을 조발(調發)하여 군사 3만과 과극군(戈戟軍) 만 명을 건내고 석정(石正)을 향도관(鄉導官)으로 삼아 갈랑국을 진격하였다.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평정하고 마침내 금함성에 들어가니 그 임금 탈화(脫花)가 항복하였다. 그의 군신(君臣)을 소목도(蘇木島)로 옮기고 그 땅을 나누어 열네 개 주로 만드니 심(尋)·부(部)·질(郅)·여(郊)·이(訖)·교(郊)·회(鄒)·장(障)·고(郛)·병(邴)·성(郕)·형(邢)·운(鄆)·등(鄧) 등의 주(州)였다. 또 산을 열네 개로 나누어 이름을 지으니 망해산(望海山)·옥청산(玉淸山)·일영산(日影山)·운병산(雲屏山)·금첩산(錦疊山)·벽련산(碧蓮山)·옥수산(玉秀山)·만화산(萬花山)·비학산(飛鶴山)·백천산(白泉山)·금천산(金泉山)·옥루산(玉樓山)·오연산(五連山)·충천산(沖天山)이다. 또 물을 여섯 개로 나누어 이름을 지으니 백저강(白紵江)·죽엽강(竹葉江)·월인강(月印江)·흥은강(興銀江)·양옥강(洋玉江)·난벽강(蘭碧江)이다. 극동(極東)에 일임관(日臨關)을 세우고, 극서(極西)에 난벽관(蘭碧關)을 세우고, 극북(極北)에 은대관(銀臺關)을 세우고, 극남(極南)에 대연관(大淵關)을 세웠다. 후에 일존각(一尊閣)이 도읍을 금함성(金函城)으로 옮기고 국호를 삼연(森淵)이라 하고 자립(自立)하여 대존각(大尊閣)으로 삼고 관명(官名)을 정하여 재상을 태양(太陽)·태음(太陰)이라 하고 오경(五卿)을 두니 세성(歲星)·주성(朱星)·백성(百星)·신성(辰星)·진성(鎭星)이었다. 문무반(文武班)이 있는데 문반에는 학(鶴)·봉(鳳)·원(宛鵠)·로(鷺)의 직책이 있고, 무반에는 취(鷲)·응(應)·골(鶻)·초(鵠)·붕(鵬)의 직책이 있어서 각각 다섯가지 색으로 써서 등급을 구분하였다. 통신사(通信使)는 까치로, 순찰사

(巡察使)는 용으로, 어염관(魚鹽官)은 갈매기로, 생산관(生産官)은 사슴으로, 권농관(勸農官)은 비둘기로, 수변관(守邊官)은 호랑이로, 장강관(掌缸官)은 익시(鷄)로 정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였다.

경진년에 일존각이 죽고 창해가 직위를 이었다. 병술년에 연자도(燕子島)를 개척하였는데 이 섬은 초도(椒島) 남쪽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다. 돌레가 사백리이며 토산물은 금·옥·대산(大蒜)·대강(大薑)이 생산된다. 잠도(잠島)를 개척하였는데 이 섬은 잠목이 없고 오직 뽕나무만 무성하다. 그 속에서 누에가 자연생으로 자라서 고치를 지으니 크기가 항아리와 같았다고 전한다. 원주민이 실을 뽑아 명주를 짰는데 가늘고도 곱다고 한다. 석문(石門) 동북쪽으로 이틀 정도 가면 계관도(鷄冠島)가 있는데 이 섬에는 충천산(沖天山)이 있으니 세 봉우리에 각아 세운 듯 하다. 가운데 봉우리는 바위가 수탉 모양이고 산의 나무는 뽕나무뿐이니 온 섬이 뽕나무숲이다. 닭이 숲속에 서식하고 있는데 매일 밤중이 되어서 달이 가운데 봉우리가 비추면 가운데 봉우리의 숲속에 있는 닭이 울기 시작한다. 이 닭의 소리는 굉장히 크고 멀리까지 들려서 원근(遠近)의 닭들도 따라서 다투어 울어 수 백 리 섬중은 닭 울음소리로 요란하다.

만화도(滿花島) 동남쪽으로 개청도(開靑島), 그 남쪽으로 마팔도(馬八島), 그 서쪽으로 낙도(落島)와 상도(相島) 등지를 개척하여 여인국(女人國)의 지경에 이르렀다. 대체로 마팔도로부터 남쪽은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았으며 여자는 인재가 뛰어나서 국사를 주장하고 높은 자리를 다투었다. 갈랑 남쪽에 감연(甘淵)이 있는데 넓이가 십 리이다. 감연의 근원이 계림산(桂林山)에서 시작되어 물맛이 매우 달다. 그 남쪽은 준령과 절벽으로 되어 있어 통로가 없다. 금첩산(錦疊山)은 금함(金函) 동쪽 백오십 리에 있는데 산봉우리 칠십 개가 우뚝 솟아 있고 모두 귀인성체(貴人星體)로 되어 있다. 그 단에 응하대(凝霞臺)와 옥기자(玉碁子)가 있는데 사람이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뇌성이 진동하고 폭우가 쏟아진다고 한다. 만화

산(萬花山)은 금함(金函) 동남쪽에 있는데 빗부리가 모두 아미(蛾眉)와 문성체(文星體)로 중중첩첩(重重疊疊)하며 그 속에는 갖가지 기이한 화초가 피고 저서 일년 열두달에 항상 홍자색이 있고 흐르는 샘물은 향기롭고도 맑아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선인의 풍미가 있다. 백천산(白泉山)은 만화산에서 동쪽으로 사백 리에 있는데 오십육 봉우리가 모두 돌로 되어 흰 빛을 띠었다. 솟는 샘과 떨어지는 폭포가 부지기수이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죽엽강(竹葉江)이 되고 북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돌아서 만벽관(만碧關)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망해산(望海山)은 서해안에 있는데 산의 팔십구 봉우리가 모두 문필(文筆)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매양 해가 뜰 때면 산 그림자가 동쪽을 가리키는 까닭에 동산(東山)이라고도 부른다. 옥수산(玉秀山)은 국도(國都)의 주산(主山)이고, 운병산(雲屏山)은 나라의 동쪽끝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비단 병풍을 둘러친 듯하고 사람이 이 산을 넘어서 그 밖을 엿볼 수 없다고 한다. 일영산(日影山)은 나라의 북쪽 첩첩산봉이 하늘에 닿고 울창한 숲과 술한 돌과 치솟는 샘물이 곳곳에 있다. 일존각이 일찌기 사람을 시키어 칠팔 일간을 살살이 조사해 보았는데 인적은 없고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뿐이었다.

옥천산(玉泉山)은 도성(都城) 남쪽 오백리에 있는데 물을 끼고 삼백리를 뻗어 내려간다. 그 산에는 벌꿀이 참새만하고 봄·여름이면 벌소리가 산에 가득하고 꿀은 푸르고 희고 붉고 검은 네 가지색의 품종을 생산한다. 벽연산(碧蓮山)은 도성 동북에 있는데 예순네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흥은강(興銀江)이 그 삼면을 둘러싸고 산마다 영초(靈草)가 있다. 천리도(天梨島)는 계관도 동북에 있는데 섬중에는 높이가 사십 리나 되는 비학산(飛鶴山)이 있다. 산 위에 단샘우물(甘泉井)이 있고 우물 옆에 두 그루의 배나무가 있는데 나무 둘레는 육십 아름이 되고 배의 크기는 말(斗)만한데 사람이 먹으면 온 몸에 향취가 나고 수일간을 주리지 않으므로 이름을 천리(天梨)라고 한다. 이 섬 동북에 옥호도(玉壺島)가 있는

데 섬은 돌산이 둘러 있어 마치 옥항아리 모양이다. 그 내부는 주위가 백리가 되며 한가운데에는 산이 다섯 봉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오련산(五蓮山)이라고 한다. 오성(五星)의 형체를 갖추고 가운데 봉우리에 다섯 그루의 대추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열매로써 풍흉(豐凶)을 점친다. 동쪽 가지에 열매가 많으면 보리가 풍년이고, 남쪽 가지에 열매가 많으면 서속(黍粟)이 풍년이고, 서쪽 가지에 열매가 많으면 벼가 풍년이고, 북쪽 가지에 열매가 많으면 콩이 풍년이고, 가운데 가지에 열매가 많으면 피가 풍년이다. 풍재(風災)가 있으려면 앞이 검어지고 수재(水災)가 있으려면 앞이 누레진다고 한다. 옥호도 북쪽에 또 섬이 하나 있는데 섬 중앙의 돌산에 맑은 백옥같고, 그 모양이 누각 같아서 이름을 옥루산(玉樓山)이라고 한다. 그 주위에는 금천산(金泉山)이 있는데 바다를 둥글게 에워싸서 성곽같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이름을 금성도(金城島)라 한다.

서쪽 끝에는 수구(水口)가 있고 수량관(水梁關)이 있으며 수구 중앙에는 산이 하늘에 닿게 솟아 있다. 산허리에는 돌사다리가 층층히 놓였으며 산위에는 석대(石台)를 만들어 놓고 큰 글씨로 백옥대(白玉臺)라 새겨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산 아래에는 큰 청룡이 때때로 나와서 노는 일이 있다고 한다. 창해가 처음이 섬을 얻었을 때에 돌아가신 모친의 꿈을 추억하고 감동하여 궁실(宮室)을 대(臺) 아래에 짓고 이름을 통현궁(通玄宮)이라 하였다. 창해는 아들 열 두 명을 두었는데 첫째는 안안랑군(安安郎君), 둘째는 봉안랑군(鳳眼郎君), 셋째는 난영대사(蘭英大師), 넷째는 흑룡장군(黑龍將軍), 다섯째는 계수선생(桂樹先生), 여섯째는 문무대군(文武大君), 일곱째는 석골장군(石骨將軍), 여덟째는 온온원후(溫溫元侯), 아홉째는 독독군주(秃秃君主), 열째는 화풍소공(花風小公), 열한째는 백주중백(百株仲伯), 열두째는 월림대사(月林大師)라고 한다.

정유년(丁酉年)에 난영대사를 상연대존각(桑淵大尊閣)으로 삼고 창해는 왕위를 내놓고 통현궁에서 한가히 지냈다. 처음에 창해

가 폭풍을 만나 종적이 끊어진 뒤로 오부인(吳夫人)이 주야로 생각하며 서러워 하는데 하루는 꿈에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와서 이르기

“부인의 아들이 지금 귀인이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고 하였다. 이 일이 있는 뒤로 매일 동쪽을 향하여 축원하기를, 우리 아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하였다. 이윽고 부인이 별세하니 남양공(南陽公)이 그 뜻을 따라 매년 팔월십사일에 낙산사(洛山寺)에 재를 올려 창해가 돌아오길 빌었다.

병오년(丙午年)에 창해가 수양관 어귀에서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혼자서 소요하는데 홀연히 꿈속에 오부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아버지를 어찌 가서 뵈옵지 않는가”

하였다. 깜짝 놀라 깨어서 고향 생각에 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마침내 백옥대에 올라가 배회하며 서러워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 산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수양관 어귀로 나왔는데 언뜻 보니 청룡 두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다가 도로 물속에 잠기었다. 그리고 별안간 창해가 탄 배가 서천(西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으며 동풍을 가득 받은 돛은 힘겨운 소리를 냈다. 해운(海雲)은 망망(茫茫)하고 파도는 하늘에 닿았다. 십 이일 동안의 밤낮을 지내고 나서 배가 문득 언덕에 부딪혀 부서지고 창해는 몸이 떠서 언덕위에 떨어졌다. 한참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나라 총석정(叢石亭)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날 새기를 기다려 낙산사를 찾아갔다. 그때 마침 남양공이 그 절에서 재를 올려 창해가 돌아오기를 빌었는데 공양승 축난(竺蘭)이 하는 말이

“이번의 재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 지겠습니다.”

하였다. 남양공이 말하길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를 올린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서 서로 만나는 이치가 있겠는가”

하니 축난이 이르길

“방금 재를 올릴 때에 등불이 하나가 둘이 되었고 현주(玄酒)에

물이 솟아 젓가락 세운 것같이 되었으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상서(祥瑞)로운 일입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길

“그러했던가 어찌 그럴까?”

하고 산에서 내려 오는데 홀연히 창해를 길가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듯 하였는데 성명과 주소와 연령과 친척을 물어보니 모두 틀림이 없는지라, 마침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마치 죽었던 사람을 만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집안 일을 물어보니 오부인(吳夫人)은 신사년(辛巳年)에 작고하고, 계부인(繼夫人)은 을사년(乙巳年)에 작고하고 삼부인(三夫人) 백씨(伯氏)가 공을 모시고 토산(兎山) 신성리(晨星里)에서 산다 하며 가세(家勢)는 영락하여 예전만 못하다고 하였다.

무신년(戊申年)에 남양공이 별세하였다. 생존시의 말씀이

“내가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네가 장자(長子)이다. 아들이 없으면 장가를 들어야 할 것이다. 너의 그 바다 섬에 있는 아들은 오랑캐의 인종이니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에 신평이씨(新平李氏)를 아내로 맞았다.

창해는 비록 다시 살아 돌아와서 봉친(奉親)하는 낙(樂)은 있을 망정 몹시 삭막하여 인사(人事)를 사절하고 계산(溪山)과 임천(林泉)에 나가 놀며 호(號)를 창해도인(蒼海道人)이라 하였고 경자(庚子) 십이월 십육일에 죽었다. 임종시에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삼십년간을 해외(海外)에서 활약하며 오랑캐를 소탕하여 평정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아버이를 뵈옵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 하나를 두어 조업(祖業)을 계승하였으니 내 원은 족하나 백발 아버님과 젊은 아내를 두고 먼저 죽으니 이것이 눈감지 못할 한이다.”라고 하였다.

“開發의 可能性을 안에서 찾자”

박석균 (재경 향토인)

1.

「麟蹄」글자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기린의 발굽이다.

뜻을 새긴다면 기린이 남겨놓은 발자국이라는 뜻이 될것이니 얼마나 좁고 척박하다는 뜻인가? 남면에서 태어난 내가 처음 군축령을 넘어서 인제읍으로 들어갈 때 내려다 보이는 읍내를 보면서 「기린의 발자국」이라는 이미지를 찾아 보려고 애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그런 좁고 척박하다는 이미지를 찾는데 실패한 나는 인제란 낱말이 가진 의미가 「발자국」이란 뜻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한때 세속 사람들이 「인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운운했던것은 땅이름의 뜻조차 모르는 일자무식의 상것들이 지꺼리는 소리라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소리이다.

『麟』자는 기린이란 뜻이다.

실제로 기린면(麒麟面)이 있다. 그런데 이 기린은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용, 거북, 봉황과 함께 4령(靈)이라고 하는 귀하고 성스럽고 상서(祥瑞)로운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동물원에서 보는 목이 긴 아프리카산 기린은 원래 기린과에 속한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기린은 사슴의 몸매,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말굽을 가지며 머리에는 살(肉)로된 뿔이 하나 나있고 털은 5색이고 배의 털은 누런 빛을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써 앞에서 말한것처럼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 것이다.

이 기린은 산(生) 풀을 밟지 않는 어진(仁)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기린이 발자국을 남긴곳이 인제라면 그 땅은 그만큼 신비롭고 깨끗하며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선경(仙境)이요, 비경(秘境)이라는 뜻이다. 십이선녀탕이요, 한계령이요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경과 비경을 일컫고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2.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아스팔트 위를 승용차로 미끄러지듯 달려서 편안히 인제에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첩첩산중 발닿는 곳마다 선경아닌 곳이 없이 비경과 비경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업화의 시대에 와서 인제는 공업화의 길이 막혀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소양호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상류에는 공장도 안되고 목장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시책의 골간이다. 하지만 공업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공해가 생기고 각지 사방에서 모여와 심신은 사나와지고 인제 군민만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에도 얼룩이지고 때가끼게 마련이다.

기린은(生) 풀을 밟지 않는 어진(仁)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기린이 발자국을 남긴곳이 인제라면 그 땅은 그만큼 신비롭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공업화 보다는 이 고장이 관광지역으로 발전하여 피곤한 도시인들이 찾아들어서 심신을 쉼 수 있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인제라는 땅이름에 걸맞는 역할일게다.

원래 「인지지화(麟趾之化)」라고 하면 황후의 덕을 기리고 칭찬

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인제가 현대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어머니 품속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이다. 다만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여 돈많은 서울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곳에서 번돈을 도로 서울로 가져 간다면 인제 사람들은 공연히 자연보호 한다고 빈병과 휴지를 줍거나 하는 청소부의 역할밖에 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관광시스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인제군민이 십시일반으로 다만 몇 만원씩이라도 투자를 하고 군·도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큰 호텔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집이라도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며서 손님이 친척집에 찾아와서 쉬는것처럼 푸근한 인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호텔보다 몇 배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제 3의 물결을 쓴 「칼빈 토플러」의 말처럼 다가오는 21세기는 「작은 것이 아름다운(BEAUTIFUL)」때인 것이다. 그리고 옛날의 통나무집, 옥수수가리, 맷돌, 명석 등과 같은것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것은 반드시 설악산 부근에서만 가능한것이 아니고 인제군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앞으로는 서울 명동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설악산 보다는 한적하고 호젓한곳이 더 인기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무엇이며 서비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군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의 가능성을 항상 안에서 찾는 것이다.

전설(傳說)의 고찰(考察)

《편집실》

1. 머릿말

생활이 있는곳 어디에나 찌든 그 역사만치 많은 문화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유산을 유산으로 알지않고 소멸시켜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안타까워 하는 일이 생길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것들을 찾아내서 그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 문화의 의미가 갖는 내용을 살펴 회복시키는 일은 두말할 조차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에게 구전으로 전해내려온 설화는 고장마다 다르게 많아 풍요를 이루었으나 이를 아는 이가 차츰 세상을 떠나 많이 잃기도 했고 현대라는 각박한 서구문화에 밀려 그냥 버려져 왔음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이에 반하여 여기에서는 우리 인제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중 몇가지 전설에 대하여 그 의미를 찾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전 설 (傳說)

우리는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설화(說話)라고 말한다. 설화를 또다시 신화(神話)와 민담(民譚)과 전설(傳說)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나누어 볼때 신화는 내려오는 범위가 전국적이고 민담은 전승 범위에 제한이 없는데에 반해서 지역의 특징적

증거물을 뜻하고 있는것이 전설이라고 생각된다. 이중에 전설은 전국 어느 고장이나 특이하게 그 고장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나타내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전설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또한 의미가 지역에 관계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중 여기에서는 의견전설(義犬傳設)과 아기장수전설 또한 장자(長者)에 관한 전설을 몇 가지만 서술해 보고자 한다.

* 돈많은 사람, 또는 부자(富者)를 장자(長者)라고 함.

□ 남면 신남리의 닭바우와 망한부자

인제군 남면 신남1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형태가 닭처럼 생긴 바우에 얹힌 전설이다.

그 옛날 현재 닭바우가 있는 냇가 건너편 양지바른 넓은 뜰에 김씨네라는 부자집이 있었는데 하루에 지나가는 길손 및 손님이 20여 명씩 찾아와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집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골머리를 앓던중, 어느 날 하루는 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원하니까 시주는 얼마든지 할터이니 손님이 안드는 묘책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노승은 저건너 앞동산에 있는 닭처럼 생긴 바위를 가르키며 닭벼슬로 보이는 곳을 도끼로 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노승의 말에 고맙다고 하며 시주를 많이하고는 즉시 도끼로 닭바우의 머리부분을 깨어 버렸다.

그러자 깨진 닭바우에서는 피가 솟구치며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후 이상하게도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따라서 몇 해동안 계속 집안에 변고가 생기며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몇 해 못가서 아주 망해버렸다고 한다.

□ 서화면 가전리 개고개 전설

서화면 서화리와 수곡리 남쪽 벼랑아래에 있는 배양토 사이에 있는 개고개(浦峴)에 얽힌 전설로서 배양동에 살고있는 사람이 집에서 아주 영리한 개한마리를 잘 보살피며 기르고 있었는데 이 영리한 개는 집주인이 나갈때면 꼭 쫓아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집주인이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 사람 저사람 만나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쫓아온 개와 함께 만취상태에서 배양동 집으로 돌아오다가 개고개 마루턱에 다달았을때 술에 너무 취해 앉아서 쉬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이 영리한 개는 주인이 잠이 깰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인모르는 산불이 일어나 잠자고 있는 주인의 옆에서 불길 이 타오르자 이 영리한 개는 아래 갯물을 수백 번 오르내리면서 몸 에다 물을 흠뻑 적서 가지고 올라와 술에 취해 잠자는 주인의 주위를 넓게 돌면서 물적시기를 계속하였다 한다.

불길은 주위를 다 태웠지만 개가 뒹굴면서 적서놓은 주인의 주위에는 타지 않았다고 하며 주인이 몇 시간 후에 술이 깨어 일어나보니 자기가 누워있던 가까운 주의는 불에 타지 않았고 나머지 주위에는 불이 타 있었다 한다.

주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개를 찾아보니 이미 개는 기진맥진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다.

주인은 영리한 개의 덕에 힘입어 살아났음을 크게 느끼면서 한참 동안 죽은개를 끌어안고 울다가 그 자리에다 잘묻어 주고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자주 개의 무덤을 찾아보았다 하며 이러한 연유로 이 고개를 개고개라고 불려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상남면 미산리의 아기장수 전설

옛날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남전동(남발골, 쪽발터)에 전씨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는데 어느 여름 날, 하루는 장삼을 입고서 스님 한 분이 찾아와 시주를 구하기에 그 주인은 넉넉히 시주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시주를 받은 그 스님이 집 주인에게 “이 집에 장손이 없느냐”며 물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얼마 안 있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이 낳으면 꼭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스님은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려 다른곳으로 시주를 받으러 갔다.

그후 얼마있다가 이 전씨네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이 아이는 태어난지 삼일만에 높은 실렁이나 천정을 훌쩍 날아다니며 앓기도 하고 천정에 붙었다 하기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사를 낳으면 역적이라고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가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이 아이를 엮어 놓고 그 위에 팔을 세섬쯤 엮어서 깔아뭉개 죽이고 가까운 인근산에 묻었다고 한다.

아이가 죽은지 삼일만에 예전에 시주를 받으러 왔던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이 아이의 행방을 물으니 집주인이 그 사연을 이야기 하며 죽여서 묻었다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않고 사라져 버렸다.

이런일이 있는 후 저녁에 갑자기 장대같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뇌성을 울리며 번개가 쳤다. 그리고는 개인산 용늪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용마가 나타나 울면서 그 주의를 해맸다 한다.

얼마 후 그 용마는 용소에 빠져 죽었다 한다.

그 후 이곳이 용소라고 명의를 생겨났다고 한다.

□ 인제읍 덕산리의 아기장수 전설

지금으로 부터 약 200년전 인제읍 덕산리와 덕적리 사이에 용부

터라고 하는곳에 장군석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이곳 마을에 살고 있는 전씨라는 집안에서 초상이 나서 장례를 지냈는데 산을 쓸때에 이 장군석을 정방향으로하여 양대를 썼다한다.

그런데 몇년 후 이 전씨네 집안에 장사가 태어났다 하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양쪽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나 있어 방안의 천정에 붙었다가는 실경위로 날아가 앉고는 하였다 한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집안이 망할 징조이며 나라에서 역적으로 불린다는 징조이니 아이를 없애라고 하여 마침내 주인은 그 아이를 엮어놓고 실경의 나무를 떼내어 아이위에 올려놓고 눌러 죽였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날개달린 용마가 내려와 울면서 사방을 헤맸다고 한다.

그 후 이 집에서는 집안에 용마가 또 나타날까봐 장군석을 바라보고 양대를 썼던 산소를 파서 이장을 하였다 한다. 또한 관청에서는 석수쟁이를 동원하여 장군석의 머리와 목을 정으로 쪼서 없앴다고 하며 이 장군석의 목이 떨어질때에 이 바위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와 주위는 물론 앞 냇가까지도 유혈이 낭자하게 흘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기린면 방동리의 아기장수 전설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마을에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옛날에 어느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로써의 몸집이 아주 큰 장군으로 태어났다 한다. 그러니까 여장군이 태어난 것이다.

마을에서는 무조건 집안에 장군이 태어나면 그 집안이나 마을에 재앙이 일어나 망한다고 걱정을 하며 떠들썩 하였다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여장군이 태어난 집에 찾아가 빨리 그 아이를 죽여 없애라고 하여 집주인은 동네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 즉시 아이를 죽여 없앴다고 한다.

그런 후 이 마을에는 하늘에서 날개가 달린 용마가 내려와 울먼서 헤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용마가 나타나는 곳이 마골두루, 용마가 빠져죽은 곳이 도랑소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여장군이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특이한 전설이며 이 여장군 아이를 죽일때 떡암반으로 눌러 죽였다고 전해진다.

□ 서화면 서화리의 아기장수 전설

옛날 이 마을에 최덕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집안에서 자손이 장군의 명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에는 집안에서 특이한 장군이 태어나면 그 집안의 삼죽을 멸했다 한다.

삼죽은 그 집안과 처가집, 외가집을 말하며 이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 최덕원의 집안에 그런 엄청난 명장군이 태어났는데 삼죽이 멸하게 됐으니까 그 아이를 낳자마자 떡암반으로 애를 덮어놓고 장정 세명이 눌러 죽였다 한다. 떡암반을 눌러 장정이 세명이 올라 앉으니까 어떻게나 그 아이의 힘이센지 들렁들렁 하였다 한다.

그 장군아이를 죽여서 마랏여울이라는 곳에다 파묻는데 갑자기 서편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돌변하여 오면서 장대같은 비를 뿌리며 뇌성을 울리고 번개가 치면서 지척을 모르게 비가 쏟아졌다 한다.

주인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온 후 새낭소라는 곳에 용마가 나타나 소리를 치면서 강을 건너 왔다갔다 하다가 사라져 버렸다 한다.

어느만큼 비가 오다가 날이 개어 주인은 다시 아이를 묻은곳에 가보니 무덤은 갈라져 있고 파묻은 아이는 없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인제읍 고사리의 아기장수 전설

인제읍 고사리 앞을 흐르는 내린천 물은 맑고 깨끗하게 유유히 흘러내려 심산유곡의 적막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복지개봉 골짜기에 졸졸 흘러내리는 도랑옆 양지바른 언덕 위에 중년부부가 한가로히 살고있는 집이 있었다.

이 집주인은 이름은 김덕용이요, 아내는 안옥녀였다. 봄이면 복숭아꽃, 살구꽃이 아름답게 활짝피고 가을이면 오색찬란한 단풍이 곱게 물들어 운치를 자아내는 이곳 부부는 나이 45세가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자식하나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개탄하여 “자식하나 점지하여 주십시오”하고 매일같이 정성껏 기도드린 보람이 있어 부인은 태기가 있게 되었다.

아들낳기만을 고대하던 중 마침 소망이 이루어져 사내아이를 낳게되어 이름을 칠성이라 지었다. 온 동네의 축복을 대단하게 받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람하고 귀꼴도 장대하여 장사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괴이한 사실은 출생한지 3일만에 어머니가 재워놓고 빨래하고 돌아와 보니 칠성이가 문고리를 뿔으려고 힘을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 후 8일만에 높다란 선반위에 올라가 매달렸다가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이 엄청난 장난에 놀란 어머니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늘어놓자 남편은 “지성이면 감천이지”하면서 기뻐하기만 하였다.

다음 날 일터에 나간 아버지는 마을사람들에게 자랑이나 하듯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듣고있던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 것이 아닌가?

“자네 그것 큰일났네. 틀림없이 장사를 낳았는데 장사를 낳으면 다섯 살 안쪽에 부모를 헤치고 집을 뛰쳐나가 인적없는 심산구중에 들어가 도를 닦고 무술을 연마한다네. 그러니 어서 크기전에 처치해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을걸세”하고 이구동성이다.

자랑삼아 이야기한것이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졌다.

김씨는 아내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 하여 칠성이를 없앨것을 결정

하고 아랫목에서 잠을자고 있는 칠성이 가슴위에 큰 뱀돌을 짓눌러 놓았다.

이 순간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뱀돌짝이 굴러 떨어지고 칠성은 한 번 뒤집어 누은것이 아닌가? 이에 당황한 김씨는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라 노끈으로 다시 수족을 묶어놓고 뱀돌짝을 또 올려 놓았다. 그리하여 칠성은 태어난지 9일만에 부모의 손에 숨지고 만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도 하늘에는 서리가 뻗치고 하늘에서 용마가 내려와 집주위를 돌며 뇌성벼락같은 목소리로 울기를 3일 마침내 용소강을 뛰어넘어 산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용소앞 벼랑에 치솟은 바위에는 돌뚜껑을 한 장수우물이 생겼다고 하여 그 후부터는 이곳을 장수터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 남면 어른리의 장자골전설

저 너머 지금은 집이 비어있는데 김옥봉씨 아들이 살고 있다가 지금은 김부리로 이사를 가서 살고있는데 옛날에는 그 집자리에 부자가 살았다.

성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손님이 하두 많이 찾아와 이 집에서는 손님대접하느라 밥을 지울때 쌀뜸물이 많이나와 어른 1리까지 뿌영게 냇물로 흘렀다 한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 부자집에 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원하며 목탁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얼른나와 시주를 듬뿍하며 노승에게 말하기를 “대사님 우리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손님들을 못오게 하는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한다.

노승은 며느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앞산에 올라가면 향아리처럼 생긴 독바우 2개가 나란히 서있는데 그 독바우의 밑을 파서 넘어트리면 손님이 끊어진다고 일러주었다.

이후 며느리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 독바우를 찾아가 쓰러트렸다고 한다. 그러자 이 집에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집안에 재앙이 생기며 몇 해 못가서 망했다고 한다.

□ 부자가 망한 대흥동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인색하기 짝이없는 부자 김대흥(金大興)에 대한 전설이다. 부러운 것 하나없이 살고 있던 김대흥 집에 하루는 남루한 옷을 걸친 스님이 와서 시주를 청했다.

때마침 외양간에 치우고 있던 그는 「무엇을 줄게 있어야지, 외양간에 있는 쇠똥이나 가지고 가시오」하면 쇠똥을 스님의 바람에 담아 주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이것을 본 며느리는 당황하여 만류하는 말이 「개도 안먹는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 죄송스럽습니다. 등겨(쌀겨)가 있으니 그것이나 한 바가지 주어서 보내지요。」하고 며느리는 그것도 아까와 하는 시아버지를 설득하여 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 몰래 쌀을 큰 바가지에 가득 담고 그 위에 등겨를 덮어서 스님의 바람에 넣어 주었다.

그랬더니 스님은 감동하여 「댁에 화가 급습할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엮고 나를 따르면 그 화를 면할 수 있을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스님을 따라 집 뒤 능선을 올라가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도중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였다. 그러던 순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무시무시한 뇌성의 벼락이 일며 소나기가 퍼부어 큰 홍수가 내려 했다. 집안일이 근심이된 며느리가 스님의 다짐도 잊고 떠난 집을 뒤돌아 보았다. 홍수는 이미 집을 뒤 덮고 집의 흔적도 없었다.

이를 보고 막연 실신한 며느리는 마침 스님의 말을 어긴탓인지 화석화(化石化)가 되고 말았다 한다. 후세의 사람들은 인색한 부자 김대흥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대흥동 이라고 부른다.

현재 대홍동은 소양댐 건설로 인한 수침으로 관대리 선착장에서 배편으로 건너가서 2Km쯤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3. 맺음말

우리가 평소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전설들은 많다. 그리고 이 모든 전설들을 들을때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때우려고 또한 흥미롭게만 이 모든 전설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모든 전설들이 지니고 있는 뜻을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전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그 내용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앞에 정리되어 있는 전설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인이 개를 데리고 장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산마루에 이르러 숲속에서 잠이든다. 숲에 불이 붙어 개가 개울까지 달려 내려가 몸에 물을 묻혀 가지고 오기를 여러 번 되풀이 하여 불을 끈다.

진화구주형(鎭火救主型)에 속하는 내용으로 희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장자(부자)집에 관한 전설 내용으로서 늘 손님이 많이 찾아와 머느리는 귀찮아 했다. 시주를 청하려 온 스님에게 머느리는 손님이 오지않게 하는 방책을 묻는다. 스님이 머느리에게 그 방책을 가르쳐 주고 머느리가 그대로 조치를 취한다. 그 후 부자집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결국 몰락한다.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좋다는 것과 함께 살아가자는 두레정신의 뜻이 담겨져 있다.

아기장수설에는 시골의 어느집에 아기가 태어난다. 그 아이는 거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있어 공중을 날아 다닌다. 부모는 두려움을 느껴 아기를 죽인다. 용마가 나타났다가 아기 죽음을 알고 용마도

죽는다. 부모도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 집이 몰락한다. 아기장수는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 깊은 뜻은 피지배층이 지배계층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이 형상화 되어있다.

신화가 전설로 변모해 온 과정 그리고 전설화의 과정에서 희극성이 강화되는 양상과 그 나머지 전설의 경우처럼 희극성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양분되어 변모해온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고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하나 하나가 좀더 과학적으로 채록되어야 할 것이다. 전승지역의 지역적 여건,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전승의도, 미학적 감수성 등이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고사 . 겨어집편
기문본

敬名思想 (경명사상)

한자문화권에서 생활해온 우리의 옛조상들은 일찍부터 한 인간의 상징인 개개인의 이름을 몹시 존중하는 경명사상(敬名思想) 때문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다만 성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군사부(君師父), 즉 임금과 스승과 부모뿐이었고 그외 사람이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름대신 누구나 허물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낸 것이 자(字)였다. 말하자면 자는 경명사상때문에 생겨난 제2의 호칭이었던 것이다.

예기(禮記)에 보면 「남자는 20세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자를 짓는다.(男子二十冠而字)하고 여자는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를 행하고 자를 짓는다(女子許家笄而字)」하였다. 자는 대개 관례때 손윗사람들에 의해 지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들의 자를 한꺼번에 짓기도 하였고 후에 그 글자를 바꾸는 예도 없지 않았다.

우리 선조들이 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신라때부터였는데 조선조에 와서 크게 보편화되었으나 이 역시 평교(平交) 이상의 호칭이 돼버리자 이번에는 호(號)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호는 본래 중국에서 서재(書齋)나 정자 별장 주거 충생지등에서 연유해서 붙인 이름으로 시문(詩文)이나 서화등 작품의 서명에 많이 썼는데 송나라때부터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호는 보통 자신이 짓기도 하나 선배나 은사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관례인데 나이나 성별 지위에 따른 제약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지난 시절 이름을 아끼고 호를 더 임의롭게 썼음은 역사인물들에게서 잘나타나는데 한호보다는 한석봉으로, 이황보다는 이퇴계로, 이이보다는 이율곡으로 정약용보다는 정다산으로 우리의 귀에 더 익숙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義(의)롭게 살자

춘추시대의 은자(隱者)였던 초(楚)나라의 접여(接輿)는 밭을 갈아먹고 살았다.

어느날 저자에 갔다 돌아온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이 젊어서는 매우 의(義)롭게 지내더니 어찌 이제 늙어가면서 그것을 버리려 하나니까? 문밖에 웬 수레바퀴자국이 그리깊이 났나요?」

접여가 말하였다. 「임금께서 나의 불초함을 알지못하고 나에게 회남(淮南)땅을 다스리라하시며 사신에게 금과 네필 말이 끄는 수레를 보내시어 초빙하는 구려.」 그의 아내가 말하였다. 「허락을 아니하셨겠지요?」 접여가 말하였다. 「부귀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오. 그대는 어찌 내가 허락하는 것을 싫어하오?」 아내가 말하였다. 「의로운 선비는 예(禮)가 아닌 경우에는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또 가난때문에 절개를 바꾸지 아니하며 천한 것을 위하여 행동을 고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며 몸소 밭을 갈아 밥을 지어 먹고 길쌈을 하여 옷을 지어 입어도 배불리 밥을 먹었고 그 옷은 따뜻하였습니다. 의로움에 의지하여 그에 따라 움직이던 즐거움에도 또한 절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남이주는 무거운 녹을 받고 남의 좋은 수레를 타며 남의 살찐 고기와 생선을 먹는다면 장차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에 접여가 「내 허락치 않을 것이오」말하니 아내답하되 「임금이 시키는대로 따르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나 어기는 것이나 모두 의(義)는 아닙니다. 그러니 떠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접여는 술과 시루를 등에지고 아내는 베를 머리에 이고 성을 갈고 이름을 바꾸어 멀리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度量(도량)

宋나라에 呂夢正이란 名臣이 있었다. 뛰어난 인품이며 재능으로 선배들을 제쳐놓고 재상자리에 올랐다. 자연 둘레에서 시샘도 많이 받았다. 어느날 여러 관리들이 모여앉아 한가하게 잡담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앞을 지나가는 그를 보자 한사람이 들으란듯이 빈정거렸다. 「저런 친구도 재상이 되다니 세상 참 ……」

여맹정은 못들은체하고 스쳐지나갔다. 그러나 뒤를 따라가던 부하는 그냥 둘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자리에서 욕한 관리의 관등성명을 알아내려했다. 여맹정은 급히 부하를 말렸다. 「선불리 이름을 알고나면 한평생 잊지못하게 된다. 그러니 모르는체 넘어가는게 좋다. 그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다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또 실없는 망언이라 여기면 되지 않는가.」

이 소문은 당장에 온 세상에 퍼졌다. 여맹정의 평가는 이때부터 정충 뛰었다.

賢者 加高可下 (현자 가고가하)

국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백범 김구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압록강을 건너 상해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있었다. 백범은 내무총장으로 국무총리를 대리하고 있던 도산 안창호선생에게 임시 정부의 「문과수(門把守)」를 보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도산은 의아했으나 「실력이 없는 허명(虛名)을 탐하기를 두려워할 뿐더러 감옥에서 소재를 할때에 하느님께 원하기를 생전에 한번 우리정부의 정청(政廳)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하여 줍소서하고 기도했다」는 백범의 간곡한 말을 듣고 그의 뜻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백범에게는 경무국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진다.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어 정청의 앞마당을 쓸겠단 백범은 일

약 경무국장이 되고 그로부터 5년만에 내무총장의 자리에 오르고 다시 2년뒤에는 임시정부의 원수인 국무령에 취임한다. 그의 사심 없는 애국충정이 결국은 최고의 명예를 안겨준 것이다.

임진왜란때 이순신장군은 원군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그것에 한을 품지않고 끝내 백의종군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우국충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고 있다.

옛말에 현자는 가고가하(賢者 加高可下)라 하였다. 현명한 사람은 높고 낮음을 꾀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자 또한 말하기를 「대인은 마땅히 남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大者宜爲下)」면서 「인재를 잘 쓰는 사람은 항상 남의 아랫자리에 있으며 겸양과 담박(淡泊)으로 남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善用人者爲之下)」고 말하였다.

백범이나 충무공은 사리(私利)에 연연하지 않고 대의(大義)에 몸바침으로써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고 자종은 부귀공명을 홍모(鴻毛)와 같이 여김으로서 탈속의 삶을 즐길 수 있었다.

寓菴(우암)이나 退齋(퇴재)

한 시대의 정세(情勢)가 그릇 흘러가고 있다 하자. 그 시세에 영합하여 보신(保身)을 하며 영화를 누리느냐, 그 시세에 저항하여 살신(殺身)하고 뜻을 세우느냐의 선택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역사는 이 가혹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비운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선비사회에는 이 선택을 형용하는 은어(隱語)가 있어내렸다.

바로 「퇴재(退齋)에 들것이나, 우암(寓菴)에 들것이나」는 것이 그것이다. 선비들 사랑채에는 당호(堂號)를 지어 현판을 걸어 놓게 마련이다. 그 사랑채 이름을 자신의 아호(雅號)로 쓰는 것도 상식이 돼있었다. 퇴재는 연산군때 간신(奸臣) 김안로(金安老)의 사랑채 이름이요, 우암은 연산군때 충신 홍언충(洪彦忠)의 사랑채 이름이다. 곧 어느 사랑채에 들것이나는 선택항(選擇項)이다. 이 말이

있게 된 연유는 이렇다.

대제학(大提學)의 벼슬에 있던 우암(寓菴) 홍언충이 연산군의 악정에 사사건건 저항을 하자 화난 임금이 가혹한 고문형을 가했다. 사지가 탈골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옥문(獄門)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때마침 홍문관(弘文館)에서 더불어 글을 읽던 간신 김안로가 지나가다 보았다. 「참혹하도다. 우암……」하자 「홍문관의 물이 묻어 이 지경이네」하였다. 홍문관은 바로 학문하는 곳이기에 학문의 물을 자신의 몸에 스며나온 피로 비유한 것이다.

이에 김안로는 「지혜를 죽이고, 학식도 몽매해져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못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고 시세에 영합하도록 유혹을 한다.

「그게 무슨말이냐. 살아서 고생하는 중에도 혹시 나를 기억해주는 것은 학문때문이요, 지옥에 가더라도 따돌림당하지 않아 외롭지 않게 되는 것도 학문 때문이다. 이렇게 모질게 화를 당한 것도 학문 때문이지만 또 그만큼 학문의 힘으로 얻는 것도 많으니 어찌 불의한 시세 앞에 나의 학문을 꺾는다는 말인가.」

이 날카로운 대결을 두고 우암에 드느냐 퇴재에 드느냐로 수많은 선조들이 시련을 당했을 것이다. 퇴재(退齋)에 들기는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랑채의 문턱을 닦아냈다. 우암(寓菴)의 높은 문턱은 먼지가 소복하게 마련인데－. 하지만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래도 「홍문관의 물」을 쏟아가며 우암에 드는 사람이 얼마큼은 반드시 있었다.

人間本性(인간본성)과 社會惡(사회악)

사람은 善에 感化를 받기가 쉬우냐 惡의 感染되기가 쉬우냐 하는 것은 옛날부터 문제되어온 것이다. 性善이니 性惡이니 하는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성품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사실이므로 善惡 어느쪽에 기울어지기가 쉬우냐하

는 것은 각개인을 따로 따로 따져보아야 할일이고 一律로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금일의 세태를 보면 善이란 것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든 반면에 대소무수한 惡만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으니 性惡說을 시인할 수 없다면 惡에 감염되기가 쉽다는 것만이라도 인정해야 할 듯하다. 특히 얼마되지 않은 금전을 탐내서 인명을 살해하는 일이 非一非再한것을 볼때 그러한 느낌이 더해진다.

허지만 반드시 그런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두어야 할 듯하다. 그 증거로 옛날 이야기 한토막을 여기 소개코자 한다. 山기슭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골農夫하나가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밭가로 지나가면서 보자기에 싼 물건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했다. 풀어보니 큼직한 金덩어리였다.

그것을 떨어뜨린 말탄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해서 農夫는 그것을 그대로 밭가에 놓고 일을 계속하고 있노라니 몇시간후에 그 말탄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農夫더러 「얼마전에 무슨 物件 떨어뜨린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고 물었다. 農夫는 서슴치 않고 「여기 그 物件이 있으니 가져가시오」하고 대답했다.

말탄사람은 잃었던 金덩이를 찾은 것이 하도 고마와서 農夫에게 그 반을 주겠다고 했다. 農夫는 정색을 하고 「내가 무슨일 때문에 당신의 金덩이를 나누어 가지느냐」하며 딱 거절을 했다. 물건임자가 다시 권해보았으나 農夫는 莫無可奈로 받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물건임자는 한참동안 무슨 생각을 하다가 農夫에게 가까이가서 자기의 심경을 말했다.

「나는 도적으로 이 金덩이는 남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나는 남의 물건만을 강탈하는데 당신은 내가 준다는 것까지도 거절하니 세상에 이와같은 동떨어지는 일이 어디있습니까」하고 그는 그자리에서 모든 전과를 회개하고 그 金덩이를 본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동시에 일생을 그 農夫와 같이 農事지으면서 보냈다는 것이다. 아 農夫와 같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社會에 많다고 하면 惡을 물리치기는 그리 힘들지 않을 것 같다.

뒷절의 스님 아들

옛날 어느 외진 시골에서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부모는 집안 창피라고 펄쩍 뛰면서 상대방 남자가 누군가를 추궁하자, 딸은 뒷절의 스님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 받들어 모시는 스님이라고 하면 자기의 저지를 실수가 그만큼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다.

딸이 아이를 낳자 부모는 뒷절을 찾아가 갖은 욕설을 퍼붓고 네가 만든 아이니 네가 기르라고 갓난 아기를 내동댕이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스님은 욕이란 욕을 묵묵히 먹어가며 한마디 변명도 않고 그 갓난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웠다. 일년후, 처녀에게 아이를 배게 하고 떠났던 남자가 돌아와 뒷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깊이 사과하고 성장한 아기를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그 스님의 높은 덕을 더욱 숭앙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얼 굴

호승(胡僧)의 눈이 어찌 남칠(濫漆)하여 푸르겠는가/선객(仙客)의 얼굴은 원래 술힘 빌어 붉은 것 아니네/옥(玉)은 본래 티가 없으면 광채 또한 좋나니/마음밭이 진실로 깨끗하면 얼굴모양도 그러하리라.

〈己和·함허화상어록〉

사람의 얼굴은 천태만상, 사람따라 그 생김생김이 제각기 다르다. 비슷비슷하면서도 똑같지 않은 것이 사람의 얼굴. 사람마다 모두다 다른 것이 바로 얼굴이다.

우리는 얼굴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낸다. 얼굴이 그사람을 대표하고 얼굴이 그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다른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곧 얼굴인 것이다.

사람은 제각기 제얼굴을 갖고 있다.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아

름다운 얼굴, 추한 얼굴, 덕스러운 얼굴, 인색한 얼굴, 하얀 얼굴, 검은 얼굴, 누런 얼굴……。 모두 다른 얼굴을 갖고 있다.

얼굴은 사람마다 표정을 갖는다. 할머니는 인자한 표정을 갖고 성직자는 사랑과 자비의 표정을 갖고 군인과 경찰은 경계의 표정을 갖고 잠자는 아기는 평화의 표정을 갖는다.

얼굴은 또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인다. 기쁘면 기쁜 얼굴을, 슬프면 슬픈 얼굴을, 행복에 겨우면 행복한 얼굴을, 괴로우면 괴로운 얼굴을, 화가 나면 화난 얼굴을 보이게 마련이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조화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얼굴의 표정만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착한 표정 악한 표정 기쁜 표정 슬픈 표정을 그때 그때의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다.

얼굴이야말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하직할때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하는 첫번째 상징이요, 간판인셈이다.

링컨은 「사람이 나이 사십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잘났든 못났든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얼굴을 책임지는 사회, 그 사회는 좋은 사회다. 이런때일수록 자신의 얼굴을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人生非經濟學 (인생비경제학)

「옷케」라는 새뮤얼 베케트의 단편소설 생각이 난다. 고풍(古風)의 낡은 옷케가 있다. 장식에 녹이 슬었으니, 인테리어에 조화가 안되느니, 구조가 시대에 뒤졌느니, 마녀가 나올 것같다느니……。 갖은 수모를 당해가며 이방저방으로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작업방의 작업대로 상처입고 페인트칠 디딤판으로 얼룩진 물골이 되고 만다.

끝내는 외딴 창고에 버려진다. 어느 비오는날 흠뻑 젖은 남녀가 비를 피해 창고에 찾아든다. 옷케위에 앉아 애무를 하고 나간다. 옷케를 흠뻑 적셔놓고서 -.

오늘을 살고있는 노인이면 이「옷케」에서 절감되는 뭇이 있을 것이다. 늙으면 기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아리아리해지며 고집만 기승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옷케처럼 소외당하게 마련이다.

심리학자 JW스틸이 연구한 것을 보면 노인은 세상이 생각한 것처럼 옷케는 아닌 것이다. 기억력의 절정은 10~23세요, 상상력의 절정은 20~30세요, 창조력의 절정은 30~55세이며, 판단력의 절정은 45~80세이다, 체력의 절정은 18~28이요, 정력의 절정은 25~35세, 기력(技力)의 절정은 33~43세, 인력(忍力)의 절정은 38~48세, 지력(志力)의 절정은 40~70세로 측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물이나 사리를 판단하고 뜻을 세우는 일은 70~80세까지 왕성하다는 것이 된다.

미국 최고재판소의 판사들이 80고령이 많고 또 드골, 레이건 등 각종 역대수뇌로서 80세에 까지도 지도자가 많음도 바로 이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늙어도 쓸모가 있고 그 쓸모를 찾아 노인인력을 잘 활용했던 것이다.

기원전 2천년의 고대 히랍 평균수명은 18세요. 기원전 5백년의 로마 평균수명은 22세였다. 1840년의 유럽 평균수명은 54세, 1차대전이 끝나던 1945년에만도 62세에 불과했다. 70세로 신장된 것은 1955년의 일이다.

人間研磨 牛步 (인간연암 우보)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는데 울타리 너머로 말 한마리가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를 본 공자는 「소로구나」라고 혼잣말로 뇌까리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말을 보고 소라고 하는 스승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지 시오리쫄 가서야 안회(顔回)가 맨 먼저 깨달았다. 말을 뜻하는 「午」가 머리를 들어 올리면 소를 뜻하는 「牛」가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제자가운데 으뜸인 안회일망정 스승인 공자에 비하면 그 두뇌의 명석함이 시오리나 멀리 떨어진다는 비유라기도 하고 학문을 너무 서두는 안회를 달려가는 말로 비유하고 소처럼 서서히 하라는 교훈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우보(牛步)를 가르친 고사가 있다. 남명(南冥) 조식(曹植)선생의 문하에서 학업을 마치고 떠나가는 정탁(鄭琢)에게 남명이 말했다. 뒤란에 매어 둔 소 한마리를 자네에게 주노니 몰고 가게나 했다. 매어놓은 소가 없는지라 어리둥절하자 남명은 말했다.

『군을 겪고 보니 언어와 행동 그리고 의기가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운 것이 날랜 말과 같은지라, 날랜 말은 넘어지기 쉬운 것이다. 살아가는데 어리석고 둔한 것을 침착해야만이 비로소 능히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므로 자네에게 소를 준다는 것이네.』 곧 남명이 정탁에게 준 소는 마음의 소요. 우보(牛步)의 교훈인 것이다. 그후 정탁은 항상 이 마음의 소와 더불어 우보의 처세를 게을리 하지 않은 바람에 정승에 오르고 또 오르는 동안 대과가 없었다고 말버릇처럼 말했다 한다.

또 매사를 서둘러 빨리 가고 빨리 돈벌고 빨리 높아지고 싶은 한국인의 성비를 경계하는 우화(寓話)로도 우보(牛步)가 등장한다. 한 장꾼이 등짐을 지고 장보러 가는데 소 한마리가 등에 짐을 얹지 않은 빈 길마로 가고 있음을 보았다. 기왕 빈 길마로 가느니— 하며 장꾼은 자신이 져던 등짐을 소길마 위에 얹었다. 한참 가다가 기왕 가는 길이면— 하고 소등에 올라탔다. 타고가던 장꾼은 기왕 가는 길이면 빨리 가고 싶어 발로 옆배를 질러댔고, 더 빨리 달리고 싶어 채찍질을 해댄 것이다. 놀란 소가 뛰어대는 바람에 장꾼은 나뉘굴어 팔다리가 부러지고 짐은 산산이 부서진채 풍비박산이 된 것이다.

인생처세에 우보의 지혜를 역설적으로 설득시켜주는 우리 전래 우화랄 것이다.

幸福한 三人 (행복한 3인)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가.』영국의 한 신문이 이런 현상 모집을 한적이 있다. 이때 으뜸상을 받은 것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이』였다. 두번째가 하루 집안일을 마치고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 세번째가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의사, 그리고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콧노래를 부르는 예술가였다.

어린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동안 무한한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때의 어린이는 티없이 맑고 無心하다. 그 모래성은 어찌면 허망한 삶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아는 지 모르는지, 어린이에게 있어 모래성의 완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모래성을 쌓는 한 순간 한 순간에 다시 없는 즐거움을 느낄뿐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행복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행복은 우리 눈에 비치지 않는 아득히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아무리 발돋움 해도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드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곳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 가까이에 널려있는 행복을 놓치고 만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욕심없이 성실하게 살아 나가는 어린이의 마음을 잃고 있는 것이다.

幸福의 條件 (행복의 조건)

사람들은 새 태양을 향해 많은 것을 맹세하고 많은 꿈을 꾸다. 뒷보다도 우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피테에 따르면 행복한 생활의 조건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노동을 즐겁게 여길 수 있을만큼 건강할 것. 둘째 생활에 아쉬움이 없을만큼 넉넉할 것. 셋째 어려움과 싸워서 이를 이겨낼만큼 강할 것. 넷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를 털어버릴만큼 고상할 것. 다섯째 좋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해나가는 참을성이 있을 것. 여섯째 자기 이웃에서 미덕을 찾아

넬만큼 마음이 너그러울 것.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만을 말끔히 씻을만큼 희망을 가질 것. 서양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우리는 예부터 五福을 바라왔다. 그건 대부분이 사람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늘 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한다. 그러나 행복은 하늘에서 절로 굴러 떨어지는게 아니다.

家庭의 幸福 (가정의 행복)

『제왕이건 농부이건, 그 가정속에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獨 「괴테」),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세상을 방황하다가, 가정에 돌아왔을때에 그것을 발견한다.』(英 「무어」), 『지금까지 행하여진 가장 용감한 싸움은 어머니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싸움이다.』(美 「밀러」), 『자기 자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아버지다.』(英 「셰익스피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나이는, 자기집에 암사자를 기르고, 슬픔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인간이다.』(英 「테일러」), 『어린이란 조화의 신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기적적인 것이고, 그 성숙을 자기의 뱃속에서 이룩해온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미술적인 것이다.』(佛 「보바르」), 『부모의 그릇된 사랑은 아이의 본질을 타락시킨다.』(英 「로크」),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나의 집이라는 인상을 어린이에게 주는 어버이는 훌륭하다.』(美 「아빙」).

人生死計 (인생사계)

프랑스작가 보부아르는 영원히 죽지 못하게끔 숙명 지어진 한 사나이를 소재로 중편소설을 쓰고 있다. 늙어서 육체는 시들고 추악해져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소외받고 강아지마져 가까이 가면 도망쳐 버린다. 하고싶은 것도,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고독과 권태의

연속이다. 유일하게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자살이다. 한데 자살을 기도하면 죽지못하게 돼있는 숙명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 이 보부아르의 소설을 읽고 나면 죽음이 덜 무서워진다.

앙드레 모로아는 「죽음의 기술(技術)」에서 인생의 호기심 가운데 가장 큰 호기심이 죽은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잊어버리는 「망각의 강」이 있는가, 또 스리랑카의 저승처럼 타고 돌면 이승에서 정들었던 사람은 모두 만날 수 있다는 회전목마가 있는가 없는가 …. 빨리 죽고 싶은 신나는 기대가 아니겠는가. 동서고금 할것없이 죽음이 덜 무섭고 또 즐겁게 맞이하는 기술을 적은 책들이 많다.

송(宋)나라의 주신중(朱新仲)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생계(生計) 신계(身計) 가계(家計) 노계(老計) 사계(死計) 도합 인생오계설(人生五計設)을 써놓고 있는데 그 중 사계(死計)는 이렇다.

죽음이 무섭고 이를 피하려 함은 첫째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요절하여 인생을 못다 산데 대한 억울함, 둘째 정든 처자나 권속친지, 산천을 떠나 혼자서 캄캄한 저승을 헤맬 소외와 고독에 대한 두려움, 셋째 이승이 환락-공명-권세-재산을 조금도 갖지못하고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아까움, 넷째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못다하고 중도에 좌절해야 하는 아쉬움, 다섯째 자손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가야하는 안타까움이라 했다. 이 억울함, 두려움, 아까움, 아쉬움, 안타까움을 극소화하는 노후작업을 세워 차근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사계(死計)라 했다.

명종(明宗)때 한양에 소문난 점장으로 홍계관(洪繼寬)이라는 이가 있었다. 정승 상진(常震)의 한평생 길흉(吉凶)을 미리 점쳐 두었는데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고 들어맞았기로 죽은해 죽는날까지 점쳐 두었다. 상진 대감은 3년 남은 그 죽음을 편안하게 마치고 싶어 주신중의 다섯 조목의 사계(死計)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세워 나갔다. 곧 죽음이 억울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으며, 아쉽지 않고 안타깝지 않게 인생을 정돈하고 재산을 정리했으며, 유언을

씨 남기고 가훈(家訓)을 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죽음을 겸허하게 기다렸다.

한데도 죽지않았다. 홍계관을 불러 점이 맞지 않은 것을 꾸짖자 「아마도 대감이 언젠가 베푼 음덕(陰德)이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 분명합니다」고 베푼 음덕을 생각해 보도록 권했다. 상진대감은 옛날 길가다가 금잔두개를 주웠는데 대전(大殿)의 수라를 관장하는 별감(別監)이 자제혼사에 쓰고자 몰래 내가다가 잃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들추면 사형당할 것을 숨겨주고 제자리에 갖다 놓게하는 음덕으로 15년을 더 살다 죽었던 것이다.

孫秉熙(손병희)의 셋째딸

3.1 민족대표 33인의 영수인 손병희(孫秉熙)의 따님이요. 「어린이의 아버지」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의 미망인 손용화(孫溶嬋) 여사의 이야기이다.

아현동에서 셋방살이 하던 그 미망인은 서른살에 청상과부가 되어 30년만에 회갑을 맞이하며 「석삼(三)」에 얹혀있는 자신의 운명을 되뇌던 생각이 난다.

낭군인 소파가 돌아가신것도 33세요 기일(忌日)도 3일이며 자신은 3.1운동을 33인의 영수 손병희선생의 셋째 딸로 태어났고 소파와 중매를 한 것도 33인의 한분인 권병덕(權秉惠)씨이고, 자녀도 3남매를 두었으며 그 딸하나도 33인중의 한분인 라용환(羅容煥)씨의 며느리가 됐다. 그리고 소파의 30주기에 회갑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꼭 30년을 더 살고 90세에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고인을 두고 기억나는게 또 하나 있다. 원로교육자인 조동식(趙東植)선생이 동덕여학교선생으로 있을때 저고리 치마의 여자옷을 입지 않고 바지 저고리 사내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자매(姉妹)가 있었다. 여학교에 사내 아이를 통학시킨다하여 학부모로부터 벌떼같은 비난을 받은 것이다. 그 남장 여학생이 바로 민족지도자 손병

회 선생의 딸인 손용화 자매였던 것이다. 여자옷을 입히도록 찾아가 권하였지만 워낙 근엄한 분인지라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학부모들을 설득하느라 곤욕을 치렀다는 회고담을 들은 적이 있다.

한말 서울에 와 살던 미국인의 기록에도 남장시켜 기른 소녀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한 명사의 아들 생일잔치에 초대받아갔을 때 사내아이 옷한벌을 선물로 사들고 갔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내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잔치마당에 선물을 펴보였더니 모두들 깔깔대고 웃어대는 바람에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었다.」 실은 이 잔치의 주인공은 딸이요 터를 팔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장을 했을 따름이요 이제 아들을 낳았기에 남자옷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가계(家系) 가산(家産) 제사(祭祀) 상속의 매체로서 사내자식 광(狂)에 걸려있던 우리 조상들은 딸만 낳고 아들을 못낳았을 때 터를 아들로 팔게하는 주술적 수단으로 딸에게 사내옷을 입혀 길렀던 것이다. 곧 사내아이를 낳기 위한 예비방편으로서 남장(男裝)을 해야했던 한국여성 수난사의 산증인이기도 했던 손용화 여사다.

四 柱(사주)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3대에 걸쳐 여섯차례나 영의정을 지낸 정태화(鄭太和)가 대과(大科)에 뜻을 두고 삼각산 한산사(山寺)에 들어가 글을 읽었을 때 생년 생월 생시 사주(四柱)가 똑같은 한 젊은이와 공부를 같이 하게 됐다.

어느날 이 젊은이가 짐을 챙겨 하산하면서 말했다. 「사주쟁이가 날더러 재상이 될 팔자라하여 산사를 찾았는데 이제와 보니 공(公)은 권문세가(權門勢家)의 자손이요, 글도 뛰어난데다 사주까지 똑같으니 사주쟁이가 한말은 공을 두고 한말인 것 같소. 나는 분에 맞는 내 살길을 찾아 가겠소.」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고 하산해버렸다. 80이 넘도록 장수

한 정태화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백발노인 한 분이 찾아와 뵈기를 청하는데 바로 같은 사주팔자를 공에게 양도하고 하산한 그 젊은이었다.

「강원도 두메 산골 버려진 묵정발을 개간하며 살았는데 과부—노처녀—소박데기…노소가림없이 혼자 지낼 수 없는 사람은 모두 모이라고 광고하여 수백명의 여인들과의 사이에 아들 딸 손자 외손까지 합쳐 수천의 혈손을 두었소. 지금 그 아이들이 서울과 파주 사이에 살고 있어 한번 다니러 나왔는데 하루에 한집씩 들러 식사대접을 받기를 석달을 했는데도 아직도 다 들르질 못했소.」

이 말을 듣고 공이 그토록 복이 남아도니 내 사주팔자는 영감 것이었소 하자 「네것 내것이 어디 있겠소. 공은 그렇게 형설의 공으로 각고(刻苦)했기에 이 지체에 올랐지. 무슨 사주팔자타이겠소」했다. 이를 받아 공은 말했다. 「영감은 못먹고 사는 고과(孤寡)에 자비를 베풀었기에 복방석에 오른 것이지요. 사주팔자란 부질없는 것이지요.」

사주팔자나 궁합이나 같은 결혼점, 그리고 결혼—이사—개업같은 택일운세점(擇日運勢占)이란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동서고금할 것 없이 점괘에 의존하려는 심리는 소멸하지 않고 있으니 웬까답일까.

인간만사 새옹지마

그 옛날 중국의 한족(漢族)은 북방의 이민족들인 오랑캐호(胡)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야기는 호지(胡地)와의 국경에 있는 성새(城塞)에서 시작된다.

그곳에는 점술에 뛰어난 한 노인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별까답도 없이 노인의 말이 호지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노인은 조금도 상심하는 빛이 없이 「이것이 어찌 복이 되

지 않겠소」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뒤 몇달이 지나자 달아난 말이 호지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노인은 조금도 기뻐하는 빛이 없이 「이것이 어찌 화가 되지 않겠소」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뒤 노인의 집에는 좋은말이 많아져 말타기를 좋아하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더니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상심의 빛도 없이 「아니오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소」하는 것이었다.

그뒤 1년이 지나자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마을 젊은 이들은 그들을 막기위해 모두 활을 들고 나가 싸워 열이면 아홉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인 탓에 싸움에 나갈 수 없었으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된다는 이 고사는 「회남자(淮南子)」의 「인간훈」에 전해온다.

죽음의 정의

영국 의학회는 ‘죽음의 정의’로 다음 네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첫째, 심장의 고동이 15분이상 정지한 상태, 둘째, 인공호흡이 끝난 후 5분이 지나도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세째, 뇌파를 기록하는 기계가 둘 이상 5분간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상태, 네째, 최후로 두명 이상의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증명할 때’이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는 여러가지다. 의학적인 죽음은 어디까지나 신체적인 면에서만 정의되어 있지만 세상에는 심장이 뛰고 숨을 내쉬고 있다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왼쪽가슴에서 고동치는 심

장이외로 인간들은 ‘돈’이라는 혈맥을 움직이고 있는 황금의 또다른 심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다. 우리는 ‘의학적 죽음’의 정의보다는 ‘경제적인 죽음’의 그 정의가 한층더 냉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죽음은 다음 네가지이다. ‘첫째, 실직상태가 1년이상 계속되는 상태, 둘째 은행부도를 낸 상태, 세째 돈을 빌려줄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때, 네째 법관이 파산선고를 내릴때’이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살아있어도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다.

潛在된 本性 (잠재된 본성)

고양이가 제우스神에게 애원했다. 자기를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제우스는 고양이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 사람이 되면 절대로 고양이 습성을 나타내서는 안된다고. 고양이는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이리하여 고양이는 여자가 되어 결혼까지 했다. 어느날 남편과 같이 자는데 천장에서 쥐소리가 났다. 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의 본성을 드러내고 천장으로 달려 올라갔다.

노한 제우스는 고양이에게 툭툭히 벌을 주었다. 이솝의 寓話에 있는 얘기다. 세살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네 속담도 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어지는게 아니다. 단단히 몸에 밴 버릇이라면 잠시 잊혀지다가도 언젠가는 저도 모르게 다시 나타난다.

遺言 (유언)

장자(莊子)의 병이 위독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임종의 자리에 모여 성대한 장례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장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과 땅이 곧 나의 널이요. 해

와 달과 별은 영전(靈前)의 공물(供物)이요, 만물은 모두가 조객(弔客)인데 그밖에 더 무엇을 할게 있겠는가. 내가 죽거든 나의 유해는 산야(山野)에 그대로 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하면 선생님의 몸뚱이는 까마귀와 술개의 밥이 될 것입니다.」 장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땅위에 놓아두면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요, 땅속에 묻히면 벌레의 밥이 될 것이거늘 어찌 그들의 밥을 빼앗아서야 되겠는가.」

세속을 초월한 도인으로서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사람들은 대개 마지막 숨을 거둘때 유언을 남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생을 마감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길을 떠남에 어찌 남길 말이 없으리오.

프랑스의 종교철학자 파스칼은 「신이여,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하고 눈을 감았고 인도독립의 아버지 간디 역시 암살자의 손에 쓰러지면서 「오오, 신이여!」하고 절규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임종이 다가오자 「불을 꺼라」 하였으나 「마지막 잎새」의 작가 오·헨리는 「불을 켜라. 어둠속에서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나치독일의 총통 히틀러는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는 「괴벨스여, 나와 아내의 시체가 불에 잘랐는지 확인하는걸 부탁한다」고 하였고,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총살형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러나... 대령이여!」하고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죽었다.

주은래 전중국수상의 미망인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치지도자였던 등영초의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전세계인의 가슴을 적시고 있는 모양이다. 8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그녀는 당중앙에 남긴 유언을 통해 자신이 죽으면 일체의 추모행사를 하지 말고 유해의는 의학용으로 해부한뒤 화장할 것과 그뼈와 재를 중국의 산하에 뿌려줄 것을 당부하고 또 자신의 남편이 함께 살던 집은 절대로 기념관 따위로 만들어선 안되며 국가소유인 이 집이 전 인

민을 위한 용도로 쓰여야 하며 자신과 남편의 친척들에게 그 어떤 특혜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청했었다.

15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의 혁명에 뛰어들어 일생을 나라에 헌신했던 등영초의 유해는 그녀의 유언대로 한줌의 재로 천진앞바다에 뿌려졌는데 국가 지도자들과 수많은 인민들의 눈물을 흘리며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鳥之將死 其鳴也哀 (조지장사 기명야애)

『그때 부처님은 히라니바티근처의 쿠시나라는 마을교외 말라죽의 영토에 속하는 사라의 숲에서 병들어 누워계셨다.

많은 비구들이 스승을 걱정하여 병상주위에 모여들었다.

이윽고 부처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입을 여셨다.

「비구들이여, 혹시 그대들 가운데 아직도 교법(敎法) 승가(僧伽), 그리고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묻도록 하라. 훗날 그때 내가 스승앞에서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러나 비구들은 아무말도 없었다. 스승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던 것이다.

부처님은 두번세번 거듭 재촉했다.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 나갔다.

「그대들은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나 그래서 안된다. 친구가 친구에게 묻는 듯한 기분으로 질문을 하여라.」

그래도 모두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그때 시자(侍者)인 안난다가 말하였다.

「세존(世尊)이시여. 매우 드문 일이겠지만 이제 한명의 비구도 교법 승가에 대해서 또는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없다고 믿사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구들을 돌아보고 말을 계속 하였다.

「그럼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괴법(壞法)이니라. 방탕하지 말고 정진하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그리고 눈을 감고 영원한 적막에 드셨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과 유언을 적은 이 글은 「잡아함경(雜阿含經)에 들어있다.」

논어에 이르기를 「새는 죽을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때 그 말이 착하다(鳥之將死其鳴也哀 人之將死其言之善)고 하였다.」

새의 울음이 슬플 것은 그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이며 사람의 말이 착한 것은 그 마음이 선량하기 때문이다

金夫人의 遺言 (김부인의 유언)

중국 시인 소동파(蘇東坡)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동파의 부인을 아는 사람은 드물줄 안다. 소동파는 명성만큼 잘 살지 못했던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면 부인은 눈치를 채고 머리를 잘라 판다. 그렇게 급전을 만들어 술상을 차려내곤 했던 것이다. 그 부인이 임종때에 한말은 만고에 심금을 울리는 유언으로 만인의 입에 곧잘 오르고 있다. 「죽으면 없어질 머리타래를 지니고 죽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한국 역대의 그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가 인조때 정승 홍서봉(洪瑞鳳)의 어머니다. 언젠가 손님이 와 푸줏간에 가 고기를 사오도록 시켰다. 사온 고기를 보니 약간 수상하여 은비녀를 뽑아 꽂아 보았더니 변색이 되는지라 상해서 독이 돌아났음을 알고는 당장에 은비녀를 팔아 푸줏간의 고기를 모두 사다가 땅에 묻게 했다. 그러고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분이시다. 그 정승의 어머니가 임종할 때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나를 정

승의 어머니로서 장사(葬事)지내지 말고 여염여자로 단장(短葬)하여라」는 것이었다.

기억하고 싶은 옛 여인의 유언으로 평범한 한양서민 김학성(金鶴聲)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들 수 있겠다. 「일사유사(逸士遺事)」라는 문헌에 보면 과부로서 샅바느질하며 나이 어린 형제를 기르고 있던 그녀는 어느 비오는날 처마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여 땅 밑을 파보았다. 어느 난리때인지 파묻고 피난간 금은보화가 가득한 가마솔이 나온 것이다. 김학성 모는 그 일확천금을 다시 땅에 묻고 판곳으로 이사해 버렸다. 그리고서 아이들을 잘 길러 과거에 급제시켜 놓은 다음 임종전 두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 놓고 유언을 했다. 보물술을 묻었다는 말을 하고서 보물을 취하지 않은 이유를 유언으로 삼은 것이다.

「재(財)는 재(災)다. 사람이 나서 마땅히 궁핍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릴적부터 안일의 습성에 빠지면 어찌 재산이 오고 벼슬이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고 ….

낙양성 십리밖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서 인간들만이 죽은 몸뚱이를 땅속에 묻는다. 그런 풍습이 언제부터 전해 내려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라크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유적을 보면 약 6만년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사체를 매장하고 무덤에 꽃을 바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마을교회의 남쪽마당이 북쪽마당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중세 영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교회의 북쪽 그늘에서 떨어진 양지 바른 곳에 겹겹이 묻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악마의 음산한 그늘에 숨어 있으며 또 북쪽에서 그것이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어김없이 북쪽그늘에 묻었고 또 동쪽은 동방의 성지(聖地)에 가깝다하여 성직자들의 차지가 되었

다.

매장의 풍습은 시체를 고스란히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웨일즈의 부족들은 죽은 사람을 똑바로 세워서 묻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하늘로 오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기독교인들은 시신의 머리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동서방향으로 무덤을 파는게 관례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시신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지금도 일본인들은 여행을 할때 그런 불길한 방향으로 머리를 두지 않으려고 잠자리에서 방향을 알아보는 수선을 피우기 일쑤다.

그 옛날 영국에서 자살자들은 사후에 가혹한 대접을 받아야 했다. 자살자들은 스스로를 살해한 죄인이라고 해서 교회묘지에 묻힐 수가 없었는데 19세기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들은 심장에 말뚝이 박힌채 네거리에 묻혔다. 말뚝으로 한자리에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사악한 유령이 되어 되돌아와 사람을 괴롭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묘지면적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법을 고쳐 묘지면적 제한 내용을 입법화하고 화장을 권장하기로 한 것은 묘지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낙양성(洛陽城)십리밖에, 울통불통 저무덤에, 만고영웅(萬古英雄)이 누구누구 묻혔는고, 우리도 저리될 인생이니 그를 슬퍼하노라」는 옛 시조처럼 죽어서나마 편안히 땅에 묻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나보다.

虛 慾 (허욕)

국내에서 개봉되었던 「아마데우스」는 모짜르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영화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안겨 주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극히 인상적이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

지는 속에서 몇사람의 조문객들이 천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가운데 모짜르트의 시신은 이미 여러구의 주검이 쌓여있는 커다란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진다. 그는 불세출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마지막 묻힐 묘지하나를 얻지 못하고 빈민들의 무덤에 쓰레기처럼 묻히고 만 것이다. 지금 오스트리아 빈의 예술가 묘역에 있는 모차르트의 묘는 그의 유해없는 허묘(虛墓)일 뿐이다.

오늘도 이집트의 자랑거리인 피라밋..., 한 시대를 빛내던 쿠푸왕과 그의 왕비의 무덤에는 수 많은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한사람의 군주와 그 왕비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10만명의 노예가 30년동안 동원되어 피와 채찍과 쇠사슬의 노역에 종사하였고 나일강 6천마일 상류에서 2백 30만개의 육중한 돌을 날라야 했다.

천하의 간웅(奸雄) 조조는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여 사후에 묻힐 무덤을 무려 72개나 만들었다고 한다. 이 가짜 무덤을 의총(疑塚)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진짜 무덤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악행(惡行)으로 후세에 누군가가 묘를 파헤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른바 「명당(明堂)」이라는 풍수사상이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 말이었다. 묘를 잘써야 사자(死者)가 영생하고 자손이 잘된다는 것이 그 믿음이었다.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가 둘러싸고 뒤에 주산(主山) 앞에 안산(案山)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명당자리이다.

과소비 호화사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다시 「호화분묘」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국의 명산, 명당이라는 명당을 모조리 차지한 이 호화분묘들은 주로 재벌총수 전직장관등 우리사회의 내노라하는 인물들의 가묘라하는데 최고급 석물만도 수천만원에 시설비가 억대가 넘는 것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살아서 이승에서 누리던 영화를 죽어서 저승에서까지 누리보겠다는 욕심들이리라.

「낙양성 심리밖에 높고 낮은 저 무덤아, 만고영웅이 그 누구냐」 하는 옛시조가 있다. 큰 무덤이 됐든 작은 무덤이 됐든 언젠가 그 무덤들은 모두 파헤쳐진다. 이집트의 피라밋도 그랬고, 신라 백제의 왕릉도 모두 그렇게 파헤쳐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호걸들의 무덤도 그러하건만 하물며 재벌 장관이 무엇이전데 죽어서까지 영화를 누리려하는지 안스럽기 그지없다 하겠다.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요, 허욕임을 그들은 왜 모를까. 딱하기만 하다.

土俑(토옹)을 묻는 뜻

죽어서 저승에 가더라도 이승에서 처럼 살고 싶었던 임금이나 貴人들은 이승에서 썼던 세간이며 돈이며 장식품이며, 타고 다녔던 말이며 馬具-, 거느렸던 시종 시녀를 무덤속까지 갖고 갔던 것이다.

옛무덤에서 副葬品이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이 永生思想때문인 것이다. 살았을 때 쓰던 물건들은 함께 묻으면 되지만 데리고 갈 사람은 따라 죽어야만 했다. 이 따라죽은 非情의 습속을 殉死라 하고, 생사람을 묻는 습속을 殉葬이라고 한다. 중국문헌인 「晉書」에 보면 이미 우리나라 扶餘시대에 죽은 사람에게 산사람을 묻는 순장 제도가 있었다.

이 부여문화를 계승한 고구려-, 그 고구려의 東川王이 죽었을 때(247) 신하로서 순사(殉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 묻지 못하고 나무를 꺾어 순사의 시체들을 덮어 두었다 한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 東川王陵옆에 펼쳐진 들을 柴原이라 했고 그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北方騎馬민족이 전래시켰음인지 신라나 가야에도 순장이 확인되고 있다. 불교를 중흥시킨 신라 法興王의 아버지인 智證王은 人權사상이 강했던지 殉葬을 하지 못하게 하는 禁令을 발포하고 있

다.(502년). 그 이전까지는 임금이 죽었을 때 남녀 각 5명씩을 순장해왔던 것이다.

임진왜란때 김해에 있는 金首露王의 능이 왜병에 의해 도굴당했는데 그 때 도굴에 참여했던 왜병의 목격담이 기록에 남아있다. 간추려보면 - 「무덤속이 무척 넓었으며 頭骨이 쟁반만하고 골격이 웅장했다. 그 곁에 두여인의 시체가 누여있는데 마치 산사람만 같았다. 나이는 스무살쯤 되어보였으며 이를 무덤밖으로 끌어내자 변색한채 으스러져 버렸다」했다. 이 수로왕릉의 두 여인도 순장된 여인임이 분명하다.

이 비인간적인 殉葬을 대신한 것이 흙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만들어 묻는 土俑(土偶), 나무로 깎아 만들어 묻는 木俑(木偶)이다.

왕릉 둘레에 文武百官이나 馬羊등 石物이 둘러 세워져 있는데 이 석물도 바로 殉葬을 대신한데서 연유를 찾는 학설도 있다. 그동안 고분들에서 이 無彩色의 土俑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조각이 조잡하고 남녀를 구분할 필요에서였던지 性器가 과장되게 만들어져 있음이 특징이었다.

조선조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木偶를 묻는 습속을 禮에 어긋난 敗俗이라하여 禁令을 내리고 있으나 日帝때 돌아가신 高宗이나 純宗을 치장할때도 木偶를 묻고 있으니, 이 변질된 殉葬제도는 역사도 유구하고 끈질기기도 하다.

장례식장

사람이 이승을 하직할때 그 죽음을 나타내는 색(色)은 사회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유럽의 집시들은 생명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옷을 상복(喪服)으로 입고 장례를 치르는데 켈트족의 세계에서는 붉은색이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재앙의 예고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흰색은 내세(來世)에서의 행복과 번

영을 뜻하기 때문에 언제나 흰색을 상복으로 써왔다.

서양에서는 상복은 전통적으로 검정색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검정색이 유행하기전 장례식에서 흰옷을 입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슬람교도들이 정의로운 사람의 영혼은 흰새모양이 된다고 믿었던 사상이 중세에 유럽으로 건너간 때문이었다.

그런데 서양에서 애도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정해진 것은 옛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흰피부를 까맣게 칠해 숨기려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서양에서 장례의식에 꽃을 사용한 것은 당초에는 처녀의 관에만 바치는 관습이었다. 꽃은 바로 순결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또 화혼을 만들어 바친 것은 조의를 표하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육신을 떠난 영혼이 방황하지 못하도록 「마법의 고리」로 묶어두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장례식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로는 우리나라 중국이나 매일반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복제(服制)만해도 그 혈연의 가깝고 먼데따라 근신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크게 달랐다.

상복을 입고 장례를 행하는 의식이 제도화된 것은 주희(朱熹)의 「주자가례」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인조(仁祖)때 김장생에 의해 정리됐다. 그때부터 부모의 상(喪)을 당하면 복을 입는 그 기간동안 술과 목욕을 금했고 조의(弔儀)축하를 하지 않았으며 음악을 듣지않고 혼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관직에 있는자는 벼슬을 내놓고 돌아가는 것이 도리였다.

그런데 복제는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3년동안 입는 참쇠(斬衰),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의 재쇠(齎衰), 중형 자매 증손등의 상을 당했을 때 아홉달동안 입는 대공(大功), 종조부모 대고모등의 상에 다섯달동안 입는 소공(小功), 종중조 삼종등의 상에 입던 시마(總麻)등 오복(五服)이 있어 친소에 따라 그것이 달랐다.

省 墓 (성묘)

언젠가 여객기 옆자리에 50대로 보이는 중년의 일본여인과 나란히 앉아 여행한 일이 있다.

하와이 여행을 위해 3년동안 예금을 하는도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 혼자오게 됐다면서 생각하다가 울고 울다가는 생각하곤 했다. 하와이 상공에 이르자 이 여인 「도오짱!(아빠!)」하고 부르기에 깜짝놀라 돌아 보았더니 백속에서 죽은 남편의 위패(位牌)를 꺼내어 창면에 갖다대고는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보입니다. 보이지요?」했다. 위패를 통해 死者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일본 사람들은 死者와의 대화를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한다. 죽은 친구의 집에 들러 현관에 올라서면 미망인은 佛壇에 차려놓은 위패의 상자문을 열고 아무누가 수박 덩어리 사들고 왔다고 마치 산사람에게 하듯 말하라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死者와 生者 사이는 가깝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한국처럼 그 거리가 접근돼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죽으면 3년탈상 할때까지 상청을 차려놓고 朝夕으로 산사람처럼 밥을 차려 올렸으며, 그동안은 무색웃도 못입고 술과 고기를 먹어도 안되었으며 아이를 만들어도 안되었다.

집에 불이 나면 불에 갇힌 산사람보다 신주를 먼저 꺼내는 것이 법도이며 그 때문에 타죽은 효자 열녀가 얼마나 많았던가. 옛날의 효자들은 탈상할 때까지 3년동안 무덤옆에 가옥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死者와 더불어 사는 여묘살이를 했다. 이처럼 死者와 生者와의 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탓인지 연중 명절마다 차례를 지내고, 또 省墓하는 빈도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잦다. 옛날에는 사시사철 네번 성묘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봄에는 淸明에, 여름에는 中元(7월15일)에, 가을에는 秋夕에, 겨울에는 冬至에 눈을 밟고 성묘를 하고, 무덤위에 눈을 쓸었던 것이다. 지금은 청명과 秋夕- 그리고 제삿날 세차례가 상식이지만 이 세번 省墓만도 이 세상에서 가

장 찾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斷食의 달인 라마단전후하여 성묘를 하는데 제스민꽃을 바치고는 벌초와 묘석을 닦는다. 인도에서는 화장하여 갠지스강에 뿌려버리기에 제사날 갠지스강에서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布施한다.

미국에서는 5월30일 메모리얼데이에 가족들이 부모의 무덤으로 피크닉을 가서 꽃을 바치며, 소련에서도 러시아正敎의 부활절날도 크리치라는 둥근 빵과 꽃다발을 들고 성묘를 하는데 이 날 성묘객을 위하여 버스가 임시 增車된다고 한다.

대체로 성묘는 1년에 한번이 상식이요, 그나마도 성묘하는 나라보다 하지않는 나라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이 세사에서 우리 한국의 亡魂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安樂死 (안락사)

安樂死가 거론될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지금은 故人인 되고 없는 비운의 친구다. 이 친구는, 肺가 가랑잎처럼, 肝이 건포도처럼 메말라 生理的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만이 간헐적으로 살아있는 아버지를 수년동안 병석에 모시고 있었다. 의식만 살아나면 소주 딱 한잔에 뚝뚝이 추어탕이 그토록 먹고 싶다면서 여생의 원을 풀어달라고 애걸을 했다. 의사였던 이 친구는 그 생리조건에서 그같은 음식을 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계속 망설이다가 어느날 애절한 情理에 겨워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그런지 사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친구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가책에 고민하게 된다. 폭음이 잦고 잠을 못이뤄 수면제를 사용했으며, 비관과 염세로 지새운끝에 수면제과용으로 죽어갔던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같은 가책을 아자세(阿闍世) 콤플렉스라 하여 정신병리학석의 한 실마리로 삼고 있다고 들었다. 아자세는 佛

經중에 나오는 古代인도의 왕자다. 그의 어머니 韋提希王妃는 王子를 낳지못한데다가 容色이 늙어감으로써 왕의 사람이 멀어져가는 것을 불안하게 여긴 끝에 한 예언자에게 어떻게 王子를 낳을 수 있는 가를 물었다. 숲속에서 사는 仙人이 3년 후에 죽게돼 있으며, 그 仙人이 王子로 왕비의 胎內에 환생하게 돼있음을 예언받고 왕비는 그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피를 부려 그 仙人을 安樂死시킨다.

이 어머니의 예고이즘으로 태어난 아자세에게 그 仙人의 원령이 옮겨붙어 어머니를 살해하려 든다.

어머니의 여생에 소름끼치는 악운과 비극이 연속된다. 곧 아무리 명분이 서는 안락사를 시키고 또 자기만이 아는 음폐된 安樂死를 시키더라도 자신 내부의 정신적 갈등만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아자세콤플렉스인 것이다.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모여 安樂死의 입법화를 둔 열띤 논쟁이 있었다던데 상황에 따라 명분이 섰을 때 가능하다는 긍정론과 어떤 명분도 생명의 존엄성에 선행될 수 없다는 부정론이 평행선을 긋는 것으로 끝장을 못보았다 한다.

1933년 독일 司法省이 「생존가치가 없는 生命의 소멸」이라는 각서를 내어 안락사를 합법화 한 것이 「생존가치가 없는 生命」이라 하여 유태인 大虐殺로까지 악용됐던 것 이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세차례 합법화가 시도됐으나 모두 부결돼온 문제다.

최후의 만찬

수많은 화제작을 발표했던 일본의 작가 미우라아야코의 대표작 「빙점(氷點)」에서 요오코(陽子)라는 소녀가 음독자살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사흘뒤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대목에서 소설은 끝난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은 그 또래의 한소녀는 「어른들은 제멋대로

야, 죽으려는 요오코를 되살아나게 했어…」하고 화를 내고는 연재가 끝난 그다음날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을 해 버린다.

뜻밖에 딸을 잃은 그녀의 아버지와 학교선생님은 미우라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는 왜 죽었을까요?」하고 묻는다. 그러나 미우라 역시 그 소녀가 왜 죽었는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죽은 그 소녀만이 알고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소녀 자신마저도 그것을 알지못할지 모른다.

독일의 염세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대체로 사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느낌보다 강하게 느껴질때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정신분석학자인 칼A매닝거는 「자살은 견디기 어려운 삶의 상황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단정한다.

18세기 영국에서의 자살자들은 가혹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 자살자들은 자신을 살해한 죄인이라고 해서 보통사람들이 묻히는 교회 묘지에 묻힐 수가 없었다.

그때문에 자살자들은 1824년에 법이 개정될때까지 심장에 말뚝이 박힌채 네거리에 그냥 묻혀야만 했다. 말뚝으로 한자리에 고정시켜 두지 않으면 사악한 자살자들의 혼은 유령이 되어 되돌아와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 네거리에 묻은 것은 유령이 설령 빠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길을 잘못 찾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살에 대해서는 나라와 문화, 관념의 차이에 따라 그것을 죄악시하는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거니와 그 반면에 예찬의 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자기의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수인(囚人)」이라면서 「인간은 신이 소환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고 영국의 철학자 콜린즈 역시 「자살은 살인의 최악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살을 생각하는 일이야 말로 커

다란 위안이 되는 일」이라고 자살옹호론을 폈고 20세기 최고의 영국 사학자인 아놀드토인비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작가 김동리는 그의 작품속에서 「자살은 모든 인간에게 허용된 최후의 만찬」이라고까지 자살예찬에 앞장서고 있다.

倫 常 (윤상)

임진왜란 직전의 정국은 당색에 의한 세도정치로 도의는 땅에 떨어지고 정객들은 이욕에 얽혀 기강은 썩을대로 썩어 있었다. 당대에 손꼽는 도덕군자로 조정의 기강을 다스리는 대사간(大司諫)직전에 있던 이율곡(李栗谷)이 건디다 못해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하려던 참이었다. 율곡을 비롯 여러 명사들이 모여 있는 좌중에서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이 말했다. 「오늘날 정국은 마치 원기가 다빠져 약을 구해오라고 시킬만한 힘마저도 없는 병인이다. 단지 이 위태로운 난국을 빠져나가는 단 한가지 묘책은 있소만은-.」 그 묘책이 뭐냐고 묻자 토정은 말했다.

「율곡이 벼슬을 버리지 않고 조정에 머문다 해도 기우는 대사를 바로 잡기는 역부족이오. 다만 그가 떠난다는 것은 해진 자루처럼 사직을 열기설기 엮어내린 도덕의 기강마저 저버린 것이 되고 그마저 없어지면 망국은 명약관화요. 나라는 기울어도 망국까지 가지 않게 하는 묘책이란 바로 물에 떠내려가는 이 도덕의 실가닥을 건져내는 일이오」했다.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경국(傾國)은 해도 망국(亡國)은 하지 않지만 도덕이 증발하면 경국하지 않고도 망국을 한다는 역사적 교훈은 비밀비재하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허허발편에 벌거숭이가 된채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대로 두면 얼어죽을 판이다. 그 사람에게 동사를 면하게 하기 위해 입힌 속옷(內衣)이 윤상(倫常)이다. 윤상이란 사람이

면 갖추어야할 기초덕목인 도덕이다. 이 도덕이라는 속옷만 입고 있으면 얼어죽지 않는다. 그 윤상위에 입힌 바지저고리(中衣)가 규범(規範)이요 다시 그 위에다 입힌 두루마기가 법률(法律)인 것이다. 세겹 옷으로 국가사회의 토대를 비유한 관자(管子)는 그 나라가 두루마기까지 입은 상태냐 바지저고리만 입고 있는 상태냐 속옷도 누더기가 된 상태냐로 국가의 흥망을 가늠했다.

그래서 윤상범(倫常犯)이 생기면 살았던 집을 파 못을 만들어 버리고 그 고을을 없애 버리거나 읍호(邑號)를 강등시키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봉변이 큰 것이 아니라 그로써 누더기가 된 윤상(倫常)이 큰 것이다.

인륜의 사회

세종10년(1428) 10월 왕은 예조판서에게 「나라안의 효자 열녀를 조사하라」고 명하면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분부했다.

첫째 부모상을 당해 거상(居喪)하기를 6년동안 하루같이 한 사람, 둘째 집에 불이 났을때 조상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온 사람, 셋째 초막을 짓고 부모묘소에서 3년동안을 지킨 사람, 넷째 집에 불이 났을때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를 업고 나온 사람, 다섯째 해적왜구(倭寇)의 침범때 여자로서 정조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여섯째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부모가 재가(再嫁)를 권하여도 듣지 않고 삭발 정절을 지킨 사람을 찾아 포상하라는 것이었다.

또 세종 14년 9월 효자열녀의 정문(旌門)을 세우도록 명한 조서(詔書)에는 첫째 부모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약을 쓴 사람, 둘째 자신의 살을 베어 부모에게 약으로 먹인 사람, 셋째 부모 무덤곁에 초막을 짓고 3년동안 소금과 장을 입에 대지않고 또 웃지않은 사람을 찾아내라고 적고 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가장 큰 덕목은 부모에 대한 효도였다.

효란 가족과 씨족사회, 그리고 사직(社稷)을 지키는 근본도덕이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미화되었고 나아가 그것은 장려되기까지 하였다.

신라경덕왕 14년(775) 봄, 기근이 심해 나라안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웅천주파전고을에 사는 향덕이라는 이는 초근목피로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등창(瘡)으로 사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향덕은 넓적다리살을 베어 부모에게 먹이고 또 어머니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 구원하였다.

이처럼 가혹한 효행을 들은 왕은 양곡 3백섬과 집한채를 하사하고 효자비를 세워 주었다.(삼국사기)

조선태종 12년 서북안주의 한사람은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자 오른손가락을 끊어 피를 술에 타먹였고 세종4년 광산의 한여자는 어머니가 미친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으로 썼다. 다음해에도 웅진사는 한 백성이 병으로 죽게되자 아홉살된 어린아들이 도끼로 손을 잘라 아버지에게 먹였고 또 그 다음해에는 태천군수의 딸이 아버지병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였다.(조선실록)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식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삼키게 하고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먹인 일화는 삼국시대이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다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모두 우리민족의 효사상이 얼마나 지극했던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風樹之嘆 (풍수지탄)

-아버지는 나의 삶 있게 하였고, 어머니는 고생하며 키워 주셨지. 쓰다듬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우시고 감싸주셨다. 언제고 돌보시고 보살피셨지. 들고나면 따뜻이 보살피셨지. 크나 큰 그 은덕 갚으려해도 저 넓은 하늘 끝이 없구나.-

〈詩經〉

때는 후한(後漢)말, 선비였던 곽거(郭巨)는 늙은 어머니와 어진 아내, 그리고 젖먹이와 함께 살았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어린 손자를 굶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음식을 어린 것에게 먹이곤 하였다. 노모가 굶주리는 게 가슴아팠던 곽거는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아이를 땅에 묻어 버리자고 꿩으로 뒤뜰을 뚫더니 덜커덕 쇠소리가 나면서 누런 「금술」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솔안에는 「하늘이 곽거의 효심에 감동하여 이술을 내린다」고 쓰여 있었다. 후한서(後漢書)에 적혀있는 「효자곽거」의 이야기이다.

까악까악 운다고 하여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검은 까마귀는 낳아서 60일동안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기르지만 자라서는 60일동안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되먹인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까마귀를 「효자새」라 하고 반포지효(反哺之孝)의 효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비둘기 역시 제어미 알기를 하늘같이 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로부터 예의바른 비둘기는 어미가 앉은 나뭇가지에 앉지않고 반드시 세번째 아랫가지에 앉는다하여 그것을 삼지례(三枝禮)라 하는데 그 또한 비둘기의 효심을 칭찬하는 말이다.

문화는 다르지만 효심에 동서양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주 웨스터라는 곳에 독실한 신자인 안나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혼자몸이 되자 생전에 좀더 효도를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됐다. 어느날 친구들을 초청한 그녀는 흰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이 세상 사람들이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면서 10만 달러의 유산을 기금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할 것을 전세계에 호소했다. 그로부터 7년, 윌슨대통령이 취임하자 1914년 미하원은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여 5월의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한 것은 1959년이었

다. 그러나 「어머니만 부모냐」는 끊임없는 이의에 지난 73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석가모니는 「부모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해도 그 은혜는 다 같을 수 없다」하였고 시경(詩經)에는 「슬하에 일곱 형제가 있기는해도 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네」라고 적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냥 두지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의 시구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萬年堤 (만년제)

조선조 22대왕 정조(正祖)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둘째아들이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을 「철천지한」으로 여겨 등극하자마자 바로 당시의 간신들을 모두 처단하였다. 그는 먼저 포도대장이었던 구선복을 잡아서 목을 베고 홍인한을 비롯하여 그의 외가일족에게도 모조리 사약을 내렸다.

정조는 또 당시 예조판서였던 정홍순을 불러들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온 조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마지막을 하찮게 여겨 수의(壽衣)범절을 소홀히 하였으리라 생각하여 그 책임자를 단죄코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훗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짐작했던 정홍순은 세자의 시체를 입관할때에 극상품의 비단으로 염습을 하고 포목마다 조금씩을 베어서 몰래 간수하여 두었었다. 정홍순은 정조가 부르자 그 비단조각이 든 껌을 소매에 넣고 나갔다. 정조는 아닌게 아니라 수의 절차를 물었다. 정홍순은 껌을 열어보였따. 수의 조각이 모두 비단인 것을 본 정조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은 진정 충신이라도」 칭송하고 그에게 정승을 제수하였다.

정조는 그런 다음 양주땅에 초라하게 묻혀있던 사도세자의 산소를 수원에서 20리가량 떨어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화산으로 이장

하고 어느 왕릉보다 훌륭하게 석물을 만들었으며 달마다 산소에 거동을 하였고 또한 경모궁을 세워 세자의 사당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애처롭게 세상을 뜬 아버지 사도세자를 사모하여 밤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정조는 뒤에 세자묘를 현릉원이라 이름하고 왕이 한강을 건너 산소로 갈때에 길이 더디다하여 산소근처의 고갯마루를 지지대(遲遲臺)라 이름붙였다.

그런데 한번은 산소에 송충이가 창궐하여 솔잎을 좀먹자 정조는 송충이 몇마리를 잡아 오라하여 그것을 입에 넣어 삼키며 「내가 아무리 미물인 벌레이기로서니 친산의 솔잎을 굶어먹을 수 있느냐? 차라리 내오장을 파먹으라」하는 것이었다. 이에 좌우의 군신들이 대경질색하였으나 정조의 효심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날부터 산소에는 솔개와 까마귀가 무수히 날아들어 송충이를 모두 잡아먹었다고 한다.

또 정조는 아버지의 산소를 화산으로 옮긴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산아래 만년제(萬年堤)라는 저수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세자를 기리고 권농의 지표로 삼게 하였다.

申師任堂 (신사임당)

「늙으신 어머니는 강릉에 계신데 이내몸은 서울을 향하여 가는 도다. 머리를 돌이켜 북촌을 바라보니 흰구름은 날아내리고 저문되는 푸르도다.」

신사임당(申師任堂)이 어느때 강릉으로 근친을 갔다가 돌아올때 그 어머니와 울며 이별하고 대관령에 이르러 북평(北坪)을 바라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글이다.

사임당은 연산10년 10월29일 강릉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개결(介潔)한 선비 신명화씨였고 어머니는 현철한 부인 이씨였다.

사임당은 천성이 온아(溫雅)하고 영혜(英慧)하여 어려서부터 경전(經典)을 읽고 문장과 그림에 능하였을뿐아니라 바느질과 자수

에도 그 솜씨가 뛰어났다.

또 몸가짐이 정결하고 차분하여 매사에 조심스러웠으며 말수가 적었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사임당이 열 아홉 되던해 결혼한뒤인 어느날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데임당이 열 아홉 되던해 결혼한뒤인 어느날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데 한마디 말도 하지않고 묵묵히 앉아있자 시어머니가 의아하며 「너는 어찌하여 말을 하지않느냐」고 물었다. 사임당은 얼른 무릎을 꿇고 옷깃을 가다듬으며 「여자가 문밖을 나자기 못하여 한가지도 본 것이 없으니 무엇을 말씀하리까」하도 대답하매 좌중이 모두 얼굴을 붉혔다.

사임당은 맏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는데 언제고 모든 일을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물어서 하였으며 어른 앞에서는 종들을 큰소리로 꾸짖지 않고 조용히 타일렀고 자녀가 허물이 있으면 일깨워 그것을 고치게 하였다.

사임당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지극하였다. 한번은 누군가가 거문고를 타매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지으며 「거문고 소리가 그리운 이를 더 그럽게 하는구나」하고 「밤마다 달보고 빌되, 살아서 보아지이다(夜夜祈向月 願得見生前)」라고 시를 지었다. 그러면서 어머니 생각으로 밤을 지새곤 하였다.

사임당은 슬하에 아들 넷을 두었다. 그 가운데 셋째가 바로 이(珥)로 그가 곧 우리역사에 태산처럼 우뚝 솟은 울곡선생이다. 사임당의 그림솜씨는 많은 일화를 남길만큼 뛰어났다. 어느 때 그가 풀과 벌레를 그린 초충화첩(草蟲畵帖)을 마당에 내놓았더니 닭들이 산 것인 줄알고 달려들어 모두 쪼아 먹었다는 얘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사임당은 시문과 서화로 불후의 예술작품을 후세에 많이 남겼으나 그보다는 여자의 천직이랄 수 있는 현모양처로서, 규방(閨房)의 사표로서 오늘에 거룩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父(부)와 子(자)

같은 피를 타고 태어난 친족의 호칭을 삼촌(三寸) 사촌(四寸) 오촌(五寸)…하는 멀고 가까운 距離개념으로 나타내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뿐인 줄 안다. 피의 濃度를 情實의 거리로 환산해 파악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친족호칭이 아닐 수 없다.

삼촌(三寸) 이전인 이촌(二寸) 일촌(一寸)이란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무 피가 같아 그 情實의 지척을 가릴 수가 없다하여 쓰지 않아왔을 따름이다. 바로 형제 자매간이 二寸이요 부모 자녀간이 一寸이다. 一寸보다 더 情實이 가까운 半寸이란 말도 있다. 곧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情의 거리가 一寸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情의 거리가 그보다 가까운 半寸인 것이다. 부모의 자녀사랑과 자녀의 부모사랑의 그 미묘한 차이를 이토록 세분해서까지 파악해 내린 우리 선조들의 슬기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信仰이나 道德이나 政治에 있어 英雄이 되는 조건으로 그의 아들 딸을 희생하거나 죽이는 고된 시련으로 입증시켰던 것이다. 「구약성서」의 첫머리에서 神은 아브라함의 信仰을 시험하고자 늘그막에 낳은 그 귀여운 외동아들의 희생을 요구한 것도 그것이다.

이스라엘을 救하고 개선하는 장군 에프타도 그를 반겨 최초로 달려드는 사람을 불에 태워 희생시키는 조건으로 支配子가 될 것을 神託받는다. 그 최초로 달려든 자가 바로 그의 귀여운 외동딸이었던 것이다. 에프타는 그의 딸을 희생하고 英雄이 된다.

「三國遺事」에 음식을 두고 老母와 싸우는 어린 아들을 生埋葬함으로써 孝를 구제하는 도덕적 英雄 孫順을 탄생시키고 있다. 어떤 價值觀을 영웅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 시련으로 입증시켰던 것은 부모의 자식을 둔 정서적 결속이, 자신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양에는 없는 同伴自殺이 우리나라에 상식화돼 있는 걸 보면

「半寸」이라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밀착농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高濃度라는 증명이기도 하다. 조선조 후반의 判例集인 「秋官志」에 보면 殺子女의 범죄는 겨우 두件만이 기록돼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도 패악한 자식을 죽인 사례로 오죽해야 죽일 마음이 났을 까고 同情, 그 殺意를 人心아닌 天心으로 미루고 너그럽게 판결하고 있다. 또한 패악한 자식을 家門刑-곧 公刑아닌 私刑으로 죽였을때도 묵과하는게 관례였었다.

不孝(불효)의 罪(죄)

석가모니에 의하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죽으면 아비무간지옥(阿鼻無間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아비무간지옥은 넓이가 8만유순(由旬)이나 되고 사방에 무쇠성이 둘러있는데 그 주위가 다시 그물로 싸여있다. 그리고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어있으며 모진불이 훨훨 타올라 맹렬한 불꽃이 번개같이 번쩍인다.

여기에서 끓는 구리와 무쇠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넣을 뿐만 아니라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토하여 이불 속에서 그 죄인은 볶아지고 지져지고 구워지고 삶아져서 살이 타고 기름이 끓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그위에 무쇠채찍과 무쇠꼬치 무쇠 망치와 무쇠창 그리고 칼과 칼날이 비와 구름처럼 공중에서 쏟아져 내려서 사람을 베고 찌른다. 이렇게 죄인들을 연거푸 괴롭히고 벌을 내리기를 여러접동안 계속한다. 그리고 잠시도 쉴사이없이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죄인은 다시 다른 지옥으로 돌려져서 머리에 불화로를 이고 무쇠로만든 수레로 사지가 찢기고 창자와 뼈와 살이 불타고 찢겨져서 하루에도 천번은 살아나고 만번은 죽게한다.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모두 전생에 오역(五逆)중의 하나인 불효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업보(業報)치고는 참혹한 업보가 아닐 수 없다.

가정의달인 5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비정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그것도 다름아닌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인륜을 저버린 천벌받을 불효들이다.

칠순노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부랑아보호시설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어머니를 납치해 강제로 보호시설에 감금한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한다. 아무리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한들 어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공자는 「세상에는 다섯가지의 형벌이 있으며 그것에 딸린 형벌의 수가 3천가지나 있을만큼 많은 죄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효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하였다. 공자는 또 「부모를 봉양함에 정성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집안에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였다. 견마지양(犬馬之羊)이란 그것을 가리킴이다.

어버이 때린 罪(죄)

한 소년이 지옥길을 순례하면서 이것저것 견문하는 우리 옛이야기가 있다.

어느 길목에 서자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집덩이만한 누런 황금덩이 아래 넘치처럼 납작하게 깔린 여인의 비명이었다. 까닭을 물으니 이승에서 빛을 얻어쓰고 갇지 않았더니 이 꼴이 됐다고 했다.

또한 길목을 돌아서니 이번에는 구덩이 속에서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여다보니 굶주려 용을 쓰고 있는 뱀떼위에 금세 끊어질 것만 같은 머리카락에 간신히 매달려있는 한 사니아가 지른 비명이었다. 까닭을 물으니 이웃집 각시한테 음심을 품었더니 이 꼴이 됐다고 했다.

또한 길목을 돌아서니 물 퍼붓는 소리가 났다. 한 사나이가 밑없는 물동이에 물을 퍼붓고 있었다. 영원히 죽지 못하고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숙명지워진 사나이다. 까닭을 물으니 이승에 살았을 때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번 했더니 이꼴이 됐다고 했다.

황금에 깔린 경제범(經濟犯)이나 사옥(蛇獄)에 매어달린 풍속범(風俗犯)은 언젠가는 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밑(本)이 빠진 윤상범(倫常犯)은 영원히 죽지 못한다는데서 보다 가혹하고 비극적이다.

이미 지옥에 가기전에 부모를 때린 구부모죄(毆父母罪)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능지처참하도록 대명률에 정해져 있다. 그 상황이 패악하면 파가저택(破家潑澤)이라 하여 그 집을 부수어 버리고 그 터에다 못을 파버렸으며, 그 고을의 읍호(邑號)를 강등까지 시켰다. 부모에게 욕설을 해도 그 욕설이 와닿는 부모의 심정은 얻어 맞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하여 교살(絞殺)까지 한 사례도 있다.

파실치상도 용서받지 못했다. 숙종 1년에 광주(廣州)의 무인(武人) 이상신(李尙信)이 집뒤텃밭에서 활쏘기연습을 하는데 화살이 일하고 있던 어머니의 겨드랑이에 맞아, 상처를 입혔다. 율타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신은 바로 관가에 자수를 하였고, 또 가책을 받아 몇번 목을 맨 것을 그 아버가 살려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연 어전회의에서 이 죄인에게 장(杖) 1백대 유형 3천리라는, 요즈음 같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정도다.

弑父罪 (시부죄)

어머니나 아버지를 살해하는, 천하의 불효망은(不孝忘恩)을 빗댄 때 「효경(梟獍)」이란 말을 잘 썼다. 효(梟)는 부엉이요, 경(獍)은 호랑이처럼 새겼으면서 호랑이 보다 작은 외눈박이 짐승이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부엉이와 경은 제 아버이를 잡아먹는 짐승으로 알려져 왔다. 고대의 중국에서는 부엉이를 보면 그 불효를 응징

코자 이를 잡아 죽여 나뭇가지에 널어 놓는다 하여 「梟」란 이름이 주어졌다 한다. 나무위에 형(刑)을 받고있는 새란 회의(會意)문자인것이다. 죄인의 목을 베어 전시하는 극형(極刑)을 효수(梟首)라고 함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 임금의 공덕을 찬양할때 「은혜가 돈어(豚魚)에 미치고 위엄이 효경(梟獍)에 미치었다.」는 구절이 빠지지 않음은 죄악가운데 가장 큰 것이 시부모(弑父母)였기 때문일 것이다.

희랍신화에 오이디푸스왕은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서 그 책고(責苦)로 미친 사람이 되어 자신의 두눈깔을 빼고 방황하다 죽는다. 불경(佛經)에서도 아자세왕은 아버지를 옥에 가두어 놓고 단근(斷筋)을 하고 굶겨죽이고 있는데, 책고(責苦)로 전신에 창독(瘡毒)이 돌아나 죽어간다. 어떤 명분이건 시부(弑父)는 신화시대부터 응분의 응징을 받게 마련이었다.

원시사회에 있어 생계에 부담을 주는 노부모를 살해하거나, 유기하여 죽게하는 살노(殺老) 기로(棄老) 습속은 보편적이었다. 「여진 죽은 어버이가 늙어서 걷지 못하면 자식이 걸게차려 먹이고 묻기를 아버지 곶이 되고 싶습니다. 호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묻고는 가족 부대속에 산채로 담아 나무에 걸어놓고 활로 쏘는데 화살 한개로 죽이는 자식이 참된 효자로 칭찬받는다」했다.

우리 근세(近世) 형사 사건들의 판례집(判例集)이랄 「추관지(秋官志)」에도 이 악습이 기록되어 있다. 현종(顯宗)때 옥지(玉只)라는 여인이 그의 남편 및 그의 아들과 공모하여 그의 병든 아버지를 초막에 유기해 숨기지기전에 매장하고 있다. 이에 형조(刑曹)에서는 부모를 모살(謀殺)한 자는 부대시(不待時)로 능지처참한다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 이들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고려장

고려장은 원시적인 避病사상에서 비롯된 것인 것 같다. 앓는 사람

이 집안에서 죽으면 그病魔가 집안사람에게 옮겨 붙는 것으로 알았기로 극히 근대까지만해도 마을밖 避暑에다 옮겨 숨을 거두게 했으며, 고려시대의 避暑이 곧 고려장이 아니었던가 싶다. 노부모가 앓거나 망녕이 들어 숨지면 그 병마가 두려워 집을 부수어야 했고, 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느니 고려장을 선택했음직 하다.

科學的인 病菌觀념이 없었던 시절의 일이고 보면, 고려장은 인간성이 증발된 비정적인 습속이라기 보다 생존을 위한 위생차원에서 합리화시켜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자식이 뭐길래...

조선조의 명재성이었던 황희(黃喜)는 어느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주색(酒色)에 빠진 아들 潔駭針황희(黃喜)는 어느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주색(酒色)에 빠진 아들이 밖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른 문밖으로 나가 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맞아 들였다. 놀란 아들이 「아버님, 어이된 일이옵니까? 의관속대를 하시고 저를 맞아 주시다니요」하고 이상해하였다. 황희는 정중히 「자식이 아버지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집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집안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으며 이를 맞는 주인이 인사를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고 이르겠느냐」고 대답하였다.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에 앉아 온백성의 우러름을 받은 그였지만 자신의 자식하나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의 한(漢)나라때 한백유라는 사람이 늙은 어머니가 늘 하던 대로 그 아들을 회초리로 때렸다. 그러자 백유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그 전에는 매를 대도 울지않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자 노모는 의아해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아들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어머니가 매를 때리시면 몹시 아팠으나 이제는 조금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력이 그만큼 쇠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하였다.

효(孝)를 으뜸으로 치던 그 옛날 유교사회의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어떤 것인가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고사라 하겠다.

성서(聖書)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라 하였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왜 자식들은 모르는 것일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樹慾靜風不止)고 하였다.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는것이 인생사이다.

아버지像(상)

「내 기억에 새겨진 최초의 인간의 모습은 요람옆에 서계신 아버지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바라볼때마다 나는 그 성상(聖像)같은 인품에 경의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성화(聖畵)같은 인품에 경의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성화(聖畵)를 보는 기분으로 아버지를 우러러 보곤 하였다.」 루마니아의 망명작가 C. V 게오르규의 「25시에서 영원의 시간으로」에 나오는 아버지상(像)이다.

이효석(李孝石)의 「석류」에 나오는 아버지상 역시 근엄하기 이를데 없다. 「아버지는 쓸쓸한 집안에서 돌부처같이 침묵하였다. 반백(半白)의 머리에 턱에 주름살을 접고 온종일 늙은 앵무새만큼도 말수가 적고 서툴렀다. 돌같이 표정이 없고 찼다. 개차반의 소행에 대하여 조차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다. 모든 것을 긍정하고 굽어만 보는 조물주의 의지와도 같이 엄연하였다」

그러나 유정(柳星)의 시 「진눈깨비」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르다. 「그날 내먹살을 잡고 저주하시던/아버지 당신의 불덩이 같은 눈초리/되살아 오는 그런 아픔을 안고…」

모두가 다 똑같은 아버지이건만 자식의 눈에 비친 그 「아버지상」은 제각기 다르기만 하다.

이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다. 그러나 그 아버지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이지만 그 상(像)은 백인백색(百人百色)이요, 만인만색(萬人萬色)이다. 어떤 아버지는 자애롭기 그지없이 자식을 사랑하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호랑이 같이 무섭게 자식을 엄히 다스린다. 어떤 아버지는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애지중지하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형편이 여의(如意)치 못해 자식들을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시킨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고슴도치는 밤송이처럼 생겨서 온몸이 온통 가시투성이 이지만 그래도 제자식 귀여워하는 것은 어느 짐승에 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새끼는 귀여워 한다」고들 한다. 어느 아버지라고 제자식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兄 弟 (형제)

고려 공민왕때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우가 황금 두덩이를 주었다. 아우는 그중 한덩이를 형에게 주어 나누어가졌는데 강가에 이르러 배를 타고 건너게 되자 아우는 갑자기 제손에든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다. 형이 의아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더니 아우가 대답하기를 「금을 줍기전까지는 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지 없었으나 금을 나누어 갖고부터는 갑자기 형이 미워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아우의 말을 들은 형은 「너의 말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에 들고 있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동국여지승람)

예기(禮記)에서 안행(雁行)이라함은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간다 함이니 바로 의종은 형제를 높이 부르는 말이요, 북제서(北齊書)에 난득자형제(難得子兄弟)라 함은 형제는 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형제는 우애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시경(詩經)에는 「이 세상에 누구라해도/형제가 제일 좋더고/
궂은 일 초상이 나도/형제야 서로 생각하고/벌판에 송장이 돼도
/형제야 서로 찾아다니네」라고 적혀있다.

옛적 우리 선조들은 형제간의 우애지정(友愛之情)을 부모에 대
한 孝 못지않은 큰 덕목으로 쳤다. 형제들이 화친한 집안치고 쇠한
가문이 없고 형제들이 불화한 집안치고 흥한 가문이 없는 것은 고
금의 예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義兄弟 (의형제)

의형제를 맺는 장면으로 가장 멋진 것은 아마도 삼국지연의의 桃
園結義일 것이다. 검은 소와 흰말을 희생으로 하여 제단 앞에 놓
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나이를 따져 형과 아우를 정하고 단
을 향해 무릎꿇어 네번 절하고 향을 사른 후에 미리 지어 준비했던
축문을 읽었다.

그 축문은 의형제를 맺은 이유와 뜻이 절박하고 비장하여 후세
사람들마저 감동시키는 바가 있다.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서
곤한 것은 붙들고 위태로움을 구하여 위로는 나라의 은공을 갚고
아래로는 백성을 평안케 하려 합니다.」

「비록 한해 한달 한날에 나지 않았으나 죽기만은 함께하려 한다」
는 결의 외에도 「만약 義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은 자가 있다면 天
人이 함께 죽여 주시옵소서」하며 죽음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혈기
방장한 20대청년의 의기를 느끼게 한다.

「七步詩」(칠보시)

피를 같이한 동기간(同氣間)이나 뜻을 같이한 동지간(同志間),
이해를 같이한 동업간(同業間)끼리 그러하지 말아야 할 내분-질투

-반목-이간-중상-대결하는 심리를 카인 콤플렉스(近親憎惡)라고 한다.

이 말은 구약성서 창세기(創世記)에 나온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신의 허락으로 두 사내아이를 낳는다. 형이 카인이요 아우가 아벨이다. 카인은 신(神)이 아우가 바치는 공물(供物)을 반기고 자신이 바치는 공물은 반기지 않는데 질투하여 아우를 들판에 유인, 살해하고 만다. 인류최초의 살인사건은 이처럼 그러하지 말아야 할 근친증오(近親憎惡)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 근친증오를 정신분석학에 도입, 카인 콤플렉스로 명명한 것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보드랭이다.

우리 한국사람은 수천년동안 서로 피를 섞고 뜻을 같이하며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강한 정착(定着) 생활을 해온 탓인지 서양사람에 비해 카인콤플렉스가 강한 편이다.

삼국지(三國志)에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변방민족인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과 싸우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중 만주 한국 일본을 통칭하는 동이(東夷)와 싸울 때는 정공법으로 싸우는 것보다 첩자를 잠입시켜 내부분열을 시킨 다음 정벌하는 것이 손쉽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미 제갈공명은 동이족(東夷族)에게 강한 카인 콤플렉스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같이 운명을 지니고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의 화합을 다지고 카인 콤플렉스를 경계하는 교훈으로 「칠보시(七步詩)」라는게 있다.

위(魏)나라 임금이 된 조조(曹操)는 曹丕-曹彰-曹植-曹熊 네아들을 두었다. 모두가 서출(庶出)이지만, 두뇌가 명석하고 시문(詩文)에 재주가 뛰어난 세째 曹植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했다. 하지만 공신(功臣)들의 강력한 반대로 의중에 없는 장자 曹자로 왕위를 계승시켰던 것이다.

왕위에 오른 曹丕는 曹植에 대한 근친증오에 불타올랐다. 죽여버릴 명분을 얻고자 曹植에게 무리한 난제를 던졌다. 「네가 시(詩)를 잘짓는다 하니 이 방안에서 일곱걸음(七步)을 걷는 동안 시 한수를

지어라. 짓지못하면 여덟걸음째에 네목을 날릴 것이다。」 이때 지은 시가 칠보시다.

「콩을 볶는데 콩깍지를 태운다/콩은 솥속에서 울어댄다/콩과 콩깍지는 본이 같은데/서로 태우고 볶기를 왜 이다지 재촉하는가.」

曹조가 감탄하여 곁에 두고 재상으로 중용했던 것이다.

수천년동안 외적의 위협속에 살아온 중국사람들은 카인 콤플렉스에 의한 내분-반목이 외적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기로 이 「칠보시」를 교훈삼아 난국을 곧잘 대처해 내렸던 것이다.

同窓生 (동창생)

孔자의 언행을 적은 「論語」는 사람의 두가지 기쁨을 설교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배워서 그것을 터득하면 그 아니 즐거운가 하고 이어서 먼데서 벗(朋)이 오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했다. 한 문에서 뜻이 통하는 벗을 「友」라 하고, 한 스승아래 더불어 배운 벗을 「朋」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여기 먼곳에서 온 벗은 바로 동창생인 것이다.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옛날 옛적부터 동창생은 반가왔던 것이다. 유목민족처럼 여러곳을 떠돌며 살아온 사람들은 낮이 선 異類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선지 서양사람들은 나와는 뭇인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수용하고 곧잘 친근해지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나와는 뭇인가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을 수용하고 친근해 한다. 하물며 같은 핏줄, 같은 고향, 같은 동창생이 여느 다른 나라사람에 비겨 별나게 반갑고 다정한 이유가 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창생은 예부터 利害善惡을 초월했었다. 中宗때 名臣 金安國은 당대의 奸臣 金安老와 同窓이었다.

모든 선비들이 신상이 위태롭다하여 金安老를 보면 멀리서 길을 돌려버리는데 옹독 金安國만은 金安老를 배척하질 않고 한방에 베개를 나란히하고 자면서 준열하게 동창생을 책망하고 가혹하게 충고를 하곤 했다. 한방에서 같이자던 아우 金定國이 행여 화가 형님에게 미칠까봐 형의 발을 꼬집으면서 말을 말게하니 金安國은 「왜 자지않고 내 다리를 꼬집느냐」고 무안하게 하고는 충고를 계속했던 것이다. 金安老가 형을 받고 죽자 아무도 문상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유독 金安國만이 대담하게 문상을 하고 처참하게 몰락한 유족들에게 계속 식량을 대주었던 것이다.

옛날 동창끼리는 同義契를 맺고 평생 의리와 정리를 나누었는데 어느 한 契員의 부모는 계원 모두의 자녀로 삼는 擬似家族이 되어 동창생의 부모가 죽으면 삼년 喪을 心喪으로 더불어 치르며 酒肉과 비단옷과 遊樂을 삼갔던 것이다. 또한 同窓生이 죽은후 자녀가 먹고 살기 어려우면 구제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기로 同義契는 生命保險구실도 했다. 同門同學의 學緣을 血緣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웃四寸(사촌)

여름날의 밀반찬으로 짭짤한 김자반이 있다. 김을 진간장에 적셔 바싹 말린 이 자반은 와삭와삭 바스러지는 촉감이 미각을 돋워주는 별미다.

이 김자반을 말릴때 이웃 담장위에 말려서는 안된다는 금기(禁忌)가 있었다. 「찰떡같이 달라 붙는 정(情)」이란 말도 있듯이 「김자반처럼 바스러지는 정(情)」이란 말에서 비롯된 금기다. 김자반을 담장위에 말린다는 것은 그 이웃과의 사이를 바스러지게 하는 불길한 조짐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잡초인 질경이나 비름을 뜯어무친 나물도 나눠 먹는 이웃간인데 희귀한 해물 별식인 김자반만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결례

요. 결별을 선언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다. 작디작은 이만한 상징(象徵) 해위까지도 신경을 써야했던 크고 소중한 이웃과의 사이였다.

담결에 자라게 마련이던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같은 과목(果木)은 대체로 그 가지가 이웃에 뻗어 남의 집에 그늘을 들이고, 또 가랑잎을 떨구게 마련이다.

그 과목은 수확할때면 「소지밥」이라 하여 한바구니 담아다가 이웃에 갖다주는 것이 관례였다. 소지(掃地) - 곧 떨어진 가랑잎을 쓸어준 값이란 미명으로 나누는 이웃과의 아름다운 전경이 아닐 수 없다.

흔히들 감이 열면 까치가 먹도록 따지 않고 남겨두는 「까치밥」, 마을의 악동들이 훔쳐 따먹는 「서리밥」, 그리고 이웃과 나눠먹는 「소지밥」으로 절반이 나간다는 것이 상식이 돼있었다.

누군가 새로 이사를 해오면 그 이웃들은 부지깥이나 아궁이재를 굽는 고무래, 재를 담아 두는 잣박, 잣물받는 잣독등 아궁이 도구를 선물하는 습속도 보편화돼 있었다.

그 집의 길흉(吉凶)을 관장하는 조왕신(아궁이신)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이웃의 아름다운 정표인 것이다.

이웃을 가르는 한국의 담은 그것을 경계로서 존중하는 심리적 경계에 불과했을 뿐, 정이고 강아지고 오고갈 것은 모든 것이 오갔던 담이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집값은 백냥이고, 이웃값은 천냥」이라 말이 있다. 이웃이 그렇게 값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피칠화(同被七禍)」라 하여 이웃이 다음 일곱가지 불행을 당하면 더불어 그 불행을 당하라는 것이 향촌도덕(鄉村道德)의 기본이 돼있었다. 일곱가지 불행이란 ①불이 나거나 물난리를 당했을 때(水火) ②도둑을 맞았을 때(盜難) ③병을 앓을때(疾病) ④초상을 당했을 때(死喪) ⑤졸지에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었을 때(孤寡) ⑥억울하게 무고를 당했을 때(誣枉) ⑦가난으로 몸을 못가리고 끼니를 거를 때(貧窮)는 식구처럼 상휼(相恤)하는 것

이 도리였다.

그래서 먼데 사는 형제는 팔촌이요 가까이 사는 이웃은 사촌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友情(우정)이란?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사나이 대장부들간의 우정이란 어떤 것인가?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신하였던 관중(管中)과 포숙(鮑叔)은 둘도 없이 막연했던 죽마지우간이었다.

두사람은 젊은시절 한때 동업으로 같이 장사를 하였는데 관중은 곧잘 포숙을 숙여 제몫을 더 차지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포숙은 한마디도 관중을 욕심쟁이라고 탓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보다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관중은 포숙의 명성을 위해 계획한 일이 도리어 그를 궁지에 몰리게 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포숙은 관중을 어리석은 자라고 원망하지 않았다. 일이란 시운에 따라 이롭고 이롭지않은 것이 있는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은 또 몇차례나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번번히 쫓겨나고 말았으나 포숙은 그를 무능하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관중이 싸움터로 나갔을 때마다 도망쳐왔으나 포숙은 그를 비겁하다고 책하지 않았다.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 춘추오패(春秋五霸)의 하나가 된 환공(桓公)을 도와 천하를 움직이는 큰 인물이 된 관중은 지난날을 잊지않고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라고 말하였다.

포숙은 관중의 현명함을 알고 항상 그를 천거하여 윗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아랫자리로 만족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정을 보였던 것

이다.

뒷날 세상사람들은 관중의 입신양면을 칭찬하기보다 포숙의 신의를 더 높이 칭송하였다.

이는 바로 깊은 우정을 뜻하는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고사.

情 表 (정표)

사람과 사람사이의 親密濃度를 연구한 심리학자 홀스타인이라는 이는 사람이 6개월동안 만나지 않거나 소식을 전하지 않거나 하면 그 두사람의 친밀도가 반감한다고 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지에게는 반년에 한번쯤은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편에 안부라도 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이 홀스타인의 법칙을 알았을 터문은 없지만 체험적으로 터득을 하고 꾸준히 실행해온데 머리가 숙여진다.

이를테면 정초에 원근의 친지들에게 달력을 보내고 그후 거의 반년에 가까와지는 단오날에 부채를 다시 보냄으로써 희석해져가는 친밀농도를 원상유지시킨 것 등이 그것이다. 곧 正初曆-端午扇은 그것들이 갖는 실용적인 쓸모보다 한국적 共同體의 접착체로서 뜻을 찾아볼 수가 있다.

宣祖때 명문장 林悌가 엄동설한에 사랑하는 기생에게 부채를 보내고 있는데 그 부채에다-「겨울부채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대 생각에 타는 가슴 三伏더위를 웃돌거늘…」하는 시를 쓰고 있다. 부치는 부채가 아니라 짙은 情이 오가는 媒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렇게 사랑을 약속하거나 뜻을 같이하거나 죽음을 같이하거나 절의를 할때 부채를 주고 받으므로써 신물로 삼았던 것도 부채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미국 아내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는 大阮君집정시절 江華島에서 있었던 韓美小戰爭(辛未洋擾)때 노획한 一心扇이 전시돼 있다. 그 부채살

마다 싸워서 죽기로 약속한 한국병사들의 이름이 쓰여 있음을 보고 숙연해졌던 기억이 난다. 되살리고 싶은 부채哲學이다.

그밖에도 부채의 용도는 다양하다. 흔히들 부채에 여덟가지 德이 있다했는데, 그 하나가 더위를 쫓아주는 덕이요, 둘째가 흙땅에 방석이 돼주는 덕이요, 세째가 햇볕과 비를 가려주는 덕이요, 네째가 모기 파리를 쫓아주는 덕이요, 다섯째가 이리저리 가리키고 오라가라 말을 대신해주는 덕이요, 여섯째가 미인이 배시시 웃을 때 입을 가려주는 덕이요, 일곱째가 빗장이 만났을 때 얼굴을 가려주는 덕이요, 여덟째가 신날때 장단치는 덕이라....

不告知罪 (불고지죄)

인조(仁祖)연간에 있었던 일이다. 대흥산성(大興山城)의 국고(國庫)에서 은을 훔친 혐의자가 잡혀들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지라 포도청에서는 혐의자의 열두살난 아들을 잡아와서 아버지의 죄를 이실직고토록 다그쳤다. 겁에 질린 이 아이는 그 자초지종을 고백했고, 포도청에 잡혀가면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시켰다는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 사건을 두고 법리론(法理論)을 펴는 포도대장과 도리론(道理論)을 펴는 형조판서와의 사이에 일대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임금님이 개입, 이를 둔 정치철학을 피력하고 있다.

「벽을 뚫고 은을 훔치는 일은 기사지소(其事至小)하고 아들로 하여금 아비를 고발케하여 강상(綱常)을 패상(敗傷)케함은 기사지대(其事知大)하다」하고 도리론을 편들고 있다.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후에 국가에 반란을 음모하는 대역사건이 고발되었다. 고발한 자는 김경현이라는 아전인데, 그의 누이 동생의 부탁을 받고 한 짓이었다.

이 사실을 상주받은 인조는 노발대발했다. 반역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아무리 미천한 계집이로소니 어찌 지아비를 고발 할 수 있는가

하고 개탄해 마지 않았다. 물론 이 여인은 포상받기는 커녕 강상죄로 잡혀 갇히고 있다. 국가대역을 고발한데도 인간의 도리를 우선시킨 용기있는 정치철학이 아닐 수 없다.

또 인조는 병자호란의 일등공신인 최명길(崔鳴吉)과 부원군인 이서(李曙)를 파면하는 용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들이 법을 다스리는 당상으로 있을때 종을 잡아다가 상전의 죄를 입증시키고, 딸을 잡아다가 아버지의 죄를 직고시킨데 대한 응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불고지(不告知)를 정당화하는 관례는 이미 고려시대부터의 법통이었다. 고려 고종때 시랑벼슬의 유천우(兪千遇)에게 아우 보(甫)가 찾아와서 당대의 권신(權臣) 김인준(金仁俊)을 제거하는 음모를 알려왔다. 일이 실패한후, 김인준이 아우의 음모를 미리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다그쳤다.

아우를 고발하여 늙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벌을 받는 쪽을 택하였다고 대답했다.

유천우의 효성이 지극함을 평소에 알고 있었더라 연좌시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정리와 의리가 통하는 사이에서는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고지의 법도를 어기는 자에게 죄를 주어 인간의 강상을 법에 우선시켰던 것이다.

德 風(덕풍)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생활이란 덕에 의한 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럼 덕(德)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덕이란 ①밝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 ②덕택이나 공덕(功德)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덕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그래서 삼덕(三德)하면 정직과 강(剛)과 유(柔)의 세가지, 지(智) 인(仁) 용(勇)의 세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가지를 치고 또 「불교삼덕」하면 열반을 얻은 이가 갖춘 법신덕(法身德) 지혜의 반야덕(般若德) 무애(無碍)의 해탈덕(解脫德)을 꼽는다.

자고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쓰는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은 외롭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은 인간사회에서의 덕이 중요성을 가리킨 것이겠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에는 「덕은 근본이요 재(財)는 끝이요(德者本也 財者末也)」라고 하였고 채근담에는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라 하면서 「재주는 있으되 덕이 없으면 집에 주인없는 종이 용사(用事)함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놀아나지 않으리요」라고 적었다.

그러니 덕은 한낱 재물에 비할바가 아니요 하물며 재주와 견줄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 교훈이다.

戀主庵(혜주암)의 밥보시

서울-경기도 지방에서 상여 나갈때 메기는 향두가에 이런 대목이 있다. 「혈벗는 이 옷을 주어 구난보시(救難布施)하였는가/과객 불러 먹여 재워 행인보시(行人布施)하였는가/깊은 물에 다리놓아 월천보시(越川布施)하였는가/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활인보시(活人布施)하였는가/높은 산에 불당지어 중생보시(衆生布施)하였는가/목마른이 찬물주어 시수보시(施水布施)하였는가.」

불경을 한문으로 옮길때 남에게 베푼다는 범어(梵語) 「다나」를 포시(布施)로 의역(意譯)했는데, 포시라 읽지않고 보시라 읽게된 것은 널리 베푼다는 뜻인 보시(普施) 또는 보시(報施)가 복합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저승에 가 첫 심판의 조건이 됐을만큼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보시의 덕목은 중요했다. 송(宋)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쓴

고려때 견문기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면 여름날 송경(松京)의 거리에는 집집마다 시원한 물단지를 땅에 묻어두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원한 물을 베푸는 시수보시(施水布施)를 한다고 적고 있다.

옛날 한양 북촌(北村)의 마님들은 춘추에 한번씩 원(院) 나들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성밖에 있는 홍제원(弘濟院) 이태원(梨泰院) 같은 행려병자를 수용하는 공공시설을 찾아가 무연고 병자들에게 음식과 약을 베푸는 활인보시(活人布施)가 원 나들이인 것이다. 또 가난한 산촌에는 산촌대로 보시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 짚신을 삼아다가 사람들이 많이 넘나 다니는 고갯마루 정자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매어달아 둔다. 그럼 행인들이 해진 짚신을 버리고 그 보시(布施) 짚신을 갈아신고 갔던 것이다. 한양의 남대문과 동대문 앞에는 팔도에서 올라온 노숙자(露宿者)가 우글우글했다. 조석으로 빈대떡 한수레를 싣고 와서 「청계천변 천녕현씨(川寧玄氏) 빈자보시요!」「회동정씨(會洞鄭氏) 정자나무집의 빈자보시요!」하며 이 노숙자들에게 빈대떡을 던져주어, 요기를 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비의 실천덕목으로서 보시의 전통이 조선조의 혹심한 배불(排佛)주의와 현대인의 이기주의로 풍전등화가 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辭讓(사양)의 美德(미덕)

두마리의 산양이 냇물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났네, 앞으로만 가는 양이 서로 뒷걸음질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서로 비켜갈수도 없다. 그렇게 하려다가는 서로 부딪혀 다리 아래로 떨어져 둘다 물에 빠져 죽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은 이 산양들에게 한쪽은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다른 한쪽이 앞드린 양을 타고 넘어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렇

게하면 양쪽이 다함께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가 있다.

〈M.루터〉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나만 살겠다고 밀어붙이지 않고 서로 양보 하므로써 같이 사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가르쳐준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번 자리를 차고 앉기만하면 일어서려 하지 않고 남을 밟고서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세상에 최근들어 대학교 정계와 불교계에서 「사양(辭讓)의 미덕」이 잇달아 우리들을 호뭇하게 해주고 있다. 올부터 직선제총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1차 총장후보로 선정됐던 이수성교수, 2차 후보로 올랐던 조순 전부총리는 「총장은 커녕 후보가 되기에도 부족한 그릇」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변(辯)으로 총장자리를 사양했다.

또 신민당 이찬구의원도 「야당의 정치자금조달이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치판에서 의욕이나 이상만을 가지고서는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정치구조에 대한 항의인듯이 보여진다.

또한 종정선출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조계종에서도 그동안 종정을 역임해온 성철 큰스님이 「산승은 숨어사는 사람입니다」면서 다시 종정을 맡을뜻이 없다고 후보사퇴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성철 큰스님은 「푸른 허공은 높고 넓어 끝이 없는데, 우리 지구는 작고 작아 찾아볼 수 없네, 성현과 달사들이 다 잘났다고 서로 뽐내니, 현미경속의 티끌만한 그림자로다」하는 예의 계송(偈頌)도 발표, 인간사 부질없음을 간파했다.

내것이 아닌 것도 온갖 술수와 잔재주를 부려 내 것을 만들고야 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세태 내 것이 다된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그 덕스러움이 돋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채근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세상에 처함에는 한발짝씩 사양함을 높다고 하나니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갈 밑천이요, 사람을 대접함에는 일분의 너그러움을 복이라 하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실로 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處世讓一步爲高 退步卽進步的張本 待人寬人分 是福利人 實利己根基)

德(덕)은 直心(직심)

道德은 德자의 핵심은 그 오른쪽에 있다. 그 德이라는 부분은 直과 心の 두글자가 합쳐져서 이뤄지고 있다. 直이라는 글자는 원래는 線과 目을 합친 것이라고 한다. 곧 눈을 직선으로 똑바로 목표를 향해 뜨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直」이 들어가 있는 글자는 모두가 「똑바로」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령 나무를 똑바로 세우는 것을 「植」이라 하고, 물건을 똑바로 세우는 것을 「置」라고 한다. 그러니까 「덕」이란 「똑바른 마음」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 하여 行자를 곁들여서 德이라 쓰게 되었다고 한 학자들은 풀이한다. 그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미워하고, 은혜를 받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딱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못된 사람은 미워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저항하는 마음을 뜻한다. 도덕이란 그리 어려운게 아니다. 어린이처럼 더러움을 타지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直」의 반대는 「邪」가 된다. 그건 글자의 모양새 그대로 뒤틀어져 있고, 옆으로 튕겨져 있다. 짐승의 이처럼 위아래가 맞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牙」가 들어있는 것이다.

혜절의 시대

일찌기 조지훈은 「인간의 지조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정의(定義)했다.

「지조와 정조(貞操)는 다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고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들 하지만 알고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생활의 이욕(利慾)에 매수된 것이요, 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패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다.」

그는 또 「지조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며 고귀한 투쟁이기 까지 하다」고 「지조론」에서 잊고 있다.

그러면 지조의 반대개념인 변절(變節)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도 조지훈의 답은 명쾌하다.

「변절이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진심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어놓은 주제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지난날 우리의 민족사는 지조와 변절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하다.

지조를 굽히지 않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이들을 어찌 손가락으로 세일 수 있으며 일신의 영화를 위해 변절을 밥먹듯한 이들을 어찌 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여자에게는 두남편이 없고 신하에게는 두임금이 없다」면서 지조를 지키고, 어떤 이들은 비굴한 궤변을 앞세워 지조를 버린 것을 우리는 과거사에서 거울처럼 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절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왕조나 왕권 또는 정권의 교체기이거나 시국이 내외의 도전으로 어지러운 때이다.

나라가 어지러울때는 충신열사도 많이 나지만 또한 매국노 역적 변절자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 역사에 지조를 지킨 이와 변절자가 확연히 구분된 때는 국운이 풍전등화이던 고려말이었다. 고려왕조의 패망은 많은 선비들에게 새왕조에의 참여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길이나의 강요를 가져왔고 지조를 지킨 이는 그 지조때문에 제물(祭物)이 되었고 지조를 버린 이는 그 변절로 하여 계속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如反掌 (가반장)

옛말에 몽중허인각차불배기신(夢中許人覺且不背其信)이라 하였다. 꿈결에 약속하여 승낙한 것은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줄 안 뒤에도 실행에 옮긴다 함이다.

또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中千金)이요, 장부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거우니 장부일언천년불개(丈夫一言千年不改)라 대장부의 한마디는 천년을 변치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모두 한번 다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인간의 지극한 도리를 말한 것이다.

옛날 중국에 미생(尾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때 그는 한여자와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오지 않았다. 때마침 비가 쏟아져 물이 불어났으나 미생은 자리를 뜨지않고 기다렸다. 여자와의 약속을 저버릴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생은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약속을 천금같이 알고 목숨을 버린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소진전(蘇秦傳)에 나온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자(曾子)라는 이가 있었다. 어느날 그의 아내가 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자 어린 자식이 울면서 따라나섰다. 그녀는 「시장에 갔다오면 돼지를 잡아 맛있는 고기를 줄테니 집에 있으라」고 달랬다.

그런데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남편인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아내는 「난 그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짓이지요?」하고 말했다.

그러자 증자는 「아이에게 그런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요. 농담으로라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하고 돼지를 잡아 아이에게 삶아먹였다.

대수롭잖은 사사로운 약속일망정 그것을 하늘같이 알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버린 옛사람들의 마음씀씀이 자못 감동스럽다.

信物(신물) 이야기

이산(離散)이 무상했던 우리나라였던지라 신물(信物)의 역사 또한 유구하고 다양하다.

고구려의 둘째 임금 유리왕(琉璃王)은 그가 시조(始祖) 주몽(朱蒙)의 아들임을 산속에 숨겨둔 칼 한자루를 신물로 찾아내어 입증시키고 있다. 신라 진평왕때 경주 울리(栗里)에 설씨녀(薛氏女)라는 가난하지만 예쁜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병역을 수행하라는 영장이 나왔다. 그녀를 사랑해오던 가실(嘉實)이라는 젊은이가 대리입대를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가실이가 떠날때 살아돌아와 가약(佳約)을 맺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신물로서 거울(銅鏡)을 쪼개어 반쪽씩 가졌다. 변강에간 가실의 소식이 끊어진지 6년이 지나도록 절개를 지킨끝에 살아돌아온 가실이와 거울조각 맞춰보고 가약을 맺는다. 신라소년들은 친구들과 몇년안에 무슨 책을 몇번 읽는등의 약속 사연을 적은 돌을 신성한 산마루에 묻음으로써 신물을 삼는 풍습도 있었다.

「태산이 높다하되…」의 양사언(楊士彦)의 아버지 양희수(楊希洙)는 장성(長城)처녀와 동침하고서 신물로서 부채를 주어 후에 소실로 들고 있다.

재회의 약속으로 이빨을 빼어 신물로 주고 떠나는 기방습속도 있었으며, 등짐 봇짐 메고 팔도를 누비던 보부상인(褓負商人)들이 의형제를 맺고 헤어질때 질그릇 사기그릇 파편인 사금파리를 쪼개서 반쪽씩 들고다님으로써 신물로 삼았던 것이다. 신물은 그 자체는 쓸모없는 하찮은 물질의 파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막강하고 숭고한 것이다.

그림자 警察(경찰)

하늘의 노여움도 안 두렵고 천자(天子)의 불호령도 안두려우며

폭한(暴漢)의 쇠주먹도 안두렵고 맹호의 으르렁거림도 두렵지 않지만, 오로지 두려워 일거수 일투족 꼼짝 못하는 것이 자신의 그림자라고 고려문장(高麗文章) 李奎報는 「외부(畏賦)」에서 읊고 있다. 묶어 놓아도 따라오고 도망쳐도 먼저 와있으며 찢고 발기고 해도 고스란히 더불어 있는 그림자때문에 완전하게 자기 혼자일 수 없다 했다. 여기에서 그림자는 양심(良心)이요, 이 양심의 감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치를 이렇게 읊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생각나는 것이 영국의 「새도 폴리스」다.

그림자 경찰(警察)이란 뜻이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쳤다고 하자. 또 아무도 보지않은 길에다 쓰레기를 버렸다하자. 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안심을 한다. 하지만 심중팔구 경찰이 찾아오게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경찰의 추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독일은 고위도(高緯度)에 위치하고 있기에 춥고 햇볕에 굶주린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위치가 아랫목이듯이 유럽 노인들은 햇볕이 드는 창변이 정위치다.

하루종일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소일을 한다. 아무도 보지않는 작고 큰 범죄가 이 창변 노인들의 눈에 폭착되고 기억되고 기록된다.

이 공공의 적(敵)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되어 추적을 받게 된다. 창변에 널리 있는 양심의 감시가 바로 그림자 경찰 또는 창변 경찰이라고도 불린다.

유명한 뉴욕의 키티嬢 살해사건은 아무도 보지않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졌었다. 세차레나 도망쳤다가 다시와서 난자(亂刺)하는 잔인성 때문에 유명해진 사건이요, 또 그토록 오래 비명을 질렀는데도 그 현장에 뛰어나온 어느 한사람도 없었다는 데서 유명해진 사건이며, 고발정신이 살아있는 단 한사람의 70대 「그림자경찰」이 신고했다는 대비(對比)에서 유명해진 사건이기도 하다.

文 身

우리나라 문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중국문헌인 위지(魏志)의 진한전(辰韓傳)에 나온다. 마한 사람들은 남방습속 문신을 하는데, 이유로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나운 큰 고기의 해침을 막기위해 몸에 문신을 한다했다.

그 문신습속은 중세에 상스럽다 하여 단절됐으나 문신형(文身刑)이라는 형벌수단으로 근세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조선조초에 절도 초범에게는 오른 팔뚝에 「盜」자를-재범에게는 왼팔에 마저도(盜)자를 자자입묵(刺字入墨)시키고 있다. 관(官)의 물자나 돈을 훔친자에게는 「都官錢」, 백주의 날치기에게는 「搶奪」, 소나 말을 도살한 자에게는 「宰牛馬」, 장물아비에게는 「窩主」란 글씨를 자자(刺字)하였다. 죄질이 나쁜 자에게는 이마나 볼에다 자자를 하여 평생 전과자임을 숨길 수 없게 하기도 했다. 일부 양반들은 자신이 거느린 종들에게 「駱洞李奴, 齊洞朴婢」하는 식으로 문신을 베풀어도망치지 못하게도 했다.

연비(聯臂)라 하여 사랑을 약속한 남녀끼리 문신을 하는 상민들의 습속도 있었다.

젊은이들끼리 약속을 하거나 결의(結義)를 할때도 그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문신을 했던 것 같다. 「우리 동방여염의 탕자(蕩子)들은 서로 결의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찌아 먹칠을 하고 점색(點色)을 이룬다. 그 푸르기가 멍과 같다. 이로써 평생 불망(不忘)의 의로 삼는다. 이 모두 버려야 할 악습이다.」(「五洲聯文長箋散稿」).

결사(結社)나 결의(結義)를 할때 배신할 수 없게끔 육체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신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閔자건의 孝

說苑에 기록된 閔자건의 孝를 보자. 어려서 모친을 잃은 閔자건

은 계모의 학대를 받고 자랐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의 수레를 몰고가던 閔자건은 추위에 견디다 못해 말고삐를 놓치고 만다. 閔자건의 손은 동상이 걸렸고 옷 또한 얇게 입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돌아와 세 이복동생을 불러보았더니 그들은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다. 화가 치밀어 계모를 내쫓으려는 아버지에게 매달린 閔자건은 『계모님이 계시면 이 한 자식이 흠뻑을 입고 추위에 떨면 되지만 계모님이 나가시면 네아들은 또다른 계모님에게서 추위에 떨며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閔자건의 착한 마음을 받아들여 계모를 내쫓지 아니하고 계모역시 회개,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한다.

義理(의리)의 친구

두 친구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큰곰이 나타났다. 한 친구는 황급히 나무위에 올라가서 숨었다. 또 한 친구는 미처 도망가지 못해 그자리에 쓰러져서 죽은 시늉을 했다. 곰은 그의 곁에 가서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곰이 사라진 다음에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는 곰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다. 친구는 대답하기를 『앞으론 위험할때 혼자 도망가는 의리없는 친구하고는 같이 여행하지 말라더군요.』

盜君子 (도군자)

중국에 梁上君子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盜君子란 말이 있었다. 법도나 위신이나 인간성을 갖춘 도둑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盜君子에 대해 전래된 이야기는 적지 않다.

어느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찌나 가난하던지 갖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빈손으로 나가자, 잠잔채하고 누워있던 주인이 『문이나 잘 닫고 가소』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신발이 닳았을테니 쟈신

이나 바꿔신고 가게나』하였다.

도둑이 신발을 바꿔신고 보니 제가 신고온 짚신 보다 더 낡아 발바닥이 땅에 닿을 지경이었다. 도둑은 너무나 주인이 가없어서성한 제신발을 벗어놓고 낡은 신발을 신고 담을 넘어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盜君子다. 어느 한도둑이 선비집에 들어가 紙墨을 훔쳐놓고 옆에 있는 상놈집에 침입, 마루밑에 숨어있었다.

마침 그 집은 제삿날이라 상을 차려놓고 있었는데 祭文 쓸줄을 몰라 전전궁궁하고 있었다. 글깨나 했던 도둑인지라 옷을 털고 나아가 훔쳐온 지묵으로 제문을 써주었다. 『도둑양반님 고맙습니다』하고 큰절을 받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盜君子인 것이다.

옛 우리사회에서 신분상 생업에 몰두할 수 없었음인지 가난해진 양반이 도둑질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양반 도둑들을 막는 예방책으로 문기둥에 「內外有別」이란 말을 써붙여 놓고 안방에 「內房」이라 써놓으면 도둑이 문전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이 君子인 것이다. 盜君子에게도 지켜야할 五倫이 있었다. 일당의 다른 도둑 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勇」이요, 훔치고나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義」며 훔친 물건을 고루 노나갖는 것이 「仁」이요, 憂患이 있는 집을 피하는 것이 「情」이요, 부부의 동침기미를 알아 놀라게 하지않는 것이 「禮」인 것이다.

동방예의지국다운 「盜道」인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三綱五倫이 증발하고 없는데 盜君자의 五倫이 살아있을리는 없다.

機 心 (기심)

옛날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 그는 해오라기와 친하게 되어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날아와서 어깨나 손위에 앉곤했다. 그는 그 해오라기 얘기를 아내에게 했다. 아내는 그 해오라기 한마디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잡아올 마음을 먹고 이튿날 바닷가에 나갔

더니 해오라기는 한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해오라기를 잡으려는 機心이 있었기 때문이다. 機心이란 이렇게 겉으로 아닌채 하면서 속으로 품고 있는 邪心이다.

예부터 鳥類는 인간의 機心に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江南의 아파트村인 狎鷗亭洞은 世祖 쿠데타의 功臣이요 벼슬밭에서 영화를 누렸던 權臣 韓明澮의 정자 이름에서 비롯된 동명이다. 그는 벼슬에 욕심없이 江村에 은퇴해 산다는 허울을 위해 이 강변에 다 갈매기와 친하다(狎鷗)는 뜻으로 압구정을 짓고 雅號도 機心を 잃은 노인이라 하여 「忘機老」라고 자칭하였다. 하지만 機心に 예민한 갈매기는 이 정자를 피해 날았던 것 같으며, 뜻있는 선비들은 친할 「狎」이 아니라 짓눌러 버릴 「押」鷗亭으로 불러내렸던 것이다.

병자호란때 인질로 잡혀갔던 昭顯世子따라 우리나라에 온 屈氏라는 宮女가 있었다. 한국땅에서 살다죽은 이 宮女는 휘파람으로 온갖 새를 불러 들이고, 불러들인 새를 손가락끝으로 마음대로 다루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이 별다른 비결이라도 있는가고 물으면, 機心없는 天真한 경지에 들면 새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고 대견스럽지 않게 대꾸하곤 했다 한다.

한말, 憲宗-哲宗-高宗 3대를 거쳐 어전에서 판소리를 읊었던 李捺致라는 名唱이 있었다. 이 명창의 새타령을 들은 일이 있다는 詩人 林圭는 이렇게 적어 남기고 있다.

「어릴적 고향인 益山근처 深谷寺에서 李捺致의 새타령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가 새소리를 낼때마다 빠국새인지 똬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산새들이 날아들어 그를 에워싼 것을 보고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었다」고-. 신앙이나 예술이나 수양에서 機心を 잃은 신묘한 경지에 이르면 새와 사람사이에 격의가 증발해 버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새가 사람을 보고 피하는 것은 權欲이며 利欲, 名欲, 淫欲...위선, 시기, 모략, 음모...온갖 잡심이 범벅이 된 것을 뚫어본 때문일까-. 그렇다면 도지에서 새가 사라지는 현상은 비단 공해만도 아닌 범람하는 機心때문이 었을까-. 奈藏山 圓寂菴에 藏堯라

는 스님이 인근 산새들을 불러 손아귀에서 모이를 먹이며 대화를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보니 이 機心생각이 난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다

인도의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1만루피의 금화를 모았다. 그의 소망은 1만루피가 보이는 날 그 돈을 자신이 존경하는 성자에게 바쳐서 내생의 안락한 삶과 공덕을 짓는 일이었다. 그 시절 1만루피의 금화라면 신의 궁전까지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마침내 그는 존경하는 성자앞에 돈보따리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이 돈을 성자께 바치오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성자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선뜻 그 거금을 받아 들었다.

『좋다. 내가 그 돈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수고해다오.』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의 미친한 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십시오.』

성자가 말했다.

『이 금화를 모두 갠지즈강으로 가져가서 강물속에 던져버려라.』

그 사나이는 깜짝 놀랐다.

『1만 루피의 금화를 강물 속이에요?』

그러나 이제 금화의 소유주는 성자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금화 보따리를 들고 갠지즈강으로 갔다. 그런데 몇시간이 지나도 그 사나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성자가 말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5분 거리도 안되는데 어째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지?』

성자는 한 사람의 제자를 시켜 찾아나서게 했다. 그때 강변에서는 수많은 군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사나이는 금화를 한낱 싹 집어들어 돌맹이에 두들겨 본다음 마지못해 하면서 강물 속으로 던지고 있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금화를 줍기 위해 강물에 뛰

어들어 자맥질을 하였다. 그 사나이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자는 말했다. 『그 녀석은 바보로다. 그에게 가서 일러라. 어떤 것을 수집할 때라면 그 숫자를 헤아려야겠지만, 버리는 마당에 어째서 시간을 낭비한다 말인가. 버릴 때는 미련을 두지 말고 한꺼번에 몽땅 내던져 버려라!』

인생이란 얻은 것과 잃은 것으로 얽혀져 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은 것을 싫어한다. 명예가 됐건, 지위가 됐건 혹은 친구나 돈, 물건등 무엇이든지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을 싫어한다.

靑藜杖 (청려杖)

지팡이는 신탁(信託)과 기적(奇蹟)의 매체(媒體)였다. 구약성서에서 신(神)은 아론의 지팡이에 꽃을 피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한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았고 탄 호이저의 지팡이를 맞으면 면죄(免罪)가 되었다. 로마에서는 집정관(執政官)의 지팡이에 손을 대는 것으로써 노예가 양민이 되었던 것이다. 비장방(費長房)은 지팡이를 타고 눈감짝할 사이에 천리를 날아다녔으며 당나라 현종(玄宗)은 한 선인(仙人)이 지팡이를 던져 나타난 다리를 타고 월궁(月宮)까지 가서 항아(姮娥)들과 놀고 있다.

고려때 시인 이인로(李人老)는 나물먹고 배불러서 물가에 나가 두다리 담그고 용죽장(龍竹杖) 베고 누워있으면 꿈속에 흰갈매기가 나타나 해저무는줄 모르고 희롱을 한다했다. 조선조초의 정승 박순(朴淳)이 지리산에서 은둔할 때 지팡이 소리만 들으면 온갖 새가 날아들어 지저귀며 수행을 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지팡이는 자신이 만들어 짚는다는 법은 없었다. 원살이 되면 자식들이 만들어 바친다하여 가정(家杖)이라 하고 예순살이 되면 마을에서 만들어 바친다하여 향장(珦杖)이라 하며

일흔살이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바친다 하여 국장(國杖)이라 하고 여든살이 넘으면 임금님이 만들어 내린다 하여 조장(朝杖)이라 했다. 어느 한 70노인이 국장(國杖)을 짚고 어느 한 고을에 나타나면 그 고을의 원님은 나가 읍성히 마중을 해야 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지팡이는 노쇠한 몸을 의지하는 기구였다기보다 명예가 부가된 훈장이었는 기구였다기보다 명예가 부가된 훈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빈청이나 상청에 지팡이를 모셔 두어 저승에 가서도 짚고다니도록 해야했으니 지팡이는 존장(尊杖)의 분신(分身)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팡이 사치도 대단했다. 상류사회에서는 멀리 서역(西域) 지방에서만 난다는 마디없는 무절죽장(無節竹杖), 벼락을 피한다는 영수장(靈壽杖) 등등... 명아주풀(靑藜)로 만든 청려장(靑藜杖)도 그런 희귀한 지팡이 가운데 하나였다.

후한(後漢) 때 유향(劉向)이 밤에 글을 암송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들어와 청려장을 땅에 치니까 불빛이 나 흰해졌다는 발광지팡이다. 가벼운데다가 단단하고 발광(發光)을 하기에 병액(病厄)의 사귀(邪鬼)를 물리친다 하여 값진 지팡이였고 여염사람은 글에서나 알고 있던 지팡이다.

先生(선생)

論語시대만해도 「先生」하면 나보다 먼저 난 아버지나 형님을 뜻했다. 孟子때에 이르러서야 나보다 먼저 도를 깨친 사람이라는 존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임금님이 학식을 갖춘 선비를 부를 때는 반드시 선생호칭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상 고려때에 선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던 것 같다. 宋나라 사신의 고려견문기인 <高麗圖經>에 鄉先生이란 말이 나오는데 급제한 사람으로 아직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일컫고 있다.

조선조 중엽때 기록인 「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마시며 글짓는 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고 천하건간에 서로 선생호칭을 하는데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않고, 그저 大人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때부터의 법도」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게 된 것은 굉장히 후세의 일이었음을 알수 있다. 조선조 초기의 「스승」이 나오는데 語源을 따진 「東言巧略」에 보면 師이 중국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 했다. 그밖의 호칭으로 州나 府같은 큰 고을의 향교스승은 教授(從六品), 郡이나 縣같은 작은 고을의 향교스승은 訓導(從九品) 향촌의 사설서당 스승은 訓長으로 불렸다.

벼슬없는 講師는 學長, 그리고 학생을 통솔하며 훈장을 돕는 조교는 接長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 세상의 선생 호칭가운데 정곡을 찌른 것은 영국 빅토리아 王朝시대의 속칭이었다는 inter-taker다. 직역을 하면 사이를 잡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것은 師弟간에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스승의 첫째조건으로 삼았던 우리 전통의 스승觀과 꼭 들어맞는다. 栗谷의 〈學校模範〉에 보면 스승을 쳐다볼 때 목위에는 봐서안되고 선생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되고, 웃는 일이 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分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

성균관 「學則」에 보면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손을 머리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타고 거가든 몸을 옆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너무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師弟간의 사이를 엄연하게 잡은 다음에 교육을 베풀었으니, 그 효율이 손에 잡혀질 것만같다.

「師」(사)

스승노릇하기란 어렵기 그지없는 일이다. 옛날 서당훈장이 아내

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친정에 돌아감으로써 아이 뎨 것을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 법도였다. 아이를 배게하는 어떤 연상으로 師表를 오염시켜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다. 「훈장 집뵤문」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속 다르고 겉다른 표리부동을 빗뵤 말이다. 훈장은 먹고 입고 사는 필요한 물자마저도 부덕시하여 뵤문으로 몰래 드나들게 뵤던데서 비롯된 속담이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도 억제하는 것이 師表의 도리였다. 許草堂이 스승인 徐敬德을 花潭골로 찾아갔을 때 일이다. 싸들고간 밥을 펴 스승에게 드리자 전혀 배고프다는 내색을 앓고 사양하였다. 후에 草堂이 부엌에 가서 솥을 열어보니 이끼가 가득 끼여있었던 것이다. 장마 바람에 냇물이 불어 옛새동안 내왕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이 스승은 꼬박 굶고 있었뵤 것이다.

제자앞에서는 이처럼 굶는다는 것도 내색해서는 안된다.

喜怒哀樂같은 감정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金宏弼은 어머니에게 보내고자 조기를 정성스레 말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고양이란 놈이 그 조기를 물고 달아났다. 이를 본 金宏弼이 마냥 화를 내고 뵤쫓아 갔다. 곁에서 보고있뵤 제자 趙光祖는 노여움을 나타낸데 대해 직언을 하고 있고 스승도 師道에 어긋남을 반성하고 있다.

심한 史例들이긴 하지만 敎師, 牧師하는 「師」자 돌림의 직명을 가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師表라는 굴레를 짊어져야하고 또 짊어짐으로써 존재가치를 지니고 또 존경도 받는다.

韓非子(한비자)의 師道論(사도론)

이 세상에는 「迷」와 「道」가 맥락돼있어 어느 것이 迷인지 道인지 분간못한채 살게 마련이다. 이 「迷」에서 「道」를 가려주는 사람이 스승(師)이요, 그래서 스승은 「道」를 가려내기위해 아무리 고지식해도 좋다고 말한 것은 韓非子다. 발에 나는 털하나 뽑으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하는 일이 있더라도 道가 아니면 뽑지말아야 하는 것이

스승이요, 세상사람 모두가 칭찬해도 道가 아니면 그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또 세상사람 모두가 비난해도 그것이 道라면 버리지않는 것이 스승이다.

더준다고 道에 겹지 않으면 덜준다고 道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師道論을 韓非子是 그의 顯學篇에 논술하고 있고 이 師道論은 중국뿐아니라 우리나라 師道の 밑뿌리가 돼내렸었다.

名相 李恒福이 정승으로 있을때 아무리 고관대작이 찾아와도 앉아서 절을 받았는데 어느 하루는 누더기옷에 누추한 한 노인인 뵈기를 청하자 맨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았다. 이항복이 아이적에 배웠던 스승인 高訓導였던 것이다.

이튿날 이정승은 누추한 주막으로 스승을 찾아가 찾아준데 고맙다는 뜻으로 回謝를 하고 베두필과 쌀 두어섬을 여비로 드리니, 노발대발 내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다고 호통쳐서 돌려 보내고 있다.

누추한 누더기 속에서 師道の 뼈다귀가 마치 은빛처럼 빛나고 있음을 보겠다.

師道(사도)의 汚染(오염)

대장경(大藏經) 고승전(高僧傳)에 혜원(慧遠) 스님의 임종(臨終)이야기가 나온다. 사승(師僧)으로 고명한 혜원이 중병으로 위독하자 많은 제자들이 술을 조금 드시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청했다. 이에 스님은 계율(戒律)을 어기는 일이니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미음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라고 하자 출가한자는 정오를 넘겨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계율을 들어 미음상을 물렸다. 그러시다면 꿀물로라도 입안을 적시십사 하니 그것은 계율에 어긋남이 없는지 경서(經書)를 갖고 오라고 시켰다. 그 책을 몇장 뒤쳐보다가 임종을 하고 만 것이다.

스승이기 위해서는 목숨도 돌보지 말아야 하는 교훈으로써 곧

잘 인용되는 이야기다. 사도(師道)는 이처럼 인도(人道) 위에 있었다.

권력도 때문힐 수 없는 것이 사도다. 연산군(連山君)의 세자때 스승이 조지서(趙之瑞)다. 연산군은 임금이 돼서 하는 행색으로 미루어 젊었을 때 몹시 못되게 굴었던 것 같다. 세자는 스승을 회유 협박 공갈하고, 심지어는 혹독한 사형(私刑)을 가하기까지 했으나 그는 굴하지 않고 책을 세자앞에 내던져가며 심성을 바로잡고 왕도(王道)를 다지려 같은 애를 썼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고 그에게는 벼슬과 영화가 기다리고 있으나 그날로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으로 낙향하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왕권(王權)도 좌우할 수 없었던 사도인 것이다.

선생의 선생님이 교장선생이요, 교장선생의 선생님이 교육감이다. 맨 우두머리에서 사도(師道)를 시험하고 교시하고 수호하고 다져나갈 그런 우두머리선생이 권력의 그늘에 숨어 뇌물을 먹고 쇠교랑을 차고 있다. 사도(師道)와 사도(邪道)가 이렇게 표리(表裏)에 밀접해 있을 수 있었던가 싶다.

顏氏敗訓 (안씨패훈)

이조시대의 학자 안지추(顏之推)가 顏氏家訓 을 지어 자손들에게 내리자 그 자손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이 많은 훈계 가운데 꼭 지켜야만 하는 한가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고. 이에 안씨는 일생을 살다보면 실패가 따르게 마련이요, 그 패사(敗事)를 당했을 때 성(省)-상(償)-약(躍)하라는 교훈이니라 했다. 성(省)이란 그 패사를 초래한 잘못이나 결함이 무엇이었는가를 반성하는 일이요, 상(償)은 실패함에서 반동(反動)하는 힘을 얻어 비약하는 일이라 했다. 이를 속칭 안씨패훈(顏氏敗訓) 이라 하여 우리 조상들은 패사(敗事)가 있었을 때마다 용기를 얻었던 교훈이었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이 안씨패훈으로 영달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사마천(司馬遷)은 거세형(去勢刑)을 받고 그 인생패배의 열등보상(劣等補償)에서 史記 라는 대작을 남겼으며, 손자(孫子)는 다리 근육을 잘리는 단근형(斷筋刑)을 받고 그 반동으로 兵法 을 남겼다. 뮌헨에 투옥당했던 히틀러가, 소아마비의 루스벨트가, 파리 망명의 호메이니가, 필리핀 참패의 맥아더가, 홍위병에게 갇은 수모를 당한 등소평 등등 좌절이나 실패나 수모없이 크게 성장한 사람은 드문 것이다. 안씨패훈과 같은 맥락의 지혜로서 우리 조상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낙상매(落傷鷹) 라는 교훈이 있다.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는 낙상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어미매는 새끼매를 먹일 때 높은 하늘에 떠서 먹이를 떨어뜨린다. 그 먹이가 깃속에서 어미를 바라보고 있는 새끼들 바로 위로 떨어진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새끼들은 모험을 해가며 그 먹이를 차지하려고 위험을 무릅쓴다. 개중에는 동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놈도 생긴다. 어미매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먹이를 취하려다가 실패하여 다리를 다친 낙상매인 것이다. 왜냐하면 새끼매에 낙상을 한 매가 그 결함이나 열등보상으로 별나게 사납고 억센 매가 된다는 것을 이 어미매들은 알고 있기에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낙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임금님의 매사냥을 위해 조정에서 응방(鷹房)을 두고 매를 길렀는데 낙상매는 진상품으로 금테로 발찌를 하여 여느 매들과 구별했다 한다.

이렇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새끼를 기르는 어미매는 스파르타의 어머니들 보다 현명했다할 수 있다. 기르는 정이란 사람이나 짐승이 다를 것이 없는데 말이다. 입학부정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쇠고랑차고 얼굴을 못들고 있음을 보았다. 자식을 가르치는데 물불 가리지않는 모성애는 무죄다. 다만 어미매만큼도 앞을 못보았다는 차원에서 수치스러울 뿐이다. 여기 안씨패훈 을 새삼 되뇌는 이유가 이에 있는 것이다.

「五香」育兒哲學 (오향 육아철학)

중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물리기 전에 오향(五香)을 차례로 맛보게 한다. 오향은 다섯가지 향기나는 달콤한 먹이가 아니다.

맨먼저 초 몇방울 입안에 떨어뜨려 핥게 한다. 갓난아기는 눈과 입술을 움추리며 온몸을 수축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금을 약간 핥게 한다. 세번째는 황련(黃連)이라는 쓰디쓴 한약을 핥게 한다. 짜증스런 표정을 지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구등(鉤藤)이라 하여 등나무 가지로 허끝을 따끔하게 찌른다. 움찔하며 울어떨 것이 뻔하다. 그리고 나서야 다섯번째에 달디단 설탕을 핥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오향(五香)인 것이다. 갓난 철부지에 별난짓도 다한다 할지 모르지만 상징적 의미지에 별난짓도 다한다 할지 모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다. 신맛-짠맛-아픈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나 이같은 싫은 일들을 참고 견딘 후에야 만이 인생의 단맛을 맛볼 수 있음을 기를 어머니와 길러지는 아이에게 동시에 터득시키는 교육적 의식(儀式)이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인지 전통사회에 있어 중국의 어린이들은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정신적으로 단련받으며 양육된다. 중국의 물이 나쁘기에 음료수뿐 아니라 생활용수를 뜨겁게 데워준다. 각 가정에서 충당하기에는 수여가 많기에 뜨거운 물만 끓여 파는 열탕집이 성업이게 마련이요, 대여섯살만 되면 주전자를 들고 이 더운물 사러가는 것으로 중국 어린이는 가사참여(家事參與)를 시작한다. 자칫하면 몸을 데는 조심스런 일부터 시킴으로써 조심성을 기른다. 그리하여 여섯 일곱살만 되면 아버지 점포에 나가 가게를 봄으로써 가사참여에서 가업참여로 비약한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두뇌가 발달하여 제웃한벌 만드는데 몇자 몇마, 숨이 몇근, 바느질 품값이 얼마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날이 변하는 미국달러 영국파운드의 환율이 얼마라는 것도 줄줄이 외우고 있게 마련이다.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어린이들 노리개를 상품화해서 팔고 산다는 전통이 없다 한다.

놀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명나라 청나라때 우리나라에 사신길왔던 중국사람들의 기록가운데에 공통으로 적혀있는 인상(印象)가운데 하나가 한국어린이들의 울음소리였다. 중국같으면 가업에 종사할 예닐곱살 먹은 것들이 마탕 울어대는 것을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피부 접촉 빈도

갓 태어나서 두 살까지의 뇌의 발달 분량과 두살부터 스무 살까지의 뇌의 발달분량이 똑같다는 것은 대뇌생리학자들의 상식이 돼 있다 한다. 그러기에 근간의 미국식 육아법처럼 젖아기를 엄마로부터 격리시켜 기른다는 것은 뇌발달의 수단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정신장애를 유발한다고 경고하고 어머니는 두 살때까지는 하루 4시간 아기와 접하지 않으면 뇌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다.

하버드대학의 브라질톤교수는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 곁에 뉘었을 때 이 모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텔레비전으로 촬영하고 다음 다섯가지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살을 댄다’ ‘눈과 눈을 마주친다’ ‘음성으로 호응한다’ ‘울음소리를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걸핏보기에 어머니쪽에서 작용하는 행동같지만 실은 아기와 엄마간의 상응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이라는 것이다. 이 원초적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고 기른 아이의 정서장애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유아기의 피부접촉 결핍은 성장한 뒤 질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그라스고오 대학의 연구팀은 그 결핍이 암 유발의 소인이 되고 있다고 발표한 일까지 있다. 이 피부접촉의 결핍은 병에 대한 면역성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발육장애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헬브뤼케 교수가 내한, 독일문화원에서 강연한 요지도 아이들의 각종 정서장애나 사회발달의 지체, 공격성이 강한 문제아 등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피부감각만이 발달돼 있는 유아기의 피부 접촉의 결핍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아기는 엄마가 안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萬人畵 (만인화)

지금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옥살이도 불사하는 맹렬 어머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옛날에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백호 집집을 돌아다니며 글씨동냥을 하는 맹렬 아버지들이 적지 않았었다. 자식을 가르칠 천자문(千字文)의 글씨를 과거에 급제한 생원 진사이상의 문사를 찾아 다니며 한자씩 써달라 하여 천자를 채우는 글씨 동냥(乞字)이라하고 이 아이를 중심으로 글씨를 써준 사람끼리 상부상조하는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자문을 만인문(萬人文)이라 했고—.

이처럼 우리 전통사회에는 어느 특정의 한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뒤통인가를 보태어 합심했음을 과시하는 만인습속(萬人習俗)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를테면 회갑이나 고희(古稀)나 회혼(回婚)잔치 때 주인공이 장수무강을 비는 많은 사람들이 친필 이름을 쓴 병풍을 증정하는데 이를 만인병(萬人屏)이라 한다.

세도가의 만인병에 이름이 오르면 그것을 배경으로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았고 만인병에 이름을 올리고자 뇌물을 주고 받는 폐단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잦았던 사화(士禍)후에는 이 만인병 풍습이 시들고 있는데 사화가 일어나면서 그 연루자의 연줄을 캐내는데 이 만인병이 자주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또 만인산(萬人傘)이라는 해프닝도 있었다.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 수령들은 자신의 치적을 상부에 알리고 싶지만 정보전달수단의

미개시대인지라 알릴 길이 없었다. 그래서 권모술수에 뛰어난 수령은 심복을 사주하여 그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만인산을 조작한다. 커다란 일산(日傘)을 만들어 수령의 치적을 구가하는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쓴 베나부랭이를 그 일산 둘레에 다 주렁주렁 매어댄다. 일단의 주민들로 하여금 이 만인산을 들고 상경시켜 조정의 고관 대작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광화문앞 육조(六曹)거리를 풍악을 앞세워 하루종일 왕래한다. 맨 앞에서 정뿔뿔 아무고을 아무개의 만인산 나들이요! 를 외치며 소리를 잡는다.

이 만인산에 드는 돈을 그 고을 백성들에게서 걷는데 과다하게 거두어 남은 돈을 수령과 나눠 착복한다 해서 이같은 악덕관행을 분식(分食)이라 했던 것이다.

밥상머리 버릇

유럽에는 아이들에게 버릇을 가르치는 예절의 책들이 비일비재하다. 그중 에라스무스가 16세기에 쓴 버릇 좋은 아이란 책을 보아보자.

어른에게 말할 때는 그 얼굴을 맞바로 보아라. 눈동자를 돌려서는 안되느니라. 대답은 짧게 알기 쉽게하며 길어지지 않도록 유념할지니라. 식당에 들어 가면 어른이 앉으라고 할 때 까지는 서 있어야 한다. 얼굴을 굽거나 기둥에 등을 비벼대서는 안된다. 어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은 아이들은 말을 하거나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지며 빵은 나이프로만 잘라야지 손으로 잡아뜯지 말지어다. 자신의 스푼은 공동의 수프속에 담가서는 안되며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거나 머리를 접시 가까이 밀어 대거나 입이 부풀도록 음식을 가득 넣어서는 안되느니라.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의 버릇을 바로 잡아주는 예절의 책이 많았다. 소학(小學) 사소절(士小節) 여사서(女四書) 내훈(內訓)을 비롯, 각 가문에서 자녀들을 위해 지어 전수한 각종 가훈까지 합

치면 수백종에 이르고 있다.

그중 밥상머리에서의 에티켓을 추려보면 이렇다.

—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맨 먼저 음식 탐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음식을 탐내게 되면 팔다리와 목이 가늘어지는 병이 생길 뿐 아니라 그 탐욕으로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치로 하여금 도둑의 마음이 생기게 한다.

—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전에 아이가 숟가락을 들어서서 안되고 어른이 숟가락을 놓기전에 놓아서도 안된다. 상에 별식이 오르면 어른이 먼저 손을 댄 연후가 아니면 먼저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별식을 분별하기에 어린 나이면 밥상 들기전에 불러내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주지시킨다.

찬에 젓가락질 할때 한번 집힌 분량이 많건 적건간에 두번 다시 젓가락질을 해서는 안된다. 상추쌈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부라려야 먹게돼 있는 음식은 어른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옆을 보고 먹어야 한다.

— 밥먹을 때 배부르게 먹지말며 밥먹을때 국물음식에 손을 적시지 말며 국물을 소리내어 마시지 말며 뼈를 깨물지 말며 한번 먹던 음식을 다시 놓았다 먹지 말며 조밥을 젓가락으로 먹지 말며 밥먹으며 뼈를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이 밥상머리의 버릇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기초교육이라하여 옛날 법도있는 집안에 아이를 맡겨 밥상머리의 인격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관습까지 있었다. 바로 연산군도 어릴적 승례문밖 강희맹(姜希孟)의 집에 밥상머리의 버릇을 위해 위탁되었던 것이다.

三寸課外 (삼촌과외)

孔子の 아들이름이 鯉다. 어느날 陳亢이 鯉가 달려가는 것을 불러 세워놓고 물었다. 「詩를 배웠는가」고-. 詩같은 것 배운 적이 없

다고 대꾸했다. 다른날 다시한번 鯉를 불러 세워놓고 「그럼 禮는 배웠는가」고 물었다.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버릇 없이 말하자 陳亢은 옳거니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였다. 「孔子的 친자식을 가르치지 않음이어……」하면서 孔子에 대한 존경의 염을 한결 깊게 했다는 이야기가 「論語」季子편에 나온다.

자식을 손수 가르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경멸해야 했을텐데 왜 존경을 더했을까. 그 해답이 「顏氏家訓」에 나온다. 父子의 관계는 존엄해야 한다. 한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면 정이 앞서고 편애가 심하여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질 못한다. 부모가 알건 모르건 편애와 과보호로 가르친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가공할 일을 저질렀는가 史例를 들고 있는데, 형제의 骨肉相爭으로 처참하게 죽은 公叔段은 어머니의 편애 때문이요, 漢나라 趙王如意가 독살당한 것은 아버지 高祖의 과보호에 겨운 교육때문이며, 後漢 劉表의 一族이 몰살한 것은 아버지의 편벽된 교육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부모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학교제도가 잘 돼있지 않았던 가정교육시대에는 대가족제도로 同居하게 마련인 삼촌(叔)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밖에 없었다. 「師叔出表」란 말이 자주 나온 것만 보아도 師叔의 보편성을 알만하다. 삼촌은 아버지보다 자녀의 품격이나, 자질이나, 진도나, 적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情에 겨우지도 또 情에 멀지않게 가르칠 수 있기때문일 것이다. 孔자의 친자식을 가르치지 않음이어…하는 감탄이 알만해진다.

한데 그 삼촌이 같이 살고 있는 조카를 가르쳐도 불법과외가 된다 하니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지만 無常하기만 하다. 이 불법화된 三寸 課外에는 동일호적에 올라 있지 않은 삼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호적에 올라있진 않진 삼촌은 삼촌이요, 아무리 핵가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가장 同居率이 높은 至親이 삼촌과 고모인 것이다.

三寸과외를 그같은 사회악의 범주에 구겨넣음으로써 우리 한국

인이 가장 정서적 결속단위인 가족과 至親의 틈을 서먹서먹케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학질은 놀라게 하면 떨어진다고 하여 여름내내 지겹게 학질을 앓는 아들놈을 벼랑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학질때는데만 눈이 어두워 그 아이의 목숨 떨어진 것을 잊고 있었음을 빗댄 것이다.

女性虛榮 (여성허영)

「치맛바람」은 우리나라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다. 성질의 차이는 있으나 美國에서도 마찬가지다. PTA(師親會)에 출석하는 것은 대부분이 여성이고 또 학교수업 참관일에도 스커트 일색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버지參觀日」이라는 것을 따로 두어 子女教育의 여성 독점(?)을 막고 있다.

이러한 「치맛바람」을 그들은 「마미즘」이라고 부른다. 같은 부모인데도 子女教育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어머니이며, 그 결과로 애들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란다. 마미(엄마)란 말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이 된 뒤에도 어머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래서 社會는 점점 여성화되고 나약해지고 남성적인 모험심이 위축되어 간다는 이야기다. 요즘도 美國의 고등학교 학생들간에는 수영을 기르고 다니는 것이 유행인데 심리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미즘(母性愛)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는게다.

『女子란 여우목도리만 두르면 그 마음도 여우가 되고, 악어 핸드백을 들면 그 얼굴도 악어 가죽같이 두꺼워지는 법』이란警句가 있다. 환경에 그만큼 동화하기 쉽고 그만큼 또 허욕도 많다는 것이다.

이 여성특유의 허영의 올림픽이 바로 자녀의 入學경쟁인데, 그 치열한 바람에서 귀여운 자녀를 구제하는데 역시 「아버지」의 역할

이 클것 같다. 입시시즌에는 占장이집까지에도 치맛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다.

同病相憐, 마미즘을 고치려는 그들의 處力을 우리도 빌어 오자는 데 있다. 우선 「아버지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자」는 미국의그 사회운동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싶다는 이야기다. 아버지들도 자녀교육의 一翼을 담당하려면 집안에서 애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가정복귀운동」의 하나로 근무시간의 단축과 週 5일제 근무案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女)변의 뜻 글자

어미 「母」는 유방이 두개있는 여(女)자란 뜻글씨다. 미(未)숙한 여자가 妹 - 판집(家)으로 시집간 여자는 嫁 - 기(技)량을 가진 여자는 妓다. 「女」변의 글씨만 보아도 무슨 여자인가 뜻이 알만해진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양, 良) 시기가 아가씨 시절일 것이다. 그래서 아가씨의 한문표기는 ‘娘’이다. 여자가 젊으면(天) 요기가 스며 나오고, 오밀조밀 적은(少) 여자가 묘령이 아닐 수가 없었겠다. 그러다가 부모슬하를 떠나 한집(家)을 갖게 되는 것은 ‘嫁’라 하고, 여자가 아들(子)을 갖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좋았기로 ‘好’자가 탄생했나. 여자가 낡으면(古)시어미(姑)가 되고 늙으면(老) 할머니(姥)가 된다. ‘女’변 한문으로 따져본 여자의 일생이다.

또 여자가 돈이나 재물에 빠져 매매(賣買) 행위를 상습화하면 더럽혀지고(嬖), 잔꾀를 부리게 된다(嬖). 둘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姁), 셋이 모이면 간사(姁)해지며 일곱이 모이면 제몫을 못 가다듬고 칠칠(妣)해지고, 여자다움을 상실(亡)하면 망녕(妄)된다. 물론 한문의 발상지인 중국이 오랜 남성 본위의 부권 사회였기에 남자 위주로 여자를 보았던 데서 ‘女’변의 뜻글자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다.

미녀의 기준

미녀를 선택하는 기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삼백) - 피부, 이빨, 손. 세개는 희어야 한다. (삼흑) - 눈, 머리카락, 눈썹. 세개는 검어야 한다. (삼홍) - 입술, 뺨, 손톱. 세개는 붉어야 한다. (삼장) - 키, 머리카락, 손. 세개는 길어야 한다.

그리고 또 세개는 짧아야 한다. (삼단) - 귀, 이빨, 턱. 세개는 짧아야 한다. (삼광) - 가슴, 이마, 눈과 눈사이. 세개는 넓찍하여야 한다. (삼세) - 허리, 손가락, 발. 세개는 가늘어야 한다. (삼박) - 손바닥, 발목, 비공. 세개는 얇아야 한다. (삼후) - 입술, 팔, 허프. 현대의 미녀 콘테스트에서는 주로 체격, 사이즈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상의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여자의 長壽(장수)

환갑 이상된 한국의 할머니수는 할아버지 수보다 15배로 두 배가 못되나, 85세 이상 올라가면 할머니가 3배나 더 많고 1백세 이상이면 근 6배쯤 된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상식이 돼 있었지만 장수자가 몇곱씩 차이가 날만큼 격차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현재의 남녀 평균 수명도 다섯살 차이가 나고 앞으로의 기대수명에서도 이 다섯살의 벽을 뚫지 못할 것으로 산출돼 있는 것을 보니 남자의 우생학적인 열성이 실감이 난다.

그러고 보니 미국의 신문들에 떠들썩했던 ‘약성논쟁’이 생각난다. 유럽 각국, 미국, 일본에서도 이 다섯살의 약성의 원인으로 남자의 가장 큰 사인인 심장질환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잡싼 미국의 맹렬여성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 전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던 것이다. “소중한 남편들의 심장을 보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모든 여성은 차 속에서 약심장의 남성들에게 좌석을 양보하자”고.

벨기에의 부인 정당 당수는 저명한 심장병 학자요 전문의라 한다. 그는 2천여 케이스의 심장질환을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 남성 심장병의 최대 원인은 ‘경제적 중압’이라 진단, “남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처자식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육체적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 가없는 남성들의 책임을 우리 여자가 분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 강령을 삼고 있다고도-.

딸 둘, 가시내 셋

어느 외할아버지는 슬하에 자제가 몇분이시냐고 여쭙 불라치면 딸이 둘이고 가시내가 셋, 계집애가 둘, 그리고 공주가 하나지, 하신다. 요즘 뭘 하느냐고 안부를 물으면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잠잔답니다 하는 대답과 마찬가지로 듣는 이가 도리어 당황하거나 겸연쩍은 말쑤이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딸을 내리 여섯까지 낳게 되자 손크고 활달하던 부인이 풀이 죽었겠다.그제야, 언제 밖에서 실수하여 얻은 사내아이를 부인과 아버지까지 승낙하여 장자로 입적시키자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야 부인이 옥동자를 낳았다. 그날부터 딱한 남편은 부인이 자리에 누워서 물...하는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날듯이 물그릇을 날라야 했다.

옛날처럼 반드시 대를 이어서가 아니라도 딸만 내리 낳게 되면 구색으로나마 아들 하나 보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리라.

그러기에 당나라 진홍도 그 장한가(長恨歌)에서 생녀물비산(生女勿悲酸)이요, 생남물희가(生男勿喜歌)이라 했다. 딸이라 슬퍼말고 아들이라 기뻐할 것도 없다는 것은 저 타고날 탓이라는 말일게다. 옛날엔 딸이 셋이면 문열어 놓고 잔다고, 딸 시집을 보내자면 기동뿌리가 빠진다고했지만 더욱 오늘날에는 어쭙잖은 사내자식 보다는 딸 잘 두어 딸재미보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여성은 적은 것이 美

어느 국민학교 교사가 남자의 명함과 여자의 명함을 수집, 그 크기를 대비했더니 길이에 있어 여자의 것이 남자의 것보다 7% 짧고 너비도 15%가 좁더라 했다. 비단 한국인 뿐이 아니지만 여자의 키는 남자보다 7% 작고 몸무게는 15%가 가볍다는 것이 정설이 돼 있다. 이 육체의 남녀대비가 명함에 나타난 심리의 남녀대비와 같다는 사실은 반드시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옛 우리 법전인 경국대전이 정한 결혼 연령은 남 15세 여 14세로 여자가 7% 어리다. 구두사이즈의 남녀 평균 대비는 구두메이커에 물었더니 7~8% 차이가 난다고 계산해 주었다.

어머니 유기 밥그릇의 지름도 아버지 밥그릇의 그것보다 15% 짧다. 여자의 젓가락 길어도 15% 짧다. 밥먹을 때 잇몸이 드러나도록 입을 벌린 부녀자는 ‘십거지악’의 하나로 끼였고 ‘부녀반소’란 말도 있듯이 여자의 입마저도 작아야 했다. 팔뚝시계도 작고 심지어 화장지마저도 여자용이라 하여 작게 해서 판다. 여자의 것치고 큰 것이 있다면 잠자리 안경하고 여성잡지의 사이즈쯤일까—.

여자가 작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성의 약소미에 대한 본능적 집착 때문이라고 선천성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

結婚觀 (결혼관)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결혼이란 새장(鳥籠)과 같은 것. 밖에 있는 새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속에 갇힌 새들은 밖으로 나오려고 버둥댄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는 결혼생활을 동경하지만, 결혼한 남녀는 서로 자유를 바라고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시인 와일드는 「남자는 따분해서 결혼하고 여자는 호기심(好奇心)에서 결혼한다. 그리고 서로가 실망한다」고 말했는가 하

면 「결혼이란 결국 서로의 오해(誤解)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아마 「와일드」라는 사람은 무척 불행한 결혼을 했었는가 보다. 「와일드」의 조국 영국에는 『덤비어 결혼하고 서서히 후회하라』는 속담이 있으니, 영국 사람들의 결혼관이 좋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配偶者條件 (배우자조건)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를 사전적풀이로 혼인이라고 한다.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 심리적, 경제적 결합을 뜻하는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 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된다.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한 기능도 가진다.

우리의 혼인제도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자의 의사만으로 성립되는 약탈혼. 다음은 대낙혼. 여자부모의 의사와 남자 혹은 그 부모의 의사에 따라 성립된다. 그리고 공낙혼이 있다. 당사자끼리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쌍방행위적 혼인이다.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최근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낙혼을 제외한 이제까지의 모든 혼인은 개인의 행복을 도외시한 家의 계승을 위한 것이었다.

당사자의 의견보다 주혼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였다. 과거에는 자녀가 농지를 가진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처지에 있었고 어려서 혼인하였으므로 부모의 혼인동의는 당연하였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결혼에서도 너무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근래에는 자녀들이 생계독립을 할 수 있을때에 결혼하게 되고 부모도 옛날처럼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결혼 자체가 家본위에서 당사자 본위로 바뀐 것이다.

대학생들의 배우자 선택기준의 첫째가 건강이라고 한다. 다음이 경제적 능력 외모 학벌 기타순이다. 최근 지역내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결혼관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겠다.

세번 기도하라

이탈리아의 화가인 아마테오모딜리아니는 빈곤과 유량과 술로 일생을 보냈다. 그가 병이 들어 병원으로 실려가는 택시속에서 마지막 한 말은 「나는 내 아내를 안고 살아왔다. 우리 둘은 영원한 기쁨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죽은 다음날 그의 아내는 6층 창에서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남편을 따라갔다. 비익연리라 하겠다.

결혼이라는 의식이 사회제도의 하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역시 사회제도의 하나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속되어 왔다. 결혼의 풍속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이혼역시 나라에 따라 다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혼이 수월했다. 사이가 좋지않은 부부는 간단히 헤어질 수 있었고 구차한 이유나 변명이 필요치 않았다.

아랍의 회교도 남자들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면 증인 두 사람만 모아놓고 그의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하고 선언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때 아이들은 남편의 소유물이므로 남자가 말아 기르며 남자는 이혼과 동시에 재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때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만약 임신을 했으면 아내는 아기를 낳아 다 키울때까지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없다.

에스키모인은 아랍인들에 비하면 훨씬 공평하다. 에스키모부부들은 결혼생활에 싫증이 나면 간단히 헤어져 살며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바로 다른 짝과 재혼을 한다. 또 호주의 원주민들은 한 남자가 20명 또는 그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데 여자가 이혼을 하려면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을 쳐야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이혼해달라고 남편에게 사정을 해야만 된다.

이거 큰일났다. 우리나라의 이혼인구가 1년에 약 40만쌍이 결혼

을 하고 4만 8천쌍이 이혼을 한다고 한다. 여덟쌍의 부부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싫어서 갈라서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싸움터에 나갈때 한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때 두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때 세번 기도하라.」...러시아 속담이다.

母女(모녀)의 對話(대화)

너는 왜 시집안가니. 시집은 안가고 結婚은 할래요. 시집이나 결혼이나 무엇이 다르냐? 시집은 男子가 쳐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結婚은 男子가 協力해서 울타리를 쳐가는 것이니 다르죠-.

冥 婚 (명혼)

시집못가고 죽은 처녀귀신은 이승을 못떠나고 해코지를 하므로 썩 한을 풀다는 생각은 세상이 공통되고 있다.

이를 테면 시레느는 희랍의 처녀귀신이다. 半人半魚인 시레느는 사람이 들으면 흘리지 않을수 없는 美聲으로 뱃사람들을 유혹, 피를 빨다. 호모의 抒事詩에서 오디세우스가 이 시레느의 유혹을 싸워내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독일 민요로 친근한 「로렐라이」도 시집못가고 죽은 라인江 처녀귀신이다. 시레느처럼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 난파시키는 마녀다.

「리타나이」라는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소품이 있는데, 시집못가고 죽은 처녀귀신들을 招魂- 살아있는 처녀들이 흰옷입고 위령하는 舞蹈曲이다.

베트남에도 「망각된 영혼의 집」이라는 사당이 있어 처녀귀신을

불러놓고 그 육친들이 시나몬의 쥘을 피우며 「이승에서 못풀었던 원을 저승에서 풀어라」고 기도한다.

우리나라의 처녀귀신은 손각시다. 이 처녀귀신의 해코지를 예방하는 민속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발달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아예 귀신이 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게끔 처녀를 묻을때는 무덤구멍을 세로로 파 棺을 거꾸로 세운채 매장했던 것이다. 그렇게 묻고도 안심이 안되었던지 棺둘레에 가시덤불을 둘러 묻었던 것이다.

손각시가 物理的 봉쇄방법이다. 또 채취가 스민 남자의 속옷을 입혀 입관을 하기도 하고 性器를 과장시킨 사내 人形을 짚으로 만들어 棺에 넣어 주기도 했다.

사통팔달한 큰 길의 복판에 얼마동안 가매장해두는 풍습도 있었다. 못사내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게 함으로써 시집못간 한을 상징적으로 풀어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가매장이 간소화하여 네거리길에 죽은 처녀의 옷을 던져두어 밟고 다니도록 하기도 했다. 이것은 손각시에 대한 宥和방법이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총각귀신인 몽달이와 영혼결혼을 시켜주는 일이다. 鬼媒人이라 하여 이 죽은 처녀 총각을 수소문하고 다니면서 짝지어주는 직업중매장이까지 있었다. 四枉單子도 교환하고 시집-장가가는 날에는 두 神王를 청실 홍실로 묶어준다. 이르 冥婚이라 했다. 이렇게 冥婚이 끝나면 습葬을 시키거나 서로 가까이 무덤을 옮기는데 이를 配骨이라 했으니 미혼 귀신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눈물겹다.

「咳余叢考」라는 중국문헌에 보면 冥婚은 중국 北方 오랑캐의 풍속이라했고 「舊唐書」列傳에 보면 蕭至忠이 죽은 딸을 세도가의 죽은 아우와 정략적으로 冥婚을 시켜 출세를 하고 있다. 지금은 한반도에 가까운 중공 北東部에서는 冥婚이 성행하고 있는데 처녀귀신이 모자라 근 1천부弗씩의 持參金을 가져와야 몽달이를 면할 수 있다고 山東省 의 한 法律雜誌가 보도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몽달이 되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回婚禮讚 (회혼례찬)

인생 경사(慶事) 가운데 최고의 경사가 회혼(回婚)을 맞는 일이었다.

짜지은지 60년되는 결혼 회갑(回甲)인 것이다. 스무살 안팎에 결혼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회혼은 80안팎에 맞게 되지만 짜지은 부부가 그 나이까지 장수하기란 드문 일이기에 서민의 회혼이면 그 고을 현감이나 목사(牧使)가 찾아가 축수를 하고 양반이면 감사(監司)가, 당상(堂上)벼슬이면 임금이 축의(祝儀)를 보냈을 만큼 큰 경사로 쳤다.

회혼의 잔치상 뒤에는 만인병(萬人屏)을 두르게끔 관습이 돼있었는데 축수하는 수백수천명의 친필 이름을 쪽지로 만든 수십겹의 병풍인 것이다. 이 만인병에 축수한 친필끼리 형성시킨 친분 공동체가 만인문(萬人門)인 것이다. 회혼의 노신랑이 높은 벼슬아치나 세도가라든 두말할 나위가 없고 무명의 서민일지라도 그 만인병에 이름을 올리면 장수한다 하여 몇 백리 밖에서 노부모를 업고 찾아와 이름을 적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효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만인병 둘러놓고 노부부가 시집장가갈때 입은 복장 그대로 입고 혼례때 올렸던 합근례(合근禮)를 그대로 재연했다. 표주박을 둘로 잘라 만든 표주박잔에다 술을 담아 서로 입을 대고 동심일체를 다지는 혼례의 핵심절차다. 혼례때 쓴 이 합근박은 청실 홍실로 장식하여 신방의 천장에 매달아 두고 사랑과 금슬을 감시케 했던 것이다. 그 혼례때 쓰던 합근박을 60년후에 꺼내어 다시 입을 맞대는 회혼합근의 감개는 무량에 무진했음직하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같은 낭만적인 사랑의 예법은 없었을 것이다.

합근례가 끝나면 이제 자손들의 헌작이 잇따르는데 이미 회갑을 지난 할아버지일지라도 때때옷에 가랑이 터진 바지를 입고서 아기처럼 기어 들어가야 한다. 어린시절을 그렇게 재연시켜 회혼 노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서양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게 베풀다는 결혼 50돌의 금혼식(金婚式)에는 추억의 패물하나씩 차고 나와 결혼연대를 적은 케이크 자르는 것이 고작인 것에 비해 얼마나 멋있는 회혼식인가.

금혼령(禁婚令)

조선시대에 금혼령(禁婚令)이라는 게 있었다.

왕실에서 세자 세손의 비(妃)나 부마(駙馬)를 간택할 때 백성들이 혼인을 못하게 막는 제도였다.

세자나 세손 공주가 성장해서 혼기가 되면 그때마다 궁중에서는 사대부집안 규수들의 나이가 적힌 연세명단을 접수한다. 그것이 마감되어 날짜가 정해지면 규수들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궁으로 들어가 선을 보인다.

이때 규수들은 각기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직접 써내게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필기시험이요, 가문을 알리는 신원진술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용모와 태도를 보아 1차 관문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초간택이라고 하였다.

초간택이 끝나면 뽑힌 규수중에서 재간택을 하고 다시 그중에서 삼간택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 한 사람을 선택한다.

쉽게 말하자면 요즘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서 최고의 미인을 뽑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택기간중 금혼령이 내리더라도 종실(宗室)의 딸과, 이 씨성을 가진 집안의 딸, 서자의 딸등은 상관없이 혼인을 하게 내버려두었다.

이와같이 간택의 예로는 가까이 고종2년 정월에 대왕대비(大王妃)의 하명으로 12-17세까지의 처녀들에게 금혼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왕비로 간택된 이가 유명한 민비(閔妃)였다.

또 고종8년 선달에는 12-14세까지의 총각에게 금혼령이 내려졌는데 이때 뽑힌 이가 바로 박영효로 그는 영혜옹주의 부마가 되었다.

그러나 궁중의 이런 간택방법에 대해 일부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

특히 울곡같은 이는 한말을 위하여 나라안의 온동남(童男)이 줄을 서야 하다니 예법의 본의에 위배된다 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 하였다. 그는 왕비를 간택함에는 마땅히 문(文)과 예(禮)를 숭상 하는 가문을 물어 궁인으로 하여금 내왕케하여 살피 정할 일이지 온나라 처자(處子)를 궁에 불러 취하고 버리는 비례(非禮)를 저지를 수 있느냐 고 통탄하였다.

韓-中-獨 婚需北較 (한-중-독 혼수비교)

원래 남다여소(男多女少)의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에 비해 여자의 낫발이 세었다. 근간 중국 아가씨들이 내세우고 있다는 이상적인 여덟가지 결혼 조건만 보아도 그 낫발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신랑감이 갖추어야 할 여덟조건이란 이렇다. 일자당가(一子當家)=군더더기 식구가 불지않은 아들이어야 한다. 이노귀천(二老歸天)=모셔야 할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어야 한다. 삼전일향(三轉一響)=세가지 구르는 것-곧 자전거-재봉틀-선풍기와 한가지 울리는 것 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사평팔온(四平八穩)=매사에 화평하고 온당한 심성이어야 한다.

오관단정(五官端正)=이목구비가 똑바로 박히고 단정해야 한다. 육십이원(六十二元)=봉급이 월 62원은 되어야 한다. 중국의 상류월급쟁이가 30원 안팎인걸 미루어보면 육십이 지나치다. 칠십방미(七十方米)=집의 건평이 70㎡는 돼야 한다. 팔면영룡(八面玲瓏)=재주가 팔방으로 뛰어나야 한다.

이 여덟가지 가운데 주의를 끄는 것은 세번째의 삼전(三轉)이다. 생활정도가 낮아서도 그렇겠지만 자전거-재봉틀-선풍기는 우리나라에서 혼수로써 요구되고 있는 3c-자동차-쿨러-컬러 텔레비전에 비하면 약과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 열쇠-

자동차열쇠-콘도열쇠의 3K는 고사하고 말이다.

이번 신부 혼수로 평균 1천수백만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를 보면 3C혼수가 보편화되는 추세고 3K혼수도 1할쯤 된다고 한다. 더더욱 중국에서는 삼전(三轉)혼수를 신랑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측에 요구하고 있으니 전도된 혼수문화가 아닐 수 없다.

독일에도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3K조건이 있다던데 우리 3K조거와 비교해보자. 1K는 코헨(Kochen)-곧 요리(料理)솜씨다. 독일신부는 자기집 나름의 고유한 맛을 내는 요리솜씨를 최소 한도 한가지 이상 지녀야 한다. 곧 아무데서도 먹을 수 없는 요리솜씨가 결혼조건인 하나로 꼽힌다. 2K가 킨트(Kind)-곧 육아(育兒)솜씨다.

각 가문에는 할머니-어머니로 전승되는 육아법이 있으며 그 육아법을 적어내린 체험방의 육아노트를 최소 두권이상 들고서 시집을 가야 한다. 마치 우리 나라에서 족보를 따지듯이 이 육아서로 아내의 자질을 품평한다. 3K가 키르헨(Kirche)-곧 교회다.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아닌 남에게 봉사하는 심성을 의미한다.

우리 전통사회의 법도 있는 가문에서도 이 독일의 3K와 흡사한 삼덕(三德)이라는 틀로 며느리감을 재는 법통이 있었다. 그 하나가 손덕(手德)으로 독일의 코헨에 해당하는 음식솜씨요, 둘째가 심덕(心德)으로 독일의 키르헨에 해당하는 화목이며, 셋째가 아덕(子德)으로 독일의 킨트에 해당되나 이 아덕은 육아(育兒) 보다 사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비중이 더 컸다는데서 차이가 좀 있을 따름이다.

결혼은 必要惡인가

'93년도 한해 전국에서는 모두 5만7천6백45쌍의 부부들이 파경(破鏡)으로 이혼했다고 한다. 이는 하루평균 1백58쌍이 이혼하는

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머리 파뿌리 되겠다」던 철석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갈라서고들 있는 것이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90년 한해동안 이혼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1만2천8백95건, 합의이혼이 4만4천7백50건으로 전년도의 5만6천7백1건보다 1.6%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80년의 2만4천건에 비해 10년 사이에 두배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혼을 가리키는 「파경」이란 말은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거울이 깨진다」는 뜻이지만 본래의 뜻은 이혼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육조(六朝)말 진후주(陳後主)는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로 날을 보내 수(隋)의 양견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때 진후주의 딸 낙창공주와 그의 부군 서덕언은 나라가 망하면 부부가 서로 떨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손거울을 잘라 둘이 하나씩 나누어 갖고는 매년 정월보름날 장안의 가장 변화한 곳에서 깨진 거울을 팔러 나와 맞추자고 약속하였다.

그뒤 아닌게 아니라 난리가 일어나 두사람은 헤어져 공주는 북방으로 잡혀가 양소라는 나라의 공신의 첩이 되었다. 공주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해마다 정월보름만 되면 하인을 시켜 장안에 나가 거울을 팔게 하였다. 그러기를 삼년, 서덕언이 거울파는 하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 글을 썼다. 「거울과 사람이 함께 갔건만 거울은 돌아와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옛날 비치던 항아(달속의 선녀)의 그림자는 어디로 가고 부질없는 달빛만 머물러 있다……」이글을 받은 공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사연을 알게된 양소의 공신은 두 사람의 정을 가상히 여겨 서덕언을 불러 부부를 해후(邂逅)시키고 돌려보내 단란한 일생을 마치게 했다. 파경지탄(破鏡之嘆)의 고사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옛날 이미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하지 않은 것이 좋은가, 그 어느쪽이든 너희는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메난드로스는 「결혼은 필요악」이라고 극언마저 서슴치 않았다.

「한번 시집가면 그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 억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싫으면 헤어진다」는 단순한 서양식 사고 역시 이땅의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모름지기 참고 사는 부부에게만 해로(偕老)의 낙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다.

夜間 結婚式 (야간 결혼식)

중국의 古曲인 「禮記」土昏禮를 보면 결혼식은昏-곧 저녁에 올리는 것이 태고적부터 관례였다. 저녁에 올린다하여 昏禮 또 저녁에 맺어진다고하여 結婚이란 말이 생겨 난 것이다. 결혼식날 저녁, 신랑은 횃불을 들고 신부집에 가서 선조를 모시는 사당에 가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서 집에 돌아와 잔치를 베푼다.

첫날밤 옷벗겨 주는 절차며 배개는 남쪽으로 하고 신부는 동쪽에 누이는 등 상세하게 기록돼있다. 고구려때 결혼도 저녁에 베풀었다. 사위가 될 신랑이 저녁무렵 신부집 문밖에 꿇어앉아 큰 절을 하며 신부와 동침케해줄 것을 애걸한다. 잔뜩 고자세가 된 장인-장모가 지참금등을 따진끝에 밤늦게야 미리 마련한 사윳방(壻室)에 들인다. 결혼한다는 것을 장인-장모집에 든다하여 丈家든다고 한 것은 이같은 풍습에서 연유된 것이다.

고려때까지도 혼례는 花燭을 밝히고 밤중에 올리고 있다. 恐讓王 때 元나라에서 童女를 대량으로 구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딸가진 집은 겁을 먹고 딸을 서둘러 여의느라 매일밤 火燭이 휘황찬란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전통적 혼례는 별이 나타날때 시작되고 있고 로마시대에는 역시 첫별이 나타남과 동시에 식을 올렸다. 이집트에서

신랑-신부의 代理人들이 지참금을 두고 흥정끝에 혼인계약이 이루어지면 金曜日과 日曜日전야에 신부를 맞아들인다. 아르헨티나에서 결혼식전야에 신랑 친구들이 달걀이나 포도주를 신랑에게 던지고 옷을 벌거벗긴 다음 신부집 앞에 세워두고 데리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으로 식이 시작되고 있다.

검소한 婚俗(혼속)

부유하고 학벌좋은 사위나 며느리를 얻어 값진 혼수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옛 혼사 풍속을 보면 꼭 그런것만은 아니었다.

조선 태종(太宗)은 공주를 출가시킬때 명문거족의 자제를 외면하고 4, 5품이하의 사족(士族)집에서 사윗감을 골랐다. 문벌좋은 집 자손은 교만과 사치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 태종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얻은 사위가 이미 작고한 의랑(議郎) 남경문(南景文)의 아들이다. 새 부마는 과부 어머니에게 길러졌다는 것이 태종의 낙점을 받는 이유였다.

이후부터 임금이 부마를 고를 때는 문벌이 보잘것없고 관품(官品)이 낮은 집에서만 골랐다고 한다.

성종(成宗)은 총애하던 혜숙옹주(惠淑翁主)를 시집보낼때 엄한 분부를 잊지 않았다. 즉 공주라는 신분을 믿고 교만스럽게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헌비고)

임금은 부마의 부친을 직접 왕궁으로 불러 이렇게 당부했다. 『옹주가 하가(下家)한 후에는 시부모에게 보이는 예절이 있어야 옛날 법도이다. 경은 옹주가 귀한 신분이라 하여 그 예절을 폐하지 말도록 하라.』

숙종(肅宗)때 임금이 공주를 시집보내면서 새집을 지어 주도록 명했다. 그때 대사간인 신익상(申翼相)이 상소, 그 폐해를 지적했다.

『...(前略)...검소 절약하는 정치는 반드시 귀하고 가까운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금 만일 선대의 제도를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게함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下略)...』임금이 호화판 혼수에다 집까지 지어줄 생각을 해도 이를 신하들이 그대로 두지 않았다.

고려때 혼속은 아주 간단했다. 귀인이나 선비들은 대개 격식을 갖춘 혼수가 오고갔으나 일반서민들은 술이나 쌀을 조금 보내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잔칫날에도 간소하게 차린 술 석잔을 돌리는 것이 고작이었다.(용재총화)

兄弟妻 (형제처)

삼국시대의 기록이라고는 고려때 씌어진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두가지 밖에 없다. 「三國史記」의 화랑(花郎)에 관한 기사를 보면 신라 성덕왕때 金大問이 쓴 「花郎世紀」라는 책에서 한 대목을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그 필사본이 부산에서 발견되어 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조선조 순조때 필사한것으로 보이는 그 문헌이 진본으로 확인되면 신라시대에 쓰여진 유일하고도 최고(最古)의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면 여러가지 새사실이며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兄嫂)를 취(娶)하여 사는 형제처(兄弟妻)가 제도화 돼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있다.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의 아버지는 龍樹요, 어머니는 善德여왕의 언니인 天明부인이다. 龍樹가 죽자 그의 아우인 龍春이가 형수인 천명부인을 아내로 맞고 조카인 김춘추를 아들로 삼았음이 이 「花郎世紀」에 나온다. 곧 여왕의 언니는 형제처(兄弟妻)였던 것이다.

「三國史記」에도 고구려 故國川王과 山上王은 형제간인데, 于氏를 형제처로 삼고 있다. 故國川王이 죽자 왕비인 于氏는 왕제(王弟)의 집을 밤중에 찾아가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형이 죽고 아우와

혼인하는 것을 견숙(見叔)이라 하는데, 이 야밤의 데이트에서 손가락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견숙례(見叔禮)를 올리고 부부가 되고 있다. 이튿날 중신들을 불러놓고 임금이 죽은 것과 견숙(見叔)으로 새임금이 등극했음을 선포하고 있다.

후세 사람들은 상중(喪中)에 왕제를 유혹한 于氏를 음란한 패륜의 악녀(惡女)로 곧잘 매도했지만, 이 형제처의 습속이나 제도에 이해가 없었던 탓이랄 수 있다.

이미 형사취수(兄死娶嫂)의 형제처 습속은 부여(扶餘)시대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화전민이나 전답이 없어 분가(分家)시킬 수 없는 산간벽지에서는 근세까지도 이 풍속이 지속돼 내려왔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다. 형제의 부인이나 자매의 남편들끼리의 호칭인 「동서」— 곧 같이 산다는 말도 형제처(兄弟妻)나 자매부(姊妹夫)의 풍속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족(高山族)들은 지금도 형제들끼리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형제처를 많이 볼 수 있다. 형제처가 낳은 아이는 형의 아이 아우의 아이라는 구별이 불가능하기에 그 가문의 아이로서 자라게 된다.

이 형제처를 아비 모르고 살았던 난혼(亂婚)→모권(母權)시대의 유습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형제들에게 땅을 나누어줄 수 없는 산간벽지의 빈곤경제때문에 생겨난 습속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결혼문화

이 지구상에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사랑, 저마다 다른 결혼의 풍속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사로 여기는 많은 결혼풍속은 따지고 보면 오랜 옛풍습에서 유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결혼식때 쓰는 면사포는 질투에 불타는 연적(戀敵)의 사악한 눈초리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생각해낸 수단이었다.

또 9세기쯤 기독교도들에 의해 쓰이기 시작한 결혼반지의 기원은 고대이집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혼반지를 보통 약지(藥指)에 끼워주는 것은 그 손가락에는 신장으로 곧장 연결된 혈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반지를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은 모든 금속 가운데서 가장 변질이 되지않아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서 추장이나 그밖의 지체높은 사람과 약혼한 여자는 결혼식날까지 장속에 가두어 놓고 몇날 몇달, 때로는 몇년을 친아버지의 엄중한 감시를 받아야 했다.

결혼을 앞두고 순결해야 할 신부에게 「부정」이 탈까 걱정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시골에서는 신부가 임신중인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

당시 왕실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신부 10명 가운데 9명은 결혼식장에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나타났다고 할 정도였다.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섬에서는 결혼식때 쌀을 뿌려 신랑의 뉘를 묶어놓지 않으면 식이 끝나자마자 신랑이 돌아가 다시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인도중앙부에서 동북부에 걸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인 람보디족에게 결혼은 슬픔 그 자체이다. 식을 치른 다음날 신부는 관례에 따라 거세한 소의 잔등위에 올라서서 울부짖으며 부모형제와 이별을 슬퍼하는데 이때 곧잘 눈물바다를 이루곤 한다. 이들에게 결혼은 기쁨이기에 앞서 슬픔인 것이다.

어떤 부부

부부의 금슬이 좋은 것을 가리켜 흔히 비익연리(比翼連理)라고들 한다. 「비익」이라함은 암놈과 숫놈이 각기 눈과 날개가 하나씩

밖에 없어 서로 짝을 지어야만 비로소 날 수 있는 새를 가리킴이요, 「연리」라 함은 한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의 가지와 잇닿아서 결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함이다. 그래 이를 비익조(比翼鳥)요 연리지(連理枝)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연리지」는 후한서(後漢書) 채옹전에 전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효자인 채옹의 고사로 전해오다 언제부터인가 송나라 강왕(康王)의 포학에 굴하지 않았던 한빙(韓憑)과 그의 처 하씨(河氏)와의 부부의 이야기로 탈바꿈되어 오늘에 전한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는 현종황제와 양귀비가 서로 맹세한 말로써 「하늘에 있어서는 원컨대 연리의 가지가 되겠다」는 대목이 나온다.

서로 다른 낯선 남녀가 만나 일생을 기약하고 백년해로로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란 대체 무엇인가.

6.25때 인민군 종군기자로 남으로 내려왔다가 붙잡혀 34년동안 전향(轉向)하기를 거부한채 감옥살이를 한 이인모(李仁模)노인이 42년 7개월이라는 시공(時空)을 넘어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부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씨가 북에서 아내인 김순임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은 1948년, 그이 나이 설혼하나였고 김씨는 스물셋이었다. 이씨가 아내를 두고 남으로 내려온 것은 50년 7월, 결혼 2년뒤의 일이었다.

이씨가 평양을 떠나던 날 아침 그의 아내는 두살박이 어린딸을 품에 안고 문설주에 기대서서 신발끈을 졸라매는 남편에게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하염없이 울었다한다.

그로부터 마흔세해, 이씨는 일흔여섯의 늙고 병든 몸이 되어, 40년 세월을 독수공방으로 오매불망하던 꽃같던 그 아내는 예순여섯의 백발이 되어 기적과 같이 다시 해후한 것이다.

인생역정치고는 너무나도 기구한 역정이요, 드라마 치고는 너무

나도 가혹한 드라마가 아닐수 없다.

杜香祭 (사향제)

옛날 화류계 속어에 기생의 「오난망(五難望)」이란 말이 있었다. 비록 이사람 저사람의 품에 안겨 몸을 주는 신세이지만 다섯사람만 큼 잊지 못한다는 뜻이다.

제일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첫번째 임이고, 두번째 난망은 돈이 많은 남자를 지칭했다. 세번째는 기생이 상대한 여러 남자중 가장 못생긴 남자였다고 한다. 나머지 두 난망에 대해선 분명하지 않다.

조선 성종(成宗)때 명기 소춘풍(笑春風)은 가야금을 잘 탔다. 그녀는 처음 가난한 선비와 사랑을 나누다 후에는 당대 권세가였던 관리의 애첩이 됐다.

소춘풍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기전 관리의 무릎을 베고 유언을 할 찰나였다.

그녀는 눈물로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옛날 선비 아무개의 묘소에 같이 묻어주오...』첫번째 임에 대한 그리움을 죽는 순간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오난망에도 불구하고 기생이 열녀(烈女)가 되기란 그리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않는 한 정절을 지킬 수 없었다.

조선중엽 충주(忠州)에 금란(金蘭)이라는 이름난 기생이 있었다. 당시 충주목사가 그녀를 아껴 정이 들었으며 목사가 영전이 될 때는 두남녀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픔이 컸다. 헤어 질때 월악산(月岳山)이 수십번 무너져 내려도 잊지말자고 맹서까지 했다. 그러나 금란은 목사가 떠난후 얼마되지 않아 달천역(達川驛)의 역승(驛丞)과 가까워져 두남녀의 애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해졌다고 한다. (大東野乘)

그러나 조선 중종(中宗)때 단양에서 살았던 두향(杜香)은 조금은 다른 기생이었던 모양이다.

16세때 관기가 꽤 타고난 미모와 시문(詩文)으로 명성을 얻었고 마침 이곳에 군수로 부임했던 퇴계 이황과 정을 주고 받았다. 이황은 두향과 더불어 강선대(降仙臺)에서 청유했으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두향은 이황이 단양을 떠난후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제일 처음 정을 둔 이황을 잊지못해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童貞夫婦 (동정부부)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백50돌을 기념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교회사 자료전에 별나게 눈을 끄는 철제의 손때문은 십자가가 있었다. 꼭 손아귀에 들만한 크기의 이 십자가에 묻은 손때의 주인공은 지금부터 꼭 1백80년전인 辛酉박해때 순교한 童貞女 李루갈다-。 그의 본명은 順伊로 한국천주교 창설자의 한사람인 權日身의 누이 동생 딸이다.

혼기가 된 루갈다는 숨어서 선교하던 중국인 周文謀신부의 중매로 全州의 양반 천주교가문의 柳重哲 요한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두 신부신랑은 하느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바치는 뜻에서 童貞을 지키기로한 세상에도 드문 童貞결혼을 한다. 결혼후 4년만에 스므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루갈다는 옥 중에서 어머니와 두 언니에게 장문의 편지 속에서 童貞수절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집가던날 남편과 함께 있게된 열시에 우리들이 동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이내 4년동안 남매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열번가량 유혹을 받아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뻔도 했습니다. 지난해 선달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심한 유혹을 느껴 제마음은 살얼음판위를 건너나 절벽위에 서 있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은혜를 간절히 갈구해서 천주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정말 간신히 저희들의 동정을 보전했습니다.』

이 꽃다운 童貞女의 최후에 대해 달래의「朝鮮教會中」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망나니가 관례대로 옷을 벗기려들자 루갈다는 품위있는 몇마디로말로 물리치고 스스로 웃옷을 벗고 손을 묶지못하게 하고는 조용히 머리를 도끼밑에 내어밀었다』했다. 루갈다가 묻힐때, 그녀의 손때묻은 이 십자가를 더불어 부장했던 것이다. 그 슬한 육체적 유혹의 순간마다 그리고 옥중에서 다리가 휘고 발가락이 으스러지도록 당한 육체적 고문을 이겨낼때마다 으스러지도록 쥐었던 그 십자가.

丈 母 (장모)

영화 「에어포트75」에서 자가용제트機를 직접 조종하는 젊은실업가 다나 앤드루스가 이룩할 때마다 뇌까리던 말이 생각난다.『장모로부터 해방이다!』하는 것이 그 말이다.

이처럼 집에서 뿐만 아니라 地上에 있는 이상 장모 노이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앤드루스뿐 아니라 美國남자들의 공통된 콤플렉스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 부녀자들이 심하건 덜하건 간에 시어머니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모와 사위와의 화목을 위해서 「장모의 날」을 정해놓고 있는 州들이 적지않다.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1986년 - 곧 올해에 태어난 아이의 일생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글을 「유에이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誌 연초판에서 보았는데 이 아이가 중년이 되었을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고독과 세금과 丈母가 될 것이라 했다. 곧 장모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돼나갈 미래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모는 사위가 꿈보라도 예쁘고 사위가 오면 장모는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갈만큼 반가운 사이인데, 왜 미국에서는 그토록 사이가 험악할까—.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권한이 많은 사회일수록 어머니의 어머니 곧 장모의 간섭이 심해지고,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권한이 많은 사회일수록 아버지의 어머니 곧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진다. 따라서 미국같은 가정의 母權化 사회일수록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한국과 같은 가정의 父權化 사회일수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진다. 父權이 절대적이던 전통적 대가족이 붕괴되고 母權이 강해지는 핵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부터 우리나라에도 미국같은 母權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본다.

요즈음 텔레비전에 가족끼리 나와서 노래자랑이며 게임을 하는 프로가 많은데 출연하는 가족구성을 보면, 대체로 母系(妻系)중심인데 예외가 없다. 아들딸 핵가족이외에 시부모보다는 장인 장모가—, 시누이 시동생보다 처남 처제가—, 그리고 아내 동서보다 남편 동서의 출연빈도가 한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父系인 시집보다 母系의 친정과의 친밀도나 결속도가 한결 높아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랄 수도 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시집에 가는 빈도보다 친정에 가는 빈도가 한결 높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아내의 동창이나 姉母들의 친목모임에 남편들이 동반—꾸어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는 새풍속이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母權化해나 가다가는 사위가 알랑들롱같이 미남이라도 장모에게는 곰보만 같고 사위가 오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가기는 커녕 신발을 던져 내쫓을 세상이 멀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戀愛(연애)편지

흔히들 사랑의 「質」에 있어서는 大英帝國의 王冠을 사랑때문에 버린 윈저公과 심프슨夫人의 사랑을 들고, 사랑의 「量」에 있어서는 2백여명과 연문을 퍼뜨린 詩人 바이런을 들며 사랑의 「強度」에 있

어서는 13세기 이탈리아의戀人인 프란체스카夫人과 파오르의 사랑을 듣다.

프란체스카는 사랑하지도 않은 리미니卿과 정략결혼을 하는데, 시집간 연후 시아주버니 파오로와 뜨거운 사이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은밀히 편지의 사랑을 10여년 계속한다. 그동안에 오간 편지통수만도 8천2백23통이라니 하루에 2.5통꼴의 연애편지가 오간셈이다.

끝내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목격한 리미니卿이 이들을 살해하고 있다. 동시대의 詩人 단테는 그의 「神曲」의 地獄篇에서 이 두 사람을 지옥에 인도하고 있는데, 그 혹독한 지옥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프란체스카는 파오르와의 사랑의 부인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이토록 사랑을 질기게 한 요인으로戀愛論을 남긴 작가 스팅달은 두 연인간에 오간 그 초인적 연애편지의 量을 듣다. 연애는 편지로 하는 것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어지며 가장 질기다는 것이다. 말로하는 연애는 문전에서 구걸하는 「거지」라면, 글로하는 연애는 집속까지 들어가는 「도둑」으로 비유했다. 곧 상대방의 맘속에 본인도 몰래 스며들어가 젖게하는 것이 편지다.

입으로하는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능변이라도 속에 품고있는 마음의 30%밖에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본능적인 감정을 은폐하도록 강요받아 온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30%의 절반도 표현 못한다. 그러기에 반가운 님을 보고도 뒤돌아 서서 손톱이나 깨물고 있게 마련이다. 이에 비해 글로하는 깊은 맘이나 감정을 80%이상 전달할 수 있다고 측정해 놓은 분은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다. 형식적인 전화 한마디 보다, 편지 한통 받는 것이 그토록 정감이 가는 이유가 이 심층교류를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깊고깊은 연애감정임에랴. 또한 연애편지는 현장에서 증발해 버리는 말과는 달리, 그곳에 담긴 정감을 냉장고처럼 영구히 보존시킨다는데서 더욱 그렇다.

사랑文身(문신)

응달에서 노는 불량청소년들이 結義를 할때 팔뚝에다 글자나 그림을 바늘로 쪼아 文身을 베풀으로써 그 결의를 영구히 보장하는 악습이 있다. 이를 結義文身이라 한다면, 사랑을 보장하는 愛情文身도 있었다. 成宗때 유명한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於乙宇同에 관한 實錄 기사를 보면 그녀의 팔뚝에는 대여섯명의 사나이 이름들이 文身돼 있었다던데 그녀에게 불변의 사랑을 맹세했던 姦夫들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개화기때 서울에서 개업했던 한 洋醫의 회고록에도 愛情文身이야기가 나온다. 門밖 노랑나루에 사는 大石伊라는 처녀가 문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첫날밤부터 웃저고리 벗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심쩍게 여긴 신랑이 어느날 곤히 잠든 大石伊의 저고리를 벗겨보니 하얀 베나부랑이로 팔뚝이 칭칭감겨져 있었다. 이를 풀어보니 그곳에 愛情文身이 베풀어져 있음을 본 것이다.

이로써 大君伊는 시집의 門中刑으로 손가락 발가락틈이며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른 살에 온통 찌름질을 하여 門밖 노랑나루에 업어다가 버렸던 것이다.

친정에서도 가문을 더럽혔다하여 데려가지 않으므로 이 洋醫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 일을 시키다가 미국으로 유학시켰다 한다. 이 사랑의 희생자 大石伊가 그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길이 없다..

진통하는 産婦의 발뒤꿈치에다 「夫」자나 동그라미 (해) 또는 고추를 그리면 순산하고, 순산하되 사내아이를 낳은다는 順産文身습속도 西北지방에서 채집되고 있다.

또 「朝鮮明論錄」에 보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때 전장에 나가는 남편의 등에 올면서 文身을 베풀는 아내들 이야기가 더러 나오는데 이 戰場文身은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文身의 발단은 魔로부터 몸을 보전하는 除魔효과를 노린 것이라 했으니 죽음의 魔로부터 보호 받고자 하는 염원이요, 다른 하나는 떼지어 죽어 있을때 시체의 신원을 분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게다.

이렇게 별의별 文身이 다 많은데 드디어 美容文身이 목하 서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성긴 눈썹이나 아이라인 아이새도같은 육체의 부위를 기계바늘로 鯨을 치고 원하는 빛깔을 入墨시켜 아름답게 보이려는 文身이다.

禮節教育 (예절교육)

옛날 법도있는 집안에서 만며느리가 들어오면 날을 잡아 며느리 시험을 치렀다.

종부(宗婦)로서 또 종손의 어머니로서 자질을 갖추었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 삼수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합격할 때까지는 예비며느리로서 냉대를 받게 마련이다.

며느리시험의 시험관은 시어머니다. 시험관 앞에 큰절을 하고 엎드려 있으면 『양아십법(養兒十法)을 외워라』고 출제를 한다. 그럼 며느리는 몸을 들어 앞뒤로 흔들며 운을 맞추어 이렇게 답해야 한다. 『등을 따숨게 함이 그 하나요, 머리를 차게 함이 그 둘이라. 울음이 멎기전에 젖을 물리지 아니함이 그 여섯이요...』하는 식이다.

이어 소아조호가(小兒調護歌)로 불리는 예의범절과목을 테스트 받는다.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는...』하고 물으면 며느리는 『전기침을 하며...』하고 대답하며 『책이 있으며...』하면 『뛰어 넘지 아니하며...』하고 대답한다. 어른이 걸어가고 있으면? 앞지르지 아니하며, ...숫가락은? 어른이 들기전에 들지 아니하며, ...상치쌈은? 고개를 돌리고서 먹으며, ...머리카락은? 버리지말고 모아두며, 저녁잠은? 시부모 코고신 후에 들며, 부엌 강아지는? 배때기를 차 소리내지 아니하게 한다.

예절을 익히는 며느리수업뿐 아니라 법통있는 가문들에서는 어릴적부터 체험화 시키는 가문나름의 예의범절이 정해져 있었다.

이를테면 율곡선생의 가문에는 훈요(訓要)17조라는 예의범절이 있어 자손대대로 그 범절을 지킴으로써 행동하는 것만 보고도 율곡

의 후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서당에서도 「동몽선습(童蒙先習)」이니 「소학(小學)」 「사소절(士小節)」같은 예의범절을 글과 병행시켜 가르쳤다.

어릴적 구구셈을 외울때 무슨 이치인지도 모르고 외운 것이 일생을 통해 유익하듯이 또한 하늘 천(天) 따 지(地)…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외워둔 천자문이 한문에 뿌리를 둔 수십만 어휘의 뜻을 이해시켜 주듯 어릴적에 왜 그러해야 하는지 모르게 버릇 들여진 예의범절도 평생의 인격과 인품을 형성하는 뼈대가 되는 것이다. 한데 근대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가정과 학교에서 지육(智育) 체육(體育)과 더불어 삼위일체(三位一體)인 덕육(德育)을 증발시켜 예의범절이란 땅속에서 파낸 해골박 신세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람은 사람과의 사이때문에 인간(人間)이다. 사이가 잡히지 않은 사람을 인간(人奸)이라고 쓴 것은 중국굴지의 작가요 사상가인 노신(魯迅)이다. 그 사이를 잡아주는 것이 예절인 것이다.

主婦와 主夫 (주부와 주부)

연산군(燕山君)의 선비탄압이 바로 갑자사화(甲子士禍)다. 선비 홍언충(洪彦忠)을 잡으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식구들은 빨리 부엌에라도 몸을 피하시라고 권했다. 잡혀가 사지를 찢기면 찢겼지 장부가 어찌 부엌에 들어가느냐고 호통치며 제발로 걸어나가 포승에 묶였던 홍언충이었다. 비단 선비집안이 아니더라도 전통사회에서 사나이가 부엌에 드나든다는 것은 노소를 불문하고 흉이었다.

선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제한 가르침의 원전은 이렇다. 『군자는 포주(庖廚)를 멀리할지어다.』 바로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 포주란 부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부엌이란 아녀자만이 드나드는 곳으로 대장부가 출입한다는 것은 천한 일이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 졌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내린 위대한 오해였다.

제(祭)나라의 선왕(宣王)은 맹자에게 물었다. 내가 백성을 편히 다스릴만한 자질이 있는가 하고- 언젠가 임금이 제사에 희생되기 위해 끌려가는 소를 가엾게 여겨 양과 대체시킨 일을 상기하고 그만한 연민의 정이 있으면 임금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자는 살아 있는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절한 소리를 듣고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이니 군자는 모름지기 부업을 멀리해야 함이요.』

군자로 하여금 부업을 멀리하라는 이 가르침의 원뜻은 부업이란 인간 본래의 자비심을 참을 수 없게하는 현상이기에 멀리하라는 뜻이지 남존여비에서 나온 부업기피는 아닌 것이다.

고래희랍에 있어 사나이가 상류계급으로 공인 받으려면 각자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요리 하나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로마의 가정에 초대 받아가면 요리 한가지를 극구 칭찬하고 그것을 요리한 것이 바깥주인일때 새삼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이 예의라고 가르치고 있다. 바로셀로나를 한때 지배했던 부르봉왕가에서는 가문전래의 12가지 육류 요리법을 왕자 왕손에게 터득시켜 법통을 삼았다고도 한다.

어느 역사시기에 대국으로서 영화를 누렸던 나라일수록 요리 문화는 남자 손으로 유지, 발전되었다고 말한 것은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가건 명요리사...하면 남자인건 그 때문일 것이다.

근간 일본에 「주부(主夫)」라는 신어가 유행하고 있다던데 바로 남편이 주부(主夫)대신 부업일을 한다하여 생긴 말이라 한다. 40대(代)는 주부(主婦)대 주부(主夫) 비율이 70대30인데, 30대(代)는 50대50으로 똑 같고, 20(代)는 30대70으로 역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20대 전후한 젊은 남자들이 요리학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집갈 신부수업생이나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요리학원의 예상못했던 변신이 아닐 수 없다. 개중에는 요리사로서 직업을 가지려는 지망생도 없지 않으나 다가오는

세상에 불가피한 주부업(主夫業)의 수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무상(無常)하다.

加粉則思其心之鮮 (가분즉상기심지선)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갈때 양볼에 빨강계 동그라미를 그렸던 연지는 그 유래가 먼 옛날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수많은 비첩을 거느리고 꽃밭에서 살았던 역대의 군주들은 궁녀들 가운데 누구든지 경도(經度)가 있을때에는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얼굴양쪽에 연지를 발라 표시를 하게 했다. 것처럼 연지를 칠한 여자들 「정희(程姬)」의 「질(疾)」이라 불렀다.

여자들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3대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화장은 이 세상에 인간이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여성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보브아르에 의하면 대체로 여자의 화장에는 2중의 뜻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 여자의 생활 정도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여자의 나르시즘, 즉 자기도취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자는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서(漢書)에 있는 말이다. 보들레르는 「네가 화장에 뿌려놓은 /소리도 잘울리는 색채들이/꽃들의 발레춤의 환영을/시민들의 가슴에 던져준다」고 여자들의 화장을 노래했고 이어령은 「여성의 입술위에 칠한 입술연지는 여자다운 향구를 찾아드는 남자의 배를 안내하는 등대와 같다」고 아주 매혹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여자들의 화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지 「여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얼굴이 있는데도 그것에 연지분을 쳐발라서 전혀 별다른 낯짝을 만들어 놓는다」고 뽀뽀맞을 소리로 악담을 퍼붓는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칠한다 한들 무엇하랴, 마음이 고

와야 얼굴도 예뻐보이지. 채옹(蔡邕)의 여계(女誡)에는 가분즉사(加粉則思其心之鮮)이라하여 「분을 바를때는 얼굴을 예쁘게 할뿐아니라 마음도 청신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써 있다. 지당한 말이다.

女자의 발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건 性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건 사람은 人體의 원형을 꾸준히 변형, 파괴해 왔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버너드 루돌프스키는 이 파괴된 인체에 관한 연구를 「꼴불견人體」란 책으로 집대성하고 있는데, 꼴불견人體가운데 가장 심하게 변형된 부위가 발이요, 여자의 발이 보다 혹심하다 했다. 사람은 태어날때 99%원형에 가까운 발을 갖고 태어나는데 1년후에 8%, 5세때에 41%, 20세는 80%가 원형을 잃고 기형화한다고 族疾學會연구결과를 인용하고도 있었다.

그렇게 한 가장 큰 원흉이 구두다. 구두한 짝을 들고보면 뽕족한 구두코를 中心線으로 하여 좌우가 對稱으로 돼있다. 이 구두에 발이 맞으려면 가장 긴 엄지발가락이 복판에 있고 여타네발가락이 對稱이 되게끔 배열이 돼있어야 한다. 한데 실제의 발은 가장 왼쪽에 가장 긴 엄지 발가락이 있고 차례로 작아져가는 非對稱 배열이다. 그래서 구두를 신으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속으로 굽어 꼴불견이다.

또 발을 파괴한 다른 원흉으로 東西古今할 것 없이 발을 작게 보이려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든다. 중국의 美人으로 飛燕을 드는데,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었을 만큼 작았다한다. 西施도 얼굴은 절색이었으나 발이 살찌고 작지 못하다하여 準準美人으로 손꼽혔다. 중국妓房에는 「鑑足」이라하여 얼굴을 보고 기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옆방에서 발을 내어밀어 그 纏足된 발의 자태로 36가지의 官能美를 가늠, 선택을 했다하니 놀랍다. 우리나라도 발 큰 것이 결혼

조건의 흠이 되었기로 사춘기에 발을 크지 못하게끔 틀버선을 신고
오리 걸음을 걸어야 했다. 우리 민요에 「틀버선신고 보름을 울고
…」하는 대목이 있는걸 보면 무척 아팠던것 같다. 하이힐의 발상도
발을 작게 보이려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소산이다.

淸初에 李笠이란 사람이 지은 竹枝詞에 보다 굽없는 신을 신는
3寸길이의 발보다는 굽놓은 신을 신은 4寸길이의 발이 작게 보인다
했으니 卓見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발의 원형과는 아랑곳없이 발
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로 원형파괴를 해왔으며, 15세기의 르네상
스 이래 18세기의 휴머니즘, 20세기의 실존주의가 인간해방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 발만은 해방 못 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주 의녀탑

제주시 사라봉에 정조때의 제주 처녀 김만덕의 덕을 기리는 의녀
탑이 착공되었다 한다. 세종대왕같은 명군, 이순신같은 명장, 이퇴
계같은 거학을 기리는 기념물은 많지만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한 서
민을 위한 기념탑이란 점에서 신선하기도 하려니와 그녀의 행적으
로 미루어 오늘날의 세태에 암시하고 시사하는 바 커 시기 적절한
때 잘 세워진다고 보겠다.

명신 ‘채제공문집’에 수록된 김만덕전에 보면 그녀는 여자에 얹
혀사는 옛 제주도 남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독신으로 살면서 돈벌
이에 나선다. 억척인데다가 재산 늘리는 데 별난 재주가 있었던지
날로 식화하여 처녀부자로 소문이 났다. 정조 19년(1795)에 제주도
에 기근이 들어 한 식구가 나란히 누워 죽어간 집이 한 마을에 여남
은 집씩 생겨나고 있었다.

이에 처녀부자는 육지에 가 수천섬의 곡식을 사들여 관덕형 앞벌
에 쌓아 놓았다. 그리고 굶주려 부황난 사람 1천기백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새곡식이 날 때까지 연명을 시킨 것이다. 이에 임금이
醫女首班이란 벼슬을 내리고 친히 불러본 앞에서 ‘한 여인의 의기

가 하늘에 이겼다'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 정승이던 채제공은 정승반열에 올라 미미한 여자만도 못함을 개탄하고, 삶만 돌이킬수 있다면 벼슬길보다 만덕이같은 선행을 해야겠다면서 울었다 한다.

여자力士(력사)

우리 고금(古今) 소설에 나타난 가장 통쾌한 여장부는 「박씨전」의 박씨다.

박씨의 먹새가 한끼에 한말씩이었고, 오륙명이 할 일을 혼자 해내고, 이삼일 할일을 일야간에 해냈다. 병자호란에 여장수가 된 박씨는 도망치는 장졸(將卒)을 한손에 하나씩 번쩍들어 내어 던지고, 달리지 못하는 말을 등에 메고 말처럼 빨리 달렸다. 그리하여 끝내는 호장을 잡아 목을 치고 호란에 패한 분을 풀고 있다. 당시 전쟁에 패한 사나이들에 대한 역감정이 여장부 박씨를 탄생시켰음직하다. 실제 인물로 여장부... 하면 갑신정변(甲申政變)때 유일한 여자 행동대원으로 활약했던 궁여(宮女) 고대수(顧大嫂)가 생각난다. 체구가 얼마나 컸던지 보는 사람마다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큰 누이라하여 고대수(顧大嫂)인 것이다. 수레를 번쩍 들어 나르고 벼 한 섬씩을 양겨드랑이에 끼고 걷기를 나물 바구니 끼고 걷듯했다 한다.

우리 옛 서민들의 생활관습을 보면 여성들이 억압만 받고 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네마다 안사랑 또는 도가(都家)라고 불리는 부녀자의 집회소가 있었다. 이 집회에서는 방주(房主) 또는 도가댁이라는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여장부이어야만 했다. 옛날 동구밖 숲 거리에 들둘이라 하여 장정들의 힘을 겨루는 크고 작은 바윗돌이 놓여 있었다. 전통적 역기(力技) 돌일 것이다. 여느 부녀자면 들기도 힘든 이 들둘을 번쩍 들어 올려 열숨통을 넘겨야만이 안사랑의 방주가 될 수 있었다. 한숨통이란 길게 한숨 쉬었다가 내어뱉는 시간이다. 대단한 역사(力士)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방주는 동네 안팎

을 두고 위협적인 존재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부부싸움이 나면 비상망을 통해 안사랑에 전달되게 마련이요, 방주가 그집에 거동하게 돼있다.

여장부가 출동하면 뜯어 말리지 않더라도 사나이의 주먹질이 멎어 버리기 일쑤다. 여권수호에는 그만한 완력이 필요했다. 또 이웃마을과의 봇물싸움이 벌어지거나 하면, 바로 방주를 앞세운 부녀부대들이 옷소매 걷어 붙이고 출동하게 돼있으니, 여자 역사(力士)는 촌락자치제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여자 역사(力士)의 전통이 유구하고 보편화 돼 있었다.

冒險과 韓國女人 (모험과 한국여인)

『이 세상에서 고통을 가장 잘 참아내는 여성이 한국여성이며 그러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알게된 것은 이번 한국여행에서 가장 큰 소득이다』고 말한 것은 수년전 한국을 다녀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리트 미드 女史 였다. 따지고보면 한국 여성사는 인간을 木石化하는 非生物化의 역사라 해도 대과가 없다. 여자는 그릇한 죽(10개) 해야릴줄 몰라야 복받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知能이 있어서도 안되었고, 시집살이 슬프다 하여 세번 우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소박맛을 조건이 되었을 만큼 감정이 있어서도 안되었다. 허리가 가늘다든지, 쌍꺼풀이 진다든지, 콧대가 섰다든지 현대 여성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肉體美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예외없이 아들 못낳을 相一, 곧 無子相이라하여 저주받았다.

오로지 여자는 사내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 생산공장으로서의 가치와 황소 한마리 값으로 교환되는 노동력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는 인간대접을 받지 못했기로 한국여인의 일생을 忍苦-곧 고통을 참되 지구력있게 참는 일생이요, 그 여성사의 축적이 忍苦의 遺傳質을 오늘날 여성에게 유전시켜 놓은 것이다.

한 한국여성이 히말라야의 험준한 안나푸르나, 그 최초의 겨울登頂者가 됐다는 것은 이 한국여성에게 잠재된 忍苦性, 持久力의 개연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을 해낸 金英子란 아가씨도 대견하지만, 그 아가씨가 대변한 한국여성의 잠재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 싱그럽다.

만약, 金英子양이 등정에 실패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론들은 예외 없이 여자로서 無謀했느니 집안에나 들어 앉았을 일이니 어찌니 저찌니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冒險은 無謀 하지 않을때에 국한해서 지지받는다. 하지만, 무모하지 않는 모험이란 모순이다.

1백% 안전한 모험은 모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건 작건 실패의 가능성이 있어서 모험이며 1%라도 실패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 매사에 독창적인 것에 결핍, 남의 것이나 모방하는 우리문화나 기술이나 기업의 병폐가 바로 이 모험 결핍과 직결되고 있다고 본다.

金英子양의 안나푸르나 登頂은 신라시대 이후에 침체돼 내린 한국인의 冒險心에 청량제 구실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더욱 싱그럽다.

프랑스에는 冒險學校가 있어 해마다 2만명의 지원자 가운데 2백 50명의 모험청년을 선발, 돈을 대어주며 모험을 장려하고 있다. 스코트의 南極탐험, 헌트에 에베레스트遠征등 영국의 大探險들을 주최하고 있는 영국의 王立地理學會에서는 지금도 탐험계획을 전국에서 모집, 해마다 40개隊를 파견시키고 있다.

楊貴妃의 浴室 (양귀비의 욕실)

서양의 미인하면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하고 동양의 미인하면 楊貴妃를 연상한다. 하지만 양귀비가 미인이었다는 것은 역사의 수수께끼다. 양귀비가 살았던 당대의 문헌에 양귀비에 대한 기록이 적

지 않지만 절세의 미인으로 표현한 대목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正史인 舊唐書에 보면 양귀비의 용모에 대해 자질이 豐艷하다고 써어있으며, 唐代에 지어진 梅妃傳에 보면 梅妃가 양귀비를 보고 肥婢-곧 살찐 종녀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런 표현들로 미루어 살이 풍만하게 찌고 매력이 있었는지 모르나 절세의 미인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양귀비에 빠진 唐나라 玄宗이 장안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게걸대고 있는 詩人 李白을 불러다가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양귀비를 보이고 찬미의 시를 짓게하고 있다. 그 절세의 시인이 지은 時에도 濃艷이란 말이 고작이요, 절세의 미인임을 연상케할 어떤 대목도 없다.

新華社통신이 보도한 바로 그 李白이 楊貴妃를 보았다던 바로 그 浴室이 陝西省 西安교외에서 발견 되었다 한다. 길이 19m, 폭 7m-. 별로 큰 욕실은 아니나 당시 기록에 보면 호화를 극한 욕실이었다. 古今圖書集成에 보면 西安 華清宮의 복판에 玉蓮湯이 있는데 지하에서 솟은 온천물로 욕조를 채우고 玉으로 만든 고기와 용을 물속에 띄웠으며 부엉이와 기러기를 금실로 수놓은 융단을 깔았고 石蓮을 피게 했는데 그 꽃둘레에 구슬과 색색의 보석으로 장식했다 한다.

그 욕탕위에 작은배를 띄우고 현종과 귀비는 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이 욕실에서 궁박으로 흘러나간 물에는 이따금 구슬과 보석이 떠내려오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떼지어 지켜서 있다가 그것을 줍곤 했고-

또한 귀비가 목욕하고 나면 그물에 蘭香이 자욱했기로 앞다투어 그물을 爭取하여 향로에 담아 방안에 담아 돛으로써 향을 즐겼는데 이를 貴妃香이라 불렀다던가-

玄宗이 양귀비에 빠졌을때 나이가 61세, 양귀비 나이는 26세였다. 양귀비가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늙은 현종의 변태성에 영리하게 영합 됐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찬란한 욕실에서 말이다.

2천컬레의 구두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값비싼 구두의 소유자는 楊貴妃일 것이다. 양귀비가 죽었을 때 한 노파가 그녀가 신었던 신발 한쪽을 주워 唐나라 천지를 돌아다니며 돈을 받고 구경시켰는데, 그로써 적지않아 百萬石을 장만했다 한다.

그 신발길이가 겨우 10cm였다 하니 1cm當 10萬石이나 되는 값이다.

가장 값비싼 구두의 소유자가 楊貴妃였다면 가장 많은 구두의 소유자는 이멜다 夫人이 아닐까 싶다. 말라카낭 官殿의 한 창고에서 무려 2천컬레의 구두가 발견 됐다하니 놀랍기만 하다. 이제까지 구두 많기로는 텍사스의 石油王인 엘렉트라 호튼夫人으로 알려졌다. 毛皮는 러시아에서, 비단은 중국에서, 벨벳은 이탈리아에서... 하는 식으로 사치를 누렸다던데, 이탈리아에서 마추게 마련인 구두는 모두가 3백50컬레-. 이멜다에 비기면 그야말로 足脫不及이다. 1950년대 미국의 으뜸가는 쇼걸 이었던 베이비 레이크도 만년에 자기가 신었던 구두만 갖고서 전시회를 가질 정도였는데, 그 역시 3백컬레 정도로 이멜다의 10분1밖에 안된다. 亡國의 사치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대통령부인인 미국의 카터 부인을 보아보자. 화려한 대통령 취임파티날에 입고 나온 드레스와 신고나온 신발이 6년전 카터가 州知事에 취임한날 입고 신었던 바로 그 옷이요 그 신발이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節儉과 비교해 볼적하다.

여성전용칸

예기(禮記), 내측편(內則篇)에 보면 「예는 부부가 삼가는데서 비롯되니 가옥을 꾸미되 내외를 구분한다. 남자는 바깥에서 지내고 여자는 안채에서 지내야 하므로 가옥을 깊은 곳에 짓고 문을 굳게

하여 내관 문지기에게 지키도록 한다」고 적고 「남자는 안방에 잘 들지 않으며 여자는 바깥방에 잘 나가지 않는다. 남자는 내불언(內不言)하고 여자는 외불언(外不言)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녀가 혼인하여 살되 여자는 안채에, 남자는 바깥채에 거처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안채와 바깥채 사이 중문에는 종들을 살게해 부부가 멋대로 함께있지 못하게 한 것이 조선시대의 영실제도(營室制度)였다.

그 시절 양반집 아낙네들은 집에 있을때는 언제나 깊은 안방에서 지내고 밖에 나갈때는 반드시 가마를 타고 나갔으므로 외간남자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또 가난한 평민이라 할지라도 밖에 손님이 와서 「이리 오너라」하고 부르면 주인 아낙이 방안에서 「사랑방 양반 아니계시다고 여쭙어라」하고 태꾸만 할 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종은 없었지만 종을 통하는 대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이다. 이런것들이 모두 조선시대의 「내외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사대부집의 아녀자라 할지라도 바깥출입이 그리 엄격하지 않고 자유로웠다. 심지어는 권문(權門)에 드나들면서 할말을 하고 다니는 비교적 여권이 보장된 사회분위기였다.

하지만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대부들이 여자들은 출입을 옥죄여 여자들을 마치 죄수처럼 집안에 갇혀 있게 만들어 버렸다.

이조실록 태종 8년초 대사헌(大司憲) 남재(南在)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는 그것을 잘 말해준다.

「옛날에는 한번 출가하면 부모가 돌아가도 근친하는 법이 없어 그토록 근엄하였으나 고려말에 풍속이 퇴폐하여 사대부의 처가 권문에 출입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선비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어오니 이제부터는 양반의 부녀로 하여금 부모 형제자매 백숙부 이외의 사람과는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하시어 풍속을 바로 잡아지이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난날 이땅의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들의 사슬에 얽매여 일생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性전환 女人

플라톤은 에로스(愛情)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태고적인 신이 사람을 만들때 남녀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음양(陰陽)을 갖춘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혼자 살기 심심하다고 하자 둘로 갈라 남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사람은 상실한 자신의 반신(半身)과 결합하고 싶은 무한한 욕망을 갖고 태어나며 그것이 에로스라고 했다. 제 짝을 찾아 결합하면 행복하고 제 짝이 아닌 판 반신과 맺어지면 그 결혼은 불행하다는 것이다. 이 에로스의 반신이 제 짝인가 아닌가를 사주팔자로 합리화 시킨 것이 궁합(宮合)이랄 것이다.

반음반양(半陰半陽)인간을 인간의 원형으로 생각했던지, 음양을 육체적으로 갖춘 고대의 신(神)들이 적지 않다. 이집트 최고의 신인 이시스신(神)이 그렇고 회랍의 마드니스신, 로마의 사티르신도 반양반음이다. 폼페이의 출토벽화에 보면 사티르신은 분명히 두개의 성(性)을 갖추고 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수코가 의학적으로 규명 하기까지 반양 반음 인간은 유럽에 있어 신명과 통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중국에도 기원전 1천여년에 여자가 남자로 바뀐 사례가 적힌 이래 반음반양 기록은 풍부하다.

「오잡조(五雜俎)」란 중국 문헌에 보면 곤양(昆陽)의 한 선비부인이 자(子)시에서 축(丑)시까지의 남자요, 미(未)시에서 해(亥)시까지의 여자로 바뀐다 했다.

불경인 반야경(般若經)에 나오는 박차(搏叉)도 반음반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인 백제시조 온조왕 13년에 한 할미가 남자로 성전환 하고있다. 미소년 - 미소녀를 번갈아 드러 변태를 부렸

던 고려 공민왕도 육체적으로 반양반음인간이 아니면 정신적으로 반양반음이었다. 세조(世祖)때 사방지(舍方知)란 성적 반인간(半人間)은 과부가 된 정승 이순지(李純之)의 딸과 10여년 동거동침 해 오다가 들통이나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성검사(性檢査)를 받고 있는데 남성 여성의 양성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돼있었다 한다.

명종3년 길주(吉州)의 임성구란 이는 아내를 얻어 살면서 한편으로 시집을 가 아내가 됴므로써 인도(人道)를 양용(兩用)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이 품신되고 있다. 임금은 인명보다 음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니 외딴 곳에 쫓아 살려두라는 명판결을 하고 있다. 명종 6년에는 감덕(甘德)이라는 여장(女裝) 반인간이 무당행세를 하면서 왕족을 비롯 정승판서의 처첩들과 추문을 퍼뜨려 나라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근간 해외에 성전환한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아 반음반양의 반인간이 수술로써 어느 한 성을 선택한 것이지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전환한 것이 아니다.

여주(驪州)에서 성전환수술을 한 여인이 호적에 올려있는 성의 정정신칭을 했다가 퇴짜를 맞고 있다. 신의 섭리를 법적으로 집행한 셈이다.

女裝(여장)남자

숙종(肅宗)때는 얼굴이 예쁜 남자무당이 여장을 하고 양반집을 출입하다 적발돼 사형을 당했다. 이 무당은 자색이 뛰어난 사녀(士女)들이 서로 천거하여 장안에 이름이 두루 퍼졌는데 한 여자가 비밀리 숨겨두고 총애하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당시 무당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여자들이 관계를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충격파가 클 것이 우려돼 「부녀들이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불문에 불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 이웃 명(明)나라에서도 여장남장들의 음

행사건이 발각돼 발각 뒤집힌 적이 있었다.

헌종(憲宗 : 1465-1487) 13년 진정부(眞定府)에 사는 상충(爽沖)이라는 사람이 10여명의 남자와 함께 여장을 하고 여자들을 유혹하다 들통이 난 것이다.

이들은 평소 머리를 여자처럼 단장하고 눈썹을 예쁘게 가꿨으며 늘 모여앉아 여공(女工)을 익혔다. 그리고 귀한 여자들의 집에 들어가 정신이 혼미해 지는 약을 먹여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 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결국 이 사실이 탄로돼 상충등은 사지가 찢기는 극형을 당했다.

중국 강회(江淮)에서는 또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 한 여승(女僧)이 있었는데 바느질과 수(繡)를 잘났다.

양민(良民) 집에서 딸을 보내 여승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데 어느날 딸이 임신한 것을 알고 이를 조사해 보니 여승은 바로 남자였던 것이다. 여승은 중형을 당했다.

『천하의 도(道)는 음(陰)과 양(陽)이요, 사람의 도는 남자와 여자이다. 이것을 어기면 인도(人道)의 바름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여장남장을 중형에 처한 중국 강회 사람들의 판결(判決)을 한번 음미해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性的 戲弄 (성적 희롱)

교육소설 「에밀」을 지은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사생아를 다섯이나 고아원에 버렸다면 곧이 듣기지 않을것이다. 그는 연상의 과부건 가정부건 제자건 하숙집 딸이건 닥치는 족족 성적 희롱을 자행했다고 그의 「告白」에서 고백하고 있다.

「21세기의 윤리선생(倫理先生)」으로 불리기도 하는 근엄한 사상가 버트런트 러셀도 성적희롱으로 유명하다. 가정교사와 침대에 더 붙어 있는것을 요리녀(料理女)에게 들키자, 그 요리녀에게 손을 대어 입을 막고, 논문해석을 듣고자 찾아온 21세의 아가씨에게 60세

의 노인이 구혼하고도 있다.

성적희롱이란 그 농도가 진하고 덜 진하고의 차이는 있을망정 신분-계급-재산등이 상위에 있는 남자가 하위에 있는 여자에게 권력이나 금력을 빙자하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요-강제하는 성행위다.

이같은 횡포에 대응하는 여성의 태도를 「테스」형(型)과 「파미라」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머스 하디의 대하소설 「더버빌의 테스」에서 귀족집에 하녀로 일하는 순정의 아가씨 테스는 그집의 탕아(蕩兒) 알렉의 성적희롱에 희생되어 처절한 일생이 시작된다. 이집 저집 중노동을 하며 처참하게 사는 그녀 앞에 알렉이 나타나자 테스는 그의 가슴에 칼을 꽂아 유린당한 인생을 보상하고 교수대에 올라선다.

리처드슨의 대하소설 「파미라」에서 파미라는 테스와는 달리 성적희롱을 사랑으로 승화 시키는 슬기로운 처리를 하고 있다. 지주(地主)인 상전의 아들에게 성적희롱을 강요받는 하녀 파미라는 집요하게 막아냄으로써 이 탕아로 하여금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옛날 함경도 변방으로 벼슬살이 갈때면 단신 부임이 상식이요, 재임중에 관아에서 일을 하는 관비(官婢)나 관기(官妓)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 관례가 돼있었다.

강계(江界)의 변방장(邊防將) 이경무는 그곳 관비(官婢) 무운(巫雲)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했다. 이에 무운은 사타구니에 찔절, 살을 헐게 함으로써 악창(惡瘡)이 있다는 핑계를 대는등 하여 희롱을 꾸준히 막아 내어 파미라처럼 자신을 구제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하여 파미라형은 빙산의 일각이요, 테스형이 빙산의 저각이다.

姦通罪 古今 (간통죄 고금)

고대 이집트 법전(法典)에서 남의 정사(情死)를 훔쳐본 자는 훔

처분 눈을 도려내고, 간통(姦通)을 하면 간통주체를 거세(去勢)시켜버렸다.

회교(回教)권에서 간통죄는 목격자 4명의 증인이 있어야 성립되며, 성립이 되면 간부(姦婦)는 투석형(投石刑)에 의해 살해된다. 만약 소문만 내고 4명의 증인을 대지 못하면 소문낸 사람이 80대의 태형(笞刑)을 받기에 간통소문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국시대의 우리나라에 있어 성도덕은 관용한 편이었던 것 같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가(處容歌)를 보면 아내가 간통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 하고도 처용은 쉽게 체념을 하고 있다.

「동경(東京) 달 밝은 밤 이슬히 놀고다니다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것이런만 나머지 둘은 뉘것이란 말인가. 본디 내것이였다만 빼앗겼거늘 어찌하리.」 신라풍속에 초파일로부터 보름달까지 전탑을 도는 탑돌이의 행사가 철야로 벌어지는데, 이때 사녀(士女)가 탑을 돌다 눈이 맞으면 간통이 허락되었던 것을 보거나 간통에 대한 죄의식이 별반 없었던 사실(史實)들이 적지 않다. 간통이 법으로 제재받은 것은 조선조가 대명률(大明律)을 도입한때 부터로 보인다. 그에 보면 화간(和姦)하면 장(杖) 80, 조간(勾姦) 곧 유혹하여 간통하면 장(杖) 1백, 강간하면 목졸라 죽여 버렸다.

특히 근친(近親) 간통이나 종이나 상민이 상전 부인을 간통하거나 상중(喪中)에 간통하거나 궁녀와 간통하거나 하면 가중처벌하여 교형(絞刑)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태종때 승지 윤수(尹修)의 아내가 맹인과 간통하여 사형에 처했고 세종때 관찰사 이귀산의 처가 승지와 간통하여 사형을 받고 있다.

문중의 명예가 중요했기에 간통했다는 소문만 나도 확인하지도 않고서 가문형(家門刑)으로 자체처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단적으로 이동성사회에서는 간통의 죄의식이 약하고 우리 한국 같은 정착성사회에서는 간통의 죄의식이 강한 편인 것이다.

씨받이와 씨내리

아이를 못낳게 된 요인은 남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생존의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던 전통사회인지라 불임(不妊)이라는 결격을 음성적으로 호도하는 민속이 꽤 발달해 있었다. 영화화까지 되어 국제적으로 알려진 「씨받이」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 저질러졌던 한국판 대리모(代理母)풍습이다.

야반에 직업적으로 아이를 낳아주고 다니는 씨받이 부인을 보쌈으로 싸들고 와서 눈을 가린채 씨를 받고서 다시 보쌈으로 싸들고 나감으로써 씨받는 집이나 씨를 내린 사람의 정체를 모르게끔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여 열달 만에 낳은 아기가 아들일때 그 씨받이 대가로 논 한마지기에서 서마지기를 주고 낳은 아이가 딸일때는 찾아가지 않는 대신 양육비조로 논 서마지기 내지 다섯마지기를 주는 것이 한말까지의 관례가 돼있었다.

아무나 씨받이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친형제나 사촌의 남녀 비율에 있어 남아가 우세해야 하며 친·외가의 조부모나 부모가 회갑을 넘겨 살아야 하고 몸쓸 병에 걸려 있는 사등친(四等親)이 없어야만 한다. 그 만큼 유전질을 중요시 했던 것이다.

씨받이와는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뜨내기 소금장수나 땀장이 등 뜨내기 사나이를 매수, 은밀히 아내와 동침시킴으로써 자기 자식인체 혈통을 잇는 습속도 있었다. 이를 「씨내리」라 했다. 씨내리의 전통은 유구하다. 고려때 밀직사부사(密直司副使)의 벼슬에 있던 허유(許猶)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고민하다 가문의 어른들과 의논한 끝에 아내의 허락을 얻고 건장하고 병이 없는 종하나를 골라 자신의 아내와 동침시켜 아들을 낳고 있다.

그후 허유는 임포 콤플렉스와 질투를 감당할 수 없어 씨내리를 한 아내의 양쪽 귀를 잘라내는가 하면 종의 코를 뚫어 고삐를 꿰는가 하면 국부를 잘라내기까지 하고 있다. 이 모두 아들을 낳아야만

삶의 의미가 부여됐던 사내자식(狂)이 파생시킨 비정적 성풍속들이 아닐 수 없다.

女자의 姓 (여자의 성)

서양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자신의 본성(本姓)을 잃고 남편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 처녀 메리 스미스가 총각 요한 피터슨에게 시집가면 메리 피터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혈통을 남편의 혈통속에 소멸 당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성(姓)만을 상실한다. 부인을 호칭할때나 편지를 쓸때 「미세스 요한 피터슨」이라 쓰는 것이 에티켓에 들어맞는다. 어디까지나 피터슨부인이지, 메리라는 이름이며 스미스란 성을 증발시키고 살아야 한다.

성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본성을 찾자는 것이 미국여권(女權)운동의 한 쟁점이 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본성찾기 여권운동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에 연소되고 있다. 성에 대한 한 연구를 주로 해온 일본의 50대 여자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결혼 후에도 본성을 쓰도록 해줄 것과, 소속 대학장을 상대로 그 본성을 쓰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손해배상 청구소성을 제기하여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도 서양처럼 결혼하면 본성을 잃고 남편의 호적성으로 바꾸어야 하는 남강여약(男強女弱)의 성(姓)사회다.

이렇게 보면 시집가도 자신의 성을 끝내 유지하는 우리 한국여성 은 이 세상에서 선택 받았다 할 수 있다.

성(姓)이란 글씨를 풀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여자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다. 곧 모계(母系)로 성(姓)을 이어내렸던 모권(母權) 사회의 유물일 것이다. 중국 고대의 팔대성(八大姓)으로 치는 姜-姬-姒-嬭-嬴-姁-嬭-嬭가 모두가 계집녀(女)변으로 돼있음도 바로 모계로 성이 계승 되었다는 단적인 증거랄 수 있다.

모권에 대한 부권의 쿠데타로 부계(父系)의 성이 자리바꿈을 했

지만, 인자했던 우리 선조들만은 모계의 성을 살려두는 아량을 베풀 것이 된다. 성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중국다음에 우리나라가 길다. 이미 삼국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성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에서는 겨우 9세기에, 영국과 슬라브세계에서는 11세기경 -, 게르만 귀족간에는 13세기에 성이 생겨 나고 있다. 그나마도 상류사회뿐이요, 일반서민에게 성이 보편화된 것은 세례명을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한 18세기 중엽부터다.

이웃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때만해도 성이 없는 사람이 95%나 됐고, 터기 이란 아프가니스탄등은 1935년 전후에 창성(創姓)하고 있다.

태고적 모권(母權)시대부터 성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성이 존중되고 그 먼훗날인 부권시대에 성이 탄생된 나라들에서는 여자의 성을 결혼과 더불어 말살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성(姓)에 있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요 또 종주국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이름 「子(자)」考(고)

여자이름으로 「子」자가 아직도 압도적이며 日帝의 잔재가 무관심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분야가 여자의 이름이 아닌가 싶다.

「子」가 원래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은 중국 고대의 老子-孔子-孟子-莊子-荀子-墨子...등 諸子百家들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子」가 손을 펴고 있는 작은 아이의 그림 글씨인 점으로 미루어 사내아이뿐 아니라 계집아이일수도 있지만 남아 존중 사회의 입김으로 아들이나 젊은 사나이 또는 남자의 경칭, 귀한 남자의 존칭으로 정착되어 내려온 것이다. 孔丘를 孔子로, 管仲을 管子로, 韓愈를 韓非子로, 吳起를 吳子로 부른 것은 바로 「子」가 남자의 경칭이요 존칭인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 고전인 「左傳」에 宋나라의 武公에게 仲子라는 딸이 있었다

는 기록이 있는 것 등으로 미뤄 왕족이나 귀족의 딸에게도 「子」를 이름으로 삼은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존귀한 여자란 뜻도 있겠지만 이 여자이름에 아들「자」를 붙이는 저의는 아들을 갖고 싶은 강력한 염원의 발로였음이 고증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여자이름에 「子」를 도입한 것은 平安朝시대로 당시 세도를 떨쳤던 귀족들의 여자이름에 明子 光子 順子 慶子 美子 등 오늘날 한국 여자이름과 흡사한 이름이 많았다. 물론 귀족에게만 국한된 특권적인 이름으로 서민은 어느 한사람도 「子」를 붙인 예가 없었다.

인권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1890年代에 일본 서민여자들이 「子」로 이름을 짓기 시작, 1900年代에 일본 전 여자 이름의 40%, 1920年代에 75%, 1930年代에는 무려 85%가 「子」를 붙이기에 이르렀으며, 이 일본이름의 강요와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子」자 이름이 성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 이름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도 여자의 아명으로 「子」를 썼던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개화기때 基子 後子 必子 希子 같은 여자아명이 있었는데 이 다음에는 딸 말고 아들을 낳고 싶은 염원에서 지은 남존사상의 부산물일 뿐이다.

여자이름에 많았던 基男 後男 希男 畢年 딸 고만이, 막음이 같은 이름과 같은 차원에서 탄생된 남자선망의 저주받은 여자 이름인 것이다.

나 이

논어에 이르기를 어느때 공자가라사대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전고히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마흔에 판단이 망설이지 않게 되었고 쉰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에 무엇이든지 한번 들으면 그 뜻을 저절로 알았고 일흔에 이르러서야 마음에 하고자 하는대로 하여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이글은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거쳐야 하는 수양의 단계를 적은 것으로 나이 70이 되어야 비로소 하고자 하는바를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옛날에는 15세를 지학(志學)이라 이르고, 30세를 이립(而立), 40세를 불혹(不惑), 50세를 지천명(知天命),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였다.

또 이팔청춘(二八青春)이라는 16세는 고자초분(瓜字初分), 20세는 약관(弱冠), 32세는 센털이 나기 시작한다하여 애년(艾年), 70세는 고희(古稀)라 한다.

고희라 함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가 사람이 70을 살기 어렵다 하여 쓴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란 시에서 유래된 글귀이다. 현대 옛 사람들의 나이에 붙인 명칭에는 넉넉한 멋과 풍류가 깃들여 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희수(喜壽)란 77세를 일컫는 말로 이는 흠자의 초서체가 七十七과 비슷한데서 이르는 것이고, 88세를 일컫는 미수(米壽)는 쌀米자를 풀면 八十八자와 같기 때문이고 99세를 일컫는 백수(白壽)는 1백살(白壽)에서 한 살이 모자라 한획을 떼어내니 흰白이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人生三十三樂 (인생삼십삼락)

淸나라에 초에 金聖嘆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집이 孔子 聖廟 옆에 있었는데 그가 태어날 때 그 聖廟에서 한탄하는 소리가 났다해서 이름을 聖嘆으로 지었다 한다.

이 분이 장마비때문에 절간에서 열흘간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서른 세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

다한다. 그 몇가지 樂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저녁먹은 후 할일없이 무심코 옛 문갑속을 뒤져본다. 거기에 옛날 그에게서 돈을 빌려간 수 십장의 借用문서가 나온다. 그 빚장이 가운데는 이미 故人이 된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 문서 다발에 불을 붙여 타오르는 연기가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 어찌 아니 즐거울 수가 있으랴.
- 10년을 만나지 못했던 옛친구 하나가 찾아온다. 예와 다름없이 빈털터리 친구다. 이 친구를 다락에 맞아 앉혀놓고 아내에게 「蘇東坡의 아내처럼 술쯤 사올 수 없나」하고 귀뜸을 한다. 서슴없이 은비녀를 뽑아 팔아 친구를 대접하고도 돈이 남으니 그어찌 아니 즐거우랴.
- 한 가난한 선생이 紙墨값이 없어 찾아왔다가 말을 못 꺼내고 머뭇거리는데 이를 눈치채고 뒤란으로 데리고 가서 얼마가 필요한가 물어 비녀판 값을 떼어주고 바쁘겠지만 한 잔하고 가는게 어떠냐고 붙잡으니 아아 그 아니 즐겁지 아니하랴.

金聖嘆이 이지경으로 세상을 살으니 태어날 때 孔子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겠다. 세상사람 너나없이 남으로부터 취(取)하는데서 낙을 삼는데 金聖嘆의 33樂은 이처럼 남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으니 인생의 어느 경지를 넘어선 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아내에게 눈총을 받고 꼬집히는 일이 있더라도 본받고 싶은 낙이 아닐 수 없다.

옛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白人積德』이라 하여 1년에 1백여덟번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으로 덕을 쌓고 그 積德에서 낙을 얻는 습속이 있었다. 이를테면 놓고 있는 남의집 아이를 불러들여 해진 바지춤을 기워준다든지, 남의 집에 갔다가 흩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해 놓고 온다든지... 積德한 일이 없었던날 밤이면 먹다남은 건거리를 바가지에 담아 다리밑에서 노숙하는 날랑패를 갈다 주기라도 하여 그날 그날 德 쌓는걸 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작은 덕을 쌓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니 그토록 가난 했으면서 각박하지 않게 살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미수 (米壽)

米壽라고 하면 한글세대는 잘 모르는 이야기에 속할것이다.

직역을 하면 “쌀의 수명”이란 뜻이지만 그 의미는 88세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째서 쌀의 나이가 88인가? 풀이 해보면 참 재미있다.

米子(미자)는 열십(十)자에 여덟팔(八)자를 아래위로 붙여 놓은 것이니까 八十八과 통하기 때문이다.

글자의 형상도 그렇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선 팔순을 넘어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을 미수라 부르는것이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밥그릇으로 관록을 따지는데 그것은 쌀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인물을 평가 하려는 태도이다.

영국의 어느 시인은 『커피 스푼으로 자기 인생을 잴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밥숟가락의 밥알로 자신의 생활을 저울질 해 본다거나 할까. 여러말 할 것없이 쌀은 일상생활의 척도이다.

물가를 계산하는데도 쌀값을 기준으로 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도연명의 그 유명한 시국 ‘오두미’를 예를 들더라도 관직의 급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기도 한다.

지사를 ‘양이천석(良二千石)’이라 하듯 그러기 때문에 쌀값은 다른 물가와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계란값이나 쇠고기값이 한 두푼 오르 내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생활심리의 그 정신영역에 까지 영향을 끼친다.

제 4 장

향 토 문 예 편

그, 그녀

한 용 운

그
 눈 인사가
 늘
 웃음으로 향스럽다

매직아이 보듯
 살내음 그대로
 입체로 감겨오는
 선(線)안에 선
 그녀

체면으로 통제되어
 예약되지 않은 연(緣)인가
 지워버리고
 또 지워 버려도
 지워지지 않는
 내면의 아픈 흔적
 불면으로 검붉게 삭는다.

가 는 길

한 용 운

늘
시리다
쭈시는 삭신
어떻게 살았는가

멀고
먼
여로
가다 지쳐 돌아갈 때

그 지친 가슴 풀면서
발 뒤금치
굳은 살점 깎아내는 시간
누군가
발톱을 깎더라

내린천 (21)

— 싸리꽃 —

한 용 운

한 마장도 더 되는
피 바위 골짜기
돌 냇물 새파란
솔 바람 언덕 아래
줄곧 흘러간 세월은
아득하다.

빈 오두막 강 기슭
산 같이
옷 자란 쑥대밭 머리
푸른 빛 하늘 바라보다
왈각 울어버린
싸리꽃 붉은 눈물

수목빛 먼 고향
그리워 넘보는 하늘
이끼 파란 돌다리 건너간
흰 구름은
어딜가고 있을까

○ 강원도 인재출생

○ 한맥문화 신인상으로 문단등단

○ 내린문학, 강원문화회원

○ 현 인재읍사무소 근무

○ 수상 : 81 대통령 표창

삼성문화재단 효행상

고향재단 선행모범가족 금상

강원 새마을 미당상

삶의 조각

— 살아있는 것들 —

양 미 애

바깥에서

바깥에서는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
들려온다

아이들 소리
자동차와 개 짖는 소리도
흔들거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파리 비명이

바람으로 실려온 햇빛은
유리창으로 웃음을 던지고
담장높이 치솟는 새 울음
금 그어진 경계를 지워간다.

매미의 창가(唱歌)

양 미 애

삼일(三日)을 허락받기 위해
이천육백오십오일
어둔 땅속 습기에서
할소리 못할소리
가슴 갇으며 다스렸다

창창히 빛 맑은날
퍼득거리며 솟아오른
비상

다시, 추락할 날개 녹이며
신명(身命)바친
소리, 소리들
저린 침묵의 향의는
나무를 흔들며 높이 세우고
숲의 변주곡이 퍼져간다.

내린천(內麟川)

오 정 진

산이 산을 에워싼
깊은 골짜기

넷가의 바위들이
질펀히 세월을 깔고앉아
눈을 감았는데

헤집고 하얗게 부서지며
태국선 구비 구비
칠십리를 휘도는 물메아리
골을 넘친다

가끔은 쉬어가는 물구비엔
산 이마 스친 바람이
도둑 고양이로 다가와
잔주름 햇살 꿇고 달아난다

슴水머리 마다
물이 물을 재촉하여
서둘러 흐르는데

산들이 다정하게 서로 손잡고
강강수월래로 돈다.

한계산성

오 정 진

이 험한 골짜기
 城은 누가 쌓았는가
 무너진 성돌위에
 흰 눈이 날리는데
 천제단 하늘 우러르니
 솔바람의 아우성

몽고의 기마병이
 노도처럼 짓밟아 올때
 삼별초 날센 병사
 이 성을 지키다가
 맞 받아 쳐 부수고
 내지르던 만세소리

세월은 천년을 가도
 호국의 넋 바위로 솟아
 성골을 굽어보며
 의지 새로 다지는데
 그 후손
 성문앞에 서
 옷깃 여며 기린다.

비내리는 날이면

김 규 중

산 내음 그윽한 아침골짜기
새마을운동으로 단장한 스텔트 지붕위로
솔향이 피어오른다.

소리없이 내리는 비는
안개되어 큰 덩치를 감싸고
소여물 끓이시는 당신께선
갓 태어난 암송아지 바라보며
도시에 공부하러 나간 아들 생각에 미소를 머금는다.

간밤에 대지를 촉촉히 적시던
솔향보다 더 진한 향으로
살며시 다가와 머물고 있다.

오늘처럼 보슬비 내리는 아침에는 어김없이
솔향보다 더 진한
어머니를 맞이한다.

난향(蘭香)

김 규 중

낮과 밤이 같이 모여
그네를 탄다

하늘아래 두 줄 내리고
머물지 않고
머물려 하지도 않고
서로를 바라본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것이 그대인지 되 물으며

그러나 거실구석에 자리잡은 난 꽃은
어느것에도 머물지 않고
모두에게 향을 나누고 있다
지금도.

달

조 해 숙

고요로 들어올린
강물에 달님은
멀쭉해진 뒷모습
머얼거니 바라보고

내 한쪽의
슬픔, 고뇌를 달래줄
사랑은 아직도
등뒤에 서 있고

함께 얻고 싶은 고뇌로 부른 중심에
가슴 울먹이며
외로움만 더해간다

밤이 눈을 감으면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래도 좋다
양동이에 담아올린
말쭉해진 그대모습

낮빛이 흐려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나를 부르는
초연한 모습 지우려
구름을 안고 왔다.

하루살기

조 해 숙

하루를 살다가
뒤돌아 선 그림자
뒷마루에 우뚝하니 앉아
붉은 노을을 바라본다

아이들 웃음소리에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뼈에로가 되어
연필을 굴리고

세상속에 살아
웃음에 젖은 피곤이
발끝에서 올라와
아침 이슬 먹은 민들레

한 숨을 자고나면
세상은 내것이 되고
내안의 군중이
우주안에 모여
초침재기 연습을 한다.

샘을 찾아서

이 정

비 오는 날
 찾는이 아무도 없는 곳
 지상의 새벽과 담을 쌓는 계곡 물소리
 마지막 남은
 돌맹이 채이는 길
 길가엔 밤새 헛 날개짓에 지친 달맞이 꽃
 상처입은 내리접고 곤한 잠이 든다.

무작정 가슴을 치고 달려드는 빗줄기
 아픈가슴 깊숙이 삭이며
 더 맑게 솟는 노래
 빗소리에 실어 보지만

동트는 새벽
 양손에, 어깨에 물을 긴던 버릇에
 사름들은 비가오면
 우산을 받쳐 들 손이 없다

다만
 풀섶에 샘을 향해 뿌리내린 물봉선만이
 보라빛 열을지어 피어있는
 비 내리는 새벽
 샘을 찾아서.

밤마다

이 정

까아만 수평선
 소박한 만선에의 기도를 불 밝힌 밤
 낚시줄에 걸린 오징어는
 어부의 소주 한 잔 속에
 체액 다 빼놓고
 비릿한 바닷바람처럼 되었다.

하늘에서 별이 내린 밤
 별이 빛나는 자리마다 끊어진 수평선
 저 멀리 또 하나
 밤의 도시가 출렁인다
 바다를 비추어 파도타는 가로등
 밤을 지새는 주름살을 곱게 지운다
 밤마다 바다위에 뜨는 별
 바람결에 흔들리며 바다를 수 놓는다.

별빛이 멀어질수록
 어둠 가득한 밤바다가 살아있음은
 어부의 숨가쁜 콧노래가
 파도 소리에 덧칠해져 들려오는 까닭이다.

노루목

이 순 복

다가오기 전
 숨 죽이며 앓아 누운자리
 그리움에 늘어진 목으로
 덧없는 세월의 되삭임이
 숨가쁘게 쌓인
 터
 비껴 선 솔가지 그늘에
 노을이 지다 걸터앉아
 묻어둔 사연을 들추어
 뿌영게 흐리다 비라도 올라치면
 가슴으로 스민 빗물이
 노루목 휘감아 돌아 흐르는

지나칠 때마다
 바라볼수록
 머언
 전설보다 더 간절한 애달픔이여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게나

* 노루목 - 인제~현리간에 있는 언덕(지명이름)

더 큰 만남의 시작

황 민 숙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두 눈에 눈물고였습니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빛과 소금이 되어
온 인류를 사랑하렵니 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람 한 점없이 그저,
태양은 늘 떠오르고
사랑했으므로 행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별은 더 큰 만남의 시작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별을 ...

길

황 민 숙

먼 산은 신부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이지만
어리석은 생각은 머릴 스쳐나고
새벽별. 그물에 걸린 달빛을 모르는
달맞이 꽃 그늘속으로 어디엔가

비가내린다.
그대 말처럼
창가에 묻어나는 담배연기
그리고
사랑을 위한 배경으로
흘어지는 노래여...

〈詩부문 장원상〉

옥 가락지

인제군 북면 원통1리

김 형 미

밤이 깊어
어머니의
외로운 날개짓도
잠시 깃을 접는다.

무정한 달빛에
비추이는 옥 가락지
어루만지며
잠든 아이
잡아보는 손끝은
흔들리고 있었다.

작은 동그라미 안에
세월을 가두고
눈 감아도
지우지 못할
그리움 가두고

이제는
메마른 손가락에
닿아버린 옥 가락지
고울리 없건만

어느덧
분신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오늘도
어머닌
곰삭은 희망 한가닥
꺼내고 있다.

〈수필부문 차하상〉

풀 벌 레

인제군 기린면 현2리

김 정 복

아카시아 짙은 향내는 6월 대문의 빗장을 금방이라도 밀어젖힐 듯 피어 날리고 하얀꽃 꼬투리엔 봉울봉울 아련한 그리움을 담고서 피어난다.

이젠 눈감고도 걸을 수 있는 내린천변 논두렁으로 나왔다.

지천으로 자란 쭉무더기와 돋나물을 봉지에 뜯어 담으며 며칠 후에 다니러 오신다는 친정어머님을 생각했다. 호남지방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셨던 분이래 어릴때 즐기시던 쭉떡을 유난히 좋아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잎 한잎 쭉잎을 따다.

금새 엄지와 검지 손톱밑에 쭉물이 거무스레 들어 보기 흥했다.

늘 손가락에 검은물이 들어 이른 봄부터 가을이 깊도록 빠지질 않던 어머니였다.

이맘때 쫄이면 해마다 그랬듯이 모내기를 끝내놓고 산을 오르셨던 어머니.

풍족히 먹고 사는것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그 시절에 겨우살이 준비를 위해서도 그러셨지만 사는일이 너무도 고달파서 울고 싶을때 숲은 언제나 어머니가 토해내는 한숨을 모두 마셔버렸을 것이기에 더욱 더 산을 찾으셨는지도 모른다.

달빛이 밝던 5월의 늦은 밤이면 반지그릇 깊숙이 행여 깨질세라 조심스레 간직했던 못쓰게된 전구를 꺼내어 현양말의 구멍난 뒷꿈치를 기우시던 어머니는 이슬내리는 들판에서 들려오던 풀벌레의 합창소리를 노랫소리가 아닌 서글픈 울음소리로 받아들이셨다. 그 모습이 궁상맞아 보여서 자꾸 뒤돌아 눕곤 했던 어린날의 추억

이 논두렁 저멀리 어리었다.

당신을 절대로 딸키워서 처량한 풀벌레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 저 먼곳 도회지로 시집 보낸다고 늘 그러셨는데 ……

그래서 더욱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그 바램하시던 - 곳과는 방향이 다른곳으로 와서 살고 있으니 어머니 늘 그것이 안타까우신가 보다. 이젠 우리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문제를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만큼 많이 자랐다. 이웃집들은 춘천으로 강릉으로 좋은 학교를 가늠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이주하여 자리를 잡기도 하고 아이들만 전학을 시키기도 하는데 난 이렇게 소박한 환경에서의 인성교육관을 고집하여 내 어머니를 더욱 애태우시게 만들고 있다. 넓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서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에서의 활기찬 미래의 삶을 자식들에게 준비시키지 않고 있는 내 처사가 어머니는 그저 마냥 안타깝기만 하실 뿐인것이다.

첨단과학이 빛의 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하는 현시대를 살면서도 시골에 묻혀 그 옛날 내 어머니가 사셨던 모습으로 닮아가며 일요일엔 나보다 훨씬 더 덩치 큰 아이들을 동원하여 골짜기를 찾는, 그리고 돌틈을 헤집어 가재를 잡고 풀벌레 노랫소리를 오디오로 벗삼으며 초록숲으로 꿈을 먹이는 엄마인 나,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엄마를 어떻게 추억하며 어른이 될까?

손끝에 쑥물이 거무스름한 엄마의 투박한 손을 궁상스럽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내 어머니가 서글프게 들으시던 풀벌레 울음을 정겨운 멜로디로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로 자랄 수도 있겠지. 아직도 흐르는 냇물을 두 손 오무려 퍼올려 훌쩍거리며 마실 수 있는 물맑고 하늘맑은 이 산속마을에 오늘도 풀벌레는 여전히 작은몸 움직여 노래를 한다.

욕심많고 사연많은 복잡한 인간사를 비웃는 것인지 소박한 이 산골여인네의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 령(傳 令)

내린문학 김 신 향

아침에 쌀쌀한 냉기가 돌더니 오후에 들어서서 따스하기 시작했다. 추위도 오늘로서 끝날것만 같은 포근한 날씨다. 낮게 흐르는 구름이 정다웠다. 새들이 창공을 자유자재로 회유(回遊)함마저 평온했다. 섭리대로 겨우내 앙상한 가지로 버티던 나무들은 물이 올라 밧그스레 홍조를 띠었다. 양품점안에서는 한참 대화가 무르익어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손님들과 차를 마주했다.

난로불 위에는 호일에 쌓인 가래떡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었다.

이때 느닷없이 확성기에 대고 부르는 찬미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지나가는 대학생들의 행렬이겠지 생각하며 소리나는 방향으로 나가보니 터미널 복판에서 한 사람이 성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사십대 초반 정도의 남자였다.

등뒤에는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는 글귀가 새겨져있는 붉은 십자가머를 두르고 있었다. [막 1장 5절]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了知)였다.

양쪽 허리에는 소형스피커를 찼다. 앞가슴에는 쿼터그라스 작품 '양철북'에 나오는 주인공 오스카르가 애지중지하던 톱니모양의 적백(赤白)이 칠해진 붉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양철북을 매달았다. 북채와 양손을 번갈아 두드리며 반주를 맞추기도 했다.

마치 칠십년대 성행했던 서커스단의 약장사 같았다.

손님들이 뒤따라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버스에 탄 승객들도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내다 보았다.

취색 스프링바바리에 안경을 쓰고 찬미를 부르는 모습이 은혜스러워 보였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의 당당함 이랄까.

사실, 대로(大路)에서 그것도 혼자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 싶다. 간혹 지나가는 “수고하십니까.”라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중팔구 예수한테 미친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을것이고 회개해서 저나 천당가면 그만이지 왜 먹혀들어가지도 않는 해괴한 짓을 하고 다니냐는 비난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무지한 사람들의 행위이지 않을까.

오로지 성가(聖歌)를 부르며 마지막 시대에 목마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씀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눈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하는 전령자(傳令者)로써 위대해 보였다.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서서는 불가능한 놀라운 은총의 한 장면이었다.

마치 하느님나라에서 나팔을 부는 천사같았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롭지만 더욱 은혜로운것은 시시때때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만복의 근원인 하느님 백성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소리높여 찬송함이 얼마나 거룩한 영광인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갈망하고 주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잔치는 참 진리의 세계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극한 믿음의 성유(聖油)였다.

경로효친선양글짓기 입상작품

<초 등 부>

금 상

효에 대해서

인제남국민학교 6학년
박 혜 문

효란 부모님을 잘 모시며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것도 효라고 합니다. 저는 효가 이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효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효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돈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따뜻한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돈때문에 싸우거나 강도가 들어 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둘째, 부모에 대한 감사나 사랑에 대한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쉽게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끈기와 용기 그리고 의지가 있기에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잊지않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날 저는 얼핏 신문에서 잔인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늙었다는 것만으로 부모를 모시기 싫어 길거리 에 내다버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려서부터 키워주고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이런 부모님들을 자기가 힘이 든다고 해서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버리는 행동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싫습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행사로 경로잔치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사물놀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물놀이 차례가 되자 나는 몹시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재미있게 사물놀이를 치고 있는데 아주 기분좋은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 보이시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들이 치는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눈물까지 찼끔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할아버지 한 분을 보고 있으려니 나자신도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도 상쾌해졌습니다.

지금 저의 글짓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도 부모를 내다버리거나 학대, 차별을 하지 않고 존대말을 쓰고 우리모두 아니 내자신도 부모에 대한 충성심 효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금 상

할머니와 마스크

인제국민학교 3학년

최 희 진

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일을 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방에 앉으셔서 뜨게질을 잘 하십니다.

2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몸이 뽁뽁 얼어서 손을 호호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 할머니께서는 안경을 쓰시고 뜨게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밖이 너무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얼굴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오냐, 우리 강아지가 추운데 학교 다니냐구 고생이 많구나.”하시면서 차가운 두 손을 만져 주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뜨게질을 하시던 할머니께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더니

“희진아! 이 할미가 춥지않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마스크를 만들어 주렴?”

“네, 할머니 만들어 주세요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니 할머니께서는 털실로 예쁜 마스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덜 춥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썩도 나의 마스크를 보고는 몹시 갖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때 그 따뜻함에 할머니의 포근한 사랑을 느낍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겠어요.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 날이다.

나와 동생은 조그마한 선물과 카네이션을 준비했다.

아침일찍 일어나 선물도 드리고 꽃도 달아드려야 겠다.

은 상

할아버지의 웃음

한계국민학교 5학년

손 진 숙

“진숙아!”

할아버지의 눈에 가득가득 웃음이 배어 나를 부르실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해 진답니다.

작년 3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눈에서 더이상 웃음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르실때에도 일을 하실때도 함박꽃같은 웃음이 눈에 가득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없는 방을 외로히 지키시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재롱도 부려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좀처럼 웃으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녀달이 흘러 할아버지의 생신이 있는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7월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사를 하느라 온 동네가 술렁입니다. 저도 바쁜 엄마, 아빠를 도와 옥수수과 빵튀기 장사를 하여 돈을 조금 벌 수 있었답니다. 그 돈으로 할아버지께 선물을 해 드리려고 원통에 갓었는데 그날이 마침 장날이라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옷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구 옷을 사려고 그러냐?”

“저희 할아버지요. 그런데 이 옷은 얼마예요?”

“만원이야. 그런데 네가 하두 기특해서 팔천원에 줄게.”

“고맙습니다.”

포장지를 사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마음이 마구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원통에 계시는 할아버지 댁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삼촌, 이모,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두 계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 표정없을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나 마음이 더욱 떨렸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려는 나를 할아버지의 함박꽃 웃음이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나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첫 웃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날이후 할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되 찾으셨습니다.

은 상

예절은 나로부터

인제국민학교 3학년
전 꽃 샘

예절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아주 예의바른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부모를 죽이고 형제 자매간에도 서로 의심하고 못믿는 풍조가 이루어져 이 작은 마음도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예절과 효는 어느날 갑자기 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덕시간에 배운것으로 보아 효는 부모님 육체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효라는것이 부모님 육체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용두사미 꼴로 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란 말은 용머리에 뱀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거대하게 하면서 끝맺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옛날의 사람들처럼 예의를 잘 갖추면 밝고 명량한 사회가 될것입니다. 물론 이웃사촌도 많이 생기고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이 되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의를 잘 갖추는 나라가 될런지.....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행복의 나라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 아! 행복의 나라... ..
요즘 효도관광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모님 육체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효도관광도 부모님들께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가에 보면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힘드시게 하는 아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타일러 주고 싶지만 저역시 그랬기 때문에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어버이 날입니다.
이 날은 어버이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의 노력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나라가 되
기를 바랍니다.

동 상

효친의 바탕

인제국민학교 6학년
변 선 주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동양에서 손꼽히는 예절의 나라였다.

예절에는 경로와 효친이 있는데 경로는 노인을 공경하는 생활을 말하며 효친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생활을 말한다. 옛날에는 부모님께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효도를 했는데 이것이 효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효도와 효친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내가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살고 계셨다.

먹고 자는 식비는 읍사무소에서 나오며 끼니를 겨우 이어갈 정도였다.

원래는 부자셨는데 자식들 모두가 이 두 분을 버렸다고 한다.

이 분들은 늙어서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일을 할 수도 없고 할곳도 없었다.

또 TV에서 본적이 있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섭게 변한것이다. 돈이 무언지 돈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하는 서로 죽이고 죽고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다니.....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과연 우리가 말해오던 효도나 효친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그렇다면 어디로 사라졌을까? 예전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겼다면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효친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다.

나도 평소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깨달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가끔씩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새삼스레 느낄 때도 있다.

조금이나마 부모님에 대해 고마움과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효친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쌓아온 풍부한 인생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어르신들께서 땀흘려 일함으로써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 준 이 사회의 원로이기도 하시다.

그러므로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것은 우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노인분들은 힘도없고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할 일이 없게 되고 소외당한다.

나에게도 연세가 지극하신 외증조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방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냄새때문에 할머니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할머니께서는 정정하시긴 하시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으시고 귀도 잘 안들린다고 하셨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도 누구인지 잘 모르실때가 많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늙으신 할머니를 찾아가면 안부인사도 꼭 하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데 그걸보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나도 저렇게 잘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한적도 있었다. 버스에서도 보면 ‘경로석’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경로석이

라는 것은 써 있을뿐 어떤 어린이들은 옆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셔도 모르는척 하고 자는척 하는 그런 양치기짓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또 막상 어린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다. 나도 버스에 타서 앉아있을때 할아버지 한 분께서 옆에 서 계셨는데 자리를 양보하려고 생각하니 행동이 따라주질 않았다. 그만큼 버스에서 자리 양보는 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경로를 지키는 쉬운 방법도 있다.

그것이 바로 어렸을 때 부터하는 인사이다. 길거리나 혹은 다른 곳에서 아는 웃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듣는다.

인사를 할 때에는 정말 그 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참 보기 좋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간단한 그 인사조차 하기 싫어서 웃어른을 보면 그냥 걸치레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간단한 예절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노인분들을 멀리하거나 피한다면 피할수록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예의에 대해서는 사라져 버릴것이다.

경로라는 말을 계속이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경로부터 지켜나가야 겠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로!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집안에서 고쳐나가야 할 점은 우리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연로하시다는 이유로 그리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나도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

버스에서 자리도 양보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하려고

한다.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의 마음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친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효친의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친을 잘 지키면 경로도 잘 지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예절도 잘 지키는 것이 된다.

또 경로와 효친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 명칭을 다시 되찾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등 상

웃 어른 섬기기

인제국민학교 4학년

신 현 정

우리는 언제나 웃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하기, 예의바르게 행동하기, 존대말 쓰기, 차안에서 자리 양보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인사는 바르고 공손하게 해야합니다. 길을 가다가 웃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허리를 45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고 인사하는 웃어른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보면서 인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실내에서 자주 만나는 웃어른께는 목만 숙여서 인사하는 목례만 하면 됩니다.

또 온돌방같은 곳에서는 많이 찾아뵙지 못한 웃어른께는 큰절을 하거나 보통절을 합니다.

둘째, 존대말을 써야 합니다.

웃어른께는 존대말을 알맞게 써야하고 꼭 써야만 합니다.

존대말이 문장의 맨끝 단어에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빨리 나오시라고 하신다’를 ‘아버지를 빨리 나오라고 하신다’라고 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우리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어린이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부모님께나 삼촌, 고모, 이모들께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반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것은 웃어른을 섬기는 우리들로서

는 삼가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가정부 등 아주머니와 기사아저씨 같은 분들에게도 반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인취급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반말을 쓴다면 기분이 몹시 상할 것입니다.

존댓말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반말을 쓴다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 만큼 가치가 없는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는 예절바른 나라의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인사도 안하고 존댓말도 쓰지않는 나라라면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예의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째, 양보를 해야 합니다.

양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곳은 바로 버스안 입니다.

양보는 우리가 자리를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양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할머니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다리가 튼튼하면서도 그때 앉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모두 지난 일이지만 하나씩 되새겨 보면 잘못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과 실수를 하나씩 고쳐 우리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버스에서 보면 옆에 할머니께서 서 계시는데도 모르는 척 하고 그냥있는 어린이가 전 알립니다. 언제나 올바른 마음을 갖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친척이나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직장에 나가시고 없는 시간을 내어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힘드신 몸으로도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알뜰살뜰 꼼꼼히 챙기시며 집안일을 이것저것 모두 도맡아 언제나 한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빠나 언니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집안일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언니나 오빠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가족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친척들도 생각해 봅시다.

모두 한 집안의 식구로서 노력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을 힘들게 낳아 애써 길러 주셨고, 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 지금 우리가 있도록 길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발농사를 지으십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았는데 굉장히 멀고 일도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렇게 멀고 힘든일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매년마다 과일을 주시는 것에 전 참 고맙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힘이 많이 드실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젠 감사하는 마음을 잘 아시겠죠?

다섯째 로는 자주 찾아뵙고 안부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웃어른은 언제나 손자나 손녀를 그리워합니다.

자주 안부전화라도 드리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 해지고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찾아뵈면 손주와 할머니의 사랑은 더 깊어만 질 것입니다.

자주 찾아 뵙거나 안부전화라도 하면 이것도 웃어른 섬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는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효도를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것은 웃어른께 언제나 걱정을 끼쳐드리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편식을 하지말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항상 앞,뒤 좌,우를 살피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킨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해지면 첫째로는 웃어른을 더욱 잘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화목한 집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웃어른을 잘 섬기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부모님의 사랑

한계국민학교 4학년

김 영 경

나는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주실때가 가장 좋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못해 주신다.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짜증을 내고 휴일 날 아침 7시에 아빠께서 깨우면 너무 싫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겨우 일어난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항상 나를 감싸 주신다.

엄마께서는 내 건강을 항상 신경써 주시고 시간만 나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는다.

아빠께서도 학교까지 자동차로 태워다 주시고 자주 칭찬해 주신다.

그래서 난 이런 부모님들이 제일 좋고 존경스럽다.

올해 아버지 날에는 아빠께 카네이션과 샹프를 선물로 드렸고 엄마께는 장미 브러지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나는 이 선물을 한참 생각해서 샀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모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려고 샀다.

아버지 날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영경이가 최고다”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고 바로 이런것이 효라는 것을 깨달았다.

효라는 것은 커다란 선물을 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느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영경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뽀뽀도 매일마다 잘 때 해 드리고 편지도 자주 할 것이다.

그리고 휴일 날 아빠께서 깨워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잘 일어날 것이다.

장려상

진정한 효

인제남국민학교 6학년

김은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효란 바로 이런것일까?

우리 주위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 내가 생각할때 이런 사람은 남부끄럽지 않게 배부르게 산 사람같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고 믿음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멸시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부모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부모를 멸시하고 증오를 할까?

나는 TV에서 이런것을 많이 본 적이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신이 생활하는데 고통을 느껴, 그것을 부모에게 탓하여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버려 그것에 대해 부모를 증오하고.....

다른 화목한 가정을 볼 때면 먼저 질투하기 보다는 그 자식을 증오하게 된다.

바로 이런것이 자신의 부모를 멸시하고 증오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태도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늘상 사용하는 말중에서 '효'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효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언제나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편안

하게 해 드려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나 부모님의 힘이든 일은 내가하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효를 실천하려면 우선은 몸가짐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일터에 나가신다고 해보자.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안에만 앉아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될까?

공부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힘든 일터에 나가시는데 내다보지도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정말 후회하실 것이다.

아무리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을 하면 될하나? 일터에 나가시는 아버지를 배웅도 하질 않는다면 속상해 하실 것이다.

아니 자식을 아주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많은 불효자가 되어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진정한 효에서는 바른 몸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는 몸가짐만으로 족할까? 아니다. 바로 몸가짐이 중요하듯이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하다.

이것또한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일터에 나가신다고 할때 자식은 그냥 의무적으로 아버지께 배웅을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럴때 아버지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좋게는 일이 끝났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효라고는 할 수 없다.

효에 있어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하다.

효를 실천할 때는 마음가짐만으로도 앓될 뿐더러 몸가짐 하나만으로도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실천을 해야 한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곳에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을 한다.

부모님께서서는 우리를 낳아 주셔서 이날이 될때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궂은일 좋은일 마다하시지 않으시며 열심히 일하신다.

이러한 고마움의 뜻을 부모님께 전해드리기 위해 편지도 쓰고 편안하게 해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처리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효를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중요한것은 ‘진정한 효’란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경로효친선양글짓기 입상작품

<중 등 부>

금 상

효자, 효녀입니다.

원통중학교 2학년

이 지 숙

요즘 우리에게 점차 강조되고 있는 덕목중의 하나가 바로 효이다.

난 지금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모든 어른들께 효를 행하고 있는지 반성해 본다. 우리 원통중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원통중학교 학생이라 하면 다른 어느 학교 학생들 보다는 절을 잘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꼭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이다.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한 번 하는 절과는 차원이 다르다.

얼마전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부모님께 큰 절을 드리니 매우 대견스러워 하셨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의 형식적이면서도 딱딱한 수업 인사가 아닌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라고 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습관이 들지는 않았지만 글씨는 연필로 써야하듯 수업 인사는 “효자, 효녀입니다”로 하는게 당연하게 생각된다.

매일 몇십번씩 효녀라는 말을 입에 올리니 내 생활도 변할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일도 많아졌고 심부름도 많이 하게 되었다.

난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겠지만 부모님의 기쁨에는 비길 수가 없을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성적이 올랐을 때보다 오히려 효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행하고 얻는 보람이 더욱 값진것일지도 모른다.

얼마전에 봉사반 활동으로 마을회관에 갔었다.

우리는 학교에서처럼

“효자, 효녀입니다”라고 크게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담으셨다.

우리 봉사반 일동은 청소를 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곳을 봐도 그저 깨끗하기만 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 올랐다.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교실은 일명 돼지우리라고 하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차분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청소는 접어두고 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모두들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가 대표로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께서 내이름을 지적해 주셔서 무지무지 기뻐다. 학교에서와 같이 할아버지께선 칠판에 백묵으로 글씨를 써 내려가시며 말씀해 주셨다.

효란 무엇인가? 효를 행하는 자세. 효를 행할 수 있는 방법.

예절이란? 도덕이란? 등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그날의 할아버지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할아버지 말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욱 이해하기가 쉬웠다.

하나라도 버릴 내용 또한 없었으며 우리의 정서함양, 인격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셨다. 말씀을 다 듣고 일어나니 다리가 저렸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픔은 잠깐이었지만 그때의 할아버지 말씀은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된다.

수업 한교시 정도의 시간동안 들었는데 그 내용은 열교시에 버금갈 정도로 값진 것이었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지숙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숙이가 착하고 건강하

게 자라주는 것이 아빠, 엄마에게 효도하는 거란다.”

백번 웅으신 말씀이다.

오늘 중간고사가 끝났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께서 TV를 보신 얘기를 해 주셨다.

어떤 한 남자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장애인 아니 신체가 거의 다 마비된 부모님을 대학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봉양을 한다고 한다.

그 사람은 집안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산업고등학교엘 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마을에서 대학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팔을 주무르던 손에 불끈 힘이 쥐어졌다.

나도 효녀 심청이가 되고 싶지만 그게 맘같지 않다.

1학년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 떼도쓰고 신경질도 부렸었다.

지금은 효가 매우 중시되고 학교에서도 효녀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진짜로 효녀가 된 기분이다.

요즘 TV에서 마마보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TV에서는 ‘마마보이는 나쁘다.’라고 단정지었지만 오히려 좋은 점은 없을까?

마마보이는 나중에 닥쳐 올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부모님 앞에서만의 마마보이라면 그게 더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항아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추세에 부모님 말씀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는 효일것이다.

나는 통학생이다. 그래서 하루에 꼭 두 번씩은 버스를 타야한다.

버스에서는 친구들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버스에 타시면 즉시 일어나느냐 뜰을 얼마만큼 들이느냐에 따라 친구의 인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내 친구중에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마을회관에 갔었을 때도 할아버지께서 버스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무리 자신만은 아니였어도 우리 모두는 공범자였다.

우리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였을지라도 과연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단, 그 자신만의 반성일 뿐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 것이다.

그때쯤 가면 벌써 늦은것이다.

더이상 효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효를 받을 자격 또한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미래에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신이 효라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래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대지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노력할테니 말이다. 무엇이든지 노력한만큼 댓가만 오는 것이다.

또 그 이상을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큰 문제들중의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대학교수가 재산상속 문제로 아버지를 암살하다’등등 모두들 비인간적인 행동만 골라서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난 존경하고픈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신문기사나 TV화면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경멸하고픈 사람이 생겼다.

바로 부모를 죽인자들이다. 부모가 없었다면 그 자신도 존재하지 못했을텐데 왜 한치앞만 보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명보다 돈이 더욱 중요했단 말인가!

약간의 양심조차 없었던 말인가.

유행은 반복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상이 유행은 아닐지라도 반

복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21세기의 주인공은 우리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풍요롭고 정이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있다.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누가 칭했던가!

시간이 흐른뒤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나라 사람이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해준다면 그지없는 기쁨일 것이다.

모든 행동의 기본 바탕이 되는것이 효이다.

이 효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은 상

저는 효녀입니다.

원통중학교 3학년

송 주 연

효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효는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보통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모시는 것……

막연히 효란 무엇일까란 대답에 정확히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연 효란 무엇일까?

요즘은 경로효친이란 말을 듣기 어렵다.

겨우 도덕시간에나 들을까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예로부터 들어왔다.

그만큼 예의바른 나라, 도를 잘 따르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

옛 고전을 보더라도 효를 주제로 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심청전을 보더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자식의 효성!

과연 우리는 이런 행동 아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유학가서 유혹비로 쓴 돈을 갚기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박한상. 사업하다 진 빚을 갚기위해 아버지를 죽인 대학교수.

소위 지식인이란 사람들이 과연 이럴수가 있는가!

효가 무시되는 세상 아니 효가 형식에만 중시하는 그런 세상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버스나 치하철에서 얼굴엔 주름이 잡히시고 머리는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타시면 조는 척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 이들.

효란 부모님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평소에는 아버지, 어머니께 받기만 원하고 짜증만 내면서 아버이 날만 되면 꽃을 사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앞으로는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효를 한다. 되돌아보면 한심한 일들이 다. 하지만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효에 대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는 개혁이 있었다.

아침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에서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큰 절하기 등.....

우리에게 효에 대한 생각이 뿌리내려 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해외에선 우리나라 입양아들이 인기라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라서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입양아들도 우리나라 입양아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런 효에 대한 정신과 우리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것이 바탕이 되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배운것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럴때 우리의 효사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전에는 고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던 효자비, 효녀비

요즘은 효자, 효녀들이 상을 받고 텔레비전 출연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효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질문한 효란 무엇일까?

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효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이라고.

어찌 생각하면 효란 하기 힘들고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 번더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의 심부름을 짜증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하는 것.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 이런것들이 바로 효일 것이다.

또 효란 나의 부모님에게만 하는것이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

이것도 효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모두 크게 생각하면 나의 스승이고 선배이며 부모인 것이다.

따라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또한 효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 아주 실천하기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효자, 효녀상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효자, 효녀상이 없어지는 날이 바로 우리 모두 효자, 효녀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 효자, 효녀!

오늘 나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다시 한 번 효를 마음깊은 곳에 새겨둔다.

다시 대한민국하면

‘아! 동방예의지국’하고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날을 빨리 만들기 위해 내일 인사도 우렁차게 할 것이다.

“저는 효녀입니다.”

동 상

나도 할머니가 된다.

기린중학교 1학년

조 은 미

요즘에 신문을 보면 곧잘 어른들이 부모님을 양로원이나 외딴곳에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더욱 기가막히는 일은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자식들을 부모님들은 원망하지 않고 경찰이나 사람들이 “혹시 집주소나 전화번호, 가족들 이름을 아세요?”하고 물어도 그저 ‘모른다’라고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여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 기사는 끝났다. 이런 기사를 보면 “후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버린 어른들을 원망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나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집에는 외할머니,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데 나는 하루같이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낸다.

“할머니! 남방 좀 다려달라고 했잖아요.”하는 식이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재빨리 해주신다.

나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과제물과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할머니께 신경질로 해소를 하였다.

할머니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곳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간혹 효도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으면 ‘나도 효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10분도 채 안되어 금방 양탈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예전의 은미로 돌아와 버린다.

그것은 집안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할머니를 보면 또 허리가 구부러져 지팡이에 자신을 의지하고 내옆을 지나가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라는 생각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아빠의 휴가를 이용해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자가용을 타고 산중턱 정도에 왔을때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할머니께서 머리에 보따리를 이시고 지팡이를 짚으신 채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어디까지 가시냐고 여쭙보신 뒤 같은 방향이니 타시라고 하셨다.

그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 하시고 차에 타셨다.

나는 짜증이 났다.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 까지해서 모두 다섯명!

안그래도 좁은데 그 할머니까지 타시니 여름이라서 더운데 더 더웠다. 완전 찜통이었다. 그래도 그 할머니가 계신데 ‘아빠, 우리 그만 저 할머니좀 내려놓고 가요’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도 등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나는 3시간 가량을 속으로 궁시렁거리며 버티었다.

그 할머니가 굉장히 미웠다. 목적지인 속초 삼포해수욕장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크게 뛰어나가 크게 한 숨을 쉬었다.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것 같았다.

그 할머니께서도 조금뒤에 내리셨다. 나는 혹시 나에게 용돈이라도 줄까 하는 생각에 할머니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하신뒤 천천히 발길을 돌리셨다.

그 할머니가 안보이자 나는 땅에 침을 ‘뱉!’하고 뱉은 뒤 ‘에이 재수없어’라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아빠께서 들으신 모양이다.

그 덕분에 나는 호되게 혼이 났다.

어른들을 공경해야지 그런 소리를 하면 못쓴다고……

나는 더욱 그 할머니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토라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다. 바다에서 즐겁게 놀다가 점심식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보트도 타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더 놀고 싶었지만 집에 가야하기 때문에 나는 바다에서 나왔다.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남아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내옆에서 어떤 어린 남자아이도 조개껍질을 주우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조금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할아버지께 뛰어가서 부축해 드리는 것이었다.

그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 보다도 어린 아이가 저런 생각과 행동을 하다니… …

나는 도덕이란 과목을 따로 배우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그 할머니께 공손하게 대하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아까 아빠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들 뿐이었는데 나는 속상해 했다. 또 그동안 나의 이익만을 위해 도와드리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께 너무 미안했다.

그 후로 나는 달라졌다. 버스 안에서는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

예전같으면 자리에 앉아 자는 척 하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뿌듯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고개를 쳐들면 ‘나도 할머니가 된다.’라는 생각

을 한다.

지금의 내가 할머니라면 너무나 슬플것이다.

‘만약 내 자식이 나를 버린다거나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가는 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라고 상상을 해 보면 온몸이 오싹해 진다.

요즘 세상이 변한다지만 한가지 변하지 않는것이 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어른들은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양로원이나 외딴곳에 버리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어른들에게 충고해 주고싶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도 할머니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께도 효도하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안 계셨고 우리들도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장려상

작은 효

원통중학교 3학년

김 옥 남

안녕하세요?

저는 점잖은 막내둥이이고 가족에게는 인정받은 특허감 효녀 김 옥남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에 왜 “점잖은 막내둥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막내’하면 집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잔심부름만 하며 집안일은 거의 언니나 오빠가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할머니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가게에 나가셔서 집안일은 거의 신경을 쓸 시간이 없으십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작년 여름에 병을 앓으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비록 지팡이의 도움을 받고 걸어 다니시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주위 분들께서는 제가 정성을 다하여 모신 덕에 낫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연탄갈고 설거지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저의 생활에 불평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일터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셔서 집안일까지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 만큼 피곤하지는 않으니 제가 할 도리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자의 효(孝)라는 글자는 노(老)자와 자(子)자가 더해져서 만

들어진 것으로 자녀가 부모를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효의 근본정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큰 은혜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흔히 효자라고 하면 보통사람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 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도 과거의 효자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겨울철에 죽순을 구했다든지, 뜨거운 눈물이 부모님 묘앞의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였다든지, 허벅지의 살을 베어 병환중에 계신 부모님에게 구워드려 병을 낫게 하였다든지 하는 효자에 얽힌 이야기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효행담들에 얽힌 내용은 효성은 이처럼 희생적이어야 하고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1학년 겨울방학때 아주 큰 병을 앓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TV에서 중풍에는 소나무 잎즙이 좋다 라는 정보를 들어 어머니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솔잎즙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식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결국 왼쪽 손과 발에 마비가 와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전의 손과 발을 그리워 하시며 하루 하루를 눈물로 지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병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예감하시고 포기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도 드시지 않고, 저에게 화만 내시고 그때는 정말 포기 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할머니를 보살핀 것이 허무했습니다.

병이 채 낫기도 전에 그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효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효는 특별한 행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효에 대하여 물었더니,

“부모는 오직 자신의 병을 근심한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아주 간단한 한 마디의 대답이었지만 여기에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효라고 하면 부모를 음식이나 옷으로만 봉양하면 되는것인 줄 아느냐. 개나 말도 다 양육함이 있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부모에게 효를 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봉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공경심과 정성이 밑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모나 조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이나 차려드리고 옷이나 몇 가지 해드리고 물질적인 봉양만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단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일만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공경심을 지니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께서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들은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효를 실천해

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은 언제나 부모와 자식이라는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게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서 국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효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효친선양글짓기 입상작품

<고 등 부>

금 상

지켜야 할 우리의 전통

인제종합고등학교 2학년
고 재 필

우리 민족은 옛 부터 충효사상을 토대로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전수해 왔기에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져 왔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치관의 혼란과 무질서가 팽배되는 등 과학기술은 그 어떤 사상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는 곧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중화와 전통과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한쪽에선 이러한 과학기술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권위주의적인 가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정은 전통과는 멀어지는 민주적인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가정은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서로가 너무나 자기일에 충실하다보니 자칫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적인 가정에서 전통이란 것을 모른 채 대중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라난 청소년들의 일부는 부모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우선시 하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과학기술은 우리사회 윤리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뽑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은 필요하기에 사람들의 가슴속

에 새로운 의식을 심는 일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어버이에 관한 날이 많기로는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을 듯하다.

1914년에 미국의회는 5월 두번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식 선포했고 72년에는 닉슨대통령이 6월 세번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했다.

또한 1978년에는 9월 첫 월요일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로 81년에는 10월 26일을 ‘장모의 날’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6년에 ‘어머니의 날’을 만들고 후에 여론에 밀려서 73년부터 ‘어버이 날’로 바꾸어 부르기에 바빴다.

미국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무슨무슨 날만 많다고 좋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아 보인다.

며칠 전 TV와 신문에서는 올해의 어버이 날 역시 예년 못지않게 카네이션이 만발하고 전보와 축전이 평소의 세배로 늘어났다고 보도한바 있다.

뿐만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들의 씩씩이로 건강진단이 이른바 효도상품으로 크게 각광 받았고 효도관광으로 인해 여행사도 붐볐다고 전했다.

하지만 또다른 지면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기사도 보였다.

어버이 날을 하루앞둔 일요일.

종교단체가 제공한 도시락을 들고있는 어두운 노인들의 모습과 대부분이 젊은이와 어린이들로 구성된 가족단위 행락객들의 밝은 모습이 실려있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보도 되어져야 하는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 되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것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효를 행하려 하다는 것이다. 많은 돈으로 효를 행한다는 명

목아래 아낌없이 써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말이다.

어느 백화점에서 4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일 받고 싶어하는 효도선물은 안마기라고 한다. 자식과 부모가 떨어져 사는 요즘, 그리운 자식의 손대신 안마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자식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맘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셨지만 그러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적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두번째는 그나마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하루의 반짝 효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년중에서 단 하루만 빛을 발하는 관심인듯 싶다.

또한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길 포기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다.

부모보다 인기스타에게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 밝은 젊은이와 어두운 노인의 상반되는 모습, 물질적인 효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하루만의 반짝효심, 인간이길 포기해버린 패륜아들……

우리 사회의 인륜이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효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효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효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효(孝)라는 글자는 늙다(老)라는 자에서 지팡이(匕)를 자식(子)이 대신 한다는 뜻을 품고있다. 해석대로 자식이 아버지의 늙으신 몸을 부축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 즉 효를 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효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효의 실천을 위해 효의 참 의미를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없이는 효를 실천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것과 같아 금방 무너져 내리기 쉽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밑바탕이 튼튼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지는 법이다.

효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올바른 효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효를 행한다 함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효를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작은 마음에서 부터 효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 상

보이지 않는 사랑

인제종합고등학교 2학년

최 창 규

아버지는 언제나 강하셨다.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식구 아니 형과 나에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너무나 강하셔서 어린 내 눈엔 독재자로 보이시기 까지 했으니까... ..

아버진 형과 나의 의사는 거의 묻지 않으셨다.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도무지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다.

우린 아버지께 말을 자주 하지 않았다.

모든걸 어머니께 말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말씀 드렸다.

아버지가 두려웠기에.....

그런 아버진 술만 드시면 굉장히 자상해 지셨다.

또 아버진 고된 농사일 때문에 술을 자주 드셨다.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하시고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해도 아버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즐거워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만원씩 쥐어 주시곤 하었다.

우린 점점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시기를 바랬고 그런 날이면 으레히 아버진 우리의 생각과 의사를 자세히 물어 보시고 자상하셨습니다.

술에 취하신 아버지는 우리와 팔씨름도 하고 우리가 커서 장가갈 이야기를 즐겨 하시며 아버지의 어려웠던 어릴적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하지만 또 아침이 되면 아버진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셨다.

여전히 강하셨던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이다.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갔다.

예전처럼 난 아버지와 있기가 두려워 얼른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한참 후 전화벨이 울렸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주저 앉으셨다.

아버지께서 뛰어나오시며 어머니께 무슨일이 있냐고 다그치셨다.

형의 사고였다. 시력이 좋지 않았던 형이 그날따라 귀에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면 가다가 앞에 가던 경운기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 이었다.

아버지는 예전의 그 냉정함으로 어머니와 함께 달려 나가셨다.

중상이었다. 형은 곧바로 원주로 실려나갔고 뇌출혈로 수술을 해야만 했다.

그 후부터 우리집은 형이 나올때까지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졌다.

어머니께선 형과 함께 원주에 계셨고 아버지인 이삼일에 한번씩 형에게 가서 상태를 보고 오셨다. 난 혼자였다.

이제 혼자서 있으면 무서움에 떨 나이는 아니었지만 거의 혼자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건 어려웠다. 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아버지와 둘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와중에도 아버지인 흐트러짐 하나 없으신듯 보였다. 낮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밤엔 술에 만취되어 집에 들어오시고 가끔씩 형의 차도를 보기 위해 다녀오시고 변한것이 없는것 같았다.

여전히 형에대한 걱정도 내게 관한 관심도 없으신듯 보였다. 아니 변한것이 있긴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을 드셔도 예전처럼 즐거워 하질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형에게 가지 않으시고 밀린 집안일을 하시는 날이 종종 있었다.

난 몸살이 나 더 힘든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치우질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거실에는 전날 드신 술병이 나

뒹굴고 있는것이 보였다. 조금더 들어갔을때 만취하여 쓰러져 누워 계시는 강한 아버지의 흐느낌을 들었다. 울고 계셨던 것이었다.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걱정이 없었다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흠범벅이가 된 옷을 입으신채 바닥에 누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셨던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다.

난 움직일 수 없었다.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많은것을 느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또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가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셨던 아버지.

난 아버지께 눈물을 보여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거칠한 손을 어루만졌다. 어느덧 고2가 되고 형은 다 나아서 정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흐트러짐 없는 그 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그리고 올해도 어버이 날이 돌아왔다.

아버진 어버이 날에 꽃을 달아 주는것은 꽃장사들만 좋게 해주는 거라 하시며 꽃을 사오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형과 나는 꽃을 사러 나갔고 난 이제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느덧 아버지가 두렵기 보다는 자상하시고 부드러운 분으로만 보이기 시작한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만 이제 난 그런 아버지 잘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동 상

노 인 문 제

인제종합고등학교 2학년
추 상 순

요즈음 엄마, 아빠의 흰 머리카락은 늘어만 가고 할머니의 허리는 굽어만 간다. 그 만큼 늙어간다는 것인가 보다. 특히 아빠의 흰 머리카락은 수도 없이 늘어 염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물을 왜 들이나? 자연스러운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던 아빠가 요즘에 와서는 염색을 하시다니 조금은 걱정이다.

염색약이 암을 유발하고 시력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에 나쁘다고 걱정을 하셨던 것이다.

최근 노인들의 성형수술이 효도 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TV에서 들은 적이 있다. 대개 생일선물이나 결혼기념일 선물로 자녀들이 원하는 효도 성형수술 등 처진 눈꺼풀, 주름살 지방제거수술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수술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주일의 입원치료를 전제로 삼백만원에서 최하 일백만원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효도관광이라 하여 부모님을 여행시켜 드리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효도관광 대신 성형수술이라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그만큼 늙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다 젊게 보이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인들은 선택받은 노인일 뿐 모든 노인분들이 이런 노력과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자식들은 모두 결혼시키고 나서 고독한 노년의 고민은 더욱 구체적이고 절박해 진다. 경제력과 건강이 확보되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부부만의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이 세가지중 어느것 하나만 결여되어도 자식이나 양로원에 의존하기 십상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 두가지가 모두 불투명한 상태이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양로원은 수도 적거니와 자식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그곳에 가는것을 꺼려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거취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많은 발전도 가져왔지만 그에따라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러한 물질문명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현상으로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소외현상’이다.

인간이 사회주체가 되지 못하고 물질문명에 이끌려감에 따라 생겨난 인간 소외현상은 범죄의 증가와 노인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그 중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문제이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서양에서 동방예의지국 이라 불릴만큼 우리나라는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밝았다.

농업을 중시한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경험과 직결되었고 노인은 그러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그래서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므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온 것이었다.

실제적 능력이 유교의 효도사상과 맞물려 노인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고 가족이나 공동체의 통솔자는 노인이었다.

효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는 효도야말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의 정표이자 인류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뛰어난 효행은 국가적으로 표창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노인은 더이상 과거와 같은 존경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방관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

소홀해졌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을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생각하도록 해야만 노인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들의 일자리 부족이다.

직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빠른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지식에 무지한 기성세대들은 더이상 직장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이런 현실을 파악하여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그들의 몫을 찾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 시설도 늘려 집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지하철역 등에서 기거하는 부랑아들을 위해 배려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옛 속담에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려상

내 어머니

인제종합고등학교 2학년

박 해 련

“엄마,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내가 열 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를 만큼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할 수 있었던 말이다. 어머니께서는 이 말에 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보다도 더 많이 우셨다. 언제였던가! 식구라고는 엄마, 오빠, 나 이렇게 셋이서 단란하게 살던 때가.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오빠는 나의 두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하였다.

저녁에는 우리 식구 모두가 둘러 앉아도 비좁은 상에다 밥을 먹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집이었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지 가정의 리듬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나보다 다섯 살 많은 오빠는 무언가 아는 눈치 같았으나 나에게 는 입을 열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그랬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에는 보지도 못한 구두가 놓여져 있었다. 나는 이모가 오셨나보다 하고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대화소리에 귀를 쫓긋세웠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아무리 해련이 어머니가 능력이 있어 애들 둘을 데리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애들을 생각해 봐요. 애비없는 자식으로 키울 참이우”

“…… ……”

“어린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불러 본 기억도 나지 않는 ‘아빠’가 없었다.

우리 세 식구는 이렇게 행복한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스럽고 무엇이 불균형스러워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맞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이란 말만 하면 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차마 불러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친구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아빠가 필요없기에 문을 건어 차듯 뛰어 들어갔다.

“엄마! 나는 우리 셋이면 된단 말이야. 엄-마아...”

나는 왜 울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해련아, 엄마 생각도 해야지. 얼마나 좋으니? 아빠란 좋은 거란다.”

“싫어! 싫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이런 일은 다반사였다. 하지만 나는 번번히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잠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끊긴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네에! 사고라구요?”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시고는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사고... ..”

어머니께서는 나를 와락 끌어 안으시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시냐면서 많이 흐느끼셨다. 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이 모습은 오빠와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오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님을.....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어머니의 진실된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밖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면 야단을 치기 보다는 타이르며 상처부위에 약을 발라주고 싶고, 피곤에 묻혀 코골며 잠자기 보다는 우리들의 이불을 여며주시며 자라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맘편히

보고 싶으셨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힘이들면 기대야 하고 자식들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잠시후면 어버이 날이 돌아온다. 카네이션 두 송이를 사려 한다.

내가 조금씩 자랄때 마다 함께 기뻐해 주시던 어머니께 무척 값진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릇됨만을 야단 치시던 사랑하는 내 어머니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말 한마디였다.

“엄마,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제문화원 임직원



원장 임 광 준



부원장 이 창 락



감사 임 성 기



감사 장 정 훈



이사 방 범 기



이사 심 응 섭



이사 김 진 태



이사 김 현 래



이사 박 주 화



이사 이 운 철



이사 남 정 우



이사 김 종 하



이사 오 정 진



사무국장 이 만 철



간사 장 미 향

인제문화원 회원명단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성 호	인제군 서화면 천도4리2반 561	462-4330
박 명 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인제군청	460-2425
송 병 선	인제군 북면 원통 3/6 성도아파트 나동 102	461-0988
심 준 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2반	461-2248
이 정 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 3/5반	462-1615
한 상 문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인제군청	460-2472
문 원 태	인제군 남면 신남 4/5반	460-2491
유 제 영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2852
최 태 홍	인제군 인제읍 남북 2/2반	461-4984
박 성 실	인제군 인제읍 상동 낙원아파트 206호	461-1500
임 혜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극동연립 211호	461-1242
차 애 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 군인아파트 206호	461-6285
임 정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 4/1반	461-0717
한 용 운	인제군 인제읍 상동 4/1반 258-15번지	461-2623
최 병 헌	인제군 인제읍 상동 4/6반	461-0788
장 정 섭	인제군 인제읍 남북 1/7반	461-0580
이 정 순	인제군 인제읍 합강 2/7반	461-0936
이 정	인제군 상남면 미산 2/2반	461-6871
조 해 숙	인제군 서화면 천도 4/10반	462-0337
김 실 권	인제군 인제읍 남북 1/3반 299번지	461-2877

성명	주소	전화번호
김신향	인제군 북면 원통 2/1반	461-3437
이상각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296-10번지	461-0799
심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 3/1 297-7번지	461-2248
정규련	인제군 북면 원통 5/3 647-7번지	462-8161
임춘봉	인제군 북면 한계 2/3반	461-1519
김기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 1/7반	461-2851
최태석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나동 301호	461-4541
전영환	인제군 인제읍 상동3/3반 319-3번지	461-2372
김은식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4401
오성현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4793
김봉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대암석공’	462-4017
최성태	춘천시 후평1동 동보빌리지 9동 201호	
한성산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71-8번지	461-8173
손흥기	인제군 서화면 천도 2/1반	462-4147
김영주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군인관사 22호	461-9003
김종각	인제읍 남북리 골든빌라 마동 201호	461-0316
김종호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반	462-3334
최은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4/5반	461-8802
고금녀	인제군 북면 원통 8/1반	462-0389
최경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2736
이재화	인제군 북면 원통 3/5반 극동 307호	462-3344
황민숙	인제군 북면 원통 6/4반	461-8431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 순 복	인제군 인제읍 상동 5/4 구연립 212호	461-4879
이 분 남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5반	461-4651
조 인 숙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461-0766
송 순 천	인제군 인제읍 상동 5리 극동연립 310호	461-4166
김 경 윤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1798
이 연 우	인제군 인제읍 상동 4/3반	461-4843
길 순 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3/6 송림아파트 105호	461-8862
정 순 덕	인제군 인제읍 합강 1/4반	461-4300
전 민 아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2050
길 호 섭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 305-13번지	461-2532
조 철 환	인제군 인제읍 상동 1/2반 376-2번지	461-8770
박 종 윤	인제군 남면 어론 1/4반	461-6370
장 현 귀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69-22번지 4/5	461-7209
박 경 옥	인제군 인제읍 상동 3/1반	461-4817
이 수 영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4-5번지 1/5반	461-2784
김 진 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 251-5번지 4/4반	461-3734
김 두 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51-6번지 4/4반	461-2279
유 석 호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57-4번지 2/6반	461-2832
하 광 수	인제군 인제읍 남북 2/4반	461-2039
최 광 일	인제군 인제읍 상동 3/3반	461-7064
오 혜 선	인제군 인제읍 상동 3/4반	461-1430
김 도 완	인제군 인제읍 상동 3/6 군인관사 14호	461-0364

성명	주소	전화번호
노필예	인제군 인제읍 상동3/6 군인관사 14호	461-0364
김정희	인제군 인제읍 상동 5/4 연립 112호	461-2195
김애경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8311
백정흠	인제군 인제읍 상동 5/3반	461-2767
박귀임	인제군 북면 원통 7/2 포병연대관사 19	462-4898
장재성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우신아파트 1204	462-3669
허영숙	인제군 북면 원통 서호아파트 B동 302호	462-1873
강여숙	인제군 북면 원통 서호아파트 B동 201호	462-6329
강현정	인제군 북면 원통 서호아파트 B동 102호	462-8939
김관빈	인제군 상남면 상남 1/3반	462-6734
박용구	인제군 서화면 천도 2/1반	462-4042
전상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심상우	인제군 서화면 천도 4/3반	462-5187
김은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5반	461-5155
박해순	인제군 인제읍 상동 4/2반	461-2452
정병석	인제군 기린면 현 1/2반	461-5063
전광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 2/6반	461-4289
조창구	인제군 남면 어론 1/1반	461-6191
엄규완	인제군 상남면 상남 3/2반	461-6789
함태봉	인제군 인제읍 상동 2/2반	461-2470
김진용	인제군 북면 원통 3/1반	461-3062

'95년도 문화사업 추진 실적

세부사업명	일시(기간)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서예교실운영	95.1.5-1.31	서예실	35	
대보름맞이	95. 2. 14	인제읍노인회	120	
웃놀이대회	95. 2. 16	기린노인회	90	
마을농악기 보 급	95. 2. 28	문화사랑방	30	6개마을에 전수
지명유래조사	95.3.24-3.31	관내6개읍면	6	
청소년놀이 광 장	95.4.25 -7.25	관내학교	300	3회
효행상시상	95. 5. 8	인제읍노인회	200	3명
경로위안 악대공연	95. 5. 8	인제문화원	400	악기연주, 음악회
문화유적지 순 려	95. 5. 23 95. 10. 18	독립기념관/박물관 전남 광주	45 45	
민요(소리) 경창대회	95. 6. 2	문화관	400	
경로효친글짓 기 공모시상	95. 5. 26	문화사랑방	50	초·중·고교생
아미합창단 지 원	95. 6. 7	문화관	60	
문화사랑방 교실운영	95.7.1-9.30 95.7.1-8.30 95.8.1-9.30	문화사랑방 문화사랑방 문화사랑방	25 25 20	플룻강습 희타강습 중·고교생
민속예술발굴	95.7.10-8.4	관내순회	7	점간놀이
사 료 수 집	95.8.19-9.27	관내순회	5	
합강문화제 행 사	95.9.21 -9.22	읍내 5개소	5,000	예술행사, 체육행사
사료집발간	95. 11. 30	문화원	1,500부	
문화지발간	95. 12. 30	문화원	1,500부	
청소년 어울마당	95.1.10 -12.10	관내학교	매 회 200명	매 월 1회추진
미술작가 초대전	95.10.28 -11.1	문화원	600	35점

'96년도 문화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장 소	비 고
신년음악회	2월	문화관	음악가 초청
마을농악기 보급	3월	문화원	7개 마을 보급
문화유적지 순례	4월	관, 내외	문화가족, 지역주민
효행상 시상	5월	인제읍 노인회	효행자 2명
경로잔치	5월	인제읍 노인회	국악인 초청
문학 예술제	5월	충혼탑	백일장, 시화전 등
서예전시 및 강좌	6월	문화관	서예가 초청
민요(소리)경창대회	6월	문화관	단오절 병행
여름밤 음악회	7월	문화관	음악가 초청
향토사료수집	7, 8월	관내	민속생활품
청소년문화강좌	7, 8, 9월	문화관, 학교	저명강사 초청
야외사진전	8월	적정지<야외>	관광지, 유적지
합강문화제 예술행사	9월	문화관 및 야외	각종 예술행사
민속예술발굴	9월	관내순회	고유민속발굴조사
가을예술제	10월	문화관	미전, 음악회, 강좌
문화유적지 순례	10월	관, 내외	지역주민

'96년도 문화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장 소	비 고
사 진 전		11월	문화관	관내홍보사진
문화지 발간		12월	문화원	인제문화 11집
향토사조사		2월~11월	관내마을	사료집발간
문화 학교 강좌	홈패션강좌	4월~6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전통의례강좌	4월~6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노래부르기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서예강좌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꽃꽂이 강좌	4월~9월	문화사랑방	지역주민대상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화룡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
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인제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본 인제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실 회원(문화원 가족)을 모집하오니 군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회원자격 : 인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신청서류 : 1) 입회원서 1부
2) 반명함사진 1매

● 접 수 처 : 인제문화원 ☎ 461-6678)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에 직접 오시거나 또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연구회 회원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향토사연구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우리고장에 묻혀 있으며 찾아내지 못한 향토사를 발굴하고 조사하여 기록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고자 함은 우리들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원에서는 96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향토사연구회를 발족하여 우리고장 전통사에 뿌리를 찾고 연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깊은 애향심으로 향토사연구회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연락처 : 인제문화원(☎ 461-6678/ 461-4173)

♣ 編輯 後 記 ♣

꿈틀거리다 음트는 생명
그리고 이어지는 삶.....
삶의 길이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삶의 깊이와 폭을
더 깊고 넓혀가자고
태동한 또하나의 문화라는 결정체
바로 이것이 있기에
우리들은 존속되고
그속에 질을 높이며 가치성을 갖고
흐르는 시대속에 역사가 생기게 된다.
이 모든 원리속에 사명을 다하고자
한 해 두 해 앞장서서 일을 하지만
돌이켜 보면 모자라고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자성해 보기도 한다.
우리는 이 모든것을 채우기 위해 다시한번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해 본다.

장미향 : 이 만 철

麟蹄文化 / 第10輯

발행인 : 임 광 준
편집인 : 이 만 철
발행처 : 인 제 문 화 원
전화 : (0365) 461-6678
F A X : (0365) 461-4173
인쇄처 : 태 원 출 판 사
인쇄 : 1995. 12. 20
발행 : 1995. 12. 30

〈비매품〉

이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하였습니다.

